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고희식 어르신
김진철 작가



고현관·고지훈 대표
이나연 작가

기억으로 만나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고두연 어르신
김신숙 작가



양정숙 어르신
양혜영 작가

제주문화예술재단 기획



강달인 어르신
정신지 작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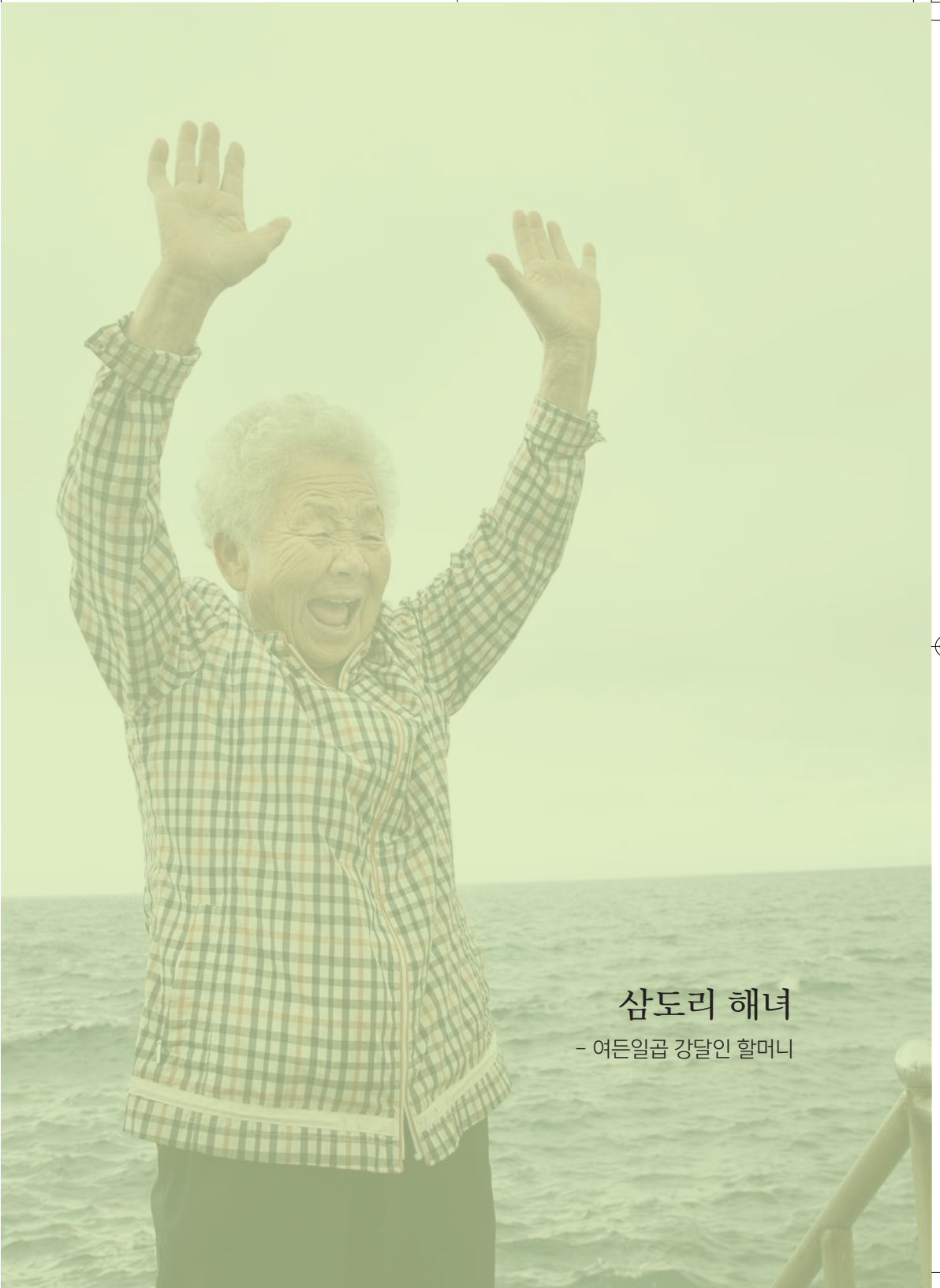
안순생 어르신
김순자 작가

※ 본 구술 자료집의 글쓰기와 편집원칙은 구술의 생동감을 살리기 위해 구술인용문의 경우 제주어 구술과 표준어 대역을 병기하는 것으로 했음. 단 고현권·고지훈 대표, 고희식·양정숙 어르신 구술의 경우 구술자가 표준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제주어 구술 인용 문장 없이 표준어만 실었음을 밝힘.

차례

- 007 **삼도리 해녀**
- 여든일곱 강달인 어르신 | 정신지
- 087 **이슬의 뼈**
- 묵은 성 토박이, 아흔여섯 고두연 어르신 | 김신숙
- 169 **삼대에 걸쳐 책을 파는 가업**
-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우생당을 지키는 가족 | 이나연
- 229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드만**
- 싸구려 점방 아들 고희식 어르신 | 김진철
- 297 **오래된 미래, 그 안의 삶**
- 전통 초가 지킴이 제주시 '물항골' 안순생 어르신 | 김순자
- 395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무근성 꽃집 이모, 양정숙 어르신 | 양혜영





삼도리 해녀

- 여든일곱 강달인 할머니



삼도리 해녀

- 여든일곱 강달인 할머니

프롤로그_사라지는 기억을 추억하며

“이 멧덩구리 할망. 오래 사는 것도 나한테 짐이여계. 정신이 어성 희어뜩해부런. 아이고~. 지금 나 나이가 팔십칠인가 팔십구엥 햄신디, 몰라. 정신이 어서. 큰 사고가 나서 그때 내가 죽어부러시 니게. 몇 년 전인지도 몰라. 그래, 일흔일곱 살 때. 3월 15일 날 건널 목에서 내가 한 번 죽었어!”



이 멧덩구리 할머니. 오래 사는 사진 1. 강달인 할머니

것도 나한테 짐이야. 정신이 없어서 다 까먹어. 아이고~. 지금 내 나이가 팔십칠인가 팔십구인가 하는데, 몰라. 정신이 없어. 큰 사고가 나서 그때 내가 죽어버렸잖아. 몇 년 전인지도 몰라. 그래, 일흔일곱 살 때. 3월 15일 날 건널목에서 내가 한 번 죽었어!

지난날에 관해 할망은 ‘이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말했다. 십 년 전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의식을 잃고 한 번 ‘죽었다’는 표현을 몇 번이나 반복하신다. 내일모레 아흔을 바라보는 할망에게 남은 것은 몇 가닥의 굵고 짙은 기억들이다. 나머지 기억들은 다 어딘가로 사라졌다고 한다. 그렇게 사라지는 기억 속에 우리가 모르는 시간과 한 장소를 메우던 다른 풍경의 소리가 존재한다. 할망의 머릿속에서 기억이 사라지는 것이 아쉬운 것은 그러한 이유다.

하지만 정작 본인에게 그것은 당연히 거처가야 하는 삶의 단계와도 같은 것일까? 필요 없는 짐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듯 할망은 오히려 자연스레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았다. ‘멍텅구리 바보’가 되었다고 말하면서도 할망은 무척이나 밝고 씩씩하게 웃는다. 파란만장한 짧고 굵은 기억 속 이야기가 반복될 때마다 나의 마음은 무겁고 슬퍼지는데 말이다.

그를 처음 만난 것은 이 년 전의 일이다. 시끌벅적 차가 지나다니고 건물이 즐비한 탑동 방파제에서 할망을 만났다. 관광객을 실은 대형 크루즈가 오가는 바다를 배경으로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파제 앞 광장에서는 젊은이들이 농구를 하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탄

다. 그런 풍경으로 익숙한 오늘날의 탑동이지만, 그런 분위기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생소한 모습으로 그는 내 앞에 나타났었다.

할망을 포함한 한 무리의 여성들이 검은 고무옷을 입고 차가 다니는 도로를 건너 하나 둘 방파제 사이의 계단으로 내려간다. 마치 숨은 그림이라도 찾은 것처럼, 내가 본 탑동의 풍경 속에는 11월의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바다로 향하는 해녀들이 있었다. ‘탑동에 아직 해녀가 있다니!’ 아주 오랜 시간 내가 무언가를 잊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순간, 지금으로부터 삼십여 년 전 제주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탑동매립’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매립과 함께 사라진 탑동 바다는 오랜 시간 삼도2동 해녀들과 어부들의 삶의 터전이었고 제주 시민의 물놀이 쉼터였다. 삼십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그곳에 먹돌해안과 어부는 없지만, 여전히 물질을 하는 해녀가 있다는 것이 반가웠다.

물질을 하던 할망을 나는 쪽 지켜보았다. 수차례 자맥질을 반복하며 그가 건져 올린 소라의 양은 제법 많았다. 물질을 마치고 바위에 걸터앉아 물안경을 벗고 머리에 쓴 고무 모자를 힘겹게 벗겨내는 순간, 새하얀 머리와 깊게 파인 주름이 드러났다. 힘겹게 테왁을 들고 계단을 올라 방파제 위로 올라 온 할망은 턱까지 오른 숨을 고르며 잠시 앉아 있었다. 그러다가 휴가를 맞아 고향을 찾았다는 손녀가 손을 흔들며 할망에게 다가오자, 그는 반가워하며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건져 올린 소라를 탈탈 털어내고 손녀에게 테왁을 맡긴 할망은 젖은 몸으로 터벅터벅 탈의장으로 향했다.

그렇게 물으로 나온 해녀들이 모두 탈의장으로 들어가자, 언제 그랬냐는 듯 그곳엔 다시 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지나다닌다. 해녀를 본 것이 마치 깜짝이벤트처럼 느껴졌을 만큼 도심 속의 해녀는 참으로 진귀한 풍경이었다. 먼발치에서 할망의 물질을 바라보다가 마음에 남은 여운은 오래도록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할망을 따로 찾아뵙기 위해 몇 번인가 그가 경영한다는 근처의 여관을 찾았다.

여관 입구에 앉아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반려견 또순이와 말장난을 하기도 하는 할망은, 찾아갈 때마다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 할망의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인다. 전부터 그랬다고 한다. 그들은 할망의 가족이기도 하고 지인이기도 하며 때로는 여관에 온 손님이기도 하다. 그들 틈에 앉아 간식거리를 나누어 먹으며 함께 할망의 살아 온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할망은 갈 때마다 나를 잊어버리기도 했지만 말이다. 얼굴을 기억 못해 미안하다 하시면서도 호기심 어린 나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 주셨다. 듣다 보면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반복될 때도 있지만 결코 지루하지 않았다.

때로 할망의 어긋난 기억을 되잡아 주며, “아이고, 그때 그런 일 어서수다게!(아이고, 그때 그런 일 없었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면 할망은 곧잘, “아~, 경 해나시냐? 잘 생각해 보난 너 말이 맞은 거 다탄다(아~, 그랬어? 잘 생각해 보니 네 말이 맞은 거 같다)” 했다. 사람들은 할망이 연세를 더하며 기억을 잊음과 동시에 없었던 일을 꾸며 말하는 것 같다고도 했지만, 그조차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요한 것은 남아있는 기억을 대하는 남은 사람들의 태도이다. 어찌면 그

들 역시 몇 번이고 반복되는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테지만, 여관 입구에 모여 앉아 할망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사라져 가는 도심의 따스한 온기를 느꼈다.

*이 기록물은, 2015년 11월에 할망을 처음 만난 이후 이루어진 몇 차례의 사적인 방문과, 2017년 8-9월에 총 다섯 차례에 걸친 ‘할망과 그의 가족(1남 1녀)’ 과의 면담을 바탕으로 쓰여진 것이다. 글에서 편의상 ‘할망’이라 칭하는 분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강달인 어르신(1931년생)이다.

매립된 바다의 기억

호텔과 음식점이 즐비한 탐동 방파제 근처에 해녀 탈의장이 있다. 이곳에는 제주에서 유일하게 도심 한복판에서 물질을 하는 해녀들이 있다. 여느 어촌 마을 못지않게 단결력 있는 서른 명 남짓의 해녀들은 ‘탐동 해녀’ 또는 ‘삼도리 해녀’라 불린다. 방파제 사이에 나 있는 좁은 계단을 내려가면 그들의 어장이 있다. 가슴까지 올라온 방파제에 몸을 기대어 밑을 내려보지 않는 한, 삼도리 해녀의 물질하는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해안가 마을에서는 쉽게 들을 수 있는 해녀들의 ‘숨비소리(해녀가 물질을 하며 숨을 고르기 위해 내는 소리)’ 역시 이곳에선 도시의 소음에 묻혀 잘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환경 속에서 물질을 한 것은 아니다. 탐동

방파제 일대는 매립으로 생겨난 땅이다. 까맣고 동글동글한 ‘먹돌(검정색의 자갈)’이 많기로 유명했던 탐동 앞바다에는 지금도 보말, 전복, 소라, 문어, 해삼 등이 잡힌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에 이르기 까지 5만 평에 이르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며 어종과 어획량은 급격하게 줄었다고 한다. 먹돌해안이 매립되며 자연스런 물의 흐름이 사라진 바다는 도시의 오수로 더럽혀졌으며, 시멘트 방파제를 때려치는 파도는 더욱 거칠어졌다. 삼도리 해녀들은 매립으로 인한 갖가지 피해를 최전방에서 경험해야 했다. 그러나 그런 바다에서도 그들의 물질은 수십 년 계속 되었다. 지금도 탐동에는 오십대에서 팔십대 사이의 해녀들 삼십여 명이 생업에 종사 중이다.

삼십대 이후의 제주 시민들이라면 탐동의 ‘먹돌해변’에 관한 기억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다. 썰물이 되면 많은 제주 시민이 이곳에서 보말을 캐기도 했고, 파도가 높은 날 밤이면 횃불을 밝혀 물꾸럭(문어)을 잡기도 했다. 흥에 겨워 벌거벗고 수영을 하던 꼬마 아이들의 기억이 있고, 교복을 입고 친구와 그 해변에 앉아 파도치는 해변에서 먹돌이 또르르 굴러가던 소리를 듣고 지는 해를 바라보던 여고생의 기억도 있다. 이처럼 탐동 바다는 제주시에 사는 시민들에게 가장 가깝고 친근한 바다였다. 검게 반짝이던 탐동해변이 콘크리트로 매립되면서 사라진 것은 사라진 물고기와 먹돌 뿐만이 아니다. 썰수 없이 많은 소소하고 정겨운 기억들이 매립과 동시에 사라져 버린 것, 사람들은 그것을 아쉬워한다.

당시 누구보다 탐동매립을 반대했던 것이 할망이 속한 삼도리 해

녀였다. 마을의 어장이 통째로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은 오만 가지 투쟁을 다 했다. 시민과 대학생들도 해녀들을 도와 함께 싸웠지만, 해녀의 생존권은 늘상 뒷전으로 밀렸다. 이 반대운동의 선두에 강달인 할망이 계셨다. 해녀 회장을 무려 이십 년이나 역임한 할망은, 해녀들 사이에서 마치 ‘정의의 불사조’ 같은 존재였다. 지금은 그 기억조차 가물가물해졌다지만, 당시의 신문을 읽고 있으면 할망의 이름이 종종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람들은 강달인 할망을 ‘해녀대장’이라 부른다.

할망의 어린 시절

“어릴 적에, 소양(소양동의 옛 명칭) 살 적에 영 아장 바리민, 일본 군인덜이 군복 입고 훈련하고 해나서. ‘똑바로 걸어!’ 햄시민 ‘착!착!착!’ 소리를 내명 걸어서. 그때가 다섯 살도 되기 전인디, 기억이 나는 게 신기허다야. 이제 느가 물어보난 기억이 남쩌!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도 그 소리는 아직 기억이 나.”

어릴 적에, 소양동에 살 적에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으면, 일본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훈련을 했었어. ‘똑바로 걸어!’ 하면 착!착!착! 소리를 내면서 걸었어. 그때가 다섯 살도 되기 전의 일인데 기억이 나는 게 신기하다. 네가 물어보니까 기억이 난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소리는 아직

기억이 나.

1930년대 중반. 애월읍 상귀리. 일제 강점기 강달인의 기억

할망은 1931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소앵동에서 태어났다. 소앵동은 향몽유적지 북서쪽에 위치한 애월읍 중산간 마을이다. 할망이 다섯 살이 되던 해 가족은 제주시의 어영(용담3동)으로 이사를 왔다. 소앵동에서 밭농사를 지으며 살던 할망의 가족이 제주시로 이사 온 것은 아버지의 교육열 때문이었다. 할망 말씀에 의하면, 큰 아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가족이 시골에서 밭을 팔아 도시로 이사를 왔다고 한다. 처음에는 제주 ‘성안’의 집을 사고 싶었으나 집값이 비싸 어영에 터를 잡았다.

당시의 할망이 말한 제주시는 삼도2동 중에서도 관덕정(제주목관아지)을 중심으로 행정기관이 모여 있던 그 일대의 중앙로 지역을 의미했다. 나머지는 제주시라 해도 시골 풍경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다. 제주시라고 해도 관덕정 주변의 몇몇 건물을 제외하면 제주시의 집은 모두 초가집이었다. 할망이 유년 시절을 보낸 일제 강점기의 제주시에는 수도는 물론 전기도 없었다.

“색유불 알아져? 석유. 꺾꺾해지민 그것만 영 배리멍 아잖당 그것도 아 까왕 흑, 불어불고. 수도가 어시난 물통에 강 몸도 씻고 먹을 물 질러오곡. 거기 옛날에 ‘동물’이라고 이서신디, 물 싸민 남자덜만 그디 강 목욕을 했어. 밭이서 일허당 물 질러 가민 물이 빠~딱 싸불영 먹을 물이 어서. 계난,

물 때를 잘 맞춰 물도 길르고 해주게.”

석유불 알아? 석유. 깜깜해지면 그것만 보며 앉았다가 그것도 아까워서 흑, 불고. 수도가 없으니까 물통에 가서 몸도 씻고 먹을 물도 길러오고. 거기 옛날에 ‘동물’이라고 있었는데 물이 빠지면 남자들이 거기 가서 목욕을 했어. 밭에서 일을 하다 물 기르러 가면 물이 싹 빠져서 먹을 물이 없어. 그러니 물때를 잘 맞추어서 물도 길러와야 했지.

1940년대 초반. 제주시 용담동. 강달인의 기억

제주시 삼도2동은 거주구역이 성격에 따라 구분된다. 탐라시대에 성이 있었다는 ‘묵은성(무근성)’과 할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탑동’, 그리고 ‘새성안’과 ‘남성마을’이다. 할망이 제주시로 이사를 오기 훨씬 전부터, 1990년대 원도심의 구심화가 진행되며 인구가 대거 빠져나가기 전까지, 각각의 마을에는 조금씩 다른 형태의 생업을 꾸려가던 사람들이 북적이며 살아가고 있었고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다.

“제가 북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학교 다닐 때 생각을 해보면 아이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칠성로 아이들’하고 ‘무근성 아이들’. 칠성로는 주로 상인들이 사는 마을인데 옛날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거주하면서 만들어진 마을이에요. 장사하는 집안의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무근성은 학교선생이나 공무원이 많은 동네라 부모님이 대부분 공무원이거나 해서 봉급 받고 사는 부모를 둔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



사진 2. 삼도리 해녀 탈의장과 오리엔탈 호텔

런데 저는 탐동이에요. 탐동은 ‘갯갯동네’. 바다를 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이 사는 곳이 ‘갯갯동네’였어요.

제가 1955년생인데 어린 베이비붐 세대여서 우리 동창들 보면 한 집 건너 다 친구였어요. 근데 그 집 모두, 그러니까 갯갯마을에 살던 우리 친구들은 나를 포함해서 다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의 자식이었어요. 내 머릿속 갯갯동네 친구들은 하나같이 바닷가 방파제에 쪽 일렬로 지어진 초가집에 살았어요.

...매립 한참 전에도 그곳엔 방파제가 있었습니다. 파도가 넘어오지 못하게 쌓은 방파제인데, 그래도 늘상 파도는 넘어왔었습니다. 그래서 갯갯

마을 집에는 화단이나 텃밭 같은 건 없었죠. 짠물이 넘어와서 마당을 칩니다. 탑동의 오리엔탈호텔은 1980년대에 거기 있던 초가집을 다 사서 그 위에 만든 호텔이에요. 집을 싹 밀어 버리고 호텔이 들어섰지요. 지금 있는 라마다호텔이나 이마트는 바다였고요.”

1960년대. 탑동. 아들 신재경(1955년생)의 기억

어영에서 할망의 가족은 밭농사를 했다. 아들은 모두 학교에 갔지만 딸인 할망은 학교 근처에도 못 갔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된다’고 모두가 말하던 시대였다. 딱히 학교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었으나, 지금 생각해 보면 공부 욕심이 없었다 하면 거짓일 거라 했다. 어려서부터 물질만 하느라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 없이 살았지만, 그렇게 살아온 만큼 후에 자식의 교육에 집착하게 되었다. 할망은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물론 ‘여자도 배우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열심히 딸을 공부시켰던 것도 그러한 연유에서다.

할망은 열한 살 되던 무렵에 물질을 배웠다. 동네 친구들과 물에서 놀며 자연스럽게 물질하는 법을 보고 배웠고, 열세 살이 될 무렵부터는 호미로 미역을 캐기 시작했다. 그 무렵 일제 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는데, 할망에게 해방에 관한 특별한 기억은 남아있지 않다. 해방 되던 해에 열다섯이 된 그는 그해부터 스스로 독립하여 해녀로서 돈을 벌기 시작했다. 바다에서 건져 올린 생미역을 장에 내다 파는 것에서부터 어린 해녀의 경제활동이 시작되었다. 할망 이외에 집

안에 물질을 하는 여자는 없었다. 어머니도 동생도 발일을 했으나 할망은 물질이 더 좋았다. 어머니는 가끔 “아이고, 거 물질 행 무시 거 할 거니?(물질 해서 뭐 하려고?)” 하며 해녀의 직업은 천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 할망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그런 소릴랑 맵써(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난 이거 행 돈 버쿠다(난 이거 해서 돈 벌 거예요)” 대답했다고 한다. 일 한 만큼 댓가가 반드시 돌아오고, 나가기만 하면 몇 푼이든 돈을 벌 수 있는 물질의 재미를 알게 되며 할망은 해녀로서의 삶을 걷기 시작한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던 큰 오빠의 부인이 물질할 때 입으라며 손수 ‘소꿉’(고무옷이 생기기 전에 해녀들이 광목천으로 만들어 입던 해녀 작업복)을 만들어주었던 기억이 있다. 그렇게 스스로의 선택으로 할망은 물질을 시작하였고, 결혼을 계기로 삼도2동에 거주하게 되면서 ‘삼도리 해녀’가 된다.

큰 오빠

할망의 이야기에 매번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큰 오빠다. 그에 관한 기억이 사무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할망은 지금도 오빠 이야기를 하면 꼭 한 번 슬퍼지고 목청이 높아진다.

큰 오빠의 기억은 할망이 겪은 ‘제주4·3사건’(*19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남로당의 무장봉기와 미군정의 강압

이 계기가 되어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중항쟁. 이승만 정권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사건)의 기억이기도 하다. 이유도 모른 채 젊고 똑똑하던 큰 오빠를 죽음으로 몰아간 4·3사건을 할망은 잊을 수가 없다.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태풍이 덮치며 온 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1948년에 할망은 열일곱이었다.

“오빠 기억은 딴 거 어서. 우리 오빠 나이 그때 스물여덟. 어느 날 사름들이 왕 오빠를 차로 와르륵, 심영간. 영문도 몰라, 이유도 아~무것도 우린 몰라. 겐디, 오빠 잡으러 온 경찰이 나도 확 심영 잡이 가더니, 관덕정 옆에, 그 감옥에 다락 가뉘부런! 나가 알 게 뭐꼬, 그 나이에! 그축 행 갑자기 옥살이가 시작된 거라. 사촌 오빠도 이서나서. 큰 오빠랑 나이가 비슷한데 몇 살 위라. 그 오빠도 잡아서 육지로 보내고, 우리 오빠는 그냥 데려가서 죽였어 그 사름들이!!

...달 반을 감옥에 날 가뉘났어. 목관아지가 전에는 경찰국이라나신디, 그 입구 서쪽 거기. 지금도 그디 지나감시민 난 억울허다. 나가 무시거를 잘못해시니? 우리 오라방이 똑똑하고 뭐든 잘 해결하는 것 말고 무시거 죄가 이시니? 계난 4·3 때는, 된 사람 아니 된 사람 중에 그자 똑똑하고 요망진 사름, 된 사름들만 골라가명 다 죽인 거라.”

오빠 기억은 다른 거 없어. 우리 오빠 나이가 그때 스물여덟. 어느 날 사람들이 와서 오빠를 차로 끌고 갔어. 영문도 몰라, 이유도 아무것도 우린 몰라. 그런데, 오빠 잡으러 온 경찰이 나도 확 잡아가더니 관덕정 옆에 있

던 감옥에 가뒤퍼렸어! 내가 알 게 뭐야, 그 나이에! 그렇게 해서 갑자기 옥살이가 시작된 거야. 사촌 오빠도 있었어. 큰 오빠랑 나이가 비슷한데 몇 살 위야. 그 오빠도 잡아서 옥지로 보내고, 우리 오빠는 그냥 데려가서 죽였어. 그 사람들이!!

...한 달 반을 감옥에 날 가뒤퍼렸어. 목관아지가 전에는 경찰국이었는데, 그 입구 서쪽 거기. 지금도 그 앞을 지나면 억울한 맘이 들어. 내가 뭐를 잘못했어? 우리 오빠가 툭툭하고 뭐든 잘 해결하는 것 말고 무슨 죄가 있어? 그러니 4·3 때는, 된 사람 아니 된 사람 중에 그저 툭툭하고 아무진 사람, 된 사람들만 골라가면서 다 죽인 거야.

1948년. 제주시. 강달인의 기억

할망은 한 달 반의 옥살이를 했다. 감옥에서는 하루에 두 번, 보리 쌀에 좁쌀을 섞어 한 줌도 되지 않는 것을 밥이라고 줬다. 물을 억지로 많이 마시지 않으면 배가 차지 않는 양이었다. 너무나 배가 고파 그곳을 지키고 있던 여자 경찰에게 “제발 밥 좀 주세요” 하면, 그중 몇은 “더 주고 싶어도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모가지 짊립니다” 말했다고 할망은 회상한다.

옥살이를 하던 방에는 스무 명 남짓의 사람들이 있었다. 할망은 ‘죄수’라 말했지만 그중 죄를 지어 왔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아기를 업고 있는 여성도 있었고, 비슷한 또래의 처녀들도 몇 있었다고 한다.

서귀포에서 왔다는 사람, 대정에서 왔다는 사람 등, 제주 방방곡곡

에서 잡혀 온 무고한 사람들로 좁은 방 안이 가득했다. 남녀의 유치는 구분되어 있었다. 같이 있던 여자들에게 물어보니 끌려 온 사연은 대부분 비슷했다. 모두 이유 없이 잡혀 온 사람들이다. 남편이 눈앞에서 총살을 당해 죽었는데 시신을 묻지도 못한 채 끌려왔다는 여자가 영영 울적에 할망도 따라 울었고, 큰 오빠 생각에 매일 눈물이 났다. 영문도 모른 채 짧은 작별인사 한 마디 건네지 못하고 오빠를 보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이 짠하다. 산에서 무언가를 위해 노력한 사람을 ‘폭도’라고 규정하고 그런 사람들을 잡아다 가뒀다는데, 할망의 방에 폭도는 아무도 없었다. 큰 오빠는 폭도가 아니었다. 그곳은,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끌어와서 더욱 억울하게 만들어 버리는 곳이었다.

“거기 이신 여자들 끼리 말도 해주게. ‘어떻 행 서귀포서 이까지 와수과?’ 궁금허난 나가 물었어. 그니까 경찰관이 밖에서 그걸 듣더니 ‘떠들면 확 쏜다이!’ 허난 말도 못하고...

...밤이 되면 밖에서 이름을 불러. 겐디, 밤에 밖에서 이름을 부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서는 ‘누가 죽고, 누가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법이 어서. 밤에 불러 나간 사람들 중에는 아기영 고치 나가신디 총으로 탕 쏘버린 사람도 이서나서. 경허고, 죄가 심하다는 사람들은 배로 육지 어딘가에 끌려간댄 소식을 들었어. 그 사람들도 전부 자기가 왜 끌려왔는진 몰라. 그냥 이름 부르면 다 죽는 것이엿 생각했주.

...그러다가 한 달 반 후에 나를 풀어줬어. 풀려난 후에 순경 각시 한 사

람이 나신디 왕, ‘우리가 너 석방 시켜주라고 한 거야!’ 허멍 나신디 막 거 들먹 거리는디 나가 알 게 뭐라? 그자 그 여자신디 고개숙영 ‘고맙습니다’ 해주게. 뭇이 고마운 줄도 몰라도 그추록 고라야 해서!”

거기 있던 여자들 끼리 말도 주고받았어. ‘어떻게 해서 서귀포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궁금해서 내가 물었어. 그러니까 경찰관이 밖에서 그걸 듣더니 ‘떠들면 확 쏜다’ 하니까 말도 못하고...

...밤이 되면 밖에서 이름을 불러. 그런데, 밤에 밖에서 이름을 부르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거기서는 ‘누가 죽고, 누가 산다’ 그런 이야기를 해 주는 법이 없었어. 밤에 불러 나간 사람들 중에는 아기랑 함께 나갔는데 총으로 탕 썩버린 사람도 있었어. 그리고 죄가 심하다는 사람들은 배로 육지 어딘가에 끌려간다는 소식을 들었어. 그 사람들도 전부 자기가 왜 끌려왔는진 몰라. 그냥 이름 부르면 다 죽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러다가 한 달 반 후에 나를 풀어줬어. 풀려난 후에 순경 각시 한 사람이 나에게 와서는, ‘우리가 너 석방 시켜주라고 한 거야!’ 하면서 나에게 막 거들먹거리는디 내가 알 게 뭐야? 그냥 그 여자에게 고개숙영 ‘고맙습니다’ 했지. 뭐가 고마운 줄도 몰라도 그렇게 말해야 했어!

1948년. 삼도2동. 관덕정(목관아지). 강달인의 기억

할망은 지금도 관덕정을 떠올리면 화가 난다. ‘버럭!’ 목청을 높이면 ‘찌렁!’ 하고 여관이 흔들리는 것 같다. 욕을 하기도 하고 샷대질을 하기도 하며 옥살이의 기억을 털어놓는 할망은 다른 기억은 잊어도 당시의

기억만은 선명하게 기억한다.

그렇게 ‘폭도’로 몰린 무고한 사람들이 관덕정 근처 유치장으로 끌려왔던 시기가 있었다. 지금도 일 년에 한 번 관덕정에서 입춘굿을 하면 할망은 가끔 마실을 나가곤 하는데, 그럴때 마다 지난 기억이 몰려온다고 했다. 끔찍한 기억이 서린 관덕정 주변을 할망은 살면서 수천 번도 넘게 왔다 갔다 했다. 병원도, 관청도, 은행도, 아이들이 다니던 학교도, 모조리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기억이 태어난 곳이거늘, 다른 기억이 어딘가로 사라지는 동안에도 끔찍했던 옥살이의 기억만은 잊혀지는 법이 없다. 할망에게 관덕정은, 억울하고 한 어린 기억이 지금도 퐁퐁 묶여 풀려날 줄 모르는 감옥과도 같은 곳이다.

“우리 오빠가 푹푹하고 막 요망전 마을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항상 일등! 오빠가 경 허난 나도 ‘오빠추룩 잘 해야지’, 허멍 마음먹은 건디. 경찰이 내 그 마음을 어땜 알아신지 날 심어간 거라. ‘오빠추룩 요망지게 잘 살아야지’, 한 그 마음을 경찰이 알아분 생이여게. 이제사 억울해도 옛날에 사 억울하냐 그거? 뭘 줄 알아야 억울허지, 뭐가 뭘지 하나~토 몰란. 억울헌 것은 그 다음이라. ‘폭도집안’이앵 사름들헌티 손가락질 받은 거. 그것 이 가장~ 억울허여. 경허멍 견디멍 살아서. 나 억울헌 것은 아~무도 모른 다 애야, 아이고 애야~.”

우리 오빠가 푹푹하고 야무지고 마을에서도 친척 중에서도 항상 일등!

오빠가 그러니까 나도 ‘오빠처럼 잘 해야지’ 마음먹었었는데. 경찰이 내 그 마음을 어떻게 알았는지 날 데려간 거야. ‘오빠처럼 야무지게 잘 살아야지’, 한 그 마음을 경찰이 알아버렸나봐. 이제는 억울해도 옛날엔 억울 하나 그게? 뭐 줄 알아야 억울하지 뭐가 뭐지 하나도 몰랐어. 억울한 것은 그 다음이야. ‘폭도집안’이라고 사람들 에게 손가락질 받은 거. 그것이 가장 억울해. 그렇게 견디면서 살았어. 내가 억울한 것은 아~무도 모른다 애야, 아이고 애야~.

1948년. 삼도2동. 강달인의 기억

할망에게 있어 큰 오빠는 마치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인물처럼 대단한 사람이다. 가족들은 할망이 큰오빠에 관한 미사여구를 말할 때마다 그것은 할망이 만들어낸 큰 오빠에 관한 ‘환상’일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가 장손이고 큰 아들이니 좋은 기억만을 하려 애쓰는 것이라고 말이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젊은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난 오빠를 기억하는 할망의 방식에 과장이 조금 들어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나무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의 죽음은 다른 4·3사건 희생자들이 그랬듯 무고했다. 큰 오빠가 살아생전 어떠한 행적을 남겼고 무슨 활동을 했었는지는 기록이 남아있지 않으니 찾을 길도 없다. 오빠의 기억은 오로지 할망이 이야기하는 4·3사건의 시간 속에 마치 영화의 한 컷처럼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영문도 모른 채 삶을 마쳐야 했던 수많은 희생

자 속에는, 분명 정의를 외치다가 목숨을 잃은 제주의 소중한 인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똑똑해서 죽었다’는 것이 할망이 아는 오빠의 사인(死因)의 전부라면, 그 똑똑함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하고 규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할망 말씀처럼 큰 오빠가 똑똑하고 용감한 젊은이였다면, 그는 분명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 지적했을 터이고, 쉽게 불의에 타협하지 않았을 것이며, 누가 진정한 4·3사건의 범인이고 죄인인지를 알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런 그를 기억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단 한 명 밖에 남지 않았다. 규명되어야 할 소중한 부분의 기억은 이렇게 하나 둘 소리 없는 마침표를 찍으며 어디론가 사라져 간다. 다른 기억은 다 있어도 큰 오빠의 기억만은 가슴 깊이 묻어두고 있는 할망의 존재가 사뭇 고맙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날 버리고 떠난 사람

“난 스물하나에 시집 갔주게. 젠디 원래는 열일곱에 갈 거 라나서. 누가 나신디 장개오켄 허당, 사삼사건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부난 지도 확 다른 디로, 도두리사름 새각시 구허영 장개가부런. 나 속으로 욱 엄~청 했주게. ‘날 내부러뵤 다른텔 가? 경 행 잘 살아지카부덴?’ 그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

...옆 동네 살명, 그 사름, ‘강달인이 잘도 똑똑하고 요망진 아이. 난 너신

디 장개가켜!’ 허멍 처녀 때부터 나를 좋아허언 친절하게 잘 해주던 오라방이라나신디...”

난 스물하나에 시집갔어. 그런데 원래는 열일곱에 갈 거였어. 누가 나에게 장가오겠다 했는데, 사삼사건 때문에 경찰에 잡혀가니까 그 사람도 확 다른데로, 도두리에 사는 새각시 구해서 장가가버렸지. 내가 속으로 욕을 엄~청 했어. ‘날 내버리고 다른 데 가? 그렇게 살아서 잘 살아질까 봐?’ 그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했어.

...옆 동네 살던 그 사람, ‘강달인이 엄청 똑똑하고 야무진 아이. 난 너한테 장가갈 거다!’ 하면서 처녀 때부터 나를 좋아해서 친절하게 잘 해주던 오빠였는데...

1951년. 용담3동. 강달인의 기억

“할머니 혹시 그거 첫사랑?” 장난처럼 내가 ‘사랑’이란 단어를 꺼내자 할망은 크게 정색하며, “허이고, 야이 보라, 사랑은 무신 사랑계(애 좀 보게, 사랑은 무슨 사랑이야!)” 하신다. 4·3사건으로 경찰에 끌려가기 전, 그에게는 정혼자는 아니지만 ‘당연히 저 사람과 결혼 하겠거니.’ 생각했던 동네 오빠가 있었다. 결국 이루어지지 못한 결혼이었으나, 그는 반복되는 할망의 옛이야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 중 하나였다.

첫사랑이 아련하다 하는 이유는 대부분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해서다. 그런데 할망의 경우,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참으로 억울한 것이다. ‘똑똑하고 야무진 당신과 결혼하겠소.’ 말했던 그 오빠는 결

국 같은 이유로 할망을 떠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똑똑한 사람, 리더십이 있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을 무턱대고 잡아가던 4·3사건 당시,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던 할망이 한 달 반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오자 사람들은 갑자기 그와 그의 가족을 ‘폭도’ 취급하기 시작했다. 옥살이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그러한 차별이었다고 할망은 말한다.

작별 인사도 못하고 큰 오빠를 떠나보낸 것이 할망에게는 깊은 한이 되었다. 거기에 더해, 그러한 가정사가 할망의 앞 길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은 꿈에도 상상치 못했던 일이다. 큰 오빠와 함께 첫 혼담까지 앓아가 버린 몸쓸 4·3사건의 폭풍우가 지나가는 동안, 할망은 그저 바다만 보며 물질을 했다. 물질만이 살 길이었다.

“완전히 날 ‘버린 사람’ 취급했주게. 나 신디 장개오켄 한 사람 한~놈도 없었어. 말랑 졸바로 허라! 사람들이 날 그런 취급을 해나서! 계난 시집을 갈 맘도 없고 속숨행 물질만 행 살았져. 허이고 얘야... 알아지크냐?”

완전히 나를 ‘버린 사람’ 취급했지. 나에게 장가오겠다고 한 사람 한 놈도 없었어. 말은 똑바로 해야지! 사람들이 날 그런 취급을 했었다고! 그러니까 시집을 갈 맘도 없었고 그저 묵묵히 물질만 하고 산 거야. 허이고 얘야... 이해할 수 있겠어?

1940년 대 후반. 용담3동. 강달인의 기억

‘아마도 봄’날의 결혼식

열일곱의 혼담이 비극으로 끝나자 할망은 영원히 시집은 못 갈 거라 생각했다. 스스로도 자신은 ‘버린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았다. 그리고 사 년이 지나 할망이 스물한 살이 되던 해, 돌아가신 남편을 만나게 된다. 할망보다 일곱 살이 많던 황해도 출신 신종칠 할아버지는 예고도 없이 어느 날 문득 할망의 삶에 나타났다.

“어느 날 매역 널명 이신디, 우리 성할머니가 온다는 말도 어시 그 사람을 데리고 완. 물질허당 와시난 나 얼굴이 오죽해시크냐게! 할망이 그분 이영 나타남 뭘시영 고라신디, 황당해노난 속심행 이섯주게. 겐디 남편 되는 사람도 속심행 있고. 우리 할망도 속심행 있고...

...마당에 이신디 ‘매역 널엄다?’ 할망이 물으난 ‘예~’ 헌 것이 끝. 할망이 영 그분은 오빠 방에 들어가고, 나는 할망이 시킨 대로 물을 평 방에 들어 갔주게. 물에 들어난 얼굴로 막 자신이 어서부난, 물 사발에 들멍 ‘발발발 발’ 털멍, 영~주난 그 분이 물을 받아라. 게난 할망이 영 나신더래 바래더라고. 말도 곧지도 안허고. 쟁 할망이 또 ‘강 매역 널라!’ 허난 마당에 강 널 었주게. 남편 되는 사람도 아무 말도 안허고, 포시 할머니영 어디로 간. 그 게 처음 만난 것이라.”

어느 날 미역을 널면서 있는데, 우리 성할머니가 온다는 말도 없이 그 사람을 데리고 왔어. 물질하다가 왔으니 내 얼굴이 오죽했겠어! 할머니가

그분이랑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지. 그런데 남편 되는 사람도 조용히 있고. 우리 할머니도 아무 말 안 하고 있고...

...마당에 있는데 ‘미역 널었어?’ 할머니가 물으니까 ‘예~ 한 것이 끝. 할머니랑 그 분은 오빠 방에 들어가고, 나는 할머니가 시킨 대로 물을 떠서 방에 들어갔지. 바다에 다녀온 얼굴이 너무 자신이 없어서, 물을 사발에 들고도 벌벌벌벌 떨면서 그걸 건네니까 그 분이 물을 받더라고. 그리고 할머니가 나를 빤히 바라보더라고. 아무 말도 없이. 그리고 나서 할머니가, ‘가서 넌 미역 널거라!’ 하니까 마당에 나가서 또 미역 널었지. 남편 되는 사람도 아무 말 안 하고 다시 할머니랑 어딘가로 갔어. 그게 처음 만난 것이야.

1940년대 후반. 용담3동. 강달인의 기억

첫 만남은 경직된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영문도 모른 채 미역을 널고 있는데 불쑥 나타난 남자가 남편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다. “오면 온다는 말이라도 해 줄 것이지, 우리 할망도 참.....” 하며, 물질에서 갓 올라온 모습으로 그를 만난 순간을 부끄럽게 회상한다.

그렇게 만남이 있고 난 후 할망이 시집을 가기까지 한 달도 채 걸리지 않았다. 자신도 어이가 없었다고 했지만, 결혼식은 그렇게 후딱 치루어졌다. 열일곱에 장가오겠다던 사람과의 결혼을 위해 할망은 물질해서 번 돈을 모아 시집갈 때 옷 지어 입을 양단천도 사 놓았었다. 그가 다른 동네 처녀에게 장가를 간 것도 억울한데 갑자기 결혼

이라니! 잊었던 원통한 마음이 올라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도 마음을 고쳐먹고 결혼식을 준비했다는 할망. 사 년이나 장롱에서 잠을 자고 있던 양단천을 꺼내며 할망은 과연 어떤 심정이이었을까?

시집을 가게 되어 설레었나 물었더니 할망은 눈 딱 감고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다. 고이 모셔둔 양단치마를 꺼내 정체 모를 남자와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식을 올렸으니 새색시 마음은 심히 복잡했을 터이다. 그래도 다행히 잔칫날 당일엔 좋은 추억이 가득했다. 이유는 다름 아닌 할망의 친구들 때문이었다.

“아이고~, 강달인이 시집감짜어~!” 하면서 동네 친구들이 할망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그도 덩달아 신이 났다. 늘 자신을 걱정해주던 친구들이 모두 한데 모여 결혼을 축복해주었다. 비록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도 전에 식을 올려야했지만, 할망은 이북 출신에 아무 연고도 없이 제주에서 결혼식을 올려야하는 남편의 마음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가족들은 마음을 다해 정성으로 새신랑을 맞이했다. 신랑은 오빠가 입던 연분홍빛 한복을 빌려 입었다. 오빠의 친구들과 동네 남자 친구들이 그의 편에 서서 신랑을 보필했다. 비록 꽃가마를 타고 화려하게 치루어진 결혼식은 아니었으나, 할망은 그날의 잔치를 잊을 수 없나보다.

어느 계절에 시집을 갔느냐 물으니, 할망은 ‘아마도 봄’이라는 표현을 했다. 그 이유가 재밌다. 미역을 하고 물에 들러 갔다가 한창 바쁠 때 결혼을 한 거니 가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아마도 봄’일 것이

라 말하는 할망. 해녀의 계절은 그렇게 물질 따라 흐른다.

“나는 그저 속으론 ‘아이고, 아이고’ 만 했주께. 나도 원래는 남들처럼 멋지게 행 다른 디로 시집갈 거라나신디 게... 그래도 나가, 다른 건 지켜 지지 안혀도, 우리 벗덜! 벗덜이 막 왕이네, 호나 고추록 “강달인이 시집 가는데 와수다!” 허멍 바글바글 와 준 것이 너무나 고마완.

...동네 사름덜토 나를 다 폭도로 여기는 판에, 시집을 가려면 그런 사름 신디라도 가야지. “에~라이씨! 모르켜! 가불자!” 마음먹은 거 주께.”

나는 그저 속으론 ‘아이고, 아이고’ 만 했지. 나도 원래는 남들처럼 멋있게 차리고 다른 곳으로 시집갈 거였었는데... 그래도 내가, 다른 건 즐겁지 않아도, 우리 벗덜! 벗덜이 막 와서, 하나 같이 “강달인이 시집가는데 왔 습니다!” 하면서 바글바글 와 준 것이 너무나 고마웠어.

...동네 사람들도 나를 다 폭도로 여기는 판에, 시집을 가려면 그런 사람 한테라도 가야지. “에~라이씨! 모르겠다! 가버리자!” 마음먹은 거지 뭐.

1951년. 용담3동. 강달인의 기억

남문통(이도1동)에 작은 초가집을 빌려 신혼살림의 거처로 삼았다. 목돈이 없던 신혼부부에게 집을 빌려 준 것은 할망의 성할머니다. 작은 방이 하나, 부엌이 하나 있던 초가집에 가져갈 살림은 요 하나에 누비이불이 전부였다. 그것도 녹을 빌어 닷새 만에 급하게 완성해야 했던 허술한 이불이었다. 그렇게 한 집에서 새 살림을 시작

했다. 신랑은 제주 세관에서 사무직을 맡아 공무원으로 일했고, 할망은 늘상 해오던 물질을 했다.

황해도 출신인 남자와 제주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서로 다른 사투리에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물으니, 할망은 그래도 신기하게 서로의 말은 잘 알아들었다 말했다. 가끔 자신에게 ‘제발 제주도 사투리 좀 그만 쓰면 안 되겠느냐’ 부탁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그저 할망이 하는 말에 곧잘 대답을 해주는 조용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가끔 술을 많이 먹고 들어오는 날도 있었지만, 아무리 술을 먹어도 심하게 할망 속을 썩인 적은 없었다. 홀로 낯선 곳에서 살며 외로웠을 그이니 술을 먹는 것도 당연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다.

남편 故 신종칠

황해도가 고향인 남편은 당시 성할머니의 집에 방을 빌려 살고 있었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 즉 남한과 북한의 경계가 생기기 전인 1948년에 그는 ‘국방경비대’에 지원을 하여 군인이 되었다. 그 후 1950년에 한국전쟁에 참전하는 와중에 부산 등지 까지 남하했었다. 이는, 할망의 아들인 신재경(1955년생)이 오래전 서울에 거주할 당시 찾아 본 아버지에 관한 짧은 기록일 뿐, 그가 어떻게 제주도까지 오게 되었는지의 자세한 사연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우리 하르방은 고향이 이북인데, 군인 지원행 오난, 난중에 나라가 딱 갈라전 고향에도 못 간 거라. 계난 이디 실 적에도, 이북은 어떻게 해신지, 가족 형제는 죽어부러신지 살아신지, 그걸 몰라. 혼 번은, 우리 서방이 한 달 간 그 소식을 찾으려고 육지에도 갔당와신디. 결국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을 못 찾아서. 그디 갔다 와서 날 보러 곤는 말이, ‘가족 찾잔 해신디 못 찾안.’ 허멍 엉엉 울멍 고라라게. 물어 물어 혼 달을 좇아도 못 좇으난, 집에 왕 나신디 울멍이... 그 모습이 잘도 불쌍해라게. 내가 달래주진 못 하고, 경해도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 말만 고랐주게.

...그 옛날에 하르방이 공부를 잘 해난 생이라.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 허난, 어디 만주인가, 외국에도 공부허젠 갔다왔덴 해라. 군인 가기 전에. 우리 하르방, 생긴 건 키도 크고. 켌디, 전쟁통에 팔에 총 맞안. 한 짝 팔은 못 노려. 지금이라도 되민 한 짝 팔 잘라불기만 해도 살 것올, 그땐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동네에 이서도 이것 하나 고치질 못해서. 경 행 죽으난 그 뭐시냐, 국가유공자. 우리 하르방.”

우리 남편은 고향이 이북인데, 군인으로 지원해서 오니까, 나중에 나라가 딱 갈라져서 고향에도 못 간 거야. 그러니 여기 살 적에도, 이북은 어떻게 되었는지, 가족형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걸 몰라. 한번은, 우리 서방이 한 달 간 그 소식을 찾으려고 육지에도 갔다 왔는데. 결국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을 못 찾았어. 거기 갔다 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가족을 찾으려 했는데 못 찾았어.’ 하면서 엉엉 울면서 말했어. 물어물어 한 달을 찾아도 못 찾으니까 집에 와서 내 앞에서 울면서... 그 모습이 너무 불

쌍했어. 내가 달래주진 못하고, 그래도 ‘산 사람은 살고 죽은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그 말만 했지.

...그 옛날에 할아버지가 공부를 잘 했었나봐.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 하니까 어디 만주인가, 외국에도 공부하러 갔다왔다고 했었어. 군인 가기 전에. 우리 남편 생긴 건 키도 크고. 그런데, 전쟁 중에 팔에 총을 맞았어. 한 쪽 팔은 못 써. 지금이라도 되면 한 쪽 팔은 잘라 버려도 살 것을, 그때 제주도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동네에 있어도 이거 하나 고치질 못했어. 그렇게 죽으니까 그 뭐지, 국가유공자. 우리 남편.

전쟁 중에 총상을 입은 채 제주도 까지 오게 되었다는 그의 이야기를 하며 할망은, “허이고~, 내가 그 사람 역사를 말하려 하면 기가 막힌다.” 했다. 그러면서 남편 역시 슬프고 외롭고, 또 억울한 사연으로 인생을 살다 간 사람이라 말했다. 그렇게 몇 해 간 살다가 전쟁 때 입은 총상의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간호를 하고 남편을 살리고 싶었지만, 운명은 그렇게 그들을 갈라놓았다.

“나 혼자 내버려 둥 어떻 살랜말이봐, 죽지 맙써~! 이축행 가지맙써~’, 허멍 나가 대성통곡을 행 울어시니게. 겐디 병원 원장도 어쩔 도리가 없댄 허난, 나도 울고 서방도 막 울어서. 가젠 허난 자기도 막 울어진 생이라 우리 남편도. 그렇게 헤어진 거주게. 그 옛날엔 병원에서 죽지 못하게 죽을 때 되민 집에 데려가랜 해나서. 게난, 우리 오빠들이 완 서방을 바닥바

닥 들었어네 집으로 데려왔주게. 경행 집에 왕 바로 죽으난 난 계속 울고, 오빠들은 그만 올랜 나 달래곡.

...죽기 전에도 신랑은, 나 눈 배리멍 자식 교육 잘 부탁한덴 신신당부를 해나서. 꼭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키우라는 것이 유언인 거라. 나가 그때 얼마나 슬퍼신지, 경해도 고치 죽지도 못하고 게. 허이고... 게난 그 서방 땅에 묻어 텅 또시 바당에 나강 빌어서. 물질허멍 바다가 영 나신디 돈을 주어야 내가 쌀을 사고 행 자식 기르멍 살아갈 거 아니가, 어떻허느니게. 살아사주! 빌어사주!”

나 혼자 내버려 두고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죽지 말아요~! 이렇게 가지 마세요~, 하면서 내가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어. 그런데 병원 원장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하니까, 나도 울고 서방도 막 울었어. 가려고 하니까 자기도 막 울게 되던 모양이야, 우리 남편도. 그렇게 헤어진 거지. 그 옛날엔 병원에서 죽지 못하게, 죽을 때가 되면 집에 데려가라고 했었어.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이 와서 서방을 들어서 집으로 옮겨 왔지. 그래서 집에 오더니 바로 죽어서 난 계속 울고, 오빠들은 그만 올라고 나 달래고.

...죽기 전에도 신랑은 내 눈을 보면서 자식 교육 잘 부탁한다고 신신당부를 했어. 꼭 잘 가르쳐서 훌륭하게 키우라는 것이 유언인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슬펐는지, 그래도 같이 따라 죽진 못하잖아. 허이고... 그러니 그 서방을 땅에 묻어 두고, 또 다시 바다에 나가서 빌었어. 물질하면서 바다가 어떻게든 나에게 돈을 주어야 내가 쌀을 사고 자식들 기르면서 살아갈 거 아니야. 그러니 어떻게? 살아사지! 빌어야지!

해녀, 거칠고 큰 가족 여행의 시작



사진 3. 해녀 강달인 할머니

물질은 할망의 천직이다. 열셋의 나이에 바다에 들어 전복, 소라, 미역을 직접 캐 내기 시작하며 할망은, ‘그래, 이거라도 좀 해보자!’ 하다가 해녀가 되었다고 했다.

그렇게 딴 미역을 처음으로

남에게 팔아 그것이 돈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십대 시절에, 할망은 ‘일을 한 만큼 공평한 결과물을 내어주는 바다의 이치’를 깨달은 듯 했다.

바다에 나가면 많은 것을 잇고 물질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악착같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물질을 하며 남편의 유언대로 일남 일녀를 교육시켜 훌륭하게 길러냈다.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직장을 다니다가 일본에 유학을 가더니 일본에서 교수가 되었다. 자신은 비록 학교 근처에도 못 갔으나, 딸 역시 대학까지 교육시켰다. ‘여자는 시집만 잘 가면 되는 것’이라는 할망 시대의 편견을 할망 스스로 뛰어 넘었다. 그렇게 길러낸 자식들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언제나 ‘해녀’다. 할망의 거칠고 방대한 물질의 기억은 가족 모두의 것이기도 했다.

“우리 어머니요? 바다의 일은 일단 목숨을 걸고 하세요. 다른 생각 없이 일할 때는 일 하고, 또 놀 땐 놀고, 싸울 땐 싸우고. 근데 나는 물을 좀 무서워하기도 하고 키가 작으니, 물에 가면 빠진다고 엄마가 어릴 적부터 물 근처에는 얼씬도 못하게 하셨어요.

...오빠하고 나를 놔두고 멀리 다른 지역에 물질을 간 적도 있는데, 그럴 땐 제가 엄마 대신 밥 하고 그랬어요. 근데 올 엄마는 멀리 가면서도 그냥 안 가세요. 돼지새끼라도 하나 키우라면서 작은 돼지 한 마리 사다 놓고 그걸 어린 저에게 기르라고 했어요. 그걸 잘 길러서 팔면 또 돈이 되니까. 옛날엔 통시라 해서 돼지가 있는 화장실을 썼잖아요. 한번은 엄마가 욕지에 물질 가고 집에 아무도 없는데 돼지가 통싯담을 헐고 내가 있는 안방에 까지 들어 온 적이 있어요. 그땐 제가 정말 혼이 나갔죠(웃음). 아니! 이 돼지라는 것이! 올 엄마가 없다고 사람을 무시하더라고요(웃음)! 제가 북 초등학교에 다닐 때고 오빠는 중학교 다녔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십 년 대 후반 이야기네요.”

“물때가 좋을 땐 엄마가 아침 일찍 나가선, 밤이 되어도 안 오곤 했어요. 그러면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가지고, 캄캄한 밤에 엄마가 집에 돌아오면 그 모습이 너무 너무 불쌍했어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마음이 짝한 것은, 어머니가 드시던 ‘미숫가루’예요. 물질 나가실 때 아침에 미숫가루에 설탕을 듬뿍 넣어서 그걸 맥주병에 넣어가요. 그걸 끼고 물에 들어서 물 질하다 배가 고프면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엄마가 한창 때, 한 사십 대 즈음의 이야기인데 엄마가 딱 지금의 내 나이 또

래였을 때 울 엄마는 그렇게 산 거. 지금도 막 미숫가루 생각하면 엄마한테 측은지심 같은 게 생겨요. 어린 맘에도 그랬었고요. 물 위에 등등 떠서 어머니가 미숫가루를 마시고 있는 걸 상상하면 어린 저도 마음이 막 아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울 어머니(웃음), 몸보신 한다고 별거 다 드셨어요. 엄마는 상군이니까 물질도 고난도의 물질을 하잖아요. 그럼 여름에 기력이 딸리는 거예요. 그걸 보충해야 하니까 약이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생오리를 사오셔서 그 모가지를 ‘딱’ 끊어서 거꾸로 매달면 피가 똑똑... 그걸, 그 피를 엄마가 마시고 우리는 고기를 삶아 먹고 그랬어요. 엄마는 다 잊어 버려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저는 엄마가 그렇게 살아오신 거 다 기억해요. 엄마가 그 오리 피를 안 굳게 하려고 가스명수에다가 그걸 섞었어요. 그럼 그게 안 굳나봐요(웃음). 그런 정보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요. 남자들만 먹는 ‘새끼회(*암돼지의 자궁에 들어있는 돼지새끼를 회로 먹는 제주 전통보양식) 같은 것도 막 사다가 혼자 우걱우걱 먹고, 그래야 힘 좋아진다고 그러셨어요.”

“물질에 대한 열정도 정말 대단해요. 유명해요 그걸로. 아마 제 기억엔 저희 어머니가 삼도리에서 오리발을 제일 먼저 신은 사람인데, 어머니가 구해오셔서 신기 시작한 그 오리발을 벗으라고, 벗으라고, 해녀들 끼리 싸움이 나기도 했지요. 그걸 끼고 물질을 하면 깊이 가니까 다른 해녀 보다 많이 잡으니까. 그랬더니 그때 우리 엄마, ‘오리발 벗으면 죽어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 치시면서 싸우고. 저는 그런거 다 지켜보고 봤어요(웃

음). 탐동매립 때도 마찬가지로, 울 어머니 진짜, 싸움하실 때도 목숨 걸고 하셨어요. 대단해요, 진짜(웃음)”

1960-80년대. 삼도2동. 딸 신미경(1960년생)의 기억

아들은 열 살이 채 되기 전부터 어머니의 일을 도왔다. 남편이 없는 집에서 할망은 물질하는 가장으로 모든 집안일을 혼자 도맡아해야 했다. 땀감을 구하러 산에 갈 적에는 아들에게 “글라, 산에 감찌!(가자, 산에 간다!)”하며 그를 붙잡고 산으로 갔다. 어려서부터 공부하기를 좋아했던 아들은 마지못해 책을 놓으며 “어무니, 나 공부할 거 이신디(있는데)...” 했다. 그럼에도, 군소리 하나 없이 산이든 어디든 따라와 잔일을 돕던 어린 아들의 모습을 할망은 잊지 않고 있다.

홀로 물질을 하며 1남 1녀를 돌보기가 힘들어 ‘아기업개’라 불리는 가사 도우미에게 자식들을 맡겨놓고 물질을 나간 적도 많았다. 가사 도우미라 해도 당시 아기업개는 어린 아이들이 맡아 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 아이를 어린 아이에게 맡겨놓고 악착같이 물질을 하던 시절의 기억이다.

돈을 벌기 위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등지에 물질을 간 적도 많다. “바당이앵 해도 다 똑 같은 것이 아니여(바다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다)” 할망은 말했다. 제주 바다와 달리 수심이 깊은 강원도 바다는 물 속에 절벽처럼 떨어지는 큰 산이 있었다고 한다. 웬만한 것에는 겁을 먹지 않는 할망도 그 바다는 무서웠다. 밑이 보이지 않는 시퍼런 바다였지만, 숨이 닿는데까지 내려가야 전복이 있고 소라가

있었다. “아이고, 이디서 뽀글락 행 죽어불민 우리 아기들은 어떻게...(여기서 뽀글락 해서 죽어 버리면 우리 아기들은 어떻게 하나..)” 하며 물질을 했었다.

할망은 줄곧 아들 사랑을 한다. 몇 해 전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랬다. 어려서부터 할어머니의 일을 도우며 공부까지 잘 했었다는 아들이, 지금은 일본에서 교수로 일하며 살고 계신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그런데, 한참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있었다. 제주의 한 지역 신문에서 ‘일본으로 밀항한 재일교포’에 관한 칼럼을 연재하며 자신을 ‘해녀의 아들’이라 소개 했던 제주출신 일본의 대학교수 한 분이 뜬금없이 생각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할망에게 여쭙었다. “혹시, 할머니 아드님 성함이 신재경 선생님이 십니까?” 했더니 할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 맞아! 가이가 나 아들이여! 우리아들이 신재경이라! 허허허, 켜디 누가 가이를 어떻게 아느니(그런데 네가 그 아이를 어떻게 아니)?” 하며 둘이 웃었던 기억이 있다. 평소 흥미있게 읽고 있던 칼럼의 저자가 할망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마냥 신기하기만 했다.

그래서 내친김에 아들 신재경 씨를 만나 어머니에 관한 기억을 나누었다. 그중에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는 1960년대에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원정물질’을 나갔을 때의 기억이다. 할망이 내게 말씀해 준 그 이야기를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들은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마치 영화의 필름과도 같다는 그 시절의 이야기는 아들의 손에 의해 글로 정리된 적도 있다. 들은 이야기를 적는 것 보다 아들의 기

억을 생생하게 나누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 그가 직접 쓴 ‘어머니의 원정 물질’에 관한 기사를 (신재경씨의 허락 하에) 직접 인용하게 되었다.

‘출가 해녀’의 아들이 말하는 특별한 어린시절

나의 성장과정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과정이 하나 있다. 출가 해녀의 아들인 것이다. 내 초등학교생활기록부에는 1학년 때 경상북도 감포국민학교, 3학년 때 경상북도 구룡포읍 석병국민학교로의 전학기록이 있다. 두 번 모두 어머니가 출가 해녀로 경북지방에 가는데 나를 데리고 간 것이다.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주소는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다. ‘경상북도 영일군 구룡포읍 석병2리’.

출가 해녀의 아들은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다른 제주도 사람들과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인연이 있어야 한다. 나의 아버지 고향은 이북 황해도이다. 황해도지만 아주 남쪽이어서, 6·25사변 전까지는 38도선 이남인 곳이다. 아버지는 6·25사변 전에 한국군에 입대했는데 6·25 때 부상을 당하셨다. 휴전이 되고 나니 고향이 휴전선 이북이 되어 고향으로 가지 못해 제주도로 들어왔다. 그 후 제주도 본토박이에 해녀인 어머니와 결혼해서 내가 태어나게 됐다.

이북에서 월남한 아버지의 친척들은 인천에 많이 살고 있다. 인천에 있

는 친척들에게 ‘왜 인천에 사느냐’고 물으면, 그때는 이렇게 오래 분단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다. 곧 전쟁이 끝날 것이고 전쟁이 끝나면 바로 고향으로 가겠다는 생각에 고향에서 가까운 인천에 있다 보니 정착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아버지는 왜 인천이나 서울 같은 도회지를 두고 하필 제주도까지 내려왔는지는 잘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만 제주도까지 내려오셔서 내가 태어나게 됐다.

아버지는 황해도 해주 서중 출신으로 공부는 조금 하신 모양이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공무원으로 제주세관에 근무할 때 어머니와 결혼했다. 내가 태어난 후, 국민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돌아가셨다. 나도 술을 잘하는데 아버지를 닮아 그런 것 같다. 아버지도 어지간히 술을 잘 마신 모양이다. 고향에 가지 못하는 신세가 더욱 더 술을 마시게 한 것 같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기억은 잘 나지 않는다. 또 제주도에는 아버지 쪽 하나도 없고, 제주도에 있는 친척은 전부 어머니 쪽, 즉 외가 친척들뿐이다.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을 졸업해서 취직할 때 까지 우리 집은 계속 ‘돈’과의 싸움이었고, 돈 문제에 대해선 다른 친구들과 같은 보조를 맞춘 적이 없는 것 같다. 옛날엔 학교에서 영화를 단체로 관람하러 가곤했다. 볼만한 영화를 학교와 극장이 계약을 맺어 아주 싼 요금으로 학생들을 입장시키는데 나는 그 단체관람마저 몇 편 밖에 볼 수 없었다.

출가 해녀란 제주도가 아닌 육지로 돈 벌러 나가는 것을 말한다. 무작정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연고지, 연고자가 있어야 나갈 수 있다. 연고자란 인술자이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것은 인술자라는 이 단어가

다. 인솔자란 육지 어느 지방의 유지가 바다의 권리를 사놓고 물건을 건져올리지 못하면 이 물건을 건져올릴 해녀를 제주도에 와서 데리고 가는 사람을 말한다. 주로 그 지방에서 힘깨나 쓰는 유지들이다. 유지쯤 되어야 바다의 권리를 살 수 있으니까 말이다. 가는 시기는 봄부터 늦가을 추워질 때 까지다.

1년의 2/3를 돈 벌러 나가니, 나가는 사람들도 꽤 큰 꿈을 그리며 나가게 된다. 좋은 인솔자를 만나고, 물량도 많고, 별이가 좋으면 한번의 출가로 상당한 돈을 가지고 귀성하게 된다. 인솔자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해녀는 제주도 말로 하면 상군 잠수들이다. 그 상군 잠수들은 나이도 있어야 하지만 경험도 필요하다. 그래서 주로 20대 후반 아니면 3~40대다. 30대로 올라가면 기혼자들인데, 기혼자들은 남편이 마누라를 출가 해녀로 보내고 나면 반 년 이상을 홀아비로 있어야 한다. 인솔자로 보면 남편을 설득하는 데 힘이 드는 등 큰 방해가 된다. 그러나 너도 나도 돈이 궁한 현실이라 남편들도 손을 들고 만다. 내가 본 바에 의하면 상당히 많은 기혼자들이 있었다.

전도금이라고 있는데 육지로 데리고 나가기 전에 인솔자가 미리 돈을 푸는 것을 말한다. 몸을 움직이려고 해도 돈이 필요할 것이며, 기혼자들의 남편의 찬성을 얻어내는 데도 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라가서 벌 돈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다. 이 돈으로 여비도 하는 등 여러 가지를 목적으로 한 돈을 전도금이라고 한다.

인솔자라고 해도 제주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해녀들을 인솔하겠다고 하면 제대로 되는 일이 없을 것이다. 어떤 식으로든 제주도와 인

연이 있는 사람이거나 인연을 만들어서 오는 사람들이다. 또한 어느 인솔자 밑으로 가서 반 년 이상 일해 큰 돈을 모으고 오게 되면 그 인솔자는 소문난 인솔자가 되고, 다음 해에 그 인솔자가 오면 해녀들이 모인다. 실제 내가 봤던 경우는 인솔자의 부인이 제주도 사람이었고 친정이 우리 동네여서 어머니가 신뢰를 한 모양이었다.

가족들을 동반해서 가는 경우는 없었다. 자식들과 같이 가는 경우는 아무래도 작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당연해서 인솔자가 그리 좋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 경우에는 제주도에 나를 맡길 곳이 없었고 어머니가 상군 잡수이므로 나를 동반해도 좋다고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1960년대의 제주도의 사정과 아버지가 없는 집 먹고 살기 어렵다는 말 할 것도 없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출가 해녀의 길을 떠나게 되었다. 물론 잘 다니던 제주북교에서도 전학을 가게 됐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평택호인지 이리호인지는 몰라도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서 지금의 고속버스가 아닌 시외버스로 감포까지 간 기억이 생생하다. 장시간 여행이고 울산에 가서 밥도 먹고 또 군것질거리도 사서 다시 차에 타 거의 하루쯤 걸려 부산에서 감포까지 갔다. 인솔자가 소개해 준 어느 집의 빈방을 사글세로 얻어서 살림을 시작하고 어머니는 매일 물질을 하러 갔고, 난 감포 국민학교 1학년으로 전학을 갔다.

그때 감포국민학교 1학년은 책상이 없는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교실 마루바닥에 톱석 주저앉아서 공부를 한 기억이 난다. 무언가 잘못돼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아직도 내 머리 왼편에 수술자국이 있다. 가을, 꿈에도

그리던 고향 제주에 와서 모교인 제주북교로 다시 전학을 왔는데 제주도에선 경상도 아이였던 것이다. 아마도 그때 갑포 출가 해녀였을 때는 어머니의 별이가 꽤 괜찮았던 것 같다.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탑동예 집을 사서 상당한 빚을 지고 있었는데 출가 해녀 1년으로 그 빚이 정리가 된 것이다.

초등학교 3학년 때는 더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장봉구 씨’ 인솔자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다. 꽤 인자하신 분이었고 나에게도 잘해주셨다. 석병 2리 이장이기도 했다. 그 인솔자가 데리고 간 해녀가 약 10여 명 쯤 됐나, 모두들 몇십 호 되는 동네에서 방을 얻어 살았다. 십수 명이나 되는 제주도 해녀들이 그 동네에 들어간 것은 그 동네에서도 큰 이벤트였다. 내가 가기 몇해 전부터 제주도 해녀들이 출가를 왔다갔다 한 것 같다. 또 제주 어협에서도 출가 해녀를 관리하는 것인지 살펴주는 것인지는 몰라도 직원들이 파견 나와 있었다. 또 어느 날 구룡포읍 관내 출가 해녀들을 모아 극장을 빌어 노래자랑인지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갔던 기억이 있다.

1960년대 경상북도 어느 강촌의 풍경보다는 내가 살던 고향 제주도가 훨씬 좋았다. 차는 하루에 몇 번 다니는 시외버스가 고작. 비포장도로에 차가 다니고 나면 일어나는 그 먼지. 어린애들은 그 먼지가 일어나는 버스 뒤를 쫓아가곤 했다. 아마도차 배기구에서 나오는 휘발유 냄새가 우리를 뛰게 했을 것이다. 언제 저 차를 타고 내가 살던 고향 제주도로 가나 하면서 힘껏 쫓아가곤 했지만 그 날은 곧 오지 않았다.

그때는 아침마다 밥을 빌러 오는 애들이 있었다. 그야말로 강통을 들고

서 밥을 빌러 다닌다. 또 그중에는 우리학교 학생들도 있었다. ‘아니 저애도?’라고 놀랄 정도로 상당수의 어린아이들이 아침마다 밥을 빌러 다닌곤 했다. 그래서 아무도 못 보게 방문을 닫아 놓고 아침을 먹곤 했다.

우리는 어머니와 나. 그리고 같은 출가 해녀 한 사람 더. 이렇게 두 집이 방 하나를 얻어 살았다. 출가 해녀들은 누구도 혼자서 방을 얻어 살지 않았다. 방값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주로 두 집 이상의 해녀들이 방 하나를 얻어 공동으로 생활했다. 그때 내가 살았던 주인집도 곤란하기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가난한 집 애들이 많았다. 나하고 같은 동급생 여자애도 있었고, 또 그 오빠도 있었다. 그 오빠는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결국 중학교를 포기한다고 했다. 둘 말고 아이를 하나 더 낳았지만 곧 죽고 마는 것을 보았다. 하루는 내 동급생의 남동생, 아마 1학년쯤 된 녀석이 옷을 안 입고 고추를 내어놓고 있었다. 나중에 보니 갈아입을 옷이 없어 그러고 있었던단다. 요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얻어진 삶인가?

이런 깡촌에 젊은 여자들이 십수 명 일시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처녀들은 아주 좋은 색시감이다. 해녀 물질이란 그곳에서 아주 고급 노동력이요 고급 직업이며, 또 하이테크 직업이었다. 제주 해녀 출신을 색시로 삼으면 좋은 어장과 좋은 직업이 아주 잘 맞아 떨어지게 된다. 이상하게도 바다가 있고 좋은 물건도 많았지만 그 동네 출신 해녀는 보지를 못했다. 그래서 그 동네 총각들은 눈에 불을 켜고 색시감을 찾았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주도 여자와 육지 남자와 결혼은 집에서 그리 쉽게 허락해주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든 어느 해녀가 처녀들의 보호자가 되어 파리가 붙지 않게 보호해주는 역할을 했다. 육지로 물질을 보내면서 처녀의 부모는 나

이든 부모에게 신신당부를 해서 보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중 유명한 사람이 있다. 바로 마라톤의 황영조 선수다. 그의 외가집이 제주도이고 그의 고향이 아마 강원도 삼척일 것이다. 그때 제주도 해녀들이 강원도까지 출가 해녀로 진출을 했었다.

나는 국민학교 3학년 때 석병국민학교로 전학을 갔는데 ‘제주아’라는 별명이 붙었다. 우리 3학년은 2학년이었고 나머지 학년은 아마 1학년이었다. 이 ‘제주아’를 보려고 멀리서도 뛰어와 나를 보고 가곤 했다. 동물원 원숭이가 된 셈이다. 이 때 나는 이발충이라는 피부병이 붙어 무지하게 고생을 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남자애들 다수가 이발충이 붙었는데 점심때쯤 학교가 파할 때 1학년 담임이신 여자 선생님이 머리에 약을 발라주셨다. 그 약을 바르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며 발랐지만 별 효과는 없었다. 또 시험 볼 때는 학교에 종이가 없어서 종이를 사오라고 한다. 1원에 몇 장 주는 누런 시험지 종이를 사서 학교에 내곤 했다. 한번은 학교가 파하고 약 30분 거리를 걸어서 오는데 누군가 문둥이 나왔다는 말에 모두들 죽기 아니면 살기로 뛰며 도망을 갔다. 문둥이는 어린애의 간을 빼어 먹으면 병이 낫는다고 해서 집으로 도망 오는 길에 고무신을 찢어먹고, 찢어먹은 고무신을 손에 들고서 맨발로 뛰었다. 그 찢어진 고무신은 바늘로 꿰매어 한참 신고 다녔다. 지금도 가라오케에 가서 ‘맨발의 청춘’을 부르는데 그때의 맨발의 청춘을 연상한 것이다.

그곳 경상도의 강촌은 바다 근처지만 고기 잡는 어촌과 농촌이 복합된 마을이었다. 나는 제주도에서 밭농사는 봐왔지만 논농사는 처음 봤다. 눈에 가서는 좀 놀랐다. 특히 개구리들이 많아서 눈에 뱀들이 많았다. 동네

에 상급생이 있어서 이 상급생이 ‘제주아’를 데리고 다녔다. 이 상급생은 뱀 잡는데 명인이었다. 눈에 가서 뱀을 보면 몽둥이로 후려친다. 그러면 뱀이 고개를 쳐들고서 덤빈다. 한 번 더 후려치면 뱀이 기진맥진 한다. 그런데 뱀은 생명력이 강해서 죽었으려니 했다가는 큰코다친다. 살아서 사람에게 고개를 쳐들고 다시 덤빈다. 완전한 확인사살이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잡은 뱀을 몽둥이에 걸고서 개선장군처럼 동네에 들어온다. 그래도 무서워서 손으로는 못 잡고 몽둥이에 걸고서 들어온 것이다. 한번은 이 꼴을 어머니에게 들켜서 그 몽둥이로 매를 싣컷 맞았다.

이상하게도 이 ‘제주아’가 그 지방의 본토박이들을 제치고 공부 1등을 했다. 그때 1학기말 종업식 때 무슨 상을 탔었다. 그 상이 아직도 집에 있으면 좋으련만.

해녀들의 작업은 천초라고 불리는 우뚝가사리와 미역이 제일 값나는 물건이었다. 전복, 소라, 멍게 등도 마찬가지로. 천초나 미역 같은 물건은 인솔자가 관리를 엄격히 해서 싹 걷어가지만 전복이나 소라 등은 인솔자의 관리에서 벗어난 물건인 것 같았다. 그래서 상인들이 와서 자유롭게 사간다.

또 재미있는 것은 떡을 파는 사람들이 떡을 만들어서 해녀들이 작업하는 곳에 와서 무엇과 바꾼다. 아마도 천초 등 값이 단단히 나가는 물건을 슬쩍 떡과 바꾸어 준 것으로 기억한다. 학교가 파한 후에 어머니들이 작업하는 곳에 가서 재수가 좋으면 떡이 생긴다. 천초 등 대단한 물건은 인솔자가 걷어가고, 전복이나 소라 등은 그 아래 상인들이 현금으로 사가고 그렇지 못한 야미 물건들을 상대로 한 장사가 떡 장사인 셈이다.

그 떡 장사들이 바꾼 물건을 들키지 않게 감추어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보곤 했다. 나는 그 떡 장사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내가 가서 떡 사달라고 칭얼대면 어머니나 다른 해녀들이 슬쩍 물건을 집어 준다. 내가 칭얼대면 그들의 장사 물건이 나오게 되는 셈이다. 보리쌀을 사서 밥을 먹으면 되지만 반찬은 쉽게 살 수 없었던 것 같다.

지금처럼 가게가 발달된 때도 아니고 주로 자급자족하는 마을의 생활에서 우리 같은 뜨내기들은 반찬이 아주 어려웠다. 바다에 돈이 안되는 물건이 꽤 있었던 것 같다. 제주도말로 ‘보말’은 무진장 있었지만 그곳 사람들은 잡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어머니가 그걸 잡고 와서 된장과 바꿨다. 된장이라도 있을 때는 좋지만 그러지 못할 때는 간장 즉 왜간장이 유일한 반찬이 될 때도 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구룡포 물질의 벌이는 별로 시원치 못했던 것 같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곳에서 또 다른 바다로 원정을 가곤 했다. 한 번 원정 나가면 며칠씩 있다가 돌아왔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그 움막같은 어두운 방에 지내야 하는 타향살이를 그 어린나이에 경험해야만 했다. 이렇게 해서 추워질 때 쯤 ‘꿈에 그리던 고향’ 제주도로 돌아왔다. 아마 10월 말 쯤 일 것이다. 아침에 부산배에서 내려 집으로 돌아오니 할머니가 반겨주신다. ‘할머니’라고 불러야 될 것을 ‘할매요’라고 불러서 할머니가 ‘아이고 이놈, 경상도놈 다 돼서 돌아왔구나’ 하고 붙잡아 우시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제주도의 큰 자랑거리이자 산업이었던 해녀질, 그 해녀질의 일부분을

담당해온 출가해녀. 이제 그 형태는 찾아볼 수 없지만, 출가 해녀라는 단어는 사어(死語)가 되지 말았으면 하는 희망이다.

〈신재경. 제주의소리. 2011. 08. 12일자 기사에서 발췌〉

‘해녀 엄마’의 다양한 직업

지난 날의 어머니를 떠올리는 자식들의 기억 속에, 어머니는 ‘너무 강인해서 민망할 만큼의’ 해녀였다. 하지만 자식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할망이 택한 직업은 물질 뿐만이 아니었다. ‘일단 부자가 되어야 자식을 잘 기를 수 있다’ 생각한 할망은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 앓고 했다. 그것이 자식들 입장에서는 때로 부담스럽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했지만, 세월이 흐른 지금 이 기억들은 좋은 추억이 되어 남았다.

‘할망은 프라이드가 세다’라고 딸은 말했다. 특히 해녀로서의 자긍심이 누구보다 컸기 때문에, 다른 해녀들처럼 자신이 해 온 물건을 장에 내다 팔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해녀회장을 이십 년이나 역임한 할망이다 보니, 해녀의 철칙은 철통 같이 지켰다. 대신 해녀 이외의 것들을 할 때에는 자존심이고 뭐고 없었다.

할망은 당시 물질을 한 돈으로 지금의 여관 동편에 있는 작은 집을 구입해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작은 초가집이었던 그 집은 1970년대에 들어서며 지붕을 교체하며 ‘스레트집’으로 바뀌었다. 지

방이 바뀌어도 그것은 ‘작은 집’이었을 뿐이다. 그런데, 그 집에 살던 것은 할망의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그들과 더불어 그 작은 집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세를 들어 살았었다.

아들이 쓰는 방과 딸과 어머니가 쓰던 방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개의 방을 할망은 쪼개고 또 쪼개어 무려 (최고로 많을 때에는) 일곱 살림이 한 지붕 밑에서 생활 할 공간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자식들은 지금도 어머니의 그러한 역량을 믿을 수 없다고 했다. ‘도대체 여기서 더 쪼갤 공간이 어디에 있다고 이 방을 또 쪼개나?’ 싶었으나, 그들의 어머니는 용케도 그것을 해내고야 마는 ‘리모델링의 도사’였던 것이다.

그곳에 살던 사람은 참으로 다양했다. 칠팔십년 대 제주의 도시생활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을 만한 대목이다. 그들의 작지만 큰 집에는 주로 운전수, 요리사, 시장상인, 때로는 도박꾼과 불륜의 커플이 들어와 산 적도 있었다고 한다. 쪼개고 쪼개 방에는 도시 한 칸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살림의 모습과 다양한 가족들이 있었다. 빨랫줄에는 늘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옷들이 가득 널려져 있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한 가족처럼 밥을 지어 먹고, 서로를 살피며 오순도순 살았던 지난날이다. 듣고만 있어도 마치 칠팔십 년대 제주시를 배경으로 한 시트콤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추억이 아닐 수 없다.

매립되기 전의 탐동 바다(지금의 라마다호텔)에는 ‘원담(얕은 해안가에 돌담을 동그랗게 쌓아 조수의 차로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

형태의 공동어장)’이 있었는데, 탑동의 원은 멸치어장으로 유명했었다. 제주어로 ‘멸’이라 하는 멸치가 들면 온 동네 사람들이 양동이를 들고 멸을 건지러 갔던 추억이 있다.

할망은 자기 먹을 만큼의 멸치만 건져 오는 법이 없었다. 아들 딸을 동원하여 멸치를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건져 오거나, 혹은 상인에게 멸치를 대량으로 사 와서는, 그것을 삶고 말려서 팔았다. 딸의 기억에 의하면, 고등학교에 다니던 몇 해 동안 멸치가 풍년이었는데 그 탓에 밤새도록 어머니를 도와 일을 멸치를 삶아 널어 말리던 기억이 지금도 또렷하다.

“엄마가 멸 사러가면 저는 그걸 한 번 큰 솥에 삶고 하나씩 또 그걸 널어서 엄마가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했어요. 울 엄마가 파는 멸치 제품이요!(웃음)

...생 멸을 데쳐서 그 다음 날 또들또들하게 그걸 말려요. 그게 끝이 아니야. 그걸 또 십킬로짜리 봉지에 담은 작업을 해서 방에 쟁여놔요. 그럼 그걸 상인이 와서 또 싹 다 사 가고요. 그게 일이 얼~마나 많은데, 아이고 울 엄마야~!!(웃음)”

밤을 새워 엄마를 돕던 기억을 끄집어내던 딸 옆에서 할망이 한 말씀 덧붙였다.

“허이고 애야~, 일이 어디 거 뿐이어샤? ‘멸 날 땀 멸!’, ‘태풍 날 땀 감태(해초)!’. 감태 해가지고 널어가지고. 감태는 태풍 불어나민 막 올린다(올라온다) 바람에. 그거 널엉 말리왕 혼치씩 다 쌍(한 묶음씩 다 싸서). 허이고~, 말 말라! 나 그거 허젠 한 두 번 얼 먹은 거(정신이

흥미해진 게) 아니다!”

그러면서 두 모녀는 ‘어머니가 시작해서 딸은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했던’ 기나 긴 노동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들추어가며 화기애애한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없는 일도 만들어 내며 돈을 버는 재주가 있는 그런 창조적인 일꾼이었다’고 모두가 입을 모아 결론 짓게 되었다.

어머니의 악착같음은 자식의 입장에서는 잊고 싶은 기억이 될 때도 있다. 지난날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웃음 뒤에 짙하게 밀려오는 무언가를 감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라 짐작해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과거의 기억들을 나누어 준 할망의 자제분들께 감사드릴 따름이다.

“언젠가, 정말 어머니 때문에 제가 육지로 도망을 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였는데. 한번은 우리 어머니가 무슨 해녀 체육대회인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내가 다니던 일고(제일고등학교)에서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응원단장으로 탑동 해녀를 대표해서 어머니가 단상에 섰어요. 근데, 아이들이 다 우리 어머니라는 걸 다 알아요. 그때 어머니가 단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응원을 했는지, 그 모습이...

...친구들이 갑자기 ‘야, 우리 재경이 어머 구경하러 가자!’ 하는 바람에 제가 중간에 도망을 나왔어요. 직접 제 두 눈으로 가서 어머니를 보니까. 어이구, 이걸 아닌거야!(웃음) 전 진짜 다음날 배 타고 어디 도망이라도 가고 싶을 정도로 너무 창피해서 다음 날은 정말 학교를 못 갔어요. 아니,

가긴 갔는데 어디 들렀다가 갔지. 그래도 엄마한테 뭐라고는 못했어요. 물론 어머니도 아마 알고는 계셨을테지만...”

“...어머니가 해녀라는 것이 손가락 받을 일은 아니고, 또 어머니가 신나게 놀 땐 잘 노시는 것도 괜찮은데. 제가 또 한 번 속상했던 것은 어머니가 오일장에서 장사를 할 때였어요. 지금의 중앙여자중학교가 있는 서사라 쪽에 오일장이 섰었어요. 거기서 엄마가 일제 물건을 파셨었어요. 일본 교포들이 쓰다가 버린 물건들을 사다가 팔았던 거죠. 당시엔 그런 사람들이 꽤나 있었어요.

매 번 2일하고 7일이 들어간 날에 장이 서는데, 그러면 장날에 어머니도 그걸 한 짐, 나도 한 짐 지고 가면서 학교에 가는 길에 그걸 내려드리고 가야했어요. 그땐 그게 또 얼마나 창피했는지, 오죽하면 2일과 7일만 되면 비가 오기를 기다렸을 정도니까요. 어릴 적에 엄마를 도와 나무를 하러 간 거나, 그런 걸 생각하면 창피하지 않았는데, 오일장은 정말... 당시엔 사람들이 국산품을 애용하자 하던 시대였는데, 학교에서 ‘너희 집은 매국노냐!’ 하고 놀리는 괴씸한 친구들도 있고 그랬죠. 사실 지금도 동창회 때 가끔 그때 나를 놀리던 녀석들을 만나는데, 그러면 저도 장난삼아 욕을 되돌려주곤 해요. 아직도 그때 놀림 받은 생각을 하면 화는 나지만, 그래도 내가 참자! 친구니까! 하고요(웃음).”

1970년대 초반. 삼도2동. 아들 신재경의 기억

할망이 매번 입이 닳도록 자랑을 하는 아들은 어머니가 시키면 시

키는 대로 무엇이든 했던 대견한 자식이다. 억척스런 해녀 어머니 슬하에서 성장한 그는 1남 1녀를 둔 한 집안의 가장이자 일본의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전공은 아니지만 고향 제주에서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건너간 재일교포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 ‘진주알을 끼워 목걸이를 맞추듯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모으고 있다’고 한다. 돌아가신 신종철 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그렇게 현실이 되었다.

살면서 중요한 것은 ‘돈’ 보다 ‘실력’이라 말하는 아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강인한 해녀 엄마가 있어 왔다.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 살아왔다’는 어머니를 때로는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사실 그의 어머니 역시 제주 여성을 대표하는 직업인 ‘해녀’를 ‘최상군(해녀의 재량을 단계별로 나누는 말 중에 최고의 실력자를 일컫는 말)’으로 살아온 ‘실력자’가 아니던가? 돈을 벌어 생계를 꾸리는 것도 중요했지만 스스로 그 넓고 깊은 길을 개척하고 노력하여 일군 할망의 재산은 돈으로만 형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 4·3사건의 희생자로 가족을 잃은 것도 모자라 차별대우를 받고, 그 후 이어진 한국전쟁으로 어렵사리 만난 남편의 목숨까지 떠나보내야 했다. 무언가를 원하며 꿈꾸어 보기도 전에 더 많은 것을 빼앗겨도 불평 하나 할 수 없던 가난하고 혹독한 시대를 할망은 견디어냈다. 하지만 그런 기억들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을 보면, 지난날의 가난은 오늘을 살게 하는 힘이었는지도 모른다. 정정당당하게 자신의 능력으로 돈을 벌어 조금씩 나아지는

삶의 모습이, 할망에게는 크나 큰 삶의 원동력이었다.

‘오로지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던 할망’과, ‘돈도 중요하지만 실력을 키우며 살자는 아들’이 제각각 꿈꾸던 삶의 목표는 결코 다른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욕심이 넘고 팔십이 넘은 어머니와 아들은 남들은 이루어졌다 말 할지 모를 성공을 품에 안고 또 다시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고 있다. 할망은 지금도 무언가를 해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싶고, 아들은 또 다른 실력을 기르기 위해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침과 동시에 중국어학과에 학생으로 입학했다. 나이가 몇이 되었건 지칠 줄 모르는 이들의 열정은 과연 어디서 오고 있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어쩌면, 젊어 돌아가신 ‘아버지’와 할망의 ‘큰 오빠’의 존재가 그들의 열정에 보이지 않는 빛을 드리우고 있는 건 아닐까? 감히 상상해 본다.

탐동매립, 투쟁하는 해녀 1986-1991

“그 쇠귀신 닮은 놈의 새끼들! 이거 매립하민 일 년에 얼마씩 나온댄 허 영이네. 물건 나오는 데만 골라서 매립을 한다고 하잖아! 계난 그건 절대 안된다 허멍 나가 일어난 거지. 그처럼 우릴 속여가지고 ‘탁’ 매립을 허여 신디, 행보난 어디 돈이 나오나? 물건은 나오나?”

...지금이야 나도, 힘도 없고 말 할 주둥이도 어서. 욕할 주둥이! 사람들이 우리 해녀들 깔보고 그러면 나신디 욕들 많이 들었지. 수협에 가서도

큰 소리로! ‘당신네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똑~바로들 하시오! 하고 외어가면, 가네들도 “예! 잘 하겠습니다!” 해나서. 경 고라도 사실은 잘 안 해주고, 결국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허멍 저 바당을 저추록 매립해 부러시니게.”

그 소귀신 같은 놈의 새끼들! 이거 매립하면 일 년에 얼마 나온다고 해 놓고. 물건 나오는 곳만 골라서 매립을 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안 된다고 내가 일어난 거지. 그렇게 우릴 속여서 매립을 했는데, 해보니까 어디 돈 이 나와? 물건은 나와?

...지금이야 나도, 힘도 없고 말 할 입도 없어. 욕할 입! 사람들이 우리 해녀들 깔보고 그러면 나에게 욕을 많이 들었지. 수협에 가서도 큰 소리로! ‘당신들 우리가 어떻게 사는 줄 알아? 똑 바로들 하시오!’ 하고 외치면, 그들도 “예! 잘 하겠습니다!” 했었어. 그렇게 말은 해도 사실은 잘 안 해주고, 결국은 나라에서 하는 일인데, 하면서 저 바다를 저렇게 매립해 버린 거.

“...나가 회장 이실 때, 수협에서 지부장이랑 조합장이랑 높은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와서 양보를 하랜. 우리 해녀가 허가를 허여야 제주시에서 매립을 한다고. ‘그래야 수협도 살고 조합도 살고 시청도 삽니다. 당신이 꿈쩍 안 허민 못합니다.’ 경 고르난 게, 나가 더 꿈쩍을 안 했주게. 다들 나를 굽히려고 해신디, 그때 제주대학교 학생털도 왕 고치 반대해주고 해서.

...아이고 이 멧덩구리 할망... 바다를 시상에 저 자락 매립시켜부켄 해

시냐? 저기 사진 보라(*사진참고, 어린 아이 둘이 할망의 손주인데, 매립 되기 전의 바다에서 찍은 사진으로 여관 입구 벽 전체에 대형으로 인쇄한 것을 붙여 놓았다). 저기가 원래 우리가 물질을 하던 바닷인데, 우리 바다가 이제 어디 갔나? 해녀들도 다 죽어불고.”

내가 회장으로 있을 때, 수협에서 지부장이랑 조합장이랑 높은 사람들이 다 나를 찾아와서 양보를 하라고. 우리 해녀가 허가를 해야 제주시에 서 매립을 한다고. ‘그래야 수협도 살고 조합도 살고 시청도 삽니다. 당신이 꿈쩍 안 하면 못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더 꿈쩍을 안 했었지. 다들 나를 굶히려고 했는데, 그때 제주대학교 학생들도 와서 같이 반대해주고 그랬어.

...아이고 이 멍텅구리 할머니... 바다를 세상에 저렇게 매립시켜버릴 줄 알았나? 저기 사진을 보라(*사진참고). 저기가 원래 우리가 물질을 하던 바다인데, 우리 바다가 이제 어디로 갔나? 해녀들도 다 죽어 버리고.

1986~1991년. 탐동. 강달인의 기억



사진 4. 매립되기 전 탐동바다에서 찍은 손주들 사진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이던 1986년, 제주시 탐동 해안가 약 5만여 평에 대한 매립 면허의 적법성 여부와 개발이익의 지역환원 문제, 대규모의 개발로 인한 환경 파괴와 어장오염 및 해녀생존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시공업체인 (주)범양건설과 지역주민 사이에 커다란 갈등과 분쟁이 6년 간 제주사회에서 지속되었었다.

1986년 개발이익의 90%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도록 한 ‘새 공유수면 매립법’ 시행을 불과 일 주일 앞둔 시점에, 건설부가 입어권자인 해녀와 어민들의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매립면허를 내주며 면허발급의 불법성 논란을 빚으면서 분쟁이 시작 된 것이다.

개발이익을 환원한다는 명목으로 이뤄진 ‘병문천’(삼도2동) 복개 사업은 오히려 자연하천 경관을 해치고 2007년 태풍 나리 때 엄청난 물난리를 키우는 원인이 되었다. 매립 후에도 파도가 넘치며 시설물이 파괴되는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했으며, 지반의 안전문제가 발생 해 결국 2009년 이 지역은 재해위험지구로 전락하기도 했다. 새로운 상권을 만들어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매립효과 역시, 대형 마트의 입점 등으로 인해 골목상권을 파괴를 초래했을 뿐이다.

한편, 무리한 도시설계로 인해 당초 면허 발급조건에서 건물의 높이를 5층 이내로 제한하게 했던 것을 탐동 해안가의 6개 구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8-9층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 이로 인해 바다 조망은 차단되었고, 상업 숙박 시설이 급증하며 기존 상권을 위축시켰다. 매립공사 당시 오수를 바다로 흘려보내며 공동어장

이 오염되기도 했으며, 탑동 어장의 중요한 환경자원이었던 멍돌을 그대로 매립하는 바람에 해녀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해녀와 어민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대학생들이 6년에 가까운 반대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시공업체는 이를 묵살하고 매립을 강행했다.

할망은 탑동(삼도동) 해녀회장으로 해녀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싸웠다. 그 모습이 신문지면이나 방송을 통해 몇 차례나 알려진 적도 있을 정도다. 50대의 후반이 그렇게 지나갔고, 탑동이 완전히 매립되었을 때 할망은 예순 살이 되었다. 아침에 눈만 뜨면 데모하는 곳에 갔었고, 함께 반대운동을 하던 젊은이들이 항상 할망의 주변에 있었다. 딸은 당시의 어머니를 회상하며, ‘삼도동, 용담동, 건입동 해녀를 모두 다 합쳐도 시청이나 경찰서 앞에 가서 순간적으로 필요한 말을 우리 엄마처럼 똑 부러지게 큰소리로 말할 수 있는 해녀는 아무도 없을 정도였다’고 했다. 당시 딸은 결혼을 준비할 시기여서 어머니의 이런 활동을 그저 먼 발치에서 지켜보았다. 아들 역시 일본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지인들에게 들은 어머니의 활약상은 대단했다고 한다.

마치 기마부대의 선두에 선 장군처럼 어머니의 지휘 하에 해녀들이 이리 움직이고 저리 움직이는 것을 본 사람들은 모두가 감탄했다. 군대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의 단결력을 보이며 해녀들의 생존권을 외치던 그 반대운동의 선두에 강달인 할망이 있었다. 자식들은 모두

를 위해 올바른 일을 하며 싸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걱정이 되면서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해녀인 우리 어머니가 잡혀가는 일은 없을 것’ 이라 생각하며 마음으로 어머니를 응원했다. 결국 오랜 투쟁 끝에 해녀들은 금전적 보상을 받기는 했으나, 말이 보상이지, 한평생 일 해 온 어장과 맞바꿀 수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동의 해녀들은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생존권과 바다를 지키기 위해 싸웠다.

“반평생 물질한 바다 보며 읊니다”

- 탑동 매립으로 삶터 잃은 제주해녀 강달인씨

“50년 가까이 일해 온 바다가 망가지버려 요새는 한라산에 올라 고사리를 따는 일로 살아가지요. 바다를 보면서 서럽게 혼자 운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눈가에 물기를 머금은 제주해녀 강달인(59)씨는 말한다. 강달인씨는 오는 19일 열리는 임시국회 건설위에서 다루어질 제주도 탑동 앞바다 매립 문제에 대한 청원이 제대로 되도록 로비를 하러 해녀 현심순(36)씨와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87년 7월부터 시작된 제주도 탑동 앞바다 매립사업으로 생계의 터전을 잃은 이들 40여명의 해녀들은 처음엔 보상금 5백만 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바다를 포기했다. 그러나 88년 3월 공사를 맡은 범양건설이 해조류가 서식하는 ‘떡돌’을 바다에 던져주기로 한 약속을 무시하고 그대로 매

립해 버리자 분노해 일어섰다.

“매립공사를 시작하고부터는 흙탕물, 폐수가 내려와 아예 전복, 소라도 죽어버리고 미역도 볼 수 없게 됐지요. 멍돌이라도 던져 주었으면 조금은 살 수 있었을 텐데...”

집 안방보다 더 친근했던 바다 속이 이젠 전쟁 뒤의 폐허처럼 되어버렸다. 물도 깊어지고 조류도 빨라져 도저히 물질을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난 2월에는 해녀 한 분이 바다에서 죽었지요...(중략)..물길이 달라져 버려 생긴 일이죠.”

열 살 때부터 물질을 시작한 강달인씨는 바다를 떠나 살기가 무척 괴롭다.

“이젠 돌아갈래야 돌아갈 바다도 없어져 버렸지요. 우리의 일터를 없애면서 시작한 개발공사의 이익금이 제주도민에게 제대로 돌아가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탐동매립은 주민들의 동의 없이 매립면허가 나오고 개발수익금 1천5백억원이 제주도민에게가 아니라 시공업자 쪽에 돌아가도록 돼 있어 그동안 제주도민의 큰 반발을 사왔다.

〈한겨레신문. 1989. 05. 19.기사 발췌〉

‘잠수회장’ 20년의 크고 작은 업적

할망은 해녀를 ‘잠수’라 부른다. ‘잠수(잠수)를 하는 사람’라 ‘잠수’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할망뿐만 아니라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잠수’가 그들을 부르는 정식 명칭이었다. 해녀회라는 말 대신 이전에는 잠수회라는 말이 보편적이었다. ‘해녀(海女[ama])’는 일제 강점기 이후에 나타난 일본식 명칭이 알려지면서 오늘 날 까지 쓰이고 있는 단어다. 할망이 아주 어렸을 때는 ‘잠네(잠녀)’라는 말도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에도 제주 사람들은 해녀라는 말 대신 잠네, 잠수라는 말을 썼었다. 해녀라는 말 보다는 잠수라는 단어가 자신에게는 더 친숙하다고 했다.

할망은 삼도리 잠수회의 잠수회장을 삼십 대 때부터 예순이 될 무렵까지 역임했다. 회장은 물질만 잘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장삿속이 밝아야 할 수 있는 일이다. 건져 온 해산물에 좋은 값을 매기고 수익금을 공평하고 확실하게 나누던 그는 수완 좋은 상군 해녀였다. 탐동매립 당시에 모든 생존권을 위해 끈질기게 싸우던 할망은 삼도리 해녀의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매립투쟁을 위해서만 투쟁한 것이 아니다. 크던 작던 간에 그는 불의를 보면 참을 수가 없는 성격이다. 자신을 비롯한 주변의 누군가가 억울한 지경에 빠지는 것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지금의 제주항이 있는 건입동에는 ‘건입 해녀’가 있다. 제주항이 생기기 전 그곳에는 ‘산지축항’이라는 작은 항구가 있었는데, 일제 강

점기에 만들어진 산지축항은 어선뿐만 아니라 육지와 해외를 오가
던 크고 작은 배가 정박하던 곳이다. 할망의 말에 의하면, 건입 해녀
들은 그 옛날 물질 뿐만 아니라 어선의 정박에 필요한 잠수일을 도
맡아 하기도 했었다고 한다. 바로 옆 동네에 있으면서 한 바다를 공
유하던 해녀들이지만 소득격차에 따라 해녀들 간에 팽팽한 긴장감
이 돌던 시절이다.

“옛날엔 건입동이 커나시네. 계난 그디 해녀덜 오죽 썬냐게. 요망지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머릿수도 많았어. 삼도리는 물질만 했지. 사는 건
꼭같이 살아. 겐디 물질은 건입이 더 했어. 그디 배가 있잖아. 배 아래 닻
을 묶고, 밑에 것이 얽히고 허민, 그런 일들도 잠수를 빌어야 할 거 아니라
게. 경허민 해녀가 할 일이 많아. 그 일을 하면 물질 보다 돈을 더 잘 주거
든! 잠수 어시민 배가 못 나가니깐. 계난 가이네가 돈을 호끔 더 많이 벌
었주게.

...겐디 옛날엔 나가 호끔 똑똑해났주게. 남편 죽고 물질만 악착같이 했
을 때니까. 그때 건입 해녀들이 돈 좀 번다고 우리를 막 눌러붙쟁허니까.
한 번은 나가 따지러 간 적도 있어. ‘삼도리 해녀도 똑똑합니다! 그축 허지
막써덜!’ 하고 나가 젊은 땐 그런 것도 막 따지러 가났주게. 경허여가난에,
‘저 여편 무사 정 햄시니?’ 허멍, 그디 나 친구 하나가 잠수라나신디 ‘아이
고, 달인아, 좀 작작허라이.’ 허멍 말려도 내가 ‘건입동 성님들! 삼도리 해
녀 무시하고 그축 허민 안됩니다이!’ 하고 큰 소리 행 오난 그 담부터는 우
리를 무시하지 않았어.”

옛날엔 건입동이 컸었잖아. 그러니 거기 해녀들이 오죽 힘이 세. 요망 지고 똑똑한 사람도 많았고 머릿수도 많았어. 삼도리는 물질만 했지. 사는 건 똑같이 살아. 그런데 물질은 건입 해녀가 더 했어. 거긴 배가 있잖아. 배아래 닻을 묶고, 밑에 것들이 얽히고 했을 때, 그런 일들도 잠수부를 빌려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해녀가 할 일이 많아. 그 일을 하면 물질보다 돈을 더 잘 주거든! 잠수부가 없으면 배가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돈을 조금 더 많이 벌었었지.

... 그런데 옛날엔 내가 조금 똑똑했었지. 남편 죽고 물질만 악착같이 했을 때니까. 그때 건입 해녀들이 돈 좀 번다고 우리를 막 누르려하니까. 한 번은 내가 따지러 간 적도 있어. ‘삼도리 해녀도 똑똑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젊을 땐 그런 것도 막 따지러 갔었지. 그렇게 하니까, ‘저 여편네는 왜 저러는거야?’ 하면서 거기 내 친구 하나가 해녀였는데, ‘아이고, 달인아, 좀 그만 해라.’ 하면서 말려도 내가, ‘건입동 형님들! 삼도리 해녀 무시하고 그러면 안됩니다!’ 하고 큰소리 치고 오니까 그 다음 부터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았어.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초반. 용담3동. 강달인의 기억

건입동 잠수회와 삼도동 잠수회는 같은 산지어촌계에 속하지만, 물질을 하는 바다는 건입 바다와 삼도 바다(탑동일대)로 나누어져 있다. 두 마을 사이에는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바닷속의 경계선이 존재한다. 그것은 할망이 삼십 대이던 1960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어느 날 경찰이 찾아와 해녀회장이던 할망에게 만들라는 지시를 내

렸다고 한다. 임의로 설정된 구역에 테왁과 비슷하게 생긴 부표를 띄워 처음에는 그것으로 경계선을 만들었다. 정부의 지원은 없었으니 해녀들이 모은 돈으로 경비를 마련해야 했다. 바닷속 커다란 돌에 밧줄을 묶어 테왁을 띄우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할망은 회상한다.

“속옷하고 적삼만 입영 하올락 하올락. 그제 오리발이 이서시냐, 곰옷 이 이서시냐? 거 만들젠 죽을 고생을 다 했져, 나가 회장 때.”

속바지와 적삼만 입고 허우적 허우적. 그때 오리발이 있었나, 잠수복이 있었나? 그거 만들려고 죽을 고생을 다 했어, 내가 회장 때.

해산물의 양식이 시작된 것도 1960년대 이후의 일이다. 그렇게 거어진 경계를 두고 각각의 어촌계는 양식장을 만들었다. 그렇게 키운 소라와 전복 등은 수협이 매입해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었다.

모든 해녀는 바다의 신을 섬긴다. 그러므로 기도는 그들의 일상이며 생의 의지를 재확인하는 원초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제주의 어촌에는 음력 2월의 ‘영등굿’을 포함해 해녀들의 안전과 바다의 풍년을 기원하는 ‘잠수굿’(또는 ‘요왕제’라 함)이라는 것이 있다. 주로 음력 초정월부터 3월까지, 비교적 규모가 큰 해녀회에서 치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해녀회장을 중심으로 굿 준비를 하여 심방(제주의 무속인)을 모시고 제단을 차려 의식을 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제를 올리는

형식과 절차, 그리고 곳의 규모는 마을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삼도리 해녀회에는 자체적인 잠수곳의 전통이 없었다. 할망이 젊었을 때만 해도, 건입동 사라봉 근처에 있는 제단에서 열리는 잠수곳에 삼도리 해녀들은 살짝 끼어 제를 지냈었다. 하지만 회장으로 역임하는 동안 할망은 해녀들과 결의하여 자체적인 삼도리 잠수곳을 하기로 결심한다. (시작한 연도를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나, 대략 1970년대 후반 즈음이라고 했으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제를 올리고 싶었던 이유를 물으니, 무엇보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건입 해녀에게 무시당하는 것이 싫었고, 기도가 일상이던 (자신을 포함한) 삼도리 해녀들이 ‘우리 바당’을 살리는 신의 존재를 보다 가깝게 느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였다고 한다. 처음으로 행한 잠수곳을 위해 회장이던 할망이 가장 큰 돈을 기부했고, 다른 해녀들도 십시일반 협조했다. 수협에 가서 돈을 받아오기도 했고 함께 바다를 이용하며 사는 이들에게 제단을 같이 만들 것을 요청하며 모금도 다녔었다고 한다.

할망이 해녀회장으로 지내며 일구어 낸 크고 작은 업적 중에 본인 자신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는 것이 바로 이 삼도리 잠수곳의 시작이다. 큰 돈이 들고 심방도 모셔와야 하는 일이라 부담이 컸지만, 막상 해내고 보니 ‘사람들이 자신을 회장으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라고 할망은 말했다. 바다를 믿는 할망의 믿음이 해녀회장인 자신에 대한 해녀들의 믿음으로 거듭나던 순간이었다.

“나가추룩 바당에 잘 다닌 사람도 어서. 이 쇠귀신 물귀신... 귀신도 나 고튼 이런 멧텅구리가 없주게. 나가이, 정월만 나민 바다에 강 기도하고. 바다에서 기도를 해야 덕을 준다길래 한평생 기도를 했지. 이 바당 댕기는 사람들 몬딱 그렇게 믿는 거라. 그게 당연한 거. 바다에 가서 덕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좋다~, 허는 거.

...우리 어릴 적엔 바다를 잘 이해해야 요왕 할머니가 나신디 전복도 주고 소라도 주고 물구력도 주고 헌댄 고라나서. 오장창자가 경 들어. 오장 속에 마음이 그추룩 행, 난 그런 마음으로 살았져. 이젠 그런거 믿지를 안 혀이.”

나같이 바다에 잘 다닌 사람도 없어. 이 소귀신 물귀신...귀신도 이런 나 같은 멧청이가 없지. 내가, 정월만 되면 바다에 가서 기도하고. 바다에 기도를 해야 덕을 준다고 하길래 한평생 기도를 했지. 이 바다에 다니는 사람들은 모두 그렇게 믿어. 그게 당연한 거야. 바다에 가서 덕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좋다~, 하는 것.

...우리 어릴 적엔 바다를 잘 이해해야 용왕 할머니가 나에게 전복도 주고 소라도 주고 문어도 주고 한다고 그랬었어. 오장창자가 그렇게 생기는 거라고. 오장 속에 깃든 마음이, 난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 그런데 이젠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믿지를 앓는 거 같아.

할망에게 듣는 물질의 이모저모

물질을 관둔지 한두 해 밖에 되지 않은 할망은 아직도 물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지만 늙은 몸으로 물에 나가는 것을 걱정하는 이들이 염려되어 그 마음을 꼭 참고 있는 것이라 말했다. 해녀라는 직업에 관해 할망께 몇 가지 질문을 여쭙었다.

왜 물질을 했나?

“허이고 얘야, 난 이 바닷가에만 살아시니게. 이 동네서 나만이 바닷가 아는 사람 어디 잇느니? 이제야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이 허지만, 옛날엔 남자는 직업이 많아도 여자신디 무시거 직업이 셔나시냐? 게난 해녀를 업으로 삼은거주게 여자덜이. 물질 가민 돈이 나오네! 하루에 가면은 이제 돈이면 혼 삼십만 원 나와실거라! 여자가 그만이 벌 수 있는 직업이 또 어디 시느냐게. 고무옷도 나가 시작한거라. 고무옷 어실 적에는, 박박 털명도 ‘이에도사나~ 이에도사나~’ 노래허멍 추운 것도 잊어볼젠 그처럼 물질해 낫저게.”

허이고 얘야, 난 이 바다에서만 살았잖아. 이 동네에서 나보다 바다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제야 여자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만, 옛날엔 남자는 직업이 많아도 여자에겐 무슨 직업이 있었나? 그러니 해녀를 업으로 삼았지 여자들이. 물질하면 돈이 나오잖아! 하루에 이제 돈이면 한 삼십만 원은 나왔을 걸! 여자가 그만큼 벌 수 있는 직업이 또 어디있겠

어. 잠수복도 내가 시작한 거야. 잠수복 없을 때엔, 덜덜 떨면서도 ‘이어도 사나~ 이어도사나~’ 노래를 하면서 추운 걸 잊으면서 그렇게 물질을 했었다고.

물질하다가 보물을 건진 적은?

“보물... 보물 닮은 거 싶긴 싶다게, 진주! 이마~니만한거! 지냥으로 동그렇게 되영 나와. 전복 떼멍 뭔가 들어신가 하영덜 본다게.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겐디, 에에~. 난 평생 그런 거 한 번 못해봤져! 용담 사름, 건입 사름, 삼도리 사름 다들 진주 하나씩은 해었잔해도 나는 하나 못 떼봤져. 건 복권이나 다름 어서. 몇 억짜리! 어쩌다가 떼는 사름은 걸로 팔자 고치는 거라. 그럼 그걸 수협에 팔민 일본으로 가나서.

...나도 그런 거 저런 거 봐지카부덴 전복 떼영 영 배려 봐도 없고. 고튼 해녀영 고라도, 누군 복이 싶고 누군 어신 생이라. 아맹 열심히 물질해봐도 필요가 어서. 진주가 나와야주게! 겐디 암만 하여봐도 나신디 진주는 안 보ୟ시난, 그자 언젠가 부턴 기대도 안혀고 전복만 떼젠 눈이 벌겅~, 물구력이영 구쟁이만 잡젠 눈이 벌겅~. 뭐라도 건지젠 허는 욕심이 어시민 해녀를 할 수가 어따!”

보물... 보물 같은 것이 있긴 있다, 진주! 이만~큼 큰 거! 지대로 동그렇게 되어서 나와. 전복 떼면서 뭔가 들었나 해서 많이들 본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에에~. 난 평생 그런 거 한 번 못해봤대! 용담 사람, 건입 사람, 삼도리 사람, 다들 진주 하나씩은 해봤다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못

떼어봤어. 그건 복권이나 다름없어. 몇 억짜리! 어찌다가 떼는 사람은 그
겉로 팔자를 고치는 거야. 그럼 그걸 수협에 팔면 일본으로 팔려나가.

...나도 그런 거 저런 거 볼 수 있진 않을까 해서 전복 떼어서 많이 찾아
봤는데. 같은 해녀라도 누구는 복이 있고 누구는 없는 모양이더라고. 아
무리 열심히 물질만 해봐도 필요없어. 진주가 나와야지! 근데 아무리 해
도 나에게 진주는 안 보이니까, 그제 언젠가 부턴 기대도 안하고 전복만
떼려고 눈이 빨~경계, 문어랑 소라만 잡으려고 눈이 빨~경계. 뭐라도 건
지려고 하는 욕심이 없으면 해녀를 할 수가 없어!

딸에게 물질을 가르쳐 줄 생각은 없었나?

“우리 딸이 잠수 배왕 나 추락 되는 거? 에에~, 나는 툇을 절대 물 근처
도 못 가게 해서. 바다에 빠지지도 못하게. 수영도 못혀여 가인. 나가 해녀
행 사는 것도 억울허지 않혀냐게. 우리 엄마도 물질은 안했. 휘엄도 치고
바당에 강 잡아오기도 해도 우리 엄마는 해녀는 안했어. 우리 엄마는 내
가 해녀하는 거, 전업삼아 하는 건 첩엔 몰라나서. 바당에 ‘풍당’ 들어강
미역도 심어오곡 해주만, 그제 해당 우리 엄마 준 역사는 어서. 나가 팔아
서 나가 살아야지게. 엄마는 밭 일, 나는 물질! 어멍 하는 일 꼭 같이 허영
무시 것 허리?”

우리 딸이 잠수를 배워서 나처럼 되는 거? 아니 안돼~. 나는 딸을 절대
물 근처에도 못 가게 했어. 바다에 빠지지도 못하게. 수영도 못해 그 아인.
내가 해녀로 사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우리 엄마도 물질은 안했어. 수영

도 하고 바다에서 뭍 잡아오기는 해도 우리 엄마는 해녀를 안했어. 엄만 내가 해녀 하는 거, 전업 삼아 하는 건 첨엔 몰랐거든. 바다에 ‘퐁당’ 잠수 해서 미역도 건져오곤 했지만, 그걸 우리 엄마에게 준 역사는 없다. 내가 팔아서 내가 먹고 살아야지. 엄마는 밭 일, 나는 물질! 엄마 하는 일 똑 같이 해서 뭐 하려고?

바닷속에서 만난 동물들 이야기(상어, 해파리, 돌고래와 거북이)

“상어 고튼 건 보당도 버쩍, 곱새기도 보고 흰 상어도 봤져. 멀리서 상어가 오면, 뽀뽀, 이것이 비창이라. (고기를 잡는 길다란 창을 드는 시늉을 하며 눈에 힘을 주고) 이걸 영 들고 ‘오기만 와빠라 이 새끼!’ 하고 겁을 쫓아. 겐디, 죽은 상어는 우리 뽀가민 잘 오진 안현다.

...해파리도 다녀나민 막 물어부느니 게. 잘도 큰 해파리도 이서. 와가민 들이쳐도 외썩외썩 붙엉이네 물적삼 속으로 들어강 막 가렵고게. 허이고, 진짜 고생 많이 허는게 해녀여게, 목숨 걸고. 군인 보다도 힘든 직업이라 이것이.

...겐디 육지서 물질헐 적에 보민, 해녀덜만 쫓앙 땀기는 큰 상어도 이서 나서. 해치지는 앓고 조끄띠 왕이네 ‘저거 한 번 물어보카?’ 하는 시늉허멍, 흔들흔들 지느러미 흔들멍 왁시민, 우리는 “옆으로 올릅서!” 외어. 게민 배 위로 올라갔당 혼 삼십 분 시민 가.

...곱새긴 어땜 안 현다. 곱새기가 잘도 신기헌 아이네라, 가네가. 곱새기가 영 무리지영 와감시민, 해녀덜이 외쳐 이렇게. “배~알로, 물~알로!” 노래 같은 거주게. “배~알로~, 물~알로!” 게민 그것을 곱새기가 알아듣는지

사, 영 밑으로 배 밑으로 행 넘어간다 게. 곰새기는 항상 그처럼 행 지나가.

...큰 거북이도 막 많이 봤주게! (거북이 흉내를 내며) ‘꺼딱꺼딱’허멍 사람신디 오고, ‘화딱’허민 돌아서고. 바당에서 죽영 건져올린 거북이도 셔난. 큰 거, 늙은 거! 거북이는 많이 봤어. 사람을 보면 항상 거북이는 사람신디 와. 물 속에서 나가 물을 ‘착’ 두드리면 와, 그러다가 또 돌아가. 사람이 좋은 생이라, 거북이는.”

상어 같은 건 질릴 만큼 봤다. 돌고래도 봤고 흰 상어도 봤지. 멀리서 상어가 오면, 봐봐, 이것이 비창이야. (고기를 잡는 길다란 창을 드는 시늉을 하며 눈에 힘을 주고) 이걸 이렇게 들고 ‘오기만 해봐라 이 새끼!’ 하고 겁을 줘서 쫓아. 그런데 작은 상어는 우리를 봐도 잘 오지는 않아.

...해파리도 다니다보면 막 우릴 물어. 정말 큰 해파리도 있었어. 다가오면 밀쳐내어도 바짝 붙어서 물적삼 속으로 들어가서 막 간지럽지. 고생 많이 하는 게 해녀야, 목숨 걸고. 군인보다도 힘든 직업이야 이것이.

...그런데, 육지에서 물질할 때 보니까, 해녀들만 쫓아 다니는 큰 상어가 있었어. 해치지는 않지만 곁에 다가와서 ‘저거 한 번 물어버릴까?’ 하는 시늉하면서, 흔들흔들 지느러미를 흔들고 오면, 우리는 “옆으로 올라가세요!” 하고 외쳐. 그러면 배 위로 올라갔다가 한 삼십 분 기다리면 사라져.

...돌고래는 아무렇지도 않아. 돌고래가 상당히 신기한 아이들이야, 개들이. 돌고래가 무리를 지어서 오면, 해녀들이 이렇게 외쳐. “배~알로(아래로), 물~알로!” 그러면 그걸 돌고래가 마치 알아듣는지, 배 밑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가는 거야. 돌고래는 항상 그렇게 지나갔었어.

...큰 거북이도 많이 봤었지! (거북이 흉내를 내며) ‘꺼딱꺼딱’ 하면서 사람한테 오고, ‘화딱’ 하고 돌아서고. 바다에서 죽어서 건져올린 거북이도 있었어. 정말 늙은 큰 거북이! 거북이는 많이 봤어. 사람을 보면 거북이는 항상 사람에게 다가와. 물 속에서 내가 물을 ‘착’ 두드리면 와. 그러다가 또 돌아가. 사람이 좋은가봐, 거북이는.

에필로그. 할머니와 또순이

할망에게는 ‘또순이’라는 이름을 한 작고 하얀 강아지가 있다. 벌써



사진 5. 할머니와 또순이

십오 년이나 삶을 함께하고 있지만, 또순이는 할망이 불러도 다가오는 법 없는 무뚝뚝한 강아지다. 여관입구에 깔린 작은 방석에 터를 잡고 지나가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그들의 평범한 일상이다.

오일장 출신의 또순이는 팔자가 좋은 편이다. 목줄도 없이 할망의 꿈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다 보니 동네 마스크트가 되었다. 심지어 할망은 또순이가 힘들게 고생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몇 해 전 직접 병원에 가서 중성화 수술도 시켰다.

“아이고~ 새끼를 ‘땃록’ 다섯 번 낳았어 자이. 질 첫 번엔 세 마리 낳아 신가? 젠디 그제 죽어부런. 나가 밤새 혼자 내비두난게. 후제도 새끼를 낳았지만 누계가 사가지도 않고 데려가지도 않고게. 게난 나가 그 새끼들을 키우멍 목욕도 시키고 밥도 맥이고, 또순인 아기 나아부난 오몽도 못하고 애기들 걱정만 허여. 잠도 안 자고 감시감독허멍 다른 사람도 못 오게 한다. 그 강아지 새끼들 할망 노릇 허젠허난 나도 막 버쩐! 게난 병원 강 수술 해부렸지계.”

아이고~ 새끼를 다섯 번이나 낳았어 저 아이가. 제일 첫 번엔 세 마리 낳았나? 그런데 그제 죽었지 뭐야. 내가 밤새 혼자 내버려뒀으니까. 그 후에도 새끼를 낳았지만 누가 사가지도 않고 데려가지도 않고. 그러니 내가 그 새끼들 키우면서 목욕도 시키고 밥도 먹이고, 또순이는 아기를 낳았으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애기들 걱정만 하는 거야. 잠도 안 자고, 감시감독을 하면서 다른 사람도 못 오게 한다. 그 강아지 새끼들의 할미 노릇을

하려니까 나도 막 지쳤어! 그러니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해버렸지.

할망의 사랑을 홀로 독차지 하며 자란 또순이는 열네 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젊고 건강해 보였다. 할망이 시장에 가면 따라 오고, 술 취한 사람이 지날 때를 제외하면 짓지도 않는다는 또순이는 할망의 자랑거리다. 할망이 수 해 전 사고로 의식을 잃고 장기간의 입원 후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살이 쪽 빠진 채 또순이는 오매불망 할망만 기다렸었다.

할망은 맺어진 모든 인연을 허투루 대하는 법이 없는 그런 사람이다. ‘해녀대장’으로 살적에도 그랬고, 육지와 일본에 원정물질을 갔을 때에도 그랬다.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도 늘상 가족처럼 지냈다. 한 지붕 밑에서 일곱 살림의 도시사람들과 살아갈 적에도 그랬으며, 탐동매립투쟁을 함께 했던 젊은이들과도 할망은 늘 진심을 다해 사람을 대했다. 비록 기억이 사라지면서 그들의 이름은 물론 얼굴도 가물가물하지만, 작고 늙은 반려견을 대하는 그의 태도에서 많은 것을 본다.

“나는이,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민. 나 사는 걸 보라, 이제 곧 백 살아가게. 세상이 다 엮어져서 내 머리의 세상이 고대로 있질 않아. 그럴 땐 그자 죽어져시민 좋주게. 글썸, 스스로 죽지 못허는 것이 답답한 것이지. 아들이영 메뉴리영 뜯이영, 다들 이만이 사는 거 보민 나는 만족하지. 경허영 죽어지민, 바라도 죽질 못허여. 계난 죽지도 못허고! 또 살쟁허민 고

생이고게! 그런 거라.

...테레비 뵈시민 요새 사람들이 별 일을 가지고 다 죽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거, 그 자살이영 허는 것도. 죽을 일이 이시난 죽었겠주만은, 아이고, 나고추룩 산 사람도 이신디, 나 고튼 사람도 살았잔 그 사름들신디 강 골 아주라. 쟁, 먹영 죽는 물 시민 나신디 가정오랜 허여. 나가 먹영 대신 죽 어준덴 고르라!(웃음)”

나는 있지, 어떻게 생각을 하나면. 내가 사는 걸 봐, 이제 곧 백 살 아니냐. 세상이 다 얹어져서 내 머리의 세상이 고대로 있질 않아. 그럴 땐 그저 죽어지면 좋지. 글썄, 스스로 죽지 못하는 것이 답답한 것이지. 아들이랑 며느리랑 딸이랑, 다들 이 정도로 사는 것을 보면 나는 만족하지. 그렇게 죽었으면 하고 바래도 죽지는 못해. 그러니 죽지도 못하고! 또 살아가려 하면 고생이고! 그런 거지.

...테리비를 보고 있으면 요새 사람들이 별 일을 가지고 다 죽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거, 그 자살이라고 하는 것도. 죽을 일이 있으니 죽었겠지만, 아이고, 나처럼 산 사람도 있는데, 나 같은 사람도 살았다고 그 사람들에게 가서 말해줘라. 그래서, 먹고 죽는 물이 있으면 나한테 가져오라고 해. 내가 먹고 대신 죽어주겠다고 전해라(웃음)!

장난처럼 그 말을 하며 할망이 또순이를 부른다. “애야~ 또순아! 아이고 귀여워라. 뽀뽀할까, 할미하고? 뽀뽀해?” 누워서 살랑 살랑 꼬리를 흔들지만 움직이지 않는 또순이를 보며 할망이 웃으며 말

했다.

“이젠 저 작은 걸 의지삼아 살았시니게. 보라, 얼마나 아꼬우니? 아이고, 또순아~, 헤헤헤.(이젠 저 작은 걸 의지삼아 살고 있잖니. 보라, 얼마나 사랑스럽나? 아이고, 또순아~ 헤헤헤)”

마지막으로 나는 (조금은 미련한 질문처럼 느껴졌으나) 할망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강인하게 살아 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물었다. 할망이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문을 연다.

“나가 나 마음을 고라지민 얼마나 좋으크냐만. 해녀로 말을 허민, 해녀는 ‘욕심’이 이서야 살아.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물 밖에서 일할 때랑 바당에 강 일하는 것이 마음이 달라. 왜냐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도 안 되거든 바당에서는. 물에 강 전복도 봐지고 구쟁이도 봐지고 허민, 그걸 막 해오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까딱하민 숨이 다 되어서 경허당 죽는 거. 그 추룩 행 죽은 사름이 하.

...아이고 애야~. 나가 무시거랜 말을 끌어도이 그건 말로 할 수가 어따. 그자 그 상황에 가 보아야 알주, 설명을 어떻 허느니게! 그냥 주작주작 살았시민 된다게.”

내가 내 맘을 말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만. 해녀로 말을 하자면, 해녀는 ‘욕심’이 있어야 살아. 사람 욕심이라는 것이, 물 밖에서 일할

때랑 바다에 가서 일하는 것이 마음이 달라. 왜냐면, 욕심을 너무 많이 부려도 안 되거든 바다에서는. 물에 가서 전복도 봐지고 소라도 봐지고 하면, 그걸 막 해오고 싶은 욕심이 있어도 까딱하면 숨이 다 되어서 그러다 죽는 거. 그렇게 죽은 사람이 많아.

...아이고 애야~. 내가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건 말로 할 수가 없는 거. 그냥, 그 상황에 가 보아야 알지, 설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저 어찌저찌 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 다 합쳐도 열 시간이 채 되지 않는 대화였지만, 기억을 잃었다는 할망의 말이 거짓으로 느껴질 만큼 그것은 크고 넓고 깊은 세상의 이야기였다. 말씀하시면서도 “계난게! 잊어분중만 알아신디, 느가 영 물어보난 기억이 남져, 하하하!(그러게,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네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기억이 난다! 하하하)”하며 죽은 기억까지 최선을 다해 불러내어 주신 할망이다.

비록 살면서 진주 같은 보물은 한 번도 찾은 적이 없다고 했지만, 아흔을 코 앞에 두고도 바다를 그리워하는 할망이야말로 ‘탑동의 진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하루하루 기억이 희미해지는 할망의 시간이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지만, 남은 기억들과 조우할 수 있던 것은 큰 축복이었다. 한 지역의 과거와 현재를 살아온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난다는 것은 이토록 재미있고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계속 생겨 날 공간의 기억 속에서, 그의 목소리는 지역의 역사를 잇는

소중한 한 알의 진주와도 같다. 거친 바람과 파도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며 탐동 바다를 온몸으로 살아낸 할망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은 '만남'이라는 매듭이 전부다. 도시의 소음과 사람들의 무관심 속에 파묻힌 삼도리 해녀의 숨비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일 때다.

끝으로, 묵묵히 한 자리를 지켜가며 탐동 바다를 살아 온 삼도리 해녀 강달인 어르신과 그가 목숨보다 소중히 품어 온 자제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삼도리 해녀의 '공동작업' 관찰일기

삼도리 해녀에게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그들만의 물질 전통

사진 6. 소라 공동작업.

이 있다. 소라나 해삼을 공동으로 작업하는 날을 일 년에 몇 번 정해 놓고, 그날은 해녀 전원이 총출동해 바다로 나간다. 그리고 그렇게 수확한 것을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진다. 체력이 좋아 많이 수확하는 해녀도, 수영조차 힘든 늙은 해녀도 그날만큼은 함께 일한 수익을 공평히 나눈다. 별 거 아닌 것 같은 전통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바다에서 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생각이 그들의 바다를 지켜왔다. 어머니가 딸에게, 선배가 후배에게 물려준 물질의 기술 역시 그들 모두의 재산과도 같은 것이다. 연로한 해녀들의 존재를 축복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담긴 전통이다.

2015년 11월 3일. 동도 트기 전인 새벽 6시. 여느 때와 달리 일찍 기상한 나는 카메라와 간식거리를 들고 탐동 해녀 탈의장으로 향했다. 도착했으나 아직 아무도 없다. 그래도 삼춘들보다 늦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여기며 흐뭇한 모닝커피를 마신다. 오늘은 삼도리 해녀 삼춘들이 애지중지하며 길러온 탐동 앞 바다의 소리를 수확하는 공동작업하는 날이다. 젊은 삼춘도 늙은 삼춘도 전원이 집합하여 바다에 들어간다. 다행히도 오늘은 날이 화창하지만, 그래도 11월이다. 콧등을 스치는 바람이 차다. 잠시 후면 저 시퍼런 바닷속에 몸을 담글 삼춘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떨린다.

드디어, 하나 둘 해녀들이 등장했다. 해녀 탈의장에서 옷을 갈아입으며 목청 높여 수다를 떨기 시작한 삼춘들의 모습이 마치 아침부터 먹이를 나르며 흥겹게 지저귀는 어미새들 같다. 해녀회장의 지시가

있기 전까지 그들은 탈의장에서 전원이 집합하기를 기다린다.

8시가 되자 검정 고무옷으로 무장하고 전복칼을 허리에 꽂은 해녀들이 테왁을 짊어지고 방파제 밑 바다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탈의장에서 본 모습과는 달리, 장비를 챙긴 그들의 모습은 흡사 전투에 나가는 전사들 같다. 누가 누군지 나이를 가늠할 수 없을 만큼 모두의 행동이 재빠르고 능란하다.

‘퐁덩~!’ 드디어 시작이다. 멀리 나가기도 하고 가까운 곳에 떠있기도 하며 물질은 세 시간 정도 계속되었고, 나는 방파제 계단에 걸터앉아 그들을 바라보았다. 일 하는 자와 기다리는 자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내게는 길게만 느껴지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쉴 새 없이 바닷속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호~이~, 호~이~.”해녀들의 숨비소리는 언제 들어도 신비롭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소리이지만, 정작 나는 그 소리를 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물속에선 숨을 쉴 수 없는 인간이 가까스로 만들어내는 ‘목숨’의 소리다. 결코 편안하게 앉아서 들을만한 소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모두가 아무 탈 없이 작업을 마치고 올라오기를 바라며 바다를 바라보았다.

해녀회장의 지시로 작업이 끝났다. 삼촌들이 하나 둘 물으로 올라온다. 지칠 대로 지친 표정이 탈의장에서와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끝났다고 안도하는 표정이 아닌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결의에 찬 표정이다. 그도 그런 것이, 물질보다 어려운 일은 물건을 나르는 일이다. 테왁에서 수확한 소리를 꺼내어 그것을 크기 별로 나누고, 자루

에 담고, 수협에 넘기는 작업이 남았다.

물질이 끝나면 테왁을 짚어지고 물으로 올라오기만 하면 되는 어촌 마을의 해녀와는 달리, 삼도리 해녀들은 방파제 사이의 미끄러운 계단을 올라야 한다. 그것도 10킬로에 가까운 테왁을 들고... 도시에 서 해녀로 살아남기란 이처럼 가혹한 일이다.

때마침 한 해녀가 지나가는 행인과 관광객을 향해 손을 흔들기 시작했다. “아저씨~! 이거 나르는 거 도와주시면 제가 소라 드릴게요. 좀 도와주세요~!” 한다. 그걸 들은 사람들이 방파제 쪽을 쳐다본다. “아이구, 여기 해녀가 계셨네?” 지나가던 관광객 아저씨가 선뜻 계단으로 내려갔다. 나 역시 손을 놓고 있을 수 없어 테왁 올리는 일을 도왔다. 그런데 막상 테왁을 손에 드니, 안에 든 것이 소라인지 쇠덩이인지. 웬만한 여자의 힘으로는 테왁 하나를 쉽게 들어 올릴 수가 없다. 심지어 계단은 미끄러워서 잘못 발을 디뎠다가는 그대로 시퍼런 바다에 빠질 것 같다. 탐동 해녀들의 작업환경은 꽤나 위험한 것이었다. 파도를 막겠다고 만들어 놓은 콘크리트 방파제에는 커다란 파도가 철썩 철썩 부딪힌다.

공짜로 소라를 준다는 말에 혹해서, 혹은 따뜻한 선의의 손길로 그들을 돕고 싶어졌을 지나가던 아저씨들이 몇 명 더 멈추어 섰다. 망사리가 터질 것 같이 짹 짹 소라가 테왁 째로 하나 둘 올라왔다. 삼촌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산처럼 쌓인 소라를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수확의 기쁨이다.

작업이 끝나니 점심시간이다. 누군가가 새벽부터 일어나 분주히

준비했을 하얀 쌀밥과 몇 가지 반찬이 보인다. 모두 샤워를 마치고 다시 해녀 탈의장에 모여 앉았다. 하지만 해녀회장님이 보이질 않는다. 어디 가셨냐 물으니 밖에 계시다 해서 나가보았다. 회장 삼촌은 수협에서 올 트럭을 기다리며 밖에서 혼자 밭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수확한 소리를 열 자루도 넘게 쌓아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좀처럼 트럭이 오질 않았기 때문이다. ‘내리쬐는 별에 소라의 신선도가 떨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회장해녀의 모습에서 그의 리더십을 본다. 다들 점심을 먹는 동안, 회장은 젖은 몸으로 수협의 트럭이 나타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다. 늦게 온 수협 트럭에게 큰소리로 야단을 쳤지만, 다행히도 그날 소라는 좋은 값에 팔렸다고 했다.

전부터 내려오는 공동작업의 방식에 따라 수익금을 공평하게 나눠 받았을 해녀 삼촌들은 과연 그 돈으로 무엇을 할까? 손주들에게 소고기를 사 줄까? 여러 가지 상상이 머리를 스친다.

아침 6시에 나와 작업이 끝난 시간은 오후 2시. 나는 그들을 지켜보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몇 시간 만에 폭삭 늙어 버린 기분이 들었다. 쏠살 같이, 마치 전투처럼 지나가버린 삼도리 해녀들의 공동작업은 그렇게 여섯 시간 만에 끝이 났다. 그들이 사라진 바다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의 풍경으로 돌아왔다. 먼 바다의 풍경만 바라보는 이에게는 보이지 않는 해녀의 삶이 힘겹게 살아 숨 쉬는 곳. 탐동을 가장 탐동답게 지켜온 도시 해녀 전사들의 투쟁 같은 삶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이슬의 뼈

- 목은 성 토박이, 아흔여섯 고두연 할머니



이슬의 뼈

- 목은 성 토박이, 아흔여섯 고두연 할머니

프롤로그

물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기 마련이다. 병문천 동안과 산치천 서안까지 두 물 길 사이에 자리한 마을이 무근성이다. 무근성은 제주성 밖의 서북방, 탑동과 병문천 하구 제주성 주변의 삼각주에 해당하는 공간으로 탐라국 시대에 있었던 옛 성터를 뜻한다. 무근성은 본래 ‘목은성’이었다. 소리나는 대로 적다보니 명칭이 지금처럼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새롭게 바



사진 1. 고두연 할머니

편 도로명주소 표기도 묵은성이 아니라 ‘무근성길’이다.

산지천은 무근성 서쪽을 흐른다. 1960년대 후반부터 복개공사가 추진되었다. 산업화·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물길 따라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서 생활오수와 쓰레기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이다. 1966년을 시작으로 산지천은 복개 공사를 했지만 그후 2002년 자연생태 하천으로 다시 하천 모습을 되찾았다. 지금은 산지천 탐라광장이 만들어져 탐라문화제 및 다양한 문화 프로젝트가 산지천 일대에서 펼쳐지고 있다. 반면 무근성 동쪽의 병문천은 복개공사로 뒤덮여 버렸다. 한라산 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오라동을 거치고 삼도1동 서쪽을 휘어 돌아 북쪽 바닷가로 흘러가는 병문천을 우리는 기록으로만 찾아 볼 수 있다. 병문천 안쪽, 즉 동안의 갯길을 병문안길이라 했는데, 병문천은 현재 복개되어 탐동로라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물길의 흔적을 살피기 어렵다.

고두연 할머니는 1922년 생으로 무근성에서 태어나 무근성에서 자랐다. 스무 살에 한 집 건너 무근성에 살고 있는 김범재에게 시집을 갔다. 결혼을 하고 남의 집 밖거리 생활을 할 때도 무근성을 떠나 본적이 없다. 처음 장만한 집도 무근성이다. 신작로가 나며 집을 허물고 새로 지은 붉은 이층 벽돌집도 무근성에 있다. 할머니는 지금도 자신이 새로 지은 집, 1층에서 생활한다. 2층에는 큰아들의 셋째 아들이 살고 있다. 할머니 연세가 아흔 여섯이기에, 손자는 이미 오십

이 넘었고, 증손자는 대학에 다닌다.

할머니집은 언제나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다. 며느리와 제주도에 살고 있는 딸들이 돌아가며 청소를 하고, 이부자리를 살피고 먹을거리와 간식까지 챙겨드린다. 주말이면 아들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 물리치료를 받는다. 할머니를 만난 여름 날 중 하루는, 복날이라 가족과 삼계탕을 먹으러 갈 것이라 인터뷰 시간을 옮긴 적도 있다. 할머니는 혼자 생활하고 있었지만, 집안은 여러 사람들이 드나들어 외로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잘 정돈된 할머니의 물건들과 살림들, 할머니의 생활 동선에 맞춰 정리된 간식과 약병들, 쾌청한 집안 공기는 할머니가 가족들에게 존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오그라진 시대

나이가 들면 무릎이 아파 침대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할머니는 놀랍게도 시집 갈 때 혼수로 가지고 간 요를 여전히 매트리스처럼 깔고 있다. 76년 전 시집 갈 때 장만한 솜으로 만든 요 위에서 여전히 주무신다. 솜 요 위에 여러 장의 다른 요를 깔아 놓으니 오래 전 솜으로 만든 두꺼운 요가 매트리스 역할을 한다. 장롱 안에도 이제는 무거워 덮지 못하는 솜이불이 잘 정돈되어 있다. 할머니는 자신이 혼수로 가지고 간 까는 이불 위에 앉아 손가락을 바지런히 움직이며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고두연 할머니는 구 남매를 낳았고 여덟 번의 출산을 했다. 한 번은 쌍둥이를 낳았기 때문이다. 아기를 낳으니 밭일을 할 수가 없어 공항에 나가 일본인에게 한국 돈을 바꿔주는 일을 했다. 아이들을 굶기지 않으려고 농사를 지었고, 당시에는 금지였던 일본물건 장사를 하며 돈을 모았다.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차례로 들어가니 회비 내기가 힘들어 새벽에 일어나 하귀와 조천장을 걸어가 계란을 사고 와 일본인 집을 찾아다니며 팔아 아이들 학교 회비를 냈다.

고두연 할머니는 1922년에 태어났다. 1922년은 소련이 건국된 해다. 소련이 탄생하던 해에 고두연 할머니는 태어났다. 소련은 사라졌지만 고두연 할머니는 남았다. 우리나라 현대사의 크고 굵직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버렁겅으로 아기기저귀 빨래를 하러 가거나, 남편이 굶어 온 솔잎을 오십 원에 팔며 우리나라 현대사와 함께 살아왔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의 생활에 대해, 제주도 4·3사건에 대해, 왜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런 시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물어보면 할머니는 시원한 대답을 하는 일이 없다.

할머니는 “왜정시대에는 일본인들이 어질었다.”라고 말을 한다. 나는 난감했다. 우리나라를 강제로 지배한 일본인을 어질었다고 말하다니, 게다가 처음 인터뷰를 할 때 4·3사건 피해자가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했을 때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인터뷰가 끝나갈 무렵 4·3 사건 희생자가 한 명도 없다는 할머니의 말이 무색하도록 자신이 경험한 고통스러운 시간을 기억해 냈다. 할머니가 고통의 시간을 보냈으니, 할머니 자신이 피해자다. 대화를 나누다보니 “4·3사건은 애매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는 할머니의 말처럼, 할머니의 가족 중에도 희생자는 있었다. “6·25전쟁이 끝나자 폭도를 다 쓸어 갔다.”, “박정희 대통령 덕분에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라는 말은 ‘괘흠’한 시대를 살아 온 할머니의 당연한 생각일지도 모른다.

‘괘흠’이라는 단어는 할머니에게 배운 단어인데 할머니는 오래 살고 싶다면 ‘괘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괘흠은 ‘오그라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할머니가 살아온 시대는 언론과 정치가 괘흠한, 오그라진 시대였다. 그런 시대를 살아온 할머니가 할 수 있는 말은 오그라진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잃어버린 여성들의 삶을 자주 생각했다. 세월이 흘렀어도 여성들이 삶을 직조하는 형식과 오늘날 여성들이 삶을 직조하는 형식은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이나 오늘날 여성은 다른 디자인의 옷을 입고 다른 삶을 살고 있어 보인다. 하지만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여성이 입는 옷감을 짜는 직조 형식은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옛날 여자들은 남자에 비해 다양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거나 다양한 삶의 계층으로 살아가기 힘들다. 옛날 여자의 삶은 지금 시대보다 더 한정적이다. 여자는 딸로, 아내로, 엄마로, 그리고 할머니가 되는 과정을 지나온다. 할머니 이야기 속에는 무근성에 살던 바농할망이라는 점쟁이와 같은 역술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그리고 동네 사내들의 월급 봉투를 통째로 가로채고, 집을 거덜낸 술집여자들도 대거 등장하지만 특별한 직업을 가진 여성의 삶이 아니고서는 여자들이 살아간 삶이란 비슷할 것이다. 보통 여자의 삶은 할머니의 말처럼 ‘종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처음 자신의 인생을 ‘종가질을 한 생’이라고 말할 때 깜짝 놀랐다. 자신의 삶을 너무 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들었다. 그러나 할머니가 말하는 ‘종가’란 ‘공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공일이란 남의 일을 돈 받지 않고 그냥 해주는 것이다. 할머니는 평생 며느리와 엄마의 삶을 살았다. 그리고 마을의 일들을 앞장서 했다. 그것은 정말 ‘공일’이었다.

“나는 평생 종가질 하명 살아서. 그러니까 오래 살아서.”

“나는 평생 종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오래 살았어”

하이고 잘도 해졌다

할머니는 체구가 작아 작은 새처럼 보였다.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처럼 손짓, 몸짓, 다양한 얼굴 표정으로 살아 온 삶을 이야기했다. 작은 새, 하지만 어느 날 홀연히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하나의 생(生)이 (제주도에서는 새를 생이라고 부른다), 작은 새처럼 앉아있는 할머니의 자세가 너무도 상징적이라 할머니의 음성을 녹음하는 과정 자체가 경이로웠다.

고두연 할머니는 이야기를 하시다 감정이 깊어지면 “하이고, 잘도 해졌다.”라는 말을 종종 내뱉는다. 아이고를 ‘하이고’라 한다. 보통 우리들이 ‘아이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아프거나 힘들거나 원통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탄식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물론 오랫동안 만나지 않던 사람을 우연히 만났을 때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라.”라는 표현을 하듯 정말 반가울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나 보통 ‘아이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눈물이 묻어 젖은 것 같은 축축한 느낌이 든다. 그러나 할머니가 내뱉는 ‘하이고’라는 감탄사는 축축한 느낌이 들지 않고 슬픈 생각도 들지 않는다. 사람들이 고통을 담고 뱉어내는 ‘아이고’라는 신음이, 할머니가 오랫동안 살아 오는 동안 햇빛을 받아 ‘하이고’라는 감탄사로 바뀐 것 같았다. 할머니는 슬픈 이야기, 아쉬운 이야기, 원통하거나 기막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슬픔에 잠기지 않았다. 다만 ‘하이고’라는 감탄사를 뱉었다.

호흡 같기도 하고, 해녀가 잠수를 하다 물 밖으로 나오며 뱀는 숨비 소리가 울리듯, 지나간 세월을 이야기하다 잠시 말을 멈추면 항상 ‘하이고’라는 감탄사를 내뿜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살아온 이야기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 할머니의 음성은 깃털 처럼 보송하다. 할머니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칭찬할 수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연세가 많아 무릎이 아프고 외출을 못 하지만 머리는 여전히 맑고 총명하다.

아흔 살의 손가락

“나가 무근성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에 왕이라. 경로당 노인회장도 나 신디 “삼촌이 이제 무근성 본토박이 중에, 왕이우다.”라고 고라서. 나가 무근성 왕이라.”

“나는 무근성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에 왕이다. 경로당 노인회장도 나에게 “삼촌이 이제 무근성 본토박이 중에서 왕입니다.”라고 말했어. 내가 무근성 왕이야”

할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세우고 춤을 추듯 말한다. 무근성의 왕, 우리는 무릎관절이 아픈 무근성의 왕을 만난 것이다. 할머니의 장롱 위에서 꺼낸 앨범에는 먼지가 수북했다. 먼지를 닦고 펼친 앨범에는 수



사진 2. 고두연 할머니 젊은 시절

많은 고두연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사진을 찍은 곳이 어디인지, 어떤 일로 그곳에 다녀왔는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한복을 멋지게 차려 입고 사진관에서 단체 사진을 찍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열다섯 살 갑장 모임 친목회 사진을 들여다 보며 할머니는 래퍼처럼 중얼거린다.

“야이도 죽고, 야이도 죽고, 야이도 죽고, 우리 임실이, 야이는 잘도 멧쟁이, 멧쟁이는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느니, 임실이도 죽고, 야이도 야이도 야이도 문딱 죽어 부렸다. 하이고, 잘도 죽었다.”

“이 아이도 죽고, 이 아이도 죽고, 이 아이도 죽고, 우리 임실이, 임실이는 정말 멋쟁이, 멋쟁이는 데리고 가지 말아야 하는데, 임실이도 죽고, 이 아이도 죽고 이 아이도 죽고 이 아이도 죽고 모두 죽어 버렸어, 하이고, 아주 넘치게 모두 죽어 버렸다.”

할머니의 말의 리듬을 따라가다 보면 ‘죽음’이라는 단어가 아이들 가수가 부르는 후크송처럼 들린다. 할머니의 친구들도, 할머니의 남편들도, 할머니의 신랑도 모두 죽었다. “하이고”라는 감탄사가 자주 반복되어서 그런 것일까. 할머니가 힘든 일을 이야기할 때도 그 이야기는 왜 즐거운 노래처럼 밝고 경쾌하게 들리는지 모르겠다.

아흔 살 넘은 할머니들은 모두 시인이다. 글자를 읽을 줄 몰라도 자신만의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는 할머니들을 만나면 진정한 시인을 만난 것 같다. 나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시인들은 대부분 아흔이 넘은 할머니들이다. 할아버지들은 그래도 글자교육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일제 강점기를 자란 시골의 할머니들은 한글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시골에는 한글을 읽을 줄 모르는 할머니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손재주가 좋다는 점이다. 바늘 하나로, 천과 천을 기워 옷을 만든다. 어떤 할머니는 손자에게 한글을 배워 읽을 줄은 알지만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는 통 몰라 읽어도 까막눈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집으로 찾아오는 요양사나 사회복지사가 집으로 날아온 고지서들을 천천히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드려야 한다.

고두연 할머니를 만나고 까막눈 할머니가 떠오른 것은 아흔 살 넘은 할머니들의 손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기 때문이다. 할머니들은 말을 할 때 섬세한 손동작과 몸동작을 하며 이야기를 한다. 고두연 할머니는 텔레비전이 생긴 이후로 치매 환자가 많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정말 할머니 주장처럼 텔레비전 때문에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난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가 만난 아흔 살 할머니들은 텔레비전이 없는 인생을 절반이나 살았다는 것이다. 그래서일까. 할머니들은 이야기를 하실 때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고 몸을 많이 움직인다.

옛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할 때 말로 부족한 것들을 손가락으로 몸동작으로 채워가며 이야기를 나누었으리라.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을 음성으로만 표현 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 아닌가. 우리는 텔레비전을 보며 자랐고, 지금은 손 안에 텔레비전을 하나씩 들고 다닌다. 설명이 복잡하면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금방 보여줄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손동작과 몸동작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의 아름다운 특징이 둔화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흔이 한참 넘은 나이에도 명랑한 목소리와 다양한 표정으로 자신이 살아 온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나뭇잎에 달린 싱그러운 이슬을 부리로 찍어 먹는 바지런한 새 같다. 결이 고운 나뭇잎 만 골라 이리저리 총총총 날아다니는 새. 그러다 갑자기 어딘가로 멀리 날아가 버릴 것만 같은 작은 새.

말과 글은 다르다. 텍스트로써의 글자들은 혼자서 일이다. 글자를 읽는 사람은 스스로 뜨거워지거나 점잖게 식는 과정을 혼자서 감당한다. 그러나 말은 다르다.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는 것은 온기를 나누었다는 것과 같다. 할머니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글자로 읽는 일과 다르다. 말은 따뜻한 손이 차가운 사람의 손을 잡아 주듯 다른 사람에게 건네 줄 수 있는 온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두연 할머니가 들려준 무근성 사람들의 온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심지어 할머니는 말이 아닌 손가락과 소리가 없는 얼굴 표정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글자로 잘 받아 적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무릎으로 낳은 아기들

고두연 할머니는 무근성에서 가장 오래 산 할머니이다. 할머니를 만나면 나는 가장 환한 질문을 하고 싶었다. 무근성이라는 단어에는 낡고 바랜 듯한, 저무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나는 첫 질문을 고르고 골랐다. “할머니, 이 동네에 살면서 가장 환하게 기억나는 일이 무엇인가요?”

“나? 아기 낳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지. 나가 9남매를 낳아서. 지금 손자랑, 손손자가 55명. 밤에 잠 안 올 때, 이 집이 몇 개, 이 집이 몇 개, 이 집

이 몇 개 하고 세어 보란 손자가 55명이더라고.”

“나? 아기 낳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 내가 9남매를 낳았어. 지금 손자랑 손손자가 55명이야. 밤에 잠이 안 올 때. 이 집에는 몇 명. 이 집에는 몇 명. 이 집에는 몇 명 하고 세어 보니까 손자가 55명이었어.”

아흔여섯 살 고두연 할머니를 찾아간 날, 할머니는 대문 앞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집으로 가고 있다 전화를 드리고 빈손으로 가는 것이 미안해 화과자를 사러 중앙로 한 바퀴를 돌았다.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얼마나 앉아 있었는지 나는 모른다. 미안한 마음으로 할머니를 부축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더운 여름날이라 그런지 할머니는 기력이 약해 있었다. 안방으로 들어가다 할머니는 거실에 주저앉아 버렸다. 힘들다는 것이다. 나도 할머니를 따라 거실에 앉았다. 나이가 들어 무릎이 아프다며 바지를 걷어 올리셨다. 부산에서 살고 있는 딸이 보내 주었다는 파스를 자랑하며 할머니는 말씀하셨다.

“나, 아흔여섯 살. 1922년생. 고두연이, 나 무근성에서 태어나. 무근성에 시집 강 자식을 아홉 명 낳았어. 지금 손자가 오십오 명, 손손자까지 세면 오십오 명, 경로당 노인회장이 나신디 그렇게 말해. “어르신이 이 동네에서 제일 왕이우다. 목은 성 토박이 중에 삼촌이 제일 왕이라 마썸.””

“나는 아흔여섯 살이야. 1922년 출생. 고두연이야, 나는 무근성에서 태

어나서 무근성으로 시집을 가 자식을 아홉 명 낳았어. 지금은 손자가 오십오 명이야, 손손자까지 세면 오십오 명, 경로당노인회장이 나에게 말했어. “어르신이 이 동네에서 제일 왕입니다. 묵은 성 토박이 중에 삼촌이 으뜸 왕입니다.”

할머니는 두 손으로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말한다. 왕, 묵은 성의 왕을 나는 만나고 있는 것이다. 무릎 관절이 아픈 묵은 성의 왕, 할머니는 무릎이 아픈 이유를 아이를 출산 할 때 무릎을 너무 많이 써서 그런 것이라 했다. 할머니는 총 여덟 번의 출산을 경험 하셨는데, 세 번째 출산까지는 친정어머니가 도왔다. 그러나 네 번째부터는 아기를 혼자 낳았다. 옛날에는 밭에서 일하다 아이를 낳고 낮으로 땃줄을 자르다 돌아가신 할머니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났다.

“나는 밖에서 아기 안 낳아봐서. 나는 다 집에서 낳았지. 아방이 뜨거운 물 떠서 가정오민 영 똥 누는 것 추룩, 응, 응, 응 하고 끙, 끙, 끙 하면 아기가 툭 떨어져. 응애 응애 응애 막 울어. 다음 번에도 이 추룩 앓앙 힘을 딱 주고, 응, 응, 응, 끙, 끙, 끙 힘을 주면 아기가 툭 떨어져. 아기가 응애 응애 응애 울어. 그렇게 아기가 떨어지믄 아버지가 가르쳐 준대로 아기 방식 쪽으로 배똥줄을 솔솔 정성스럽게 세 번 밀영, 아기 방식을 돌돌돌 감앙 잘 정리 해 똥으네 며칠 있당 바당드레 강 던져. 아기 방식은 집에 가정 이 시믄 안 되고 땅에 묻거나 바당드레 강 던지는데, 나는 문딱 바다에 강 던



사진 3. 고두연 할머니 가족 사진

저서.”

“나는 집 밖에서 아기를 낳아 보지 않았어. 나는 다 집에서 낳았어. 남편이 뜨거운 물을 떠서 가져오면 이렇게 똥을 싸는 것 처럼, 응, 응, 응 하고 끙, 끙, 끙 하면 아기가 툭 떨어졌어. 응애, 응애 응애 막 울어. 다음 번에도 이렇게 앉아서 힘을 딱 주고, 응, 응, 응, 끙, 끙, 끙 힘을 주면 아기가 툭 떨어지지. 아기가 응애 응애응애 울어. 그렇게 아기가 떨어지면 아버지가 가르쳐 준대로 태반쪽으로 탯줄을 살살 정성스럽게 세 번 밀어서, 태반을 돌돌돌 감고 정리 해 두었다가 며칠 지나면 바다에 가서 던지는 거야. 태반은 집에 가지고 있으면 안되고 땅에 묻거나 바다에 가서 던져

야 하는데, 나는 모두 바다에 가서 던졌어.”

할머니는 두 팔로 바닥을 짚고 무릎을 꿇어 앉아 힘을 준다. 네 발 달린 짐승처럼 아기를 낳는 흉내를 낸다. 친정어머니는 아기를 낳 때 “동무릎을 잘 보호하라”라고 했지만 할머니는 장판에 무릎을 꿇고 힘을 줘서 아기를 그냥 낳았다고 한다. 친정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아서 지금 무릎이 아픈 것이라 후회를 했다. 여덟 번의 출산으로 아홉 명의 자식을 낳은 할머니는 그러니까 세 번째 출산을 할 때는 쌍둥이를 낳았다. 지금도 무근성 옛지도에서 할머니 집은 쌍둥이네로 표기되어 있다.

“세 번째 출산을 할 때 아기가 툭 떨어져 나와신디. 그래도 배가 슬슬 아파. 호꿈이시믄 아기 방석이 나오겠주 하고 힘을 꾀 주난 아기가 하나 더 툭 떨어져 나와.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당 “우리 큰년이 쌍생을 낳았구나.”라고 말한 게 기억나.”

“세 번째 출산을 할 때 아기가 툭 떨어져 나왔어. 그런데조 배가 슬슬 아픈거야. 조금 있으면 태반과 탯줄이 나오겠지하고 힘을 딱 주는데 아기가 하나 더 툭 떨어져 나오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마당에서 기다리다가 “우리 큰딸이 쌍둥이를 낳았구나.”라고 말한 것이 기억이나.”

쌍둥이를 낳은 후 할머니는 남의 손을 빌지 않고 집에서 아기를 낳

았다. 친정아버지는 아기를 낳으면 똥배줄을 아기방석 쪽으로 정리하고, 돌돌 마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친정아버지가 가르쳐 준 방법을 잘 기억해 두었다가 네 번째 출산부터 혼자 땃줄을 털고 자르며 아기를 낳았다. 할머니는 직접 친정아버지에게 배운 똥배줄을 정리하는 방법을 손으로 보여 주었다. 손가락으로 무엇인가를 살살 쓸어내리는 듯한 할머니의 손가락을 바라보며, 그 손가락의 조심스러움 속에는 할머니보다 먼저 무근성을 살았던 친정아버지의 손길이 그리고 친정아버지의 아버지의 손길이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할머니가 파스를 붙인 무릎을 툭툭 친다. “이 파스는 부산 딸이 보낸 거라. 부산 딸이 십만 원이고 이십만 원이고 파스를 많이 보내 줘. 부산 딸이 보내 준 파스를 붙이면 하간 것이 다 나아”라고 자랑한다. “하이고, 잘도 보내.” 말하며 또 엄지손가락을 든다. 딸 자랑을 하는 것이다.

이슬의 뼈

하루는 할머니 집을 찾아가니 오래된 전화 수첩을 찾아 옛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보았다고 이야기를 한다. “영실이는 죽어붙었고, 선옥이는 딸인지 며느리인지 받아서 아팠으네 전화를 받을 형편이 아니라고 말하대.” 나는 할머니에게 왜 옛날 친구분들한테 전화 걸어 보셨는지 여쭙어 보았다. “니 왕으네 옛날 말 들으켄 허난, 옛날 생각

도 나고, 그리왕 전화 걸어봤주.”

1억 6000만 년 동안 지구에 머물렀던 공룡 뼈를 잘라보면 그 단면에는 무늬가 그려져 있다고 들었다. 나무에 나이테가 있듯이 뼈에도 1년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선이 있는데 이를 통해 공룡의 나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기 중의 수증기는 기온이 내려가거나 찬 물체에 부딪힐 때 엉겨서 물방울이 되는데 우리는 그 물방울을 이슬이라 부른다. 이슬은 눈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기도 하고 여자의 월경이나 해산 전에 나오는 누르스름한 물을 ‘이슬이 비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하루를 여는 해가 뜨기 전에 이슬은 빛나고, 새 생명이 탄생하기 전에도 이슬은 반짝인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것을 하루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고두연 할머니는 무근성에서 하루를 가장 많이 보낸 사람이다. 할머니는 새벽이슬을 많이 밟아야 했다. 할머니가 출산하기 전 비춘 이슬들, 살아오며 남 몰래 흘린 눈물들.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들의 이름들이 할머니 입에서 툭툭 뱉어질 때 나는 알았다. 그 이름들이 모두 이슬이라는 것을. 할머니는 저 세상으로 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른다. 그리워서 부르는 것이다. ‘별 나면 툭 떨어지는 이슬’같은 생을 살다간 무근성 사람들의 이름들이 할머니 입에서 나올 때마다 나는 그들을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무근성의 여러 가지 무늬를 본 듯한 느낌이 들었다. 할머니 입에서는 무근성을 지나간 이슬 같은 이름들이 많이 등장한다. 그 많은 이름들, 이슬들. 이슬을 자르면 단면이 있을까. 이슬도 무늬가 있을까, 이슬도



사진 4. 고두연 할머니 친정집

뼈가 있을까. 그 경이로운 질문을 던지며 할머니의 생을 담는다.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고맙져. 사람 목숨 이슬 아니까, 벗 나문 툇 떨어져 분다”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사람 목숨은 이슬이라고, 햇벌이 비추면 사라지는 것이다.”

고두연 할머니는 1922년에 음력 1월 29일 무근성 막끝집에서 태어났다. 3·1운동이 있던 다음 해 제주는 괴질로 죽은 아이들이 많았다.

1920년대 ‘제주도의 참상’이라는 신문 기사를 읽어 보면 “제주도의 괴질은 나날이 몇 갑절씩이 만연하야 요사이에는 그 환자의 수효는 이 천 명 넘어 이제는 얼마 되지 아니하야 제주도의 전부는 아조 전멸하다 시피되야 괴질이 발생한 처음부터 상점은 물론이고 조고만한 쌀가게까지라도 모다 문을 다치고 제주도의 시장은 전쟁을 치루는 것 가치 삭막한 살풍경을 이루어 제주도의 사업계는 타격을 받는다더라.”라고 쓰여 있다.

괴질이 돌면 구제역바이러스가 퍼져 돼지나 가축들이 쓰러져 죽어나가는 것처럼 어린 아기들이 죽어나가던 시절에 고두연 할머니는 태어났다. 할머니는 고일룡과 김가의 7남매 중 셋째 큰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부터 무근성에 살았는데 그 전은 알 수 없다고 한다.

고두연 할머니 친정집은 쌀부자로 유명한 무근성 막끝집이다. 친정아버지가 농사를 많이 지어 항아리와 뒤횀에 쌀이 가득했다. 탐동에서 생선을 팔던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다 팔지 못한 생선을 들고 와 할머니 집에서 쌀을 바꾸어 갔다. 친정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옛날 사람들은 먹을 거 어성 자기가 눈 툽 먹으며 살아서.”라는 이야기를 자주했다. 가끔 동냥아치들이 와서 밥 한 숟가락만 주라고 하면 어머니는 한 숟가락은 줄 수가 없으니까 밥을 한 주걱 밥을 떠서 나눠 주었다. 쌀을 나눠주는 것은 어머니 몫인데 가끔씩 아버지가 “쌀 하영 나누지 말라. 아이들 배 굶는다.”라고 말했다. 친정집은 쌀부잣집이라 어린 시절 굶으며 살아 보지 않았지만 당시 배를 굶는 아이들은 무근성에도 많았다. 점심을 먹으려고 가족과 마

당에 앉으면 할머니 친구들이 대문 앞에 올랑올랑 붙어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밭에 가 버리고 점심을 굶는 아이들이다. 친정아버지가 “들어 왕 혼디 먹으라”라고 말을 하면 말 끝나기 무섭게 달려들어 함께 밥을 먹었다.

고두연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어린 시절, 그러니까 가장 오래 된 이야기는 가마솥에 밥을 지은 이야기다.

“나가 여덟 살이 어신가, 일곱 살이 어신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밭에 가 민, 나가 가마솥에 밥을 해. 보릿낭으로 밥을 삶으면 보릿낭에서 와다닥 와다닥 불씨가 막 떠올라. 불씨가 바닥에 떨어지면 달려가 불씨 콧 밭고, 또 불씨 떨어진 곳으로 가서 불씨 콧 밭고, 밥을 했지. 밥을 해 놓으면 마당에다 덩석을 깔아. 경행 밥을 퍼 담아 날라. 자리젓이랑 된장국이랑 올려 놓앙. 손가락을 수정에 맞게 차려 놓고, 올레 어깃담 드레 올라강 앉앙 뵈리는 거라. 아버지, 어머니 왓신가 바래어.

또 옛날에는 고냉이가 천지라, 눈 깜짝 할 사이에 고냉이가 와서 밥을 먹어 가부난 빗자락을 딱 심었네. 부모님네 왓신가 한 번 보고, 고냉이 들지 안 햄신가 한 번 보고,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어깃담 위에 올라 앉앙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주게, 고냉이가 달려들면 빗자락으로 다 올리멍. 어머니랑 아버지랑 밥을 먹엄시든 우리 동기 간 친구들이 굶어져 가면 주랭이 왕 앓아. 아빠랑 엄마가 이리 와서 밥 먹으라 말하든 돌려 들 영 밥 먹어.”

“내가 여덟 살이거나 일곱 살이 있을 때야. 아버지와 어머니가 밭에 가면, 나는 가마솥에 밥을 하지. 보리 짚으로 쌀을 꿇이는 거야. 보리 짚에서 와다닥와다닥 불씨가 자꾸 떠오르면. 불씨가 바닥에 떨어지면 달려가 불씨를 짹 밟고, 또 불씨 떨어진 곳으로 가서 불씨 짹 밟고, 밥을 했지. 밥을 해 놓으면마당에다 명석을 깔아놓고. 그렇게 한 뒤 밥을 그릇에 담아 옮기는 거야. 자리젓과 된장국을 차려 놓고. 숟가락을 사람 수에 맞게 차려 놓고, 골목길 담 위에 올라가 앉아서 보는 거야. 아버지, 어머니 오는지 바라보고, 또 옛날에는 고양이가 너무 많아서, 눈 깜짝 할 사이에 고양이가 와 밥을 먹어 가버릴 수도 있으니까 빗자루를 단다히 쥐고, 부모님이 오는지 한 번 보고, 고양이들이 들어오지는 않는지 한 번 보고, 고개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골목길 담 위에 올라가 앉아 부모님을 기다리는 거지. 고양이가 달려드면 빗자루로 쫓아냈지.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밥을 먹을 때면 나랑 또래의 친구들이 배가 굶주리다 보면 가까이 와서 가만히 앉아.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리 와서 밥 먹으라고 말하면 달려 들어서 밥을 먹었지.”

할머니가 새끼손가락을 보여 주며 말했다. 다른 손에 비해 새끼손가락이 짧았다. 뱀에게 물린 흔적이라고 말했다.

“옛날에는 고냉이도 많았지만 뱀도 많아. 아버지가 물위를 하나 주니까 아껴서 먹으려고 나무 귀짝 뒤에 숨겨 놓았지 혼자 먹으라고 그래서 나중에 혼자 먹으려고 손을 쪽 들이미니까 뭐가 콧 물어. 뱀이라, “아이고

아버지 나 뱀 물려 수다.” 하고 소리 지르니까 손가락에 뱀이 문 흔적이
 이서. 독뱀이었나싱고라 머리가 어질어질 해. 아버지가 나무 께작을 들어
 올령 뱀을 획 낚아챙 마당으로 패대기치고 장칼로 뱀의 허리를 단칼에 잘
 라.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기력을 잃고 열나고 시름시름 앓았신디.
 아버지가 낭불을 지평. 뱀을 나뭇가지에 꽃앙 불 위에 자글자글 구우난
 기름이 배갈배갈 행 그거 떨어진 것을 모아서 나 손가락에 발라 주난. 나
 가 펜도퉁해 저서. 그리고 머리카락 뽑앙 뱀 문 디를 동여 매. 아버지가 만
 들어준 약으로 나가 그 때 살았지. 우리 친정아버지가 막 영리했거든.”

“옛날에는 고양이도 많았지만 뱀도 많았어. 아버지가 물외를 하나 주
 니까 아껴서 먹으려고 나무 께 뒤에 숨겨 놓았어 그래서 나중에 혼자 먹
 으려고 손을 안쪽으로 담으니까 무엇인지 콧 무는거야. 뱀이야, 아이고
 아버지 나 뱀 물렸어요. 하고 소리를 지르니까 손가락에 뱀이 문 흔적이
 있어. 독뱀이었나봐 머리가 어질어질 하는거야. 아버지가 나무 께를 들어
 올려서 뱀을 획 낚아채가지고 마당으로 던진 다음 장칼로 뱀의 허리를 단
 칼에 잘랐어.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기력을 잃어가고 열도 나고 시
 림시름 앓고 있는데. 아버지가 나무로 불을 지펴서. 뱀을 나뭇가지에 꽃
 고 불 위에서 구우니까 자글자글 소리를 내면서 기름이 배갈배갈 하는거
 야 그 기름 떨어진 것을 모아서 내 손가락에 발라 주니까. 나는 편안해 졌
 어. 그리고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 뱀이 문 자리를 동여 매니까. 아버지가
 만들어준 약으로 내가 그 때 살았지. 우리 친정아버지가 아주 영리했거
 든.”

할머니는 나무 껍질 뒤에 물의를 숨기는 것부터 뱀에 물리는 순간, 그리고 장칼로 아버지가 뱀의 허리를 자르는 행동까지 실감나게 보여 주었다. 뱀을 한 번도 구워 본 적이 없는 나로서는 죽은 뱀을 구우면 배갈배갈 기름이 떨어지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만들어준 뱀기름약이 할머니의 상처를 정말 해독해 주었는지, 그리고 머리카락이 정말로 상처를 감싸는 밴드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다.

주술들

뱀 물린 자국을 동여 맨 머리카락이 효과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할머니의 몸짓과 행동을 보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다. 할머니는 여러 가지 주술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늘어놓는다. “할머니, 이렇게 오래 산 비결이 무엇인가요?” 할머니는 자신이 오래 산 비결은 사람을 많이 살린 댕가라고 말한다.

“나가 오래 산 이유는 사람을 하영 살려서. 남열이가 하혈을 한다고 하는 거라. ‘아이고, 성님, 병원에 가서 이백만 원을 들여도 하혈이 멈추지가 않습시다.’ 그러니까 나가 고라줬지. ‘머리카락을 태워 먹어 보라.’ 남열이가 ‘아이고, 성님, 나 할 줄 모르난 해주고 감사.’ 머리카락을 약으로 먹을 때 진진한 머리카락이 필요해. 긴 머리카락을 남열이가 얻어 오난

하이타이로 머리카락을 먼저 빨아. 그리고 햇빛에 잘 말려. 머리카락이 다 마르면 시멘트 바닥에 낡으네 불을 확 붙여. 그럼 머리카락이 오그라 들멍 한 덩어리로 뭉쳐. 그럼 그것을 깨 뽑는 디에 낡 고슬고슬하게 가루로 췌사. 경허영 소주잔에 모아. 남열이한테 “코잡앙 확 먹어 불라. 그리고 동그리 하나 물어 불라.””

“내가 오래 산 이유는 사람을 많이 살렸기 때문이야. 남열이가 하혈을 한다고 하는 거야. “아이고, 형님, 병원에 가서 이백만 원을 썼는데도 하혈이 멈추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해주었지. “머리카락을 태워서 먹어 보아라.” 남열이가 “아이고, 형님, 나는 만들 줄 모르니 해 주고 사세요.” 머리카락을 약으로 먹을 때에는 긴 머리카락이 필요해. 긴 머리카락을 남열이가 얻어서 오니까 하이타이로 머리카락을 먼저 빨았어. 그리고 햇빛에 잘 말려. 머리카락이 다 마르면 시멘트 바닥에 놓고서 불을 확 붙이는 거야. 그럼 머리카락이 오그라지면서 한 덩어리로 뭉치는 거야. 그럼 그것을 깨를 빵는 곳에 놓고 고슬고슬하게 가루로 빵아서,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소주잔에 모아두고. 남열이한테 “코를 잡고 한 번에 마시고. 사탕 하나 먹어 보아라.””

남열이는 할머니가 만들어준 머리카락 소주를 한 잔 먹고 하혈을 멈췄다. 병원 가서도 못 고친 하혈을 할머니 덕분에 고쳤다고 만날 때마다 고마워했다.

“하이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부난 남열이도 죽었고.”

“하이고, 이제는 세월이 흘러 남열이도 죽었버렸어.”

하루는 동문로터리를 지나가다 한 아주머니가 애타게 울고 있는 걸 보았다. 그 옆에는 학생 하나가 쓰러져 있었다.

“아주망 하나가 ‘아이고 어떡허코, 아이고 어떡허코’ 하면서 울엄서. 나가 가까이 가서 보니 단번에 알았어, 이진 급체구나. 울던 아주망이 나를 보고 ‘아이고, 아주머니 병원 가서 진료를 받았 오는 디 갑자기 아이가 숨도 못 쉬고 얼굴이 새파래지멍, 여기 누워부러 수다게’ 나가 다시 보아도 학생은 그냥 급체라, 나가 학생의 셔츠를 올령 배에다 손을 딱 붙여서 동드레 동드레 동드레 서드레 서드레 서드레 돌리고 이리로 저리로 배를 손으로 돌랑 다음 등을 탁탁 치난 아이가 ‘헉’ 하고 소리를 낸 다음 펜도롱 해전. ‘아이고 이 아주머니는 누구파. 어떤 어른이라서 우리 아이를 살려 수과.’ 나한테 이름을 막 물어 보데, 나 이름도 안 고라쳐 줘. ‘아이가 살아 시른 가던 길 가시오.’ 나가 그렇게 말하고 딱 돌아서 가던 길 같지, 하이고 잘도 살렸다.”

“아주머니 하나가 ‘아이고 어떡하지, 아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울고 있었어. 내가 가까이 가서 보니 단번에 알겠더라고, 이진 급체구나. 울던 아주머니가 나를 보면서 ‘아이고, 아주머니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오는 데

갑자기 아이가 숨도 못 쉬고 얼굴이 새파래지면서, 여기 누워버렸어요”
 내가 다시 보아도 학생은 그냥 급체같았어, 나는 학생의 셔츠를 올려서
 배에다 손을 딱 붙이고 동쪽으로 동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서쪽으로 돌리고 이리 저리 배를 손으로 돌린 다음 등을 탁탁 치니까 아
 이가 “헉” 하고 소리를 낸 다음 편안해 졌어. “아이고 아주머니는 누구신
 가요? 어떤 어른이라서 우리 아이를 살려주시나요?” 하면서 나에게 이름
 을 막 물어 보는 거야, 난 이름도 안 가르쳐 줬어. “아이가 살았으면 가던
 길 가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뒤 돌아서 가던 길을 가버렸지, 하이고
 정말 잘 살렸다.”

할머니가 오래 산 또 다른 비결은 송씨할망 덕이라고 말한다. 할머
 니의 친정집은 부자였지만 한 집 건너 시집 간 시댁은 물려받을 것
 없이 망한 시집이었다. 할머니는 시집을 가 찻순가락 하나 물려 지
 못했지만 아들은 모두 대학 공부를 시켰고 여섯 딸을 모두 고등학교
 를 졸업시켰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재산까지 물려주었다고 자랑을
 한다. 손자들도 남의 집 사는 아이가 하나 없도록 기반을 다질 수 있
 던 이유는 모두 송씨할망 덕분이라고 말한다.

할머니가 시집을 간 뒤 점을 보러 가면 점쟁이들이 모두 집안에 제
 사를 안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점쟁이들이 모두 “무
 방천을 위로 하시오”라는 말을 해서 시아버지에게 집안 사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 보았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만삭으로 죽은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 열여덟 살이었고, 임신 8개월이던

새각시가 죽자 시아버지는 한림 녀빌레에 관을 놔두고 빨래방망이 하나 달랑 세워 놓았다고 했다. 제사는 당시에 시아버지와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생각나면 물 한 사발을 올리거나, 잊어버리면 그냥 잊어버린 채 지나 간다고 했다. 고두연 할머니는 어린 아이를 뱃속에 둔 채 죽은 어린 여자의 사연이 너무 슬퍼서 위로를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시아버지에게 자신이 그 제사를 자신이 맡겠다고 한다.

“갓 시집을 간 때라. 점쟁이들이 “무방천을 위로 하시오.”라는 말을 자꾸 하니까 시아버지한테 물어보았지. 사연이 너무 불쌍하고 인정이 생겨서 시아버지에게 “제삿날이 언제우파, 나가 제사 모시쿠다.”라고 말하니 시아버지가 막 지꺼정. 음력 8월 12일이 이라고 하니까 그 제사를 맡앙 하는데, 그 날 즈음이면 꼭 외상값이 들어오던지 일본 돈을 크게 바꾸는 일이 있든지 좋은 일이 꼭 생겨. 하루는 추석날 오리엔탈 호텔 사장이 대문드레 들어 오멍 “나 500달러 바꿔 줘써.” 하기에 거실에 방석 깔앙 “여기 조금만 앉앙 이십써.” 하고는 큰며느리신디 매 꿍염시라고 하고 일본 돈을 바꿔당 줘주게. 하이고, 추석 날 생각하지도 았은 돈이 들어 왕. 경허난 송씨할망이 다 보살피는 거라. 큰아들 신디 팔월 보름 추석을 맡을 것이냐 아니면 팔월 열이틀, 송 씨 할망 제사를 맡을 것이냐 물으니까 송씨할망 제사를 맡아 갔는데, 그 후로 여관도 하고 돈을 하영 벌어서 성공 헐. 다 송씨할망 잘 모신 덕분이라.”

“이제 막 시집을 간 때였어. 점쟁이들이 “제사를 안 지내는 사람을 위

로 하시오.”라는 말을 자꾸 해서 시아버지한테 물어 보았어. 사연이 너무 불쌍하고 인정이 생겨서 시아버지에게 “제삿날이 언제인지 물어 보았어. ”내가 제사를 모실게요.”라고 말 하니 시아버지는 아주 좋아했어. 음력 8월 12일이라고 하니까 그 제사를 맡아서 하는데, 그 날 즈음이면 꼭 외상값이 들어오거나 일본 돈을 크게 바꾸는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꼭 생겼어. 하루는 추석날이었는데 오리엔탈 호텔 사장이 대문 안으로 들어 오면서 “나 500달러 바꿔 주세요.” 하기에 거실에 방석을 깔고 “여기 조금만 앉아 계세요.” 하고는 큰 며느리에게 국 끓이라고 해 놓고 일본 돈을 바꿔다 준 일도 있었어, 하이고, 추석 날 생각하지도 않은 돈이 들어 온 거야. 그러니까 송씨 할머니가 다 보살피는 거야. 큰 아들에게 팔월 보름 추석을 맡을 것인지 아니면 팔월 열 이틀, 송 씨 할머니 제사를 맡을 것인지 물어보니까 송씨 할머니 제사를 맡아 갔는데, 그 후로 여관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했어. 다 송씨 할머니를 잘 모신 덕이라고 생각해.”

고두연 할머니는 한림 녁빌레로 갔다. 시아버지가 말한 대로 만삭인 채로 죽은 시어머니의 관은 솜방망이 하나만 놓여 있는 채 빌레 위에 있었다. 시간이 흘렀어도 얼굴 고운 게 그대로 남아 있었다. 친정아버지는 임신 8개월이면 한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며 배 안에 든 생명을 다른 창호지로 싸라고 가르쳐 주었다. 시아버지는 당시 발이 많을 때였다. 묘자리를 하나 주라고 하니 밭 구석 베케(낭떠러지)를 치우고 묻으라 했다. 베케를 치웠는데 바위면 어떻게 하나고 걱정을 하니 시아버지가 “그럼, 할 수 없주.”라는 말만 했다. 할머니는 걱정

을 하며 명월 사람을 빌어 베케를 걸어 보니 흠이 자박자박해서 신이 낫다고 한다. 할머니는 봉분을 단단하게 만들려고 정성으로 흠을 밟았다. 그리고 돌담까지 만들었다. 어린 나이에 죽은 불쌍한 여자와 세상을 보지도 못하고 죽은 아기의 무덤이 할머니의 정성으로 자리를 잡았다. 비양도가 훤히 보이는 곳이라고 했다.

“곶은 두 개로 가르고 봉분은 하나로 삼았주. 베케 치운 돌로 몬 돌아 산담을 바르게 만들었주. 비양도가 훤히 보여. 이름은 몰라, 송씨할망이라고 부르는데. 그 할망이 나를 잘 해 준거라. 갓 태어날 아기 영혼은 얼마나 억울할 거라. 그래도 얼굴은 고마니 싶대. 얼굴이 고와. 그 여자가 죽으니까 한림 사거리에 관을 내려 놓으난 우리 시아방이 관 위에 엎터정 막 울었덴 소문만 들어서.”

“시체 영겨 붙은 것을 두 개로 가르고 봉분은 하나로 삼았어. 절벽 가까운 곳을 치워 언은 돌로 모두 돌아 산담을 바르게 쌓았어. 비양도가 훤히 보였지. 이름은 몰라, 송씨 할머니라고 불렀는데. 그 할머니가 나를 잘 해 준 것이라고 생각해. 이제 금방 태어나려고 한 아기 영혼은 얼마나 억울한 마음이겠어. 그래도 얼굴은 그대로 있었어 얼굴이 아주 예뻐서. 그 여자가 죽으니까 한림 사거리에 관을 내려 놓으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관 위에 엎드려서 엄청 울었다고 소문만 들어.”

머리카락을 태워서 만든 가루로 하혈을 멈추고, 급체한 아이를 살

린 일들이 할머니를 오래 살게 했다는 주술 같은 말들을 믿기 어렵다. 하지만 또 믿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하혈을 하던 남열이, 길을 가다 우연히 만난 학생, 그리고 송씨할망의 봉분을 만들어 준 이야기를 할머니는 여러 번 말했다. 여러 번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사람을 살린다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본다. 살아서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죽은 사람이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연을 귀하게 여기라는 것 아닐까.

묵은성 휘영청 달은 밝고

등불이 없으니 어린 시절에는 달 밝은 날이 좋았다. 묵은성 마을 사람들은 낮에는 밭일을 하고 밤에는 전봇대 아래 모여 놀았다. 저녁에는 불 켜진 곳이 전봇대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 아래 모여 앉아 밥을 먹기도 하고 돌음박질을 하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끼리 불미스탁도 했다. 돌맹이를 손에 몇 개 쥐고, 불미불미스탁, 불미불미스탁이라고 노래를 부른다. 손안에 돌이 몇 개 들었는지 알아맞히는 놀이다. 여자아이들끼리 물 길으러 용머루에 가는데, 물이 들면 짜니까 물이 안 드는 물때를 맞춰서 가야한다. 물 뜨러 가다 대박이를 벌러 먹으면 집에가서 매 맞을까봐 무서워 집에 가지 못하는 우는 여자아이들도 있었다. 할머니도 대박이를 깨뜨리고, 아버지한테 매 맞아 울었던 이야기를 들려준다.

고두연 할머니는 북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열일곱 살 정도의 여자 아이들은 시집가기 전 야학을 다녔다.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정부에서 일본책을 싹 걷어갔는데 그때 일본 사람도 다 제주도를 떠났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은 조선을 나가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돌아올 날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일본책을 걷어 가 버리자 한글공부를 시작했다. “아이우에오, 가기꾸게고, 가가겨겨고고구기, 가기구게고, 나니누네노, 사시스세소” 할머니는 앉은 자리에서 어린시절처럼 우렁찬 목소리로 글 공부 하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선생님은 “한글을 바르게 읽으라. 다시 거꾸로 읽으라. 다시 바르게 읽으라. 다시 거꾸로 읽으라.” 하며 한글을 가르치셨다고 한다.

야학을 가면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저녁 7시 정도 되면 친구들이랑 야학이 있는 향교에 갔다. 여자들만 다니는 야학이었다. 고 선생님이 일본말도 배워 주고, 한글도 가르쳐 주었다. 체육이나 다른 과목은 없었고 그냥 글자만 배우는 곳이었다. 야학은 3년 정도 다녔는데, 동네 친구들도 야학을 다니다 시집을 가면 야학을 다니지 않았다. 학교가 끝나 집으로 가다보면 남자가 따라 올 때가 있다. 그럼 큰오빠가 길에 있다가 “너 이 새끼, 너 누구네 집 아들이냐”라며 소리를 지르면 오빠들이 기운이 세고 힘이 좋으니까 따라오던 남자들이 도망가 버렸다. 그래서 할머니도 남자가 쫓아오면 “너 누구냐? 너 우리 큰오빠한테 고라 분다.” 하고 소리쳤다고 한다. 야학을 함께 다니던 갑장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죽어서 한 명도 없다.

친구들 시집을 갈 때 구경을 가면 절대로 신부를 울게 만들면 안 된다. 신부가 울면 시집 간 집이 못 산다고 울지 말라고 했다. 만약 우는 신부가 있으면 사람들이 “아이고 저 새각시 신세 조졌져. 끝장났져.”라고 흉을 보았다.

무근성 여자아이들은 시집가기 전 집에서 대부분 탕건을 만들었다. 할머니도 시집가기 전에는 탕건을 만들어 돈을 모았다. 돈을 모아, 시집 갈 때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탕건은 말꼬리인 말총으로 만들었다. 관덕정에 가면 탕건을 사러 온 사람들이 댕돌 위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탕건을 사서 육지에 올려 보냈다. 친정아버지는 솜씨가 좋아서 대나무를 아주 가늘게 잘라 꼼꼼하게 세워 그 사이로 말총을 하나씩 끼우고 엮어 탕건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탕건 하나를 만들려면 열흘이 걸렸다. 친정아버지와 어머니도 농사를 못하는 흐린 날이나 농사를 짓지 않을 때 탕건이나 갓을 만들었다.

탕건을 만들면 관덕정 앞 댕돌 앞에 모여들어 탕건 사가는 사람들에게 팔았다. 탕건의 가격은 서 돈, 너 돈, 너 돈 오피스로 나누어지는데 너 돈 오피스 주는 탕건이 가장 최고의 상품이다. 할머니가 만든 탕건은 대부분 너 돈에 팔렸다. 나쁜 탕건은 흑 던지면서 “이건 안사요.”라고 말한다. 할머니는 탕건을 파는 날 아침 일찍 관덕정에 갔다. 늦게 간 사람은 뒤에 서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만든 탕건을 못 팔고 갈 때도 있다. 탕건을 잘 팔려면 일찍 가서 댕돌 앞에 가 딱 붙어 있

어야 한다. 앞에 서려고 몸싸움을 하다 보면 웃고름이 문드러지고 떨어지기도 한다. 탕건을 빨리 팔고 싶은 마음에 일등으로 관덕정에 도착하겠다는 작정을 하고 새벽 일찍 나가도 관덕정에 나가면 사람이 천지였다. 사람들이 왕왕했다. 탕건 받는 사람들이 덧돌위에 앉으면 사람들은 자신이 만든 탕건을 먼저 봐주라고 손을 높게 들었다. 사람들이 탕건을 팔려고 뒤에서 밀치고 밀리면서 탕건을 팔고 나와 보면 머리카락도 부영해졌다.

탕건을 팔아 옛날 사람들은 쌀도 받아먹고 고기도 사다 먹고, 갈치, 고등어도 사다 먹었다. 탕건을 팔기도 했지만 어머니가 “감자 한 짐 정강 팔앙 오라.”라고 하면 감자나 고구마를 지고 팔고 왔다. 감자와 고구마를 등에 지고 “놀러 갈 땀 고구마를 사세요. 고구마를 찌서 가져가세요.” 하며 팔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여자 아이들은 시집갈 때 여러가지 물건을 산다. 할머니도 시집 갈 때 새 옷도 사고, 시댁의 선사품도 샀다. 할머니는 자신이 모은 돈으로 한복을 해 입었다. 한복은 버선, 속치마, 바지저고리가 있는데 두루마기가 가장 비쌌다. 무근성에는 두루마기만 맡아서 하는 남자 어른이 있었다. 남자 어른은 두루마기만 만들었는데 바느질이 꼼꼼해서 최고로 쳤다. 그때 만든 두루마기가 아직 할머니 옷장에 있다. 그 시절 신부들이 시집 갈 때 모두 두루마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비싸기 때문에 아무나 두루마기를 해 갈 수는 없었다. 두루마기를 만드는 남자 어른은 발일은 안하고 바느질로 만

살았는데 큰 각시가 죽어 버리자 작은 각시 얻어 살다가 돌아가셨다. 바느질을 정말 잘 하는 어른이었다. 선사품은 버선을 해갔다. 무근성에는 버선만 만드는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 바느질품을 팔아 살았다. 농사를 많이 짓는 사람은 친정아버지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밭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었다. 농사를 못 짓는 사람은 곡식이 없으니까 바다에 가서 게를 잡거나, 썩을 캐다 보리범벅을 해서 먹는 척했다. 하지만 할머니 친정집은 곡식 농사를 많이 지어서 어린 시절 밥을 굶은 적은 거의 없었다.

사진 5. 시집올 때 가지고 온 두루마기

무근성 환한 날

고두연 할머니는 오빠가 두 명 있었다. 당시에는 자식을 거꾸로 파는 일이 없어 할머니의 혼례는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여자가 스물이 넘어가면 묵은 년, 늙은 새각시, 띠를 넘었다고 놀렸다. 무근성 여자들은 스물 안에 다 결혼하는데, 동네 친구들은 할머니보다 먼저 육지로도 시집가고 일본으로도 시집을 갔다. 하루는 고두연 할머니에게 중신이 들어왔다. 한 집 건너 사는 이웃집이었다. 친정아버지는



사진 6. 고두연 할머니와 남편

동네잔치를 하면 동네 사람들끼리 싸우게 된다고 거절을 했다. 어느 날 저녁 어수룩할 때 중신을 걸어 온 집 어르신이 친정집으로 걸어 오는 걸 보고 너무 놀라 할머니는 부엌 안으로 숨었다. 안방에서 아버지와 어르신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너무 궁금해,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어 안을 훑쳐보았다.

“어수룩할 때 어르신이 방안으로 들어가니, 막 궁금했네 부엌드레 강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랑 안을 봤주. 경허난 막 시아방이 우리 아버지드레 큰절을 하면서 딸을 주라고 하는 거라. 막 여러 번 절해서 “아이고 어른, 딸을 줘. 사주가 너무 좋다. 사주가 막 좋은 딸이난 우리 집으로 보내

주십서.” 시아버지 될 어른신이 우리 아버지 신디 자꾸 옆드령 큰절을 하는 거라. 사주가 너무 좋수다. 허락하여 주십서.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큰오라방이 옆에서 “아버지 보내봅서. 신랑 될 아이가 벗으로 지내 보난 성격이 막 순하고, 막 착허우다.”라고 말 하난 한 집 건너 시집을 가게 된 거라.”

“어두워 갈 때 한 어른신이 방안으로 들어가니까, 너무 궁금해서 부엌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으로 구멍을 뚫고 안을 보았어. 들여다 보니까 어른신이 우리 우리 아버지에게 큰절을 하면서 딸을 주라고 하는 거야. 정말 여러 번 절을 하면서 “아이고 어른, 따님을 제세요. 사주가 너무 좋습니다. 사주가 너무 좋으니까 따님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시아버지 될 어른신이 우리 아버지에게 자꾸 옆드려서 큰절을 하는 거야. 사주가 너무 좋습니다. 허락하여 주세요. 절을 하고 또 절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가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큰 오빠가 옆에서 “아버지 보내세요. 신랑 될 사람이 벗으로 지내 보니 성격이 아주 순하고, 아주 착해요.” 라고 말 했어. 그래서 한 집 건너 시집을 가게 된 거야.”

고두연 할머니는 그렇게 한 집 건너 시집을 갔다. 여덟 살에 일본으로 갔다가 스물네 살에 제주도로 들어온 신랑의 이름은 김범재. 혼례를 치루는 날 신부의 집과 신랑의 집이 너무 가까워 신랑과 신부를 태운 네발택시는 일부러 무근성 한 바퀴를 빙 돌아 주었다.

“우리 시아방이 망해분 집이지만 격식을 갖춘 집안이라 올래춘심을 열었어. 상에는 과일을 쌓아 놓고, 웃담으로 사람들이 막 도라정 구경하는데 표주박에 술을 따라주니까 술을 조금 마시니까 “술안주를 잡으시오” 하는 거라. 안주 중에 과일도 하영 이서신디, 대추 한 방울을 잡아서. 길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하영이라. “아이고, 이 새각시 아이를 하영 낳으큰게.” 웃담드레 올라강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지. 올래춘심은 무근성 태민이 어른이 하는디 아무나 해 주지 않아. 그때는 어려워서 올래춘심을 어려운 사람들은 못하거든. 무근성에서 경우를 아는 집만 했어. 태민이 어른 빌영 오믄 돈 줘야 하고, 사진도 찍었어. 그때는 몰랐지만 나가 대추를 줍양 아이는 하이고, 잘도 하영 낳았지.”



사진 7. 시집 올 때 해오셨던 이불

“우리 시아버지가 집은 망했지만 격식을 갖춘 집안이라 혼례식을 올렸어. 상에는 과일을 쌓아 놓고, 집 담으로 사람들이 매달려서 구경을 했어. 표주박에 술을 따라주니까 술을 조금 마셨어. “술안주를 잡으시오”하는 거야. 안주 중에 다른 과일도 많이 있었는데, 대추 한 방울을 잡았어. 길에서 사람들 웃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아이고, 이 새색시 아이를 많이 낳으려나 봅니다.” 집담 위에 올라가 구경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웃는 소리가 들렸지. 혼례식은 무근성 태민이 어른이 해 주는데 아무나 해 주지 않아. 그때는 어려워서 혼례식을 어려운 사람들은 못 했거든. 무근성에서 경우를 아는 집만 했어. 태민이 어른을 빌려서 하면 돈을 줘야 하고, 사진도 찍어야 하니까. 그 때는 몰랐지만 내가 대추를 잡아서 아이는 정말 하이고, 정말 많이 낳았어.”

할머니는 시집갈 때 이불 세 개, 요 세 개, 방석 다섯 개, 베개 두 개를 가지고 갔다. 그걸 다 기억한다. 그때는 새각시가 이불을 많이 해 가면 마을에 소문이 났다. 가난한 사람은 베개도 한 개만 가지고 가는데 할머니는 방석도 다섯 개를 해 가니까 시집갈 때 잘 차렸다고 소문이 났다. 이불과 화로도 가지고 갔다. 화로는 늦으로 된 것을 가지고 갔다. 화로도 아무나 가져 갈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다. 궤만 못 가지고 갔다.

친정아버지는 평소에도 할머니에게 “우리 큰딸은 대막데기 성질이라, 공부를 해시믄 장관이 될 건디, 딸로 난게 분하다.”라고 자주 말했다. 그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할머니도 나이가 쉰이 넘었

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할머니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한다. “아이고, 우리 큰똥, 시집갈 때 궤하나 못해주고.” 할머니는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고백에 “아이고, 아버지 나 궤 하수다. 아버지만 일어 나 십서.” 하고 말했으나 그 말만 남겨두고 친정아버지의 삶도 끝이었다.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왜 그 말을 하셨는지 할머니는 아직도 모른다. 그저 아버지가 “우리 큰년 대막대기 성질이라.” 말씀하며 엄지손가락을 딱 세우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고 말한다.

신혼과 밖거리 삶

시어머니는 가슴시어멍이었다. 나이는 많지 않았다. 남편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어서 그런지 남편은 어머니의 다정스러운 사랑을 제대로 받으며 자라지 못한 것 같았다. 어린 시절부터 일본에서 살아 한글이 서툴기는 했지만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실력은 아니었고 일본어도 잘했다. 일본노래를 잘하고 춤도 잘 쳤는데 주정공장에서 노래자랑을 해서 1등상을 탄 적도 있다. 성질이 순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오래 전 제주의 시골에는 아들이 여러 명이어도 큰아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상식이었다. 시아버지는 맏아들이라 명월의 많은 땅과 재산을 물려받았지만 함께 사는 여자가 바뀔 때 마다 재산이 하나 둘 떨어져 나갔다. 고두연 할머니가 시집갔을 무렵 시댁은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다. 옆드려야 시댁의 방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지붕이 무너져 있었다고 한다. 밥 굶은 적 없이 생활을 하다 시집을 간 할머니가 가난한 집에서 적응하기는 힘들었다.

“시집을 가서 밥을 먹는다, 가슴시어머님이 시아방 밥을 한 주걱 뜨고, 남은 밥 중에 두 밥자를 동글레기 그릇에 퍼 담양, 나랑 영감이랑 가슴시어머님이라 함 밥상에 떠 놔서 부엌에 앉아 밥을 먹었신디, 밥을 한 손가락 먹으니 가슴시어머님이 막 옆눈질 허여, 막 흘깃 흘깃 보고, 자꾸 옆눈질을 허난,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나가 손가락을 탁 내려놓고 한 집 건너 친정 집으로 가버렸지. “아이고, 나 저 집에서 배 굶앙 못 살쿠다.” 하니까 큰오빠가 “여자는 혼번 시집가민 그 집에서 말라 죽는 거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 몽둥이를 들렁 나 등짝을 두드리는데, 나는 겁이 낭 막 도망을 가서. 하이고,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옆드려야 들어가는 땀싸진 집이서 배 굶으멍 사느니 차비만 벌어지면 육지로 도망가 불자. 육지 강 놈의 심바람이라도 하멍 살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먹고, 콩나물과 녹두나물 같은 걸 길러서, 일본인들 집에 다 팔았지. 차비가 만들어 지니까 도망을 가려고 하니까, 우리 영감이 막 울멍 절을 하는 거라 “아이고, 나를 봐서 살아주세요. 나를 보고 살아주세요.” 막 절하멍 우니까 불쌍해서 산 것이 지금까지.”

“시집을 가서 밥을 먹고 있었어, 가슴시어머님이 시아버지에게 밥을 한 주걱 떠 주고, 남은 밥 중에 두 밥자를, 동글랑게 그릇에 담아서, 나와

영감 그리고 가슴시어머니와 함께 한 밥상에 떠 뉘서 부엌에 앉아 밥을 먹는데, 밥을 한 숟가락 먹으면 가슴시어머니가 자꾸 눈치를 주고, 자꾸 흘깃 흘깃 쳐다 보고, 자꾸 눈치를 주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내가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 집 건너 친정집으로 가버렸어. “아이고, 난 저 집에서 배가 고파서 못 살겠어요.” 하고 말하니까 큰오빠가 “여자는 한번 시집가면 그 집에서 말라 죽어야 하는 거.”라고 소리를 지르며 나무막대를 들고서 내 등짝을 때리는데 나는 겁이 나서 도망을 갔지. 하이고, 이제는 할 수 없구나, 었드려야 들어가는 무너진 집에서 굶으면서 살아가느니 차비만 벌면 육지로 도망가려고 생각했지. 육지 가서 남의 심부름이라도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을 먹고, 콩나물과 녹두나물 같은 걸 길러서, 일본인들 집에 가져 다 팔았지. 차비를 모으니까 도망을 가려고 했어, 그런데 우리 영감이 막 울면서 절을 하는 거야 “아이고, 나를 봐서라도 살아 주세요. 나를 보고 살아주세요.” 계속 절을 하면서 우니까 불쌍해서 살게 된 것이 지금까지야.”

무근성 여자아이들이 모여 수다를 떨며 떨며 집으로 걸어가는 길 달빛은 얼마나 고왔을까. 여자아이들이 등에 짊어지고 집으로 가져가는 대박이 물은 또 얼마나 맑았을까. 무근성 달빛이 아무리 휘영청 밝더라도 시집가는 날 고두연 할머니의 얼굴 보다 더 환하고 곱지는 않았을 것이다. 올래춘심 이야기를 할 때 할머니 얼굴은 아주 환했다. 올래춘심을 구경하려고 웃담드레 도라진 사람들이 우르르 웃는 소리가 칠십여 년이 한참 지나도 할머니 귓가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았다. 한 동네에 사는 사내와 계집이 만나 새 가족이 되는 순간을 구경하는 무근성 사람들이 우르르 웃는 표정을 생각한다. 무근성 가장 환한 날은 그렇게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 지는 잔칫날 아니었을까.

할머니가 도망가지 않고 함께 살기로 한 뒤로 남편은 부지런히 솔잎을 걷으러 다녔다. 옛날에는 소나무밭이 많아서, 남쪽으로 솔잎 굵는 사람이 천지였다. 새벽 다섯 시에 나가 솔잎을 하루 종일 걷으면 두 보따리가 되었다. 오후 네 시 정도 되면 할머니는 무근성에서 지금의 광양로터리 정도까지 남편 마중을 나갔다. 아무리 남자라도 솔잎을 두 보따리 지고 오면 힘들기 때문에 할머니는 짐을 나누려고 오후 네 시 정도에 마중을 나갔다. 남편이 걸어 온 솔잎을 파는 것은 할머니 몫이었다. 한 보따리에 오 원씩 팔았다. 한 보따리에 오 원이었는데 할머니 솔잎은 대부분 소법대사 일을 하는 남편을 둔 정자어머니가 많이 사갔다. 보릿낭, 조짚, 솔잎으로 불을 만드는데 솔잎 불이 최고였다. 보릿낭은 딱딱딱 소리가 나고 와다닥 불이 오르지만 솔잎불은 은근하고 연하게 탄다. 그러니까 솔잎불은 돈 있는 사람이나 불을 삶는 땀감이었다.

옛날에는 아무리 부자여도 딸에게 땅을 물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친정은 부자였지만 할머니의 살림은 어려웠다. 시아버지는 명월 사람이었는데 큰아들이라 재산을 다 물려 받았지만 할머니는 시집에서 찻숟가락 하나 물려받지 못했다. 그래서 16년 동안 남의 집 밖거

리를 전전했다.

“나가 놈의 집에서 16년 동안 살았거든. 광선이네 밖거리에서 처음 살았는데, 구들 새끼 하나가 전부, 마당에 앉아서 쇠기통으로 솔떡을 만들어서 밥을 해 놓으면 국을 끓일 그릇이 없어. 그러면 그냥 된장에 물을 탕 국을 만들어 먹어. 그 다음 재심이네 밖그레 그 다음 강칩 사랑거리에서 살았는데, 강칩이 가서 우리가 성공했지.”

“나는 남의 집에서 16년 동안 살았어. 광선이네 밖거리에서 처음 살았는데, 작은 방 하나가 전부야마당에 앉아서 쇠기통위에 솔을 걸어서 밥을 해 놓으면 국을 끓일 그릇이 없었어. 그러면 그냥 된장에 물을 타서 국을 만들어 먹었어. 그 다음 재심이네 밖거리에서 살았어. 그 다음 강씨네 집 사랑거리에서 살았는데, 강씨네 집에 가서 우리가 성공했지.”

할머니는 첫 아기를 낳은 후에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아기를 보며 일본돈 장사를 했다. 공항에 나가면 일본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왔다. 그 사람들이 나올 때 일본말로 돈을 바꾸라고 말하면 일본 사람들이 환전을 했다. 돈을 바꾸면 이윤이 남았다. 남편은 주정공장에 샘플



사진 8. 천장사를 하던 시절 만든 옷

기술자로 취직을 해 월급을 받았다. 남편이 벌어들인 돈을 차곡차곡 모았다. 첫째와 둘째를 낳고는 일본 물건 장사를 했는데 그때 할머니는 돈을 많이 벌었다. 일본 물건 장사는 세 명이 동아리를 만들어 했다. 옷감을 전문적으로 했다. 그때는 뇌물이 통할 때였다. 부두에 가서 물건을 받은 뒤 차가 없으니까 구르마로 옮기다보면 순경이 쫓아왔다. 순경이 쫓아와도 또 뇌물을 주면 순경은 모른 척 넘어가 주었다. 당시 일제 물건을 사고팔면 당장 구속이었는데, 그래서 부두에서 구르마로 옮겨온 일본 물건들은 탐동 사는 사람네 집에 가서 천장에 숨겼다. 육지에서 일본 옷감을 사러 장사꾼들이 내려오면 할머니가 파는 옷감을 몸에 칭칭 감아 코트를 입고 몰래 운반했다. 할머니도 몸에 옷감을 감아 코트를 입고 물건을 옮기면 한 번 할 때마다 큰돈이 생겼다. 할머니는 한 번 나르면 삼백 원이라고 기억하는데 지금 돈으로 치면 한 삼십만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물건 장사는 세 명이서 동아리를 맺었지. 세관에 와이부로해. 물건을 구르마로 옮기다 보면 순경이 막 쫓아와 그럼 순경한테도 돈을 줘. 그때는 걸리면 무조건 구속이거든. 그래서 탐바리에 왕 누구네 천장에 막 곱져. 서울에서 상인들이 내려와 기지들을 문뜩 상가, 일본 기지는 곱고, 풀 안 맥여도 되고, 다리미질 안 해도 되니까. 인기가 많아. 나가 일본 기지로 옷을 하면 막 인기가 있어서. 돈 사람들이 가져 가 부난, 지금은 메기. 일본 물건 장사 허여난 생각을 하민, 하이고, 잘도 해졌다. 젊었을 때 귀신이 쓰였주게. 젊으니까. 공항에서 일본돈 바뀐 돈 벌고, 구르마 꼬

성 다니명, 순경 다올리명 일본 물건 팔고, 어느 날은 공항에서 쌀을 싸게 판다는 소리를 들었 열두 말짜리 정으네 공항에서 집까지 걸어 쌀을 짚어 정 가시난, 짚었을 때는 귀신이 쓰였주게, 짚어부난.”

“일본 물건 장사는 세 명이서 동아리를 만들었어. 세관에게 뇌물을 주는거야. 물건을 수레로 옮기다 보면 순경이 쫓아와 그럼 순경한테도 돈을 줘. 그 때는 걸리면 무조건 구속이거든. 그래서 탑동에 와서 여기저기 집 천장에 숨겨 놓느거야. 서울에서 상인들이 내려와 오감들을 모두 사갔어, 일본 옷감은 예쁘고, 풀 안 먹여도 되고, 다리미질도 안 해도 되니까. 인기가 많았어. 내가 일본 옷감으로 옷을 하면 정말 인기가 있어서. 모두 사람들이 가져 가 버려서,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일본물건 장사 했던 생각을 하면, 하이고, 잘도 했다. 짚었을 때는 귀신이 씌었던 것 같아. 짚으니까. 공항에서 일본돈 바꿔서 돈 벌고, 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순경을 쫓으며 일본 물건 팔고, 어느 날은 공항에서 쌀을 싸게 판다는 소리를 들어서 열두 말 짜리를 짚어지고 공항에서 집까지 걸어 쌀을 가져갔으니, 짚었을 때는 귀신이 씌었던 것 같아, 짚으니까 말이야.”

할머니는 모은 돈으로 지금 남성로터리 근처의 땅을 샀다. 친정아버지가 소와 말이 많아서 밭 가는 것을 도와주었다. 할머니는 아기를 출산할 때도 남의 손을 빌어 하지 않은 것처럼 남의 손을 빌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친정아버지는 부지런한 할머니에게 자주 “우리 큰넨은 대막데기 성질이라, 딸로 나기 분하다. 공부 시켜



사진 9. 할머니 앨범 속에 있는 아이들 사진

시몬 장관을 할 팔자라.”라고 말했다.

묵은성 아기들

“세 번째 낳은 쌍둥이가 네 살 정도 되었을 때라 덩석 하나 쥐고, 아이 하나는 업고 아이 하나는 안고 조밭으로 걸어가당, 등에 업은 아기 하나가 졸았으네 냇가드레 털어전. 아이고, 죽어싱가 행으네 아기를 하나 안은 채로, 발로 툭툭 떨어진 아기를 건드려 신디, 아이가 다행히 크게 다치치 않았 살아신거라. 다시 앞에 안은 아기는 뒤로 업영, 떨어진 아기는 다

시 안양 밭으로 강, 밭에 강 돌 봉가당 방둥이 허라고 주고, 나는 조콩을 따는 거주. 아방이 주정공장 끝나서 밭드레 올 때까지 조콩을 따. 아방이 일 끝나서 오면 나가 낫 동안 딴 조콩을 집드레 정 날라. 그땐 전등불이 어실 때난 밤에 가스불 켜네, 마루에서 조콩을 막 두드려. 아침 새벽에 조콩을 불려서 넣어 마당에 넣어놓고, 다시 하나는 엮고, 하나는 안고 해서 밭에가. 하이고 해난 생각을 허면 잘도 해졌다.”

“아기들 어릴 때는 밭에 가면 뱀이 제일 무서운 거. 덩석 깔앙 아기를 구덕드레 눕혀 놓고, 그땐 밭에서 뱀이 하나까, 뱀이 아기를 물면 아기는 단 번에 죽어 불거든. 아기가 잘 이싱가 살피러 가야해. 별이 과량하게 나면 가서 아기구덕드레 옆으로 널판지로 가려주고, 하이고, 그렇게 구남매를 몽땅 키워서 공부 시키고, 시집 장가보내고 재산 나눠주고, 하이고, 잘도 해졌다.”

“세 번째 낳은 쌍둥이가 네 살 정도 되었을 때였지. 멍석 하나는 손에 쥐고, 아이흥 하나 엮고 아이 하나는 안고 조밭으로 걸어가던 중에, 등에 업은 아기 하나가 잠을 자다가 냇가로 떨어졌어. 하이고, 죽었는가 싶어서 아기를 하나 안은 채로, 밭로 툭툭 떨어진 아기를 건드렸는데, 아이가 다행히 크게 다치치 않았고 살아있는거야. 다시 앞에 안았던 아기는 뒤로 엮고, 떨어진 아기는 다시 앞으로 안고, 밭으로 갔지. 밭에 가서 돌을 주워다가 장난감하라고 주고, 나는 조콩을 따는거야. 아기 아빠가 주정공장 끝나서 밭으로 올 때까지 조콩을 따는 거야. 아기 아빠가 일 끝나서 오면

내가 낮 동안 탄 조콩을 집으로 져서 옮겨. 그 땐 전등불이 없을 때니까 밤에 가스불을 켜서, 마루에서 조콩을 두드리고. 아침 새벽에 조콩을 불려서 마당에 널어 놓고, 다시 하나는 엮고, 하나는 안고 해서 밭이 가는 거지. 하이고 그 때 했던 일들을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아기들 어릴 때는 밭에 가면 뱀이 제일 무서웠어. 멧석 깔앙 아기를 바구니를 놓혀 놓고, 그 때는 밭에 뱀이 많으니까, 뱀이 아기를 물면 아기는 단번에 죽어 버리거든. 아기가 잘 있나 살펴러 가야 해. 햇빛이 강한 날에는 아기바구니 옆으로 널빤지를 이용해서 가려주고, 하이고, 그렇게 구남매를 모두 키워서 공부 시키고, 시집 장가보내고 재산 나눠주고, 하이고, 정말 잘 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아기를 낳으니 열 세 식구가 한집에 살게 되었다. 아기 구 남매를 낳고, 며느리까지 들어와 아기까지 낳으니 말처럼 소처럼 일을 해도 점심을 거르는 날이 많았다. 점심을 차리고 아이들 밥그릇에 밥을 떠 나르다 보면 밥은 점점 줄어들고, 할머니가 먹을 점심은 없었다. 할머니는 저녁밥을 지으면 한꺼번에 먹으려고 점심을 굶었다. 그 시절에는 고무줄이 없어서 치마끈을 묶었는데 밥을 굶으면 배가 훌쩍해져서 치마끈이 자꾸 내려갔다. 그러면 치마끈을 짝 묶고, 허기를 참았다. 아기를 많이 낳으면 그만큼 밥을 많이 먹어야 하는데, 점심을 거르면 너무 배가 고파 힘들었다.

“큰아들이 결혼을 해서 식솔이 더 늘었거든,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아기가 들어설 때 인지 모르고 가마솔에서 밥을 뜨당 가마솔 안트레 다 토해 분거라, 아이고, 그 밥을 다 어떻게 하겠어. 문밖, 도야지 피당 쥐부렸주. 그 도야지는 바당에 가서 맵지 않은 생선을 잡아당 먹이주게. 그런데 어느 날은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라. 마당에 끄서당 썩을 뽕쌍 썩물을 먹이 난막 살아나. 근디 그 도야지는 우리가 식솔이 많으니까 추렴해서 팔아부러서.”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족의 수가 더 늘었어, 어느 날은 며느리가 아기가 들어서는 지 모르고 가마솔에서 밥을 뜨다가 가마솔 안에 토를 한거야, 아이고, 그 밥을 다 어떻게 하겠어. 모두, 돼지에게 줄 수 밖에 없었어. 그 돼지는 바다에 가서 맵지 않은 생선을 잡아다 먹었는데 어느 날 시름시름 죽어가는 거야. 마당에 끌어다 놓고 썩을 뽕아서 썩물을 먹이 니까 다시 살아났어. 그런데 그 돼지는 우리가 가족 수가 많으니까 추렴해서 팔아버렸어. 다리 하나 팔고 갈비 팔고, 다 팔았지.”

아이들 굶기지 않으려고 점심을 거르는 때가 많았지만 할머니는 구 남매 중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은 것을 큰 복이라 말했다. 할머니는 마누라가 유행할 때도 아기를 하나도 잃지 않았다. 그때는 아기를 잃어버린 집이 많았다. 밭에 가는 길에 오줌이라도 싸려고 밭 안쪽으로 들어가면 아기구덕 위 막돌로 막은 것들이 천지였다.

“무근성은 아이들 키우기 좋았주께. 아기가 죽어서 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어. 밭으로 가는 길에 오줌 누러 들어가면 묻 아기가 죽은 구덕들, 다른 동네에 가면 길에 죽은 아기구덕이 하영이신디, 무근성에는 죽은 아기구덕이 하나도 어서. 마누라에 걸리면 업죽이가 되버리는데, 경허난 아기 이신 집들은 새끼를 꼬아서 대문 앞에 묶어 아무 사람이나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

“무근성은 아이들 키우기 좋았어. 아기가 죽어서 묻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없었거든. 밭으로 가다가 길에 오줌을 누러 들어가다 보면 죽은 아기를 담은 아기바구니들이 가득이야. 다른 동네에 가면 길에 죽은 아기바구니가 많은데, 무근성에는 죽은 아기바구니가 하나도 없었어. 마마에 걸리면 업죽이가 되버리는데 그러니까 아기가 있는 집들은 새끼를 꼬아서 대문 앞에 묶어 두면 아무 사람이나 집으로들어 올 수 없도록 했어.”

할머니는 아이들을 깨끗하게 씻겼다. 묵은성에서 아이들은 무럭 무럭 잘 컸다. 아이들은 버렁갯각에서 많이 놀았다. 무근성물은 정말로 좋았다. 선반물, 농각물에 가서 집안 빨래는 다 했다. 물도 길어다 먹었다. 물을 뜨는 곳과 빨래를 하는 곳은 구획이 나누어져 있고, 아이들은 물놀이도 좋지만 서문통가는 것을 좋아했다. 서문통구경이 가장 좋았다. 옛날에는 서문통이 동문통보다 더 큰 구경이었다.

할머니 남편은 성질이 순하고, 노래도 잘 부르고, 춤도 잘 추니까

인기가 많아서 집에 잘 있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럴수록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서 성공시키고 싶었다. 남편이 집안일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아이들 공부를 잘 시켜 성공시키는 게 꿈이었다. 할머니는 대학을 졸업한 세 아들도 자랑스러웠지만, 딸 여섯 명 전부를 신성여중과 신성여고를 졸업시킨 일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아방이 고맙주, “우리 보다 부자도 딸은 중학교만 보낸디, 딸까지 고등학교를 보내면 살림을 어떻게 할라고, 딸까지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라.” 아방 말대로, 나가 아이들 학교 회비를 내는 날이 오면 막 힘들어. 그래서 새벽이면 초천장 걸어가 계란을 사서 한 짐 짊어지고 와 일본 집만 찾아다니며 “다마고 가이나사이.” 하고 팔았지. 그리고 다음 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하귀장으로 걸어가 계란을 받아와 일본 집만 찾아다니면서 “다마고 가이나사이.”하며 계란을 팔았어. 귀찮골에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살아서. 그렇게 계란을 팔아서 아이들 학비를 냈지. 장이 안 서는 날에는 삼양 모래밭에 가면 파가 좋아, 밭에 있는 아주망들한테 마농 멍 팝서. 한 다음 혼 짐 짊어 정 왕 씻영 묶어, 그리고 또 팔러 다니는 거라. 그때나 말고도 일본 집 돌아다니며 물건 파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핫주, 다른 사람들은 상추도 팔고, 배추도 팔고 해서. 하루는 계란 팔러 가신디 개가 좋아리를 콧 물어. 아이고, 피가 잘잘, 집에 강 된장 발라서,

우리 아들이 말허어. “젊은 날 너무 성안 천지 다 돌멍 걸어부난 다리 가 아픈 거우다.” 그렇게 고라. 하이고, 잘도 해졌다. 나도 딸들한테 말하

주게. “너네 어떻 공부 해진줄 알았사. 일본 집마다 돌며 계란 팔아서 너네 공부 시킨 거야.” 지금도 제주도적으로 한 집에서 딸 여섯 명이 신성여중 나와서 신성여고 배출한 여자는 나밖에 없어. 옛날엔 제주여고는 연애 짜리, 고진 게 없어. 신중, 신고 나오면 암전하다. 그래서 중신들이 잘 들어와. 우리 딸들이 시집들을 잘도 좋은디 갔지. 신고 나오 난 중신도 좋은데서만 들어와, 신랑도 좋아. 어느 날은 학교에서 나를 부르대. 제주도적으로 딸 여섯 명을 신중 신고, 내친 엄마는 나 밖에 없다고 표창장을 주대. 상을 받으러 나가니까 “노래를 부르시오.”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렀주. 그때 그 노래가 딱 하나 밖에 없었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그루” 내가 그 노래를 불렀지.”

“우리 아버지가 말했어, “우리 보다 부자도 딸은 중학교만 보내는데, 딸까지 고등학교를 보내면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딸까지 고등학교를 보내는 거야.” 아이들 아빠 말 대로, 내가 아이들 학교 회비를 내는 날이면 정말 힘들었어. 그래서 새벽이면 조천장을 걸어가 계란을 사서 한 짐 짊어지고 온 다음에 일본 집만 찾아다니며 “다마고 가이나사이.”하고 팔았지. 그리고 다음날은 새벽 일찍 일어나 하귀장으로 걸어가 계란을 받아와 일본 집만 찾아다니면서 “다마고 가이나사이.”하며 계란을 팔았어. 귀싹골에 일본인들이 제일 많이 살아서. 그렇게 계란을 팔아서 아이들 학비를 냈지. 장이 서지 않는 날에는 삼양 모래밭에 가면 좋은 파가 많아. 밭에 있는 아주머니들한테 마늘을 팔아 달라고 한 다음 한 짐 짊어지고 와서 씻어서 묶어 팔았어, 그리고 또 팔러 다니는 거야. 그 때 나 말고도 일본

집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사람들이 나 말고도 많았어, 다른 사람들은 상추도 팔고, 배추도 팔고 했어. 하루는 계란 팔러 갔는데 개가 종아리를 콧물었어. 아이고, 피가 많이 흐르는 거야, 집에 가서 된장을 발랐어,

우리 아들이 지금도 나에게 말해. “젊은 날 너무 성안을 모두 걸어서 돌아다니느라 다리가 아픈 거예요.” 그렇게 말해. 하이고, 정말 고생했다. 나도 딸들한테 말하지. “너희들 어떻게 공부 할 수 있었는지 아느냐고. 일본 집마다 돌며 계란 팔아서 너희들 공부 시킨 거라고.” 지금도 제주도에서 한 집에서 딸 여섯 명이 신성여중 나와서 신성여고 배출한 여자는 나 밖에 없어. 옛날엔 제주여고는 연애 잘 하는 자리라고 말하면서, 바르게 없다고 했어. 신성여중과 신성여고를 나오면 암전하다. 그래서 중매도 잘 들어와서 우리 딸들이 시집들을 다 좋은데로 갔어. 신성여고 나오니까 중매도 좋은데서만 들어오지, 신랑도 좋은 사람이지. 어느 날은 학교에서 나를 부르는 거야. 제주도에서 딸 여섯 명을 신성여중 신성여고, 나에게 한 엄마는 나 밖에 없다고 표창장을 줬어. 상을 받으러 나가니까 “노래를 부르시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노래를 불렀지. 그 땐 그 노래가 딱 하나 밖에 없었어. “푸른 하늘 은하수, 하얀 쪽배에, 계수나무 한 그루” 내가 그 노래를 불렀어.”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다니는 길에서 물건을 팔았다. 자주 물건을 사는 일본인들 집을 기억해 두었다가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문을 두드려 팔기도 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와도, 아무리 몸이 아파도, 조

천장으로 하귀장으로 걸어가 계란을 짚어지고 왔다. 계란 장사를 하던 시절처럼 일본말로 장사하는 모습을 보여 주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당시의 고단함이 느껴졌다.

성광사, 동네잔치, 경로당, 향교

“성광사에서 회장을 할 때에 회비를 천 원씩 받은 걸 차곡차곡 모았어. 다른 사람들은 회비 받은 걸 육지로 어디로 놀러 다니며 다 써버리는 데 나는 돈을 하나도 허투로 쓰지 않고 차분하게 모았지. 절에 뭐가 필요한가 생각해 보란, 방석을 다 쓰레기라, 절에 이신 쓰레기들을 다 끄서당 내쳐동으네, 방석을 85장을 만들었어. 나 혼자 서문시장 드나들며 퍼들었지, 방석을 다 해도 30만 원이 남아, 돈이 남으난 부회장 두 명이 나 조름에 졸졸 따라다녀. 나는 스님을 앉혀냥, 20만 원을 스님한테 딱 드리고, 십만 원은 오만 원씩 갈랑 부회장 두 명에게 나눠 주었지. 아이고, 그때 부회장들도 오만 원씩 나눠 줘도 그냥 스님한테 줘부러시민 오래 살아 실건디, 그냥 오만 원씩 딱 받아서 가져 불



사진 10. 고두연 할머니 남편분 사진 @향교



사진 11. 고두연 할머니 표창장들

드라고, 스님이 나 신디 “고맙습니다.”라고 말했어. 요 전번에 꿈에도 나 와 나한테 악수를 청하대.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스님이 용한 스님이라 나 이렇게 오래 살아가는 거 보면, 나가 그렇게 돈을 허투루 안 쓰는 올바른 사람이주게.”

“성광사에서 회장을 할 때 회비 천 원씩 받은 걸 차곡차곡 모았어. 다른 사람들은 회비 받은 걸 육지로 여행가거나 놀러 다니며 다 써버렸어. 나는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차분하게 모았지. 절에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보니까, 방석들이 다 쓰레기야, 절에 있는 쓰레기 같은 방석들을 다 끌어다 던져버리고 방석을 85장을 만들었어. 나 혼자 서문시장 드나들면서 일을 다 했지, 방석을 다 했는데도 30만원이 남았어, 돈이 남으니까 부회장 두 명이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거야. 나는 스님을 얹혀 놓고, 20만원을 스님한테 드리고, 십만 원은 오만 원씩 나누어서 부회장 두 명에게 주었

지. 아이고, 그때 부회장들도 오만 원 씩 나눠 줘도 그냥 스님한테 주었으면 나처럼 오래 살았을 텐데, 그냥 오만 원씩 받아서 가져버렸어, 스님이 나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어. 며칠 전에 꿈에도 나와서 나한테 악수를 청하는 거야. 지금 생각 해 보면 그 스님이神通한 스님이라서 내가 이렇게 오래 사는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돈을 함부로 쓰지 않고 올바른 사람이야.”

할머니는 육지에서 내려온 요리선생님에게 요리강습도 받았다. 그래서 잔치가 있으면 신부상에 올릴 음식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 많이 들어왔다. 한 번 잔치에 드나들면 삼일을 다녀야 하는데, 할머니는 무근성 동네잔치까지 포함해서 백 번은 넘게 ‘공일’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무근성 동네잔치는 내가 다 차려서. 나가 요리를 배웠기 때문이라. 이 동네잔치도 내가 다 차리고, 아라동 시누이, 동광양 사촌 오라비, 하이고 잘도 잔치 차려서. 고기돈가스, 계란돈가스, 김돈가스를 만들어. 써는 걸 잘 썰어야해. 잘 썰어 닝깁으로 꽃을 만들어 상에 심겨 놓으면 상이 흰혀. 붉은 단무지가 닝깁이다.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잔치음식을 다 차렸어. 잔치음식 중에 약밥이 제일 어려워. 약밥을 하려면 새벽 세 시에는 나가야 해.

다 공일로 해줬어. 그때 천 원이라도 주멍 차 타고 가라고 했으면 섭섭하지 않았지. 잔치집마다 음식 남는 것도 없어. 당시에는 음식이 귀해서



사진 12. 고두연 할머니 가족사진

잔치음식을 빼때기(고구마 말린 것)추룩 차려 부난 음식이 맨날 매기, 없
어. 하루는 집에 오니까 남편이 현관문에 주래기 앉아 있대. “잔치 3일 동
안 드나 들어시난 여기 먹을 거 반양 온 거 내려 놔봐.” 근디 먹을 걸 얻어
온 게 있어야지. 잔치 음식들을 다 빼때기 추룩 출려 놔 부난. 지금은 할아
방이 돌아가 부난 그때가 막 잊어지지가 않혀여. 할아방이 집에 아장 오
죽 먹을 게 그리와시몬 어느제랑 할망 왕 음식 먹어 보카 기다려실 거 생
각하믄, 막 지금도 마음이 불쌍해. 나가 그렇게 공일을 많이 해서.”

“무근성 동네잔치는 내가 다 차렸어. 내가 요리를 배웠기 때문이야. 이
동네잔치도 내가 다 차렸어, 아라동 시누이, 동광양 사촌 오라버님, 하이

고 정말 잔치를 많이 차렸어. 고기돈가스, 계란돈가스, 김돈가스를 만들었어. 음식을 자르는게 중요해 잘 썰어서 붉은 단무지로 꽃을 만들어 상에 올려 놓으면 상이 환하지. 붉은 단무지가 닝깁이야. 나는 돈을 한 푼도 안 받고 잔치음식을 다 차렸어. 잔치음식 중에 약밥이 제일 어려웠어. 약밥을 하려면 새벽 세시에는 나가야 해.

다 공짜로 일을 해 주었지. 그 때 천원이라도 주면서 차 타고 가라고 하면 섭섭하지 않았지. 잔치집 마다 음식 남는 것도 없었어. 당시에는 음식이 귀해서 잔치음식을 고구마를 잘라 말린 음식인 빼때기 추룩 차렸어. 그래서 음식이 매일 남지를 않았어. 하루는 집에 오니까 남편이 현관문에 가만히 앉아 있었어. “잔치 3일 동안 드나 들었으니까 여기 먹을 거 받아 온거 있으면 내려 놔 봐.” 그런데 먹을 걸 얻어온 게 있어야지. 잔치 음식들을 다 빼때기처럼 차려 놓으니까. 지금은 남편이 돌아가서 버리니 그때가 자꾸 잊어지지가 않아. 남편이 이 집에 혼자 앉아서 얼마나 먹을게 그리웠으면 언제면 내가 와서 음식 맛을 볼까 생각하면서 기다렸을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편하지 않아. 불쌍해. 나가 그렇게 공짜로 일을 많이 했어.”

할머니는 잔치음식을 해 준 곳을 손을 꼽아가며 헤아렸다. 공덕동산, 또래기동산, 화북, 아라동, 동광양, 부룻리동산으로 잔치를 차리러 갔다. 잔치음식을 준비하려고 아라동에 가려면 새벽 네 시에 일어나 부지런히 걸어가야 했다. 할머니는 새각시상도 많이 들어 날랐다고 자랑을 했다. 할머니가 복이 좋은 사람이니까 새각시 옆에 앉

을 사람이 필요할 때도 할머니를 앉으라 했다. 할머니 막둥이가 결혼 할 때 정드르에서 온 사람이 삼일을 일했는데 칠만 원씩 이십일 만 원을 받아갔으며, 자신이 공일로 해 준 잔치들을 돈으로 헤아려 보니 돈을 많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때 공일을 해서 하늘이나 부처님이 할머니를 오래 살게 하는 것이라 말했다. 잔치음식을 하고 받은 것이 있긴 한데 공덕동산 동장 잔치에 음식을 차리고 오니 곤살 두 개를 집으로 가져 왔는데, 잔치음식 차려 주고 받은 것은, 고기 열 점 과 곤살 두 개 받은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할머니가 잔치음식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열다섯 군데 중매를 연결했기 때문이다. 할머니가 어울리는 갑장 친목회 같은 데서 중매를 서면 연결이 잘 됐다. 할머니가 중매를 해서 서울 가서 사는 아이를 서문통 시장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삼촌이 중매 행으네, 나 잘 살았수게. 반찬 상 안내크메, 집에 강 드십서.” 하고 큰 갈치를 사 주었다고 할머니는 여러 번 말했다. 잔치음식을 하며 드나드는 일은 힘들었지만 할머니는 자신의 정성으로 가족을 이룬 집들이 많은 것을 자랑으로 여겼다.

“신제주 옥순이네 집이 잔치 할 때, 새벽에 택시를 타서 두둑 바위에 가서 내린 다음 걸어가다 논밭에 빠졌어. 논밭에 빠져서 시커명한 상태로 옥순이네 집에 강 보난 시집 올릴 집 사람들은 줌을 잠서. 그때 생각하면 아이고, 옷 빌령입고 앉아서, 음식을 잘 차렸다. 새벽에 제기가야 계란돈 가스, 김돈가스, 고기돈가스를 만들어서 곱게 썰어야 해. 닝깡으로 꽃 만

들고이, 그래야 상이 환하니까.”

“신제주에 사는 옥순이네 집에서 잔치를 할 때야, 새벽에 택시를 타고 두둑 바위에 가서 내린 다음 걸어가다 눈발에 빠졌어. 눈발에 빠져서 진흙이 묻은 옷을 입은 상태로 옥순이네 집에 가서 보니까 시집 잔치를 할 사람들은 잠을 자고 있는 거야. 그 때를 생각하면 아이고, 옷 빌려 입고 앉아서, 음식을 차린 생각을 하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 새벽에 일찍 가야 계란돈가스, 김돈가스, 고기돈가스를 만들어서 곱게 썰 수 있어. ning으로 꽃 만들고, 그래야 상이 환하니까.”

할머니는 무근성 경로당이 없을 때 일도동 경로당을 차려서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그리고 남편이 향교 회장으로 있을 때 개성전, 내성전에 있는 시커먼 그릇을 다 치웠다고 한다. 지금은 용담으로 불렸지만 당시에는 향교도 무근성 사람들이 관리했는데, 남편이 회장을 맡았을 때 노란 비닐을 다 깔아 바닥이 깨끗해진 이후로 신을 벗고 제사를 지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즐거운 시절들

옛날 할머니 집은 마루가 넓어서 춤을 추기 좋았다. 할머니는 춤선생님을 집으로 모셔왔다. 할머니와 남편이 회원을 모집해 주고 춤

선생님 세 명이 와서 춤을 가르쳐 주었다. 그때 할머니랑 남편은 춤을 배워서 못 추는 춤이 없다. 그때 춤 선생님들도 돈을 많이 벌었는데, 할머니는 회비를 안 내는 대신 전기세도 받지 않고, 밥도 함께 먹기도 했다. 무근성 아주머니들이 할머니 집에 와서 춤을 배웠다. 지르박, 왈츠를 다 잘 추고, 할머니는 그때 춤을 열심히 배워서 남자 역할까지 다 할 수 있다.

“경로당에 가면 ‘나 혼 번 심어 줘씨게’ 하는 사람이 천지라. 한 번 사람을 심어주기 시작하면 골고루 심어 줘야해. 누구는 심어주고 누구는 안 심어주면 막 시기 허거든. 그래도 나랑 맞는 사람이 이서 삼오십오라는 아이가 이서신디, 아무거나 별별 춤을 춰도 딱 딱 맞아 이름이, 삼오십오라, 여자게. 여자가 이름이 삼오십오라.”



사진 13. 할머니 할아버지 수영복

“경로당에 가면 ‘나하고 춤을 춰시다’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 한 번 사람과 춤을 추기 시작하면 골고루 여러 사람들과 춤을 춰야해. 누구는 춤을 춰 주고 누구는 춤을 안 춰주면 자꾸 질투를 하고 샘을 내거든. 그래도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 삼오십오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어떤 춤이던지 별별 춤을 춰도 딱 딱 맞아 이름이, 삼오십오라, 여자였어. 여자인데 이름이 삼오십오라.”



사진 13. 할머니 춤추는 사진

사진 14. 이웃끼리 놀러 간 사진

옛날에는 한복을 입고 여행을 가는 게 최고였다. 서울에 놀러가 자연동물원도 가고 38선도 다녀왔다. 서울도 다니고 제주도 구경도 다녔다. 당시에는 식당이 없으니까 해 먹을 것들도 들고 다녔다. 한복을 입거나 세월이 조금 흘러 양장을 입더라도 가장 멋진 옷을 입고 사진관에 가 벗들과 단체로 사진 찍는 것이 가장 즐거운 일이었다.

애매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처음 할머니에게 4·3사건에 대해 물었을 때 자신의 집에는 피해자가 없다고 했다. 그저 “4·3사건 때 애매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라는 말만 반복했다. 평소보다 말을 잘 하지 않는 모습에 말로 못 할 사연과 말 할 수 없는 사연들이 있을 것이라 짐작만 했다. 그래서 나는 풍경에 대해서만 물어 볼 수 밖에 없었다. 당시 무근성과 관덕정 부근의 모습들만 이야기 해 달라 부탁을 드렸다. 할머니는 폭도들이 소와 말을 도둑질해 가고, 산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다고 말했다. 폭도라 불리는 사람들은 왜 생겼으며 군인들은 왜 제주도에 내려 왔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았다. ‘애매한 사람이 많이 죽었다’라는 말만 반복하시는 할머니는 처음에는 가족 중 4·3 피해를 받은 사람이 없다고 했지만 이야기를 듣다보니 할머니 가족도 4·3의 사건 피해 가족이었다.

“4·3사태 때 산 위에서 폭도들이 하간 거 도둑질을 하고 막 털어부난 밤에는 길에 사람들 못 다녀. 밤에 다니면 연락병이라고 그냥 군인들이 쏘아볼거든. 서문 다리 밑에 사람 죽은 거 천지, 서사라 소낭 밭에도 죽은 사람이 천지라, 그때 많이 죽었주. 4·3 사태 때 남편이 주정공장 다니니까 돌다우레 나오라고는 안하데. 나는 돌다우레 안 다녀서. 산에서 폭도들이 오지 못하게 담을 쌓는데 담 쌓는디도 사람들이 천지라. 막 담싸으러 나오라고 사람들을 막 몰아내. 우리 영감이 주정공장 땡겨부난 나는 담 다우레 안 땡겨 보아신디. 산에서 폭도들이 쇠영 도야지영 몬 잡아먹어 불곡. 폭도들이 중산간에서 배 고파가난 사람도 죽여 불고, 쌀도 막 털어가 불고, 폭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신지 몰라. 폭도들이, 그냥 중산간에 가득 해부난,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지 못하고 바당드레 막 내려와. 하이고, 그땐 사람 죽은 게 가득 서문다리에도 사람 죽은 게 천지. 젊은 사람은 다 죽고, 길에 앉은 사람은 하르방 뿐이라. 질레 사람들이 못 다녀. 식계도 밤에 안하고 낮에 해시 난 말 다한 거주. 아무튼 밤에 걸었다 하면 총 쏘아 부니까. 밤에 일절 사람이 안 다녀. 밤에 다니면 연락병이라고 군인들이 총 쏘아 부러. 아랫동네에서는 군인이 모수와, 산 위에는 폭도가 무사와. 서사라 솔밭에 가면 죽은 사람이 천지라, 밭이 가당 보몬 양무질에 사람 죽은 것이 그냥 다 죽은 채로 이서. 젊은 사람 하나도 길에 어서 할아버지들만 길에 있었주. 명월도 사람 하나도 어시 하르방들만 질에 앉앙 이서, 젊은 사람들 다 데령강 죽여 부니까. 군인들이 화북 넷창에서도 막 쏘아 불고. 서문다리 아래 글랜 하면 다리 밑에서 다 죽여부러서.

“4·3 사태 때 산 위에서 폭도들이 먹을 거리를 도둑질 하고 모두 가져가 버려서 밤에는 길에 사람들 못 다녔어. 밤에 다니면 연락병이라고 군인들이 총을 쏘았어. 서문 다리 밑에 사람 죽은 것이 가득했고, 서사라 소나무 밭에도 죽은 사람이 가득했어, 그 때 정말 많이 죽었어. 4·3 사태 때 남편이 주정공장에 다니니까 돌쌓으러 나오라고는 안했어. 나는 돌을 쌓으러 다니지 않았지. 산에서 폭도들이 오지 못하게 담을 쌓는데 담 쌓는데도 사람들이 가득했어. 담 쌓으러 나오라고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내. 우리 남편이 주정공장 다니니까 나는 돌담 쌓으러 다녀 보지는 않았지만 산에서 폭도들이 소나 돼지를 모두 잡아먹었어. 그리고 폭도들이 중산간에서 배가 고프면 사람도 죽여 버리고, 쌀도 다 도둑질 해 가 버리니까, 폭도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몰라. 폭도들이, 그냥 중산간에 가득 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살지 못하고 바다로 자꾸 내려와. 하이고, 그 때 사람 죽은 게 가득이야. 서문다리에도 사람 죽은 게 가득이고. 젊은 사람은 다 죽고, 길에 앉은 사람은 할아버지 뿐이야. 길에 사람들이 못 다녀. 제사도 밤에 안하고 낮에 했으니까 그 상황을 다 말한 거나 다름 없지. 어떤 이유로든 밤에 걸었다 하면 군인들이 총을 쏘아버리니까. 밤에 절대 사람이 다니지 않아. 밤에 다니면 연락병이라고 군인들이 총 쏘아 버리거든. 아랫동네에서는 군인이 무섭고, 산 위에는 폭도가 무서웠지. 서사라 소나무 밭에 가면 죽은 사람이 가득했어, 밭에 가다 보면 길에 사람 죽은 것이 그냥 다 죽은 채로 있어. 젊은 사람 하나도 길에 없어. 할아버지들 만 길에 있었지. 명월도 사람 하나도 없어. 할아버지들만 길에 앉아 있었어, 젊은 사람들은 다 데려가 죽어버렸으니

까. 군인들이 화북 냇가에서도 총을 쏘아 버리고. 서문다리 아래 가라고 하면 다리 밑에서 다 죽여 버리는 거야.

우리 시아주방도 애매하게 죽었주. 우리 남편 성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동네 나사서 연설 했다고 밀항자라고 심어 강으네 사라봉 굴속으로 담아 놓고, 몇 천명 담아 총 싸부난. 메기, 사라봉 굴 속이영, 화북 다리 아래는 문짝 죽은 사람이 천지라서. 우리 시아주방은 굴 속에서 죽었지만. 돌 묶음 바당에 드리쳐 분 것도 천지라. 다 바당에 버려지난 괴기들한테 다 가부렀겠주.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산에 폭도 싹 쓸어 가부런. 그러니까 좋았지. 마음 놓고 땡겨지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여기에서 일본에게 해방된 것이 아니다. 6·25전쟁이 끝나고 폭도들을 진압한다는 이름으로 내려온 군인들이 떠난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찾으라고 했거든, 시간이 지나 버리니까 옷으로 찾아. 동굴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니까 동서보고 형님 찾으랜 고라신디. 어땡 찾아지냐고 그냥 뒤 볼켄. 아직도 못 찾앙 내부런. 우리 동서도 이제는 죽어 불고 우리 동서 아기가 오누인데 한 명은 서울 살고 한 명은 여기 살고,

우리 친척들도 많이 죽어서. 살아 보난, 그때가 제일 무섭고 겁나던 시절이었지. 일본 순사들 있을 때보다 더 무서웠어.”

“우리 시아주버님도 애매하게 죽었어. 우리 남편 형도 사람들 앞에서 연설했다고, 동네에서 앞장서서 연설을 했다고 밀항자라고 데리고 가버렸어. 사라봉 굴속으로 밀어 넣고, 몇천 명을 동굴에 담고서 총을 쏘아 버렸어. 그러니까 사람은 없어, 사라봉 굴 속이랑 화북 다리 아래는 죽은 사람이 아주 심하게 폭폭 썩어나갔어. 우리 시아주버님도 굴 속에서 죽었지만. 돌 을 묶어서 바다에 밀어버린 사람들도 많아. 다 바다에 버렸으니까 물고기들에게 다 뜯어 먹혔겠지.

전쟁이 끝나고 군인들이 산에 폭도들을 싹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좋았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으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사람들이 해방이 되니까 (여기에서 일본에게 해방 된 것이 아니라 6.25 전쟁이 끝나고 폭도들을 진압한다는 이름으로 내려온 군인들이 떠난 것을 해방이라고 하는 것이다) 죽은 사람들을 찾으라고 했어, 시간이 지나 버렸으니까 웃으로 찾았어.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사람을 찾으라고 하니까 동서보고 형님 찾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찾느냐고 그냥 찾지 않았어. 아직도 못 찾았어. 우리 동서도 이제는 죽어 버렸고, 우리 동서 아기는 오누이인데 한 명은 서울 살고 한 명은 여기 살고,

우리 친척들도 많이 죽었어. 살아 보난, 그 때가 제일 무섭고 겁나던 시절이었지. 일본 순사들 있을 때보다 더 무서웠어.”

대꽃이 피는 마을까지

할머니는 오랫동안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은 쾌흠한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이라 말했다. 쾌흠이란 앞에서 말했지만 오그라진 마음이다.

“하루는 철물점 어멍이 경로당 마당에 앉앙 이신디 “저거, 아들 성제 죽은 거” 그렇게 말하대. 아이고 저건 인생이 얼마나 잘 살아져 신고라, 나를 나무람신가. 경해서 나가 가슴이 울컥 허영, 나가 따지려 가젠 허난, 죽어 부렸덴. 철물점 아주망이 요자기 죽어부러서. 무사 그런 시기 소리 하느냐고 따지려고 해신디. 죽었덴. 그러니까 모락, 시기, 야심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 살앙 보난 모락 한 사람 잘 되지 않아서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고라서 손가락 치켜 세우며 “우리 큰넨은 대막대기 성질이라. 곧 짹하고 틀어지지 않헌다. 아들로 나시민 장관이라도 할 팔잔디, 우리 큰넨은 대막대기 성질” 이제도 잊어 불지도 안헌다. 친정아버지가 모락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할 수 없다고 말했지. 쾌흠도 안 하고, 나는 막 공일하고 종까질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난, 오래 살고,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오느거라. 바른 질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오래 살았다고 나 혼자서 앉아 가지고 많이 생각해. 지금까지 무근성에 나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거든, 우리 칠 남매 다 죽어 불고, 우리 갑장 동기들 다 죽어 불고. 나는 남의 일 ‘종까’ 질 많이 하고 ‘착한일’ 많이 하고 그래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나 혼자 앉

아 이시명도 “하이고 남의 일 잘도 해졌다.” 하고 칭찬을 해.”

“하루는 철물점 아주머니가 경로당 마당에 앉아 있는 나를 보면서 “저 거, 아들 형제 죽은 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이고 철물점은 인생이 얼마나 잘 살았다고, 나를 나무라는 가 싶어서 내가 가슴이 울컥하고 화가 나서 내가 따지러 가려고 하는데 죽어 버렸어. 철물점 아주머니가 요번에 죽어붙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런 시기하는 소리 하느냐고 따지려고 했는데. 죽어버렸대. 그러니까 모략, 시기, 야심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살아 보니까 모략을 하는 사람은 잘 되지 않았어. 우리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손가락 치켜 세우며 “우리 큰 딸은 대나무 성질이라. 곧고 틀어지지 않는다. 아들로 태어났으면 장관을 할 팔자인데, 우리 큰 딸은 대나무 성질이야” 이제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친정아버지가 모략을 하고 이간질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 할 수 없다고 말했지. 꾀함도 안하고, 나는 남들을 위해 공짜로 일하고 종일을 많이 하고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니까, 오래 살고, 자꾸 사람들이 나한테 막 찾아 오는거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니까. 사람들이 고마워해, 그래서 이렇게 오래 오래 살았다고 나 혼자서 앉아서 많이 생각해. 지금까지 무근성에 나 보다 오래 산 사람이 없거든. 우리칠남매들 다 죽어 버리고 우리 갑장 동기들 다 죽어 붙고. 나는 남의 일 ‘종’일을 많이 해서 ‘착한일’ 많이 했어 그래서 오래 살았어. 그래서 나 혼자 앉아 있으면 하이고 남의 일 정말 많이 했다고 칭찬을 해.”

신작로가 생기면서 할머니는 집을 허물고 2층 집을 올렸다. 새 집을 지어 준 목수가 선물한 것이라며 벽에 있는 대나무 그림을 가르켰다. 할머니는 대나무처럼 곧게 살아 왔다고 여러 번 말한다. 그리고 무근성에 살았던 동네 벗들과 동생들의 고민을 상담해 준 내용을 들려주었다. 밤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꿈에 자주 나와 걱정이라는 동생, 그런 고민의 해결책은 어머니 산소에 가서 술을 따르라는 것이다. 아들이 없는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의 제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너무 과한 돈을 요구하지 않는 절에 제사를 맡기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할머니는 홀어머니 딸에게 장가를 보내지 말라고 이웃을 간곡하게 말린 이야기를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며 길게 이야기 했지만 그 이야기는 나의 주관적 판단으로 이 글에 실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옛날 여성들이 걱정을 하며 의견을 묻는 일이 대부분 관혼상제와 관련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관혼상제의 법도는 대부분 가부장제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지만 그 법도와 형식을 지켜내는 잔칫상과 제사상은 여성들이 책임을 져 왔다. 할머니는 친정아버지의 이름은 기억해 냈다. 그러나 친정어머니의 이름은 김가라고만 말했다. 할머니가 봉분을 만들어준 송씨할망도 이름을 모른다. 이름을 남기지 않고 사라진 여성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다. 할머니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며 자신은 대막데기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여러번 해서 나는 '죽편'이라는 서정춘의 시가 생각났다.

“여기서부터, — 멀다. 칸칸마다 밤이 깊은/푸른 기차를 타고/대
꽃이 피는 마을까지/백년이 걸린다”

학창시절 대나무는 선비의 곧은 정신을 뜻하는 사군자의 하나라
고 배웠다.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 동안 할머니의
풍경이 되어 준 대나무 그림을 바라보며, 나는 선비의 정신 같은 것
을 생각하지 않았다. 할머니 뒤로 그려진 대나무 그림을 보며 나는
여자아이들이 대나무를 얇게 잘라 틀을 만들어 탕건을 만들고, 대나
무로 만든 차롱에 관혼상제에 쓰일 음식들을 담아내는 정성 어린 옛
날 여성의 손길들이 생각났다. 선비의 곧은 절개도 대나무처럼 곧
지만, 할머니를 비롯한 이름을 남기지 않은 여성들도 선비의 삶 못
지 않은 대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두 물길 사이 마을은 앞으로

오래 전 탐동 바다를 매립한 일을 두고 후회를 하는 어른들을 자
주 만난다. 그 옛날 탐동 바다의 풍경을 이야기하며 그 풍경이 지금
까지 남아 있었다면 세계적인 관광지가 되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당시에는 어리석어서 개발을 우선시 했다면 가치 있는 것을
볼 줄 몰랐다고 후회한다. 우리는 그리 멀지 않은 과거에 했던 실수
처럼 후회하는 일을 또 만들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된다. 해운대

의 미래사장과 제주의 바다 풍경이 뭐가 다르겠는가. 바다야 푸르고, 바다의 넓음이야 비슷하지만, 바다를 등지고 섰을 때 뻣뻣하게 세워진 높은 건물들이 대도시와 제주 바다의 차이점을 만드는 것이다. 앞으로 무근성의 낮은 지붕들은 고층 빌라들로, 주상복합 건물들로 높아지겠지, 원도심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니까 말이다.

할머니를 찾아가는 길, 병문천을 매립한 북개도로를 따라 운전을 하는데 한 가게 앞에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있다. 오전 열시에는 오십여 명 정도 서 있었는데, 인터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점심 무렵에는 줄이 두 배는 더 길어져 있었다. 전복김밥으로 유명한 가게가 무근성 북성로로 자리를 옮긴 것을 그제야 알았다. 대부분 젊은 관광객들이 김밥을 사려고 줄을 선 것이었다.

무근성은 낡고 오래되었다 한다. 이 낡은 도심에 여러 가지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차에서 내려 무근성과 가까운 원도심을 향해 천천히 걸어 본다. 몇 달 전 유명한 가수들이 제주 원도심을 거닐며 옷을 사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방송이 나간 이후로 가수들이 다녀간 옷가게 앞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거리가 북적거렸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옷 가게 맞은편은 쇠락해 가는 유흥업소들이 원색적인 이름을 달고 저녁마다 희미하게 불을 켜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공교롭게도 앞서 말한 유명 가수들이 찾은 원도심 옷가게 중 한 곳은 여성인권연대 사무실 앞에 있는 옷가게다. 방송 탕인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자 인권연대 사무실 건물 주인

이 집세를 올리려고 하는데, 가격이 많이 오를 것 같아 이사를 가야 할 것 같다고 걱정하던 대표님 얼굴이 떠오른다.

여성인권연대 대표님이 산지천 탐라광장을 복원 할 때 그곳에 있던 성매매업소 공간 같은 것을 기록하거나 복원해 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 있다. 산지천이 복원되면서 괘씸한 시대의 흔적들을 보여줄 수 있는 사연 많은 과부촌 흔적들이 그 역사적 중요성을 기록하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 말았다. 암튼 무근성과 그리고 원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무근성과 원도심에 살고 있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

우리가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 듣고 기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무근성에 새로운 가게가 들어오고 사람들은 줄을 선다. 우리는 원도심으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기를 바란다. 당연하다. 우리는 동네에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사람이 많다는 것은 오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 아니다. 무근성은 물이 좋아 아이들이 잘 자라는 곳이라고 할머니는 말했다. 무근성에 젊은 부부가 많아지고,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 마을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아 갈 사람들끼리 모여서 즐겁게 어울리고, 그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고 그곳을 유년의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무근성이 되길 바란다.

우리는 놓쳐 버린 것들을 주워 담으려 원도심, 무근성으로 찾아 온 것이 아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묻고 싶었기 때

문에 무근성을 걸어 보는 것이다. 해녀가 전복을 캐듯이 저 심연 속으로 다이빙을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래된 동네의 길들을 걸어야 한다. 사람들이 길게 늘어선 전복을 재료로 하는 김밥집 앞에서 서정주의 전복이라는 시를 떠올리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하지만 서정주의 전복 전문을 옮겨 본다.

“바다 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 해녀도/제일 좋은 건 님 오시는 날
따다 주려고/물 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다 캐어내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바다
에 두고 바다바래여 시인인 것”

깃털이 서로 곱치는 곳

할머니는 무근성에서 아기 기르기가 좋았던 이유는 물이 맑고 좋았기 때문이라 말했다. 옛날부터 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 무근성에서 가장 오래 산 아흔여섯 고두연 할머니의 이야기를 녹음하고 다시 메모하며 나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들이 아직도 아침마다 무근성 이슬로 찾아 올 것 같은 상상을 하게 되었다.

“어린 시절 새를 잡아 구워먹으려고 새의 깃털을 뽑고 있는데, 그 새가

머리에 깃털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깃털이 다 뽑힌 채 어딘가로 날아가 버렸어요. 세월이 흘러도, 내가 깃털을 뽑아 버린 새가 기억나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 지, 어떤 하늘을 날고 있을지 계속 생각이 나요.”

한 사람의 생을 기록하는 일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작가들에게 이 사업을 맡아 진행 중인 어르신이 해 주신 말이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 하실 것이다. 자신이 새 깃털을 뽑았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처럼 사람마다 오래 기억에 남는 이야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머리카락을 하이타이로 빨아 말린 뒤 불에 태워서 가루로 만든 후 아는 동생에게 먹인 일들이, 역사적 가치가 있을 지 없을 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흔여섯 할머니가 자신의 생을 돌아보았을 때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였다는 것은 확실하다.

고두연 할머니가 살아온 삶의 깃털 중 우리 시대에 의미가 있는 깃털을 나는 얼마나 많이 뽑을 수 있었을까. 할머니의 몸과 마음에 남은 생의 기록들이 깃털이라면 나는 얼마나 중요한 깃털을 선별해서 잘 뽑아냈을지 궁금하다. 할머니의 가장 밝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출산의 기억들일까, 할머니가 가장 환하게 웃으며 이야기 하던 혼례의 풍경들일까, 이 글에 담지 못한 할머니가 남모르게 흘렸던 눈물들일까. 나는 자신이 없다. 다만 할머니가 들려 준 오래 전 이야기들이 깃털이라면 이 기록들이 누군가에게 읽혀 새로운 깃털이 되었으면 좋



사진 16. 고두연 할머니 (현재)

겠다. 과거와 오늘 그리고 내일의 깃털들이 서로 겹치고 겹치면서 새 한 마리를 따뜻하게 감싸는 둥지가 되었으면 좋겠다. 흘러온 세월의 무늬와 흔적을 공감하는 따뜻한 깃털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무근성에 살다간 오래 전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이 땅에 살아갈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둥지가 될 그런 공간을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에필로그

옛날부터 물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 두 물길 사이 마을이 있던 무근성은 오래 전 이야기이고, 무근성이 아니더라도 물길이 마른 지 오래된 곳은 제주도 곳곳에 많다. 나의 고향에도 돌아가신 아버지가 가뭄이 들어도, 깊은 겨울이어도 절대로 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자랑을 하던 샘도 마른 지 오래다. 그래도 나는 옛날부터 물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말을 믿는다. 목은성에서 가장 오래 산 아흔여섯 고두연 할머니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이슬에도 빠가 있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 한 번 태어나 한 번 죽는게 사람 목숨이다. 고두연 할머니의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신데로 “벗나민 툇 떨어져 부는게 사람 목숨이지만” 나는 그렇게 사라진 이슬 같은 목숨들이 모두 흔적으로 남아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이슬에도 빠가 있어 살다 간 사람들은 모두 그 동네의 무늬가 된다. 그 무늬는 함부로 지운다고 지워지는 게 아니다. 원도심과 무근성이 그런 사라진 사람들의 흔적들을 잘 복원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세를 갖추기 바란다. 새벽 이슬 하나도, 무근성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흔적이라고 믿는 마음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물 있는 곳’이다. 정수기가 아무 곳에서나 뽕뽕 터지고, 삼다수가 편의점마다 팔리는 시대에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정말 마시는 ‘물’이겠는가. 그것은 바로 사람들이 남긴 가치와 흔적을 소중하게 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세가 이 시대의 ‘물’일 것이다. 우리들은 이제 좀 더 사람답게 살고 싶은 가치

에 목말라한다.

이슬에도 뼈가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그런 눈을 갖기 위해 오래된 동네, 원도심, 그리고 무근성의 길들을 걸어 보아야 한다. 낡고 오래된 흔적들을 바라보는 일이, 맑은 이슬을 한 방울 두 방울 모으는 일과 같을 것이다. 그렇게 모은 이슬들이 우리들의 탁한 눈을 씻어 줄 것이다. 그런 이슬을 모아, 함께 어리석은 욕심을 지우고 함께 살아갈 땅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우리는 언젠가 별나쁜 툇 떨어지는 이슬이 될 것이다.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고랐져.

사람 목숨 이슬 아나가,

벗나민 툇 떨어져 분다”

“친정아버지가 나한테 말했어.

사람 목숨은 이슬이라고,

햇별이 비추면 사라지는 것이다.”





삼대에 걸쳐 책을 파는 가업

-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우생당을 지키는 가족



* 고현권·고지훈 대표님은 제주어가 아닌 표준어로 구술했습니다.



삼대에 걸쳐 책을 파는 가업

- 제주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 우생당을 지키는 가족

프롤로그_오래된 서점을 만나며

책이란 매력적인 ‘물건’이다. 돈을 내야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이긴 하지만, 이 상품의 소비는 책을 ‘읽는 행위’를 동반해야만 가능하다. 책을 산다는 것은 책을 읽는 동안의 여유와 시간을 함께 사는 것이다. 책 구입이 충동구매의 산물이라면, 책을 읽는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지갑을 여는 일이 동반되리라 짐작한다. 책을 사서 읽는 행위는 숨 가쁘고 정신없이 돌아가는 일상에서 한숨 돌릴만한 여유가 있음을 표명하는 일이다. 혹은 그 여유 자체를 사보려는 노력이다. 책을 읽는다는 건 바쁜 와중에도 여유를 찾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 여유를 찾는다는 건 다시 문화를 향유하고 소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뜻이다. 돌려 돌려 말하자면, 책을 읽는 독자가 있다는 건 문화를 향유할 문화소비자가 있었다는 뜻이다. 문화의 불모지

라는 제주도에도 이웃골을 중심으로 꽤 오래전부터 서점이 있었다. 우생당이라는 이름으로 1945년부터 이웃골 일대에서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며 열심히 서점업을 꾸려온 곳이 있다. 한국 서점의 역사와 거의 동일한 궤를 그려 온, 제주의 오래된 서점은 어떤 문화사를 써 내려 갔을까? 책과 함께 한 제주의 근대사는 또 새롭지 않겠는가. 근대사와 현대사를 넘나들며 제주 서점의 미래를 내다보는 야심찬 여정에 초대한다. 3대에 다다른 경험과 4대를 내다보는 안목이 결합된 100년을 넘나드는 긴 시간여행이다.

책과 서점, 출판사의 간략한 역사

우리나라에서는 개항 후 신문화의 유입과 더불어 박문국에서 일본으로부터 신식인쇄기를 수입해 책을 찍어 냈다고 전해진다. 한국 최초의 출판사로 알려지는 광인사(1880년대 초 서울에 설립된 출판사 겸 인쇄소)가 창설된 후, 민간출판사들이 잇달아 생기며 일본의 침략에 항거하는 책을 출판하곤 했다. 출판사가 생긴 뒤로 자연스럽게 서점들이 등장하게 된다. 이 서점들은 초기에 출판사업도 겸하다가, 출판인쇄소가 많이 설립됨에 따라 전문영역이 나뉘게 된다. 지금 알고 있는 서점이 본격적으로 한국에서 시작된 것은 1945년 11월부터 삼중당이 도매상을 시작하면서부터다. 1948년 말에는 전국에 52개 서점이 생겼다. 그리고 6·25전쟁으로 대부분의 활동이 중단된다.

제주에서 책과 출판에 관련한 역사를 찾아들어 가자면 상청골을 거론해야 한다. 상청골은 향청골이 제주식으로 굳어진 고을 이름이다. 향청 주위에 있는 동네, 즉 지금의 향사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동네를 말한다. 향사당 북쪽에는 책판고가 있었다. 2014년 발행된 <학교가 떠난 우리고장 이야기>에 따르면, 탐라지에 ‘책판고는 향교에 있다. 책판고의 서책은 대문시전, 대문논어, 맹자, 중용, 대학, 소학, 효경, 중용언해, 대학언해, 소학언해, 십구사략, 격몽요결 등이 있다’라고 서술돼 있다.

디지털제주문화대전은 제주에 첫 서점이 들어선 시기를 1870년대라고 전한다. 제주읍 일도리에 고성주가 문을 연 ‘영주서관’을 도내 첫 서점으로 기록하고 있다. 영주서관은 인쇄업을 겸한 곳으로, 서적 판매보다는 인쇄업이 주를 이뤘다. 설립자 고성주가 1906년 창간한 일본어 신문인 <경성일보>의 제주지사를 운영하기도 했기 때문에 신문지사도 함께 경영했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에서 발행된 잡지를 팔았고, 운영은 고정종이 했다고 전한다. 영주서관에서 출판한 책은 <난곡시집>(1880), <탐라기년>(1918), <제주도 편람>(1930)이 있다. 하지만 제주 고씨의 기록에 따르면 고성주 영주서관 창립자를 1880년에 태어났다고 기록하므로, 영주서관이 1870년에 지어졌다는 디지털제주문화대전의 자료와 일치하지 않는다. 제주 고씨의 기록을 따르면 1908년, 학부편찬 교과용 도서 발매권을 허가받아 제주읍 일도리에 현대식 서점을 열었다고 전한다.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잡지를 주로 판매했고, 고성주의 직업은 주로 교사였다. <난곡시집>의

발행년도가 또 의문이긴 하지만, 일제시기와 탄생년도들의 정황상, 영주서관은 1908년도에 생긴 것이 좀더 정확한 것 같아 보인다. 영주서관의 향후 행보에 대해선 자료가 겹치는데, 영주서관과 함께 정확히는 전문서점이라고 볼 순 없지만,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 초, 제주에 서점과 비슷한 형태의 공간이 또 하나 있긴 했다. 일본인이 주인이었던 소판서점이다. 소판서점은 제주읍 삼도리에 자리했고, 주로 일본에서 출간된 잡지와 문구류를 팔았다. 손님 역시 일본인이 주였다. 1870년대에 영주서관이 설립된 것은 1880년대 초 서울 최초의 출판사이자 인쇄소인 광인사보다 앞선 시점이라 연도가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연구할 가치가 있는 부분이다. 영주서관은 서적 판매보다 인쇄업에 주력했다고 하지만, 광인사 역시 출판과 인쇄를 주로 했다. 경성일보의 유통과 함께 판매망을 가졌던 영주서관과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소판서점의 운영은 순항이었으나, 일제 강점기의 영향 하에 운영된 곳이라 광복 직후 문을 닫았다. 그리고, 광복 이후, 제주에서 독자적인 서점의 역사가 시작된다.

제주도 역시 서점을 주업으로 하는 전문 서점이 들어선 것은 육지처럼 1945년도를 전후한다. 전술했지만, 1945년 일제 강점기 말기에 우생당 서점이 영업을 시작한 것이 정확한 전문 서점 역사의 시작점으로 볼 수 있다. 올해로 73년째, 3대에 걸쳐 운영 중인 이 전통적인 책 공간은 한국 최초의 본격 서점인 삼중당을 따라 아직도 ‘당’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달고 있다. 그리고 6·25 전쟁으로 대부분 문을 닫

있던 육지의 서점들과 달리 긴 명맥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3대에 걸쳐 가업을 되물림하며 현재까지 원도심에 자리잡고 있다. 손님들과의 약속을 지키며 빠짐없이 문을 여는 부지런한 운영도 가치 있는 부분이다. 누군가 제주가 문화의 불모지였다 말한다면, 이 서점의 역사를 들며 반박할 수 있을 만하다.

우생당을 기리기 위해, 우생당을 운영한 이를 기억하기 위해, 우생당과 함께 한 주변의 이야기도 남겨두기 위해, 이 글은 3대에 걸친 우생당의 2대 운영자로서 선친의 이야기와 후대의 이야기를 모두 관찰하고 본인 세대의 이야기는 직접 경험한 고현권 전 우생당 대표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그리고 3대에 걸쳐 우생당을 운영 중인 고지훈 현우생당 대표의 이야기도 포함한다. 28여 년간 우생당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손광국 부장의 이야기를 더해, 한 가업이 지역과 어떻게 호흡하며 살아왔는지를 좇는 여정을 시작한다.

고현권 전 대표의 우생당 기억

제주 최초의 서점, 우생당의 탄생

1945년 8월 15일, 일본의 항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독립하면서 광복을 맞았다. 광복과 거의 맞물린 시점에 우생당은 제주시 관



사진 1. 고현권 전 대표

덕정 남쪽에서 개업했다. 1948년 3월 제주시 남문통 천주교 교육관으로 잠시 적을 옮겼다가, 1950년대 후반부터 원정통, 지금의 관덕로에 장소를 옮긴 이후 60여 년이 흐른 지금도, 그 터에서 끊임없이 책을 받고, 팔고, 정리하는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개업 당시 우생당은 국정교과서 지정판매소로 인가 받아 초·중·고교과서를 공급하며 안정적인 수입망을 구축할 수 있

었다. 문방구류를 포함한 교육용품도 함께 다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수없이 드나들었을 뿐 아니라, 문학인, 예술인들이 찾았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 문화인들이 모여들어 시간을 보내고, 크고 작은 행사를 하는 중에 우생당을 창립한 고순하는 우생출판사를 겸영하며 당시 문예인들의 동인지 발행을 독려하기도 했다. 우생당이라는 원도심 한가운데 있던 서점은 책과 문구류를 파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복합문화공간이었던 셈이다.

1953년 6월 소설가 계용묵이 발행한 <흑산호>도 고순하의 도움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1959년에는 우생출판사에서 시동인지 <시작업>을 창간했다. 이듬해 2호까지 발행되는 것에 그치긴 했지만, 일제치하에서 한글을 사용한 창작활동에 굶주렸던 문인들에게, 산

소호흡기같은 자생매체가 탄생했던 것이다. 문학에 대한 후원인의 애정 없는 단순 호의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수필집인 <검둥이의 서름>, <상아탑>, <정의의 사람들>, <인생독본> 등도 우생출판사의 이름을 달고 인쇄됐다.

고순하 우생당 설립자가 세상을 뜬 뒤,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버리고 서점이라는 가업을 이은 고현권 2대 대표를 만나 우생당 서점의 이야기를 들었다. 지금은 아들에 경영권을 모두 넘기고, 서점 건물 4층에 있는 집에서 서점을 함께 꾸리던 부인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작은 교통사고가 있어 인터뷰가 미뤄졌지만, 오래된 동네의 오랜 건물에서 많은 시간을 지낸 이가 풀어놓는 이야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모두 제주의 역사와 맞닿아 있었다. 제주 최초의 서점이자 가장 오래된 서점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우생당 서점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지켜본 시각으로 들려주길 청했다. 고현권 우생당 전 대표는 선대가 운영하던 시절의 이야기는 가물가물하다면서도 대부분 정확한 지명과 이름을 대며 인터뷰에 응했다. 선천에서 시작돼, 인터뷰이에게 이어진 서점 운영이 이젠 아들에게까지 넘어간 이야기들이 이하의 내용이다. 서점을 둘러싼 이웃골의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음은 당연하다.

고현권 전 대표는 전술한 영주서관과 소판서점을 거론하면서도 우생당이 최초의 정식 서점이라고 말하는데는 주저함이 없었다. 우생당의 등장과 함께 도내에 서점이 40여 곳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다시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서점은 참고서를 취급하는 제법 규모가 큰 서점들을 말한다. 서점은 서적을 배포하는 역할 뿐만 아니라 출판문화의 척도 중 하나로 중요한 구실을 해왔으며, 문화공간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특별한 장소로 활용된다. 최근의 제주는 독립서점, 동네서점, 작은책방, 북스페이 등, 서점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컨셉이 반영된 개성있는 공간들이 생기면서 예전에 서점이 차지하던 자리를 메꾸고 있다. 다양한 문화행사들을 마련한다는 점도 예전 서점이 가진 역할과 비슷하다. 오히려 문화행사나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점이 더욱 부각되는 상황이기도 하다. 우생당이 그랬던 것처럼, 서점이 단순한 책을 파는 공간이 아니라, 복합문화공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라도, 60년 전, 서점문화가 태동하는 지점에서 제주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생당의 활동을 지켜보는 점은 더욱 가치있어 보인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서점으로 3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종로서적을 내세우고, 규모가 큰 서점으로 교보문고와 영풍문고를 드는 것을 보면, 우생당을 제주도 문화브랜드로 가꾸고 알리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기도 한다. 지역의 오래된 서점으로 최근 지역명소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속초의 동아서점도 1956년도에 시작된 서점이다. 우생당보다 11살이나 어린 셈이다.

문화인들의 아지트, 동백서점과 우생당

서점은 오랜간 지역문화인들의 만남의 공간이었다. 작가의 모임과 다방과 서점문화의 어울림이 존재하던 곳이다. 고순하 설립자가 우생당을 처음 세워 운영할 때만 해도 서점문화와 지역문화는 서로 잘 어우러졌다. 현기영 작가와 같은 문학소년들을 중심으로 모임이 생겼으며, 박목월 같은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시인도 제주에 체류하면서 우생당으로 모여들었다. 다양한 이유로 제주로 온 작가들은 <검둥이 설움> 등 우생출판사의 이름으로 책을 출판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생출판사는 제주에선 최초의 전문출판사로서 10여 권 이상의 책을 발간하게 된다. 우생출판사의 운영은 고순하 창립자적, 즉



사진 2. 우생출판사에서 만든 '오돌또기'와 '상아탑'

선대 때 끝났다. 이 사실도 고현권 전대표는 MBC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를 찍기 위해 자료를 조사해서 우생출판사 책이 10가지가 있다고 알려 주고 가서야 알게 됐다. 그 10권의 책 중 두 권은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 지금 미소게스트하우스 자리에 있던 제주인쇄소는 제주에서 가장 큰 규모였다. 제주인쇄소에서 <오돌또기>를 인쇄했고, 출판등록도 받았다. 제대로 책 다운 책을 만들어냈던 것이다. 출판, 판매, 인쇄가 모두 지척에서 이뤄졌다. 고현권 전 대표가 아직 학생 일적에 선친이 사고로 돌아가신 까닭에 선친이 우생당을 경영할 적의 이야기는 제주대학교의 양중해 작가가 더욱 잘 알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중해는 사랑의 도피차 제주에 머물던 <백치 아다다>의 박목월과도 인연이 있다. <떠나가는 배>를 작사하게 된 사연이 바로 박목월의 이야기에서 비롯된다. 박목월도 제주 거주 당시 우생당을 자주 들렀다. 그때 즈음 지어진 시가 <배경>이다. 김영돈은 1974년 발행한 <제주문학> 제3호에서 “박목월 씨가 제주대학에 출강하면서 제주대학 대강당 등에서 벌어진 문학의 오후 같은 분위기는 우리 주변에게 문학열을 한결 불길러 번지게 했는가 하면 작품 낭독이 있은 후 총평하는 박목월의 날카로운 재단으로 하여 십여 년간을 써두었던 원고 몽치를 고스란히 불태워 버린 어느 친구의 에피소드도 이제는 옛 얘기가 되었구나”라고 회고했다. 계용묵과도 인연이 있던 양중해 시인이 회고한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서 아들 계명원의 혼례를 치를 적에도 계용묵은 몇 평 안 되는 동백다방을 예식장 삼아 테이블에 양과자를 놓고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렀다고 한다. 계용묵이



사진 3. 계용묵 선생님과 학생들



사진 4. 옛 동백다방 자리에 세워진 계용묵 기념비

제주에 체류하는 동안 동백다방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은 많은 이들이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계용묵이 피난 생활을 시작한 것은 1951년 봄부터이고, 제주극장 남쪽에 터를 잡고 있었다.

1950년대를 ‘제주문학의 부흥기’라 부르는 공은 많은 이들이 계용묵에게 돌린다. 1998년 제주문인협회에서 한국문인협회의 한국현대문학 사적지 표징 사업 지원을 받아 칠성로에 ‘계용묵 선생의 문학산실’이라는 기념비를 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계용묵 시인이 주로 머물던 동백다방이 있던 자리에 설치하려고 했지만 가게 주인의 반대로 다방의 동쪽편 건물 ‘제일모직 하티스트’ 앞으로 옮겨 설치했다. 계용묵이 1952년에 종합교양지 <신문화>와 1953년에 동인지 <흑산호>를 발간하던 시절엔 제주도의회 의원이던 제주주정공장 전무 강재량 대표, 당시 우생당 서점을 운영하던 고순하 설립자의 도움을 받아 제작비 등을 충당하기도 했다. <별무리>라는 문학모임을 이끌고 동명의 동인지를 발행하며 양중해, 김종원, 최현식 등의 등단문인을 만들어냈다. 왕성한 문화활동이 이웃골 일대를 중심으로 벌어졌다.

2006년 발행한 <제주도지> 6호에 양중해가 ‘제주문단의 형성 과정’이라는 글에 쓴 바에 따르면 “계용목을 중심으로 제주시내의 다방, YMCA 강당, 우생당 서점, 학교 강당 등에서 시 낭송회, 문학작품 합평회, 문학의 밤이 자주 열려 중고등학교의 젊은 교사와 학생들의 문학적 관심이 고조되었다. 시나 소설을 쓰는 문인들은, 이곳 문학도들에게는 신비스러운 존재였다”라고 한다. 그렇게 제주문학의 씨앗을 뿌린 공을 말할 때, 계용목과 함께 거론되는 인물이 우생당 서점의 창립자인 고순하이다. 당시 1950년대 초에는 제주에 서점은 ‘우생당’과 ‘신창사’ 두 곳 뿐이었고, 그중 우생당의 설립자가 문화인들을 대변하는 일에 관심을 두었다. 김영돈은 1974년 발행된 <제주문학> 제3호에서 ‘어린이 신문다운 신문을 발행할 수 있도록 스폰서 노릇을 해 준 고순하 씨의 한결같은 지원을 가슴 깊이 간직하리라’라고 적고 있다. 1953년 12월 제주도내 중고등학교 학생들과 제주대학 재학생으로 구성된 ‘별무리’모임의 동인지 <별무리>는 고순하의 재정지원, 계용목의 문학지도에 힘입은 것이고, <신문화>와 <흑산호>의 출판비용은 고순하가 전액 부담했다. 양중해가 회상하는 고순하에 대한 회고는 그의 활동을 잘 보여준다. “서점 우생당 주인 고순하 씨는 서점을 운영하는 사업가이면서도 수지만을 계산하는 사업가는 아니었다. 특히 계 선생을 모시는 데는 각별하였다. 계 선생은 물론이지만 문학 동호인들이 모인 자리에는 예외 없이 문인 아닌 고순하 씨의 얼굴이 끼어 있었다. 다방에서 차를 마셔도 찻값은 늘 일방적으로 고순하 씨가 치렀고, 회식 때에도 그랬다. 계 선생은 동백에서 나

와 집으로 가시는 길에는 예외없이 우생당에 들르셨다. 그렇고 보니 계 선생의 집과 동백다방을 오가시는 길 도중에 우생당이 있었던 것이다. 우생당 주인 고순하 씨는 언제나 판에 박힌 듯 남향의 서점 카운터에 앉아 있으면서 계 선생을 맞이했고 문우들을 맞았다. 그 카운터에 고순하 씨의 그림자가 없을 때는 계 선생과 함께 동백다방에 앉아 있는 때가 될 것이다.”

그렇게 우생당 일대에서 활동하던 문인들이 다시 먹거리를 찾아 나오던 광장이 있던 동네로, 제주의 대부분의 먹거리와 광장문화를 형성하던 곳이 지금 우생당 서점 바로 앞이다. 지금까지 영업 중인 함흥면옥도 그때부터 있었다. 우생당은 맨 처음에는 구시청 앞(관덕정 앞)에 있다가, 지금 우생당 자리의 길 맞은편으로 이사했다가, 지금의 누네티네 국수 자리에서 운영하다가, 중앙예식장 쪽으로 이전했다. 고현권 전 대표가 유치원 때 지금의 관덕정 맞은편 자리로 이동했다. 지금 자리는 고현권 전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즈음 신축한 건물이다. 이곳을 서점으로 사용하고, 누네티네 국수 자리를 주택과 창고로 사용했던 것 같다. 지금의 탐동사우나 앞쪽은 온통 먹자골목이었다. 부자집이라는 순대국밥집이 3대에 가까이 운영한 역사가 긴 식당인데 시청 후문으로 이전했다가 어느 순간 문을 닫았다. 부자집은 할머니가 직접 만든 동동주를 팔기도 했던 만남의 장소였다. 이렇게 분주히 오가며 장사하고 손님들이 찾던 이야기는 모두 과거형이 됐다. 인적이 가장 많았던 제주의 도시는, 이제 ‘옛’도심이라는 뜻

으로 구도심, 혹은 원도심이라 불린다. 원래 도심이었던 자리를 새로운 누군가에게 내어줬다는 뜻을 내포한다. 이제는 도심이 아니라는 말이고, 성황이던 모든 것들이 퇴색했다. 아직 현재를 과거의 영광이 많이 남았다. 좋았던 시절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자.

서점 비즈니스_과거와 현재

선친인 고순하 우생당 설립자는 젊었을 때 부산에 나가서 서점업에 종사하다가 제주로 귀향했다. 성산 출신으로 제주생활이 어려운 시절이라, 작은할아버지가 계신 부산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였다. 작은아버지는 당시 ‘천명당’이라는 직원이 15명 되는 규모가 큰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조카들이 가서 도우면서 학업도 하고, 일도 돕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그 조카들이 성장한 뒤에 고향에서 서점을 열게 됐다. 고순하 설립자가 제주에 서점 차릴 때쯤 작은할아버지는 부산의 서점을 접고 일본으로 갔다. 따라서 서점 개업을 위한 직접적 도움은 받지 못했다. 물론 수많은 서점 비즈니스 노하우를 이미 부산에서 실전으로 알려주신 상태였지만 말이다. 제주의 유통망으로는 목포와 부산이 주된 유통거래지역이었다. 비행기가 한 달에 한 번 있던 시절이라 뱃길로 책을 받았다. 부산의 대한도서관 목포의 문화당 등에서 책을 공급받았다. 어릴 적에 부산과 목포를 아버지를 따라 자주 방문한 경험이 있다.

가업으로서 이어간 서점이었다. 아버지는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운영하는 곳을 넘겨받았다. 고순하 우생당 창립자는 제주도 초대 교육위원이었다. 교육위원 직함이 있어서, 그 이름으로 사업을 하지 못해서 우생당은 어머니 이름을 대표로 단 채 운영됐다. 고순하 창립자가 일본에 시찰을 갔다가 고혈압으로 쓰러졌고, 한참을 병원에 입원했다. 한 달 뒤에야 제주로 돌아와, 제주에서 치료를 이어갔다. 아버지가 서점 운영에 어려움이 있자, 동아서점(당시 대표가 농고 선생님)에 교과서 공급소 권한을 넘겨줬는데 부도가 났고, 동아서점 대표는 도주했다. 아버지 이름으로 보증을 섰던 바람에 충격이 있었다. 그 빚을 다 갚아줘야만 했던 것이다. 동아서점 채권단이 아버지를 찾아오면 그 돈을 보상해 줬다. 병환 중에 이 일이 겹쳐 화병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신성여고 자리에서 장례식을 했다. 교육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으로 현직 교육감과 당시 도지사가 장례식에 왔다. 신성여자고등학교 운동장에 제단을 만들고 각 기관장들이 의자에 나란히 앉아 식을 거행했다. 학생들이 국화를 바쳤다. 각 교육기관의 장들과 학생들이 동원됐으니 굉장한 인파가 몰렸다. 중앙성당에서 중앙로터리까지 이어지는 만장행렬이 생겼다. 황세왓성지까지 운구했다. 운구는 제주대 학생들이 했고, 고현전 전 대표는 사진을 들고 운구행렬을 따랐다. 초대 농구 협회장, 자유당 위원장, 공화당 조직국장, 교육장, 문인협회부회장, 제주천주교회 사도회장 등을 맡고 계셔서 문화계에 영향력이 있던 분이셨다. 돌아가셨을 적의 나이가 49살로,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

나셨다. 경주호(이북에 납북될 뻔했던 배가 연료가 떨어져 납북 안 됨)의 대주주, 후생제약회사(조일약국과 후생병원과 함께)의 대주주, 최초의 제주신보 대주주 등을 역임했다. 부산에서 서점을 운영하고 온 경험 덕에 시대의 문화인으로 활동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아버지 앞으로 받은 공로패가 아직도 집에 남아있다.

고순하 우생당 창립자, 즉 고현권 전 대표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생각보다 빨리 서점 영업을 시작하게 됐다. 동아서점 채권을 갚는 과정에서 교과서 공급권을 찾아오게 됐기 때문이다. 굉장히 큰 이권이였다. 아버지 대신 어머니가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힘들어서 일반서점을 안하려는 생각도 있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는, 승계차원에서 물려받아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규모에서 1/3로 줄여서 장사를 시작했다. 도로가 나기 전이라 15평 정도의 규모로 운영했다. 그때가 고현권 전 대표의 나이 22살이었다. 학교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게 된 상황이었다. 교사로 발령받아 육지를 가게 되자, 부인에게 운영을 맡겼다. 그마저도 상황이 어렵게 되자 학교엔 사표를



사진 5. 고현권 전 대표가 운영할 당시 우생당



쓰고 제주도로 돌아와 본격적으로 서점 사업을 시작했다. 서점 뿐 아니라 다른 사업에도 손을 댔다. 제주에 관광 붐이 일던 상황을 반영해 일반 호텔을 지은 것이다. 호텔을 지을 당시는 아직 한참 어린 나이, 29살이었다. 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신제주 그랜드 호텔 옆에 지은 이 호텔은 47실을 가지고 있었다. 39살엔 외부 유입자본 없이, 제주의 순수자본으로 100실짜리 호텔을 짓기도 했다. 일반 호텔을 관광호텔로 증축하는 과정이 3년이 걸렸고, 증축 후 재오픈을 한 해가 1997년이다. IMF가 찾아온 해다. 은행채권을 외국자본이 인수해서 다시 육지 사람이 구입한 이 호텔은 아직도 뉴 아일랜드 호텔이란 이름으로 제주에서 영업 중이다.

서점을 둘러싼 문화공간, 문화활동

서점을 운영하며 늘 책을 팔았지만, 고현권 전 대표는 작가들과의 문화교류는 거의 없던 편이다. 고순하 창립자가 운영하던 시절의 우생당에는 문인들이 배고픈 시절이라 서점 안에 찻집과 주막 비슷하게 언제나 술과 안주가 준비돼 있었다. 주인이 없어도 문인들이 드나들던 곳이다. 김영동 교수(국어학자), 문충성 시인(학생 시절), 현기영 작가 등이 문학 동아리로서 활동하던 때의 이야기다. 김종언(한국영화, 책도 발행) 등이 제주 문학씬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수놓음 문화가 있어서 젊음으로 어울리는 정도의 문화였다. 윗세대는 문화공간과 사업이 공존하던 시절로 여겨도 무방하다. 아버지

시대엔 사업으로. 교과서 공급이 전두환 대통령 전에 나라(정부)에서 맡아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서점 사업이 더 힘들어진 것은 당연한 일이다. 각 교육청에 월급쟁이 주재원을 심어서 교과서를 납품하도록 했다. 이 방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 시스템이다.

‘집당’을 써서 예전에 서점은 다 당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오래된 서점을 의미하는 용어가 됐다. 일제 강점기 때 생긴 서점은 당이라는 말을 붙여 사용했던 것 같고, 그 이후엔 서점 혹은 책방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듯하다. 서점 운영이 지속된 이유는 다른 게 없다. 매출이 높은 영업이 됐다. 할 만한 사업이었다는 뜻이다. 제주를 육지 사람들에 비해, 그리고 제주의 적은 인구수에 비해 책을 많이 읽는 문화가 형성돼 있었다. 지금 제주에 서점이 36개라고 한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아니 세계적으로 서점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70년대부터 제주는 그 수를 계속 유지해오고 있다. 제주의 특이점이라 할 만 하다. 대형화된 서점이 없는 상황 등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 제주 서점의 특이점이라면, 유통구조의 특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섬이라는 특성상, 독자적인 유통방식을 가져야 하는 운영상의 어려운 점이 남아있지만, 제주라 가능한 일들도 있다. 세상의 모든 일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다.

직장인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도로확장공사를 하게 되면, 돈을 내야했던 시절이다. 박정희 시절인데, 땅을 잘라

줘도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 공사하는 돈을 내야 했으니, 지금 시대와 달라도 크게 다른 논리다. 육지에 있는데 친구 편에 연락이 왔다. 집을 지어주던 건설회사(대신개발)가 크게 부도가 나서, 집을 짓다 말고 돌아가 버렸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안 계신 집안의 큰아들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제주로 돌아와서 직접 집을 짓기 시작했다. 그렇게 지은 건물이 지금의 우생당 건물이다. 선생님 노릇을 하는 일이 직장으로서는 좋았지만, 젊은 열정으로 헌신하기에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할 순 없었다. 서점에서 벌었던 돈을 호텔 사업을 해서 다 탕진하기도 했다. 일반호텔을 운영할 때는 돈을 벌었지만, 관광호텔로 증축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있었다. 서점이 가마니로 돈을 벌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는 교과서는 물론 참고서 시장이 굉장히 컸다. 창고 180평을 운영해야 했을 정도로 물량이 많았다. 제주도의 유통상 특수성과 교육열이 반영됐을 수도 있다. 그중에서도 전과시장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다. 참고서 하나당 몇 천 부 단위로 팔리던 것이 이제는 몇 백 부 단위로 팔린다. 다품목 소판매의 시대로 들어선 까닭이다. 이제는 이 서점이 아들까지 엮인 3대째의 사업이 됐다. 십 년 전에 부인이 뇌출혈로 쓰러졌다. 아들이 서울에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쓰고 내려온 이유다. 북카페 식으로 탈바꿈한다거나 치맥북으로 하는가 등 고민과 연구를 이어가는 중이다. 서점 운영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데는 동의한다.

사인자 서점(옛날 소라다방)에는 문인들이 줌 모였다. 칠성통과 동

문로터리로 사람들이 집결됐다. 중앙로 거리는 모든 것이 집중되던 시절이다. 먹자골목, 술집, 극장, 음악, 놀이, 시장 등 모든 것이 있던 곳이라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놀고 싶으면 중앙로로 모여야 했다. 이제는 도시공동화가 진행되면서, 어린아이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학생들이 안 보인다. 젊은 사람들이 동네에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순대국집이던 부자집은 삼대가 하다가 없어졌다. 오래오래 운영하던 노포가, 없어지는 건 순식간이었다. 인천문화당 위에 풀떡과 단팔죽 팔던 곳이 있었다. 동양극장 앞에도 풀떡과 단팔죽을 팔던 곳이 있었다. 성당 앞에는 고등어구이와 막걸리, 흥탁을 팔던 곳이 있었다. 탐라광장 뒷골목 동문로터리 441 갈비는 돼지갈비 팔던 곳으로 유명했다. 지금은 복개한 산지천 자리에 있던 건 맥주거리였다. 탑동으로 가는 금강제화 골목은 막힌 곳이었는데, 이제야 탑동까지 뚫어서 변화가로 만들어져 있다. 막혀있기 때문에 마근골(막힌길)이라 부르던 곳인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시대가 많이 변하긴 했다. 그 골목에 유명했던 중국집으로는 아주반점과 북경반점이 있다. 영춘빵집이 만두찜빵으로 유명했다. 지금의 오메기떡 저리가라 할 정도의 명성이었다. 동양극장의 옥상이 전부 롤러스케이트장이었다. 신성여고 주교관 짓기 전 자리도 롤러스케이트장이었다. 신성유치원 밖에 시멘트를 깔아서 야외 롤러스케이트장을 만들기도 했다. 동문탁구장, 원동당구장, 호남당구장, 청탁당구장, 제일당구장 등 젊은이들이 모여 놀 수 있는 공간은 원도심 일대에 가득했다. 다방도 즐비했다. 소라 다방과 산지다방이 유명해서 젊은 사람들이 주로 드나들었다. 나이

든 사람은 칠성다방, 무지개다방을 애용했다. 노래가 나오는 다방이 아니라 디제이가 나오는 신지다방, 중앙다방이 생기면서, 젊은 작가들은 그쪽으로 이동하게 된다. 사회 운동을 하던 양동윤은 디제이 출신으로 말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재능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문화가 만들어지고, 문화를 즐기던 시절의 이야기다.

우생당에서는 한라산 등산지도를 제주 최초로 발행해서 많이 팔기도 했다. 고순하 설립자가 동료들과 같이 등산을 하면서 직접 만든 지도였다. 지도를 만들자고 기획해서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다방에서 만난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책을 내는 구조로 일을 하곤 했다. 최근에 문화거점사업을 진행하려 한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구도심 개발 구상안은 우생당을 중심으로 문학거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다. 차 없는 거리를 만드는 건 반대하지만, 구도심활성화가 되려면 문화 콘텐츠로 가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한다. 중요한 것은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용주차시설을 만들어 주차난을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예전에 탐동이나 산짓물처럼 물이 있는 곳에서는 김장철에 그 주변에 배추를 절이느라 배추탑이 쌓여있는 걸 보는 게 흔했다. 당시만 해도 김장을 했다 하면 100포기씩 하던 시절이다. 집집마다 김장을 하느라 물가를 배추를 쌓아둔 장관은 지금도 생각이 난다. 산지천에는 장어도 많았다. 민물장어를 구워다가 잡아먹은 기억, 산지천

에서 빨래를 한 기억이 남아있다.

서점의 기억, 동네의 기억

고순하 창립자가 살던 집은 동네에서 가장 큰 집이었다. 지금의 우생당이 위치한 곳은 사실 창고자리였고, 원래는 그 맞은편에 서점이 있었다. 신학기가 되면 마루며 응접실이 책으로 꽂 차곤 했다. 육지에서 배가 한 번 오면 500-600짝이 도착했기 때문에 보이는 공간마다 책더미를 쌓아두기 바빴다. 한 짝이 한 가마니인 셈인데, 직원이었던 형들이 책더미가 도착하면 새벽까지 나르고 쟁여놓는 일을 했다. 당시엔 교과서가 들어오면 100m씩 줄을 서서 책을 사곤 했다. 그렇게 책을 팔아 돈을 벌었으니, 동네에서 가장 큰 집에 살 수 있던 것이다. 시간이 흐르고, 정책이 바뀌면서, 교과서를 학생들에서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납품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서점이 학교에 교과서를 대량으로 납품하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교과서 비용을 일괄로 정산해주는 방식이었다. 사립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는 제때 서점에 주지 않는 일이 지속적으로 생겼다. 교과서 받은 돈을 선생들이 다 써버리는 것이었다. 교과서를 떼온 돈을 서점이 입금해야 하는데, 정작 돈을 받은 학교에서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니 마이너스 장사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의 일이라, 어머니가 수금을 해야 해서 더 힘들었던 상황이었다. 아버지가 교육위원이었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교과서 돈을 제

때 줄 수 없어서 힘들었다가, 그마저 정부에서 관리하게 되면서 이 방식의 사업구조는 사라졌다.

즐거운 취미생활, 동네에서 영화보기

고현권 전 대표가 서점을 운영할 때만 해도 모든 일이 전산화가 안 되던 시절이다. 모든 판매수익들을 다 수기로 기록해야 했다. 진열하고, 입고와 재고, 반품 등의 내용들도 다 수기로 장부정리를 해야 했다. 모든 책의 위치와 개수는 재고정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머리에 입력됐다. 이제는 서점에서 책을 전산으로 찾지만, 당시는 책이 어디에 있는지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파악됐다. 바둑은 못 두지만, 바둑 두는 사람들이 복기를 하는 방식을 고 전 대표는 알 수 있다고 한다. 계산서를 보면 재고파악도 저절로 되는 일도 벌어진다. 관심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 어느 일에든 기함할 만한 전문성이 생기는 모양이다.

책의 위치와 재고 등을 저절로 파악하는 재주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 전 대표는 책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고 고백한다. 아이들은 모두 책을 좋아했지만, 고 전 대표는 아버지와의 아이들과도 다르게 책을 온전히 비즈니스로 대했다. 체육 선생님 출신이었던 만큼, 책보다는 스포츠에 관심이 많았다. 영화도 좋아했다. 고 전 대표의 동네 친구가 제일극장과 중앙극장 아들이어서 공짜로 영

화를 많이 보곤 했다. 영화를 볼 때 의자를 직접 가지고 가서 앉아서 보고, 그마저 만원이 되면 서서 보기도 하고 그랬다. 집에서 접는 의자를 가지고 가면, 자리가 가득 찬 극장에서 전용자리에 앉아 편하게 공짜영화를 편히 볼 수 있었다. 특권이었다. 극장은 당시 문화공장과 같았다. 당시는 지금처럼 배급사가 있던 시기가 아니라서, 극장이 배급사를 겸했다. 아카데미극장도 극장으로 돈을 버는게 아니라 배급사로 돈을 벌곤 했다. 영화에 투자금을 대서, 호남 지역 배급권을 가지게 되는 방식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투자라는 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아서, 투자를 하면 대부분 망했다고 봐도 좋다. 아카데미 극장의 경우, 배급사가 대형화되면서 사업이 이어지지 않아 파산했다. 배급사가 대형화되면서 지역배급사는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던 것이다. 영화사가 자금이 융통이 안돼서 로맨스물을 주로 감상했다. 이소룡편이나 서부영화가 주를 이루던 시절이기도 했다. 문화공장이라는 표현은 많은 이들이 즐기는 영화를 제작 상영한다는 뜻에서도 그렇지만, 화가들이 영화간판을 그렸던 까닭도 있다. 고재만 화가도 예전에 영화간판 그리던 간판쟁이였다. 화장실에 가면, 큰 천에 페인트로 포스터를 그리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영화를 3-4일 밖에 상영하지 않던 시절이고, 히트를 쳐야 5일 정도 상영을 할까 말까였다. 그래서 간판을 매일매일 그려야 했던 시대다. 당시는 필름이 많지 않아서, 그 필름이 지방을 다 돌아야 했기에 상영기간이 매우 짧았던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2시간 차이로 틀기도 하는 시스템이었다. 1시간 짜리 영화는 필름을 40통 썼다. 만

약 제주시 한 쪽에서 20통을 돌리면, 나머지 20통을 서귀포같은 다른 지역에서 돌리는 형식이었다. 필름은 시발택시로 운송했다. 시골 극장에서는 배급을 하지 않아서 직접 매입은 안 되니까 빌려서 영화를 틀고 수익을 나눠가지곤 했다. 제주시는 하루에 3번 상영했고, 시골은 2번 정도 상영하는 방식이었다. 영화를 보다가 필름이 끊어지는 일은 부지기수였다. 필름이 도착하지 않으면, 정전됐다고 해서 기다리게 하기도 했다.

이런 비화들은 극장 아들이 친구라서 알 수 있던 이야기들이다. 무근성 일대에 나고 자란 부자 친구를 곁에 둔 덕에 가능한 문화소비 이야기다. 제일극장은 한번 무너진 뒤에는 재기에 성공하지 못했다. 동양극장도 제주도 재벌이었는데 사업이 지속되지 못했다. 당시 극장을 가진 사람들은 다 그 동네의 재벌이라고 봐도 좋았다. 극장집의 후손들은 모두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유학을 가곤 했다. 하지만 규모가 큰 사업은 서서히 기울다가, 어느 기점을 넘겨버리면 재기가 어려운 법이다. 원도심 일대의 극장의 역사는 그렇게 끝나갔다.

제주극장에서는 영화뿐 아니라 각종 공연을 하기도 했다. 노래자랑을 열어 수상자에게 금반지를 주기도 하는 등, 동네의 재미있는 행사들은 모두 이곳에서 열렸다. 고현권 전 대표의 기억에 제주극장에서 가장 감명 깊게 본 연극은 <제17 포로수용소>였다. 오현고등학교에서 개교 10주년을 기념해 여는 예술제를 위해 배우 15명, 스태프 13명

이 참여해 제작한 극이었다. 포로수용소를 무대로 한 이 극은 뉴욕 브로드웨이의 히트작으로 후에 영화화 되기도 했다. 오현고등학교에서 만든 동창회 자료에 강한근이 쓴 회고록에 따르면 “연출지도는 신성여고에 재직 중이던 김규영 선생님이 하셨고, 기획은 김승택 선생님, 미술은 제주여고 미술 선생님이신 현승복 선배가 맡았다. 공연 장소는 당시 제주극장. 연극은 대성공이었다. 학부모, 시민, 다른 학교들(특히 여자고등학교!)의 요청이 쇄도해 연장 공연을 할 수밖에 없었다.” 고등학교 예술제를 위해 제작한 연극에, 제주도가 들썩했던 셈이다. 중국식으로 길죽한 나무의자가 있던 제주극장을 묘사하는 고 전 대표는 당시 연극과 영화를 즐기던 청춘으로 잠시 돌아가는 듯했다. 함석으로 지은 극장의 천장 틈으로 낮이면 빛이 들어오던 장면까지 묘사했다. 문 대신 건물의 측면을 들어올리면 되는 구조로 지어져서, 공연이 끝나면 사람들이 우루루 몰려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 그마저도 신식으로 제일극장이 생기면서 제주극장의 경쟁력은 약해졌다. 제일극장에는 매점도 있고, 로비에 어항도 있었다. 새로운 세상이었다.

그래도 다시, 서점

고현권 전 대표가 호텔과 서점 비즈니스 중에 서점을 택한 건 가업이었기 때문이다. 서점은 사장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했고 노하우도 충분히 있었다. 호텔은 언제나 직원이 필요하고, 시스템이

움직여야 해서 부담스러운 사업이긴 했다. 우생당이 쌓아온 역사 덕에 전국적인 신용도도 있었고. 여러모로 주변의 도움을 받았다. 당시는 유통업 종사자들도 다 또래였고, 그들이 다시 사장이던 시절이다. 아버님 세대까지도 유효했고, 고 전 대표의 시기까지도 통하던 이 이야기는 물류와 유통을 대기업이 잠식하면서 없는 이야기가 됐다. 대단위 자본이 독식한 시장에서 개인적인 사정이나 편의를 봐주는 일은 어렵다. 말 그대로 이 시대는 젊은이들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업에 어려움을 겪다가 재기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다는 뜻이다.

사실 대형유통사가 무너지면 서점은 이익이다. 돈을 안 갚아도 되기 때문이다. 송인서적의 부도는 지역서점이 대형유통사에 책을 반품하지 않아도 돼서 큰 피해는 없었다. 다만 출판사가 망하면 서점이 손해를 본다. 정산을 하다보면 출판사에 이미 입금이 돼 있는 경우가 있다. 반품은 다른 책으로 교환이 되는데, 출판사가 망하면 안 팔리는 책은 휴지가 된다. 출판사에선 신간을 찍으면 일단 여러 권을 서점에 보낸다. 수금을 해갈 때는 팔릴 것을 예상해서 어음을 받아간다. 그런 경우에 책이 안 팔리면 시스템은 마비가 된다. 유통사는 출판사가 망하게 되면 미리 반품받는 등의 대행을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물류비용이 많이 내려가면서 서점운영도 원활해졌다. 제주까지 도착하는 비용은 물류사의 부담이지만, 제주에서 반품하는 운반비

용은 서점 측에서 부담했다. 서울 등의 육지에서 서적이 배달되면 예전에는 목포까지만 배달했다. 나머지는 서점에서 부담해 제주까지 추가로 운송하곤 했다. 서점은 늘 서울의 물류팀의 눈치를 봐야했다. 서울 물류팀에 제대로 접대를 하지 않으면, 발송을 2-3일 늦춰 버리기도 했다. 이 말은 목포에 태풍이라도 불면 제주까지 받아보는 데는 20일이 늦어져 버린다는 뜻이라 치명적이다. 목포에 물류가 묶여 있는 경우, 채소나 과일 등의 식료품은 신선함이 중요하고 썩으면 골치가 아플테니 먼저 배송해 주지만, 책은 썩지 않으므로 밀린 물류 중에서 나중 순서로 취급되기 일쑤였다. 신학기에 참고서가 이 문제에 걸리면 정말 큰일이었다. 타 출판사나 타 대리점, 혹은 타 서점에 참고서가 먼저 도착하고, 경쟁사와 입고에 시간차가 벌어져 버리면, 제때 손님을 만나지 못한 물량이 고스란히 엄청난 재고로 남아버리고 말았다.

어릴 적엔 선친과 함께 학교 시찰을 따라가곤 했다. 시골에 가면 달구지에 실린 물을 배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선친은 글쓰기를 즐기고 잘 쓰는 편이라, 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모임을 하거나 글을 쓰는 활동을 이어갔다. 더불어 종교 활동에도 적극적이었다. 문학과 종교 활동한 자료들이 집에 많이 있었는데, 화재로 소실되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다. 화재는 고현권 전 대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창고에서 시작됐다. 서점-주택-창고가 있던 구조의 집이었다. 발화지인 창고에 소방차가 와서 물을 뿌리는 바람에 책이 물에 젖

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기억이 있다. 옛날책은 습도 때문에 장마에 습기가 차면 풀이 떨어져서 책이 벌어지곤 했다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다.

우생당의 고객은 주로 결혼 안 한 직장 여성들이었다. 그들이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잡지와 소설이 많이 팔리던 시대의 고객층이다. 당시에 제주에선 소라다방 등에서 그림전시회와 소품전을 이어가곤 했다. 선배로서 후배 작가들 작품을 구입해주러 가기도 했다. 강요배 작가도 다방에서 전시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서점 직원은 최소 3명에서 최대 7명까지 있었다. 장부정리는 사장이 직접했지만, 때로 경리 직원을 두고 관리하기도 했다.

무근성은 오랜간 고급 주거지였다. 구도심은 상가였던 시절이다. 성내, 산지포구고 물이 중요했는데, 탑동에 샘이 솟았다. 좋은 마을은 물이 좋아야 하는데, 관청을 중심으로 마을이 변화할 수 있었던 건, 샘 덕분이다. 1970년대의 신제주는 버려진 도시였다. 신제주가 허허벌판이던 시절, 땅 팔아 사업하던 사람들은 망하고, 계속 농사하던 사람들은 이제 땅부자가 됐다. 과수원 초창기에는 부자들은 과일은 돈 주고 사먹지 농사지어 고생하는 수고에 대한 마인드가 없었다. 자수성가 사업가들이 모인 곳이 곧 무근성이었다. 박종실 대우빌딩 건물주는 옛장수 출신이었다. 지금도 대우빌딩 건물에는 자수성가

의 발판이 되어준 옛판과 가위를 전시하고 있다. 박종실 대표가 살던 대우빌딩 건물은 본가고 남양체인은 손자였다. 우생당을 건립한 고순한 선친도 부산에서 일 배우고 돈 모아서 제주에서 자수성가한 경우다. 당시 집에 자체 우물이 있었다는 것은 부유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기도 특선은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는 전기였고, 일반은 아침 8시에 시작해서 저녁 8시에 끝났다. 수도 역시 일반과 특선으로 나뉘었다. 모든 공공서비스가 비용에 따라 달라졌다. 100m마다 공동수도가 있어서 물표를 주고 사기도 했다. 작은 가게에 수도 설비를 해놓고 수도꼭지를 잠궈 두면, 물표를 주고 물을 떠갈 수 있도록 했다. 마치 아프리카처럼 물을 사서 운반해 사용했던 시절의 이야기다. 무근성 제주극장 옆에 가마를 걸어서 옥수수죽(강냉이죽)을 나눠주던 기억도 있다. 늘봄꽃집 앞쪽이랑 무근성에 가마를 걸어 굶는 사람들에게 나눠준 것인데, 외국서 구제품을 받아 준 것이었다. 사라호 태풍 왔을 때에도 많이 나눠줬다. 기근에 국민들이 굶지 말라고 나눠주는 것이었다.

1950년대에 한국전쟁이 일어난다. 문화예술인들을 대거 포함한 피난민들이 제주로 유입됐다.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책의 수요가 증가했고, 서점들이 개업하는 바탕이 마련됐다. 제주시 원정통을 중심으로 문화서점과 제주서림, 동남서점, 동아서점 등이 문을 열었다.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전집물 붐이 한물가고 문고본의 등장과 함께 정가판매제 실시 및 출판물 광고의 활성화에 힘입어 서점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했다. 서점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조치가 취해지면서 서

점이 인기업종으로 등장하고 점차 대형화의 추세를 보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현권 전 대표가 내다보는 책의 미래는 암담하다고 말해도 좋을 정도다. 외국에 나가봐도 서점은 유럽 빼고는 책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보인다. 어느 나라든 변화가에 서점에 있다는 게 중요하다. 북미 쪽에 가면 서점이 토탈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문구와 식당과 서점이 함께 있는 구조다. 앞으로도 책을 판매한다기보다는 지역 만남의 장소로 가야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 산업화 세대, 빨리빨리 문화는 책을 산업으로 만들었다. 지금은 여유를 즐기는 세대다. 취미를 즐기는 세대로, 세대별로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여긴다. 고현권 전 대표가 한창 운영하던 시절만해도 다방이나 커피숍, 카페 등도 부족했던 만큼 서점을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원하는 서적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서점을 직접 찾는 인구 자체가 눈에 필 만큼 줄어들었고, 앞으로도 줄어드는 추세다.

고현권 전 대표의 아들은 한국신문위원회 심의위원을 하다가 내려와 우생당을 이어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43살로 7년째 우생당을 운영했으니, 그 역시 짧은 기간 운영했다고 말하긴 어렵다. 3대에 걸쳐 서점을 대물림한 이유는 사명감이다. 제주도에서 처음 생긴 서점을 아직도 운영하고 있다는 자부심이다. 하지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해 온 방식대로 운영을 해선 안된다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성을 고민 중이다. 선친을 닮아 아들은 책을 좋아했다. 지금의 우생당 서점에 주제별로 서가가 꾸려져 있는데, 그

건 모두 지금의 대표인 큰아들이 직접 손품을 판 결과물이다.

원도심이 다시 제주의 문화형성의 토대로 기능했으면 좋겠다. 공동화가 안 되게끔 모두 협력해서 잘 해나갔으면 한다. 이 부분을 고심하다보면 다다르는 결론은 결국 문화컨텐츠가 답이라는 것이다. 역사와 전통, 향수가 녹여져 있는 이 지역에서 다양한 컨텐츠를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이제 시작이라고 여기고 희망을 가지고 지켜본다.

고지훈 현 대표의 우생당 기억

고지훈 대표의 구술로 보는 우생당

고현권 전 대표의 큰아들인 고지훈 대표는 신성유치원을 졸업했다. 북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교대부속국민학교로 전학했다. 지금의 우생당 건물은 80년도에 세워졌다. 6살 때의 일이다. 그 전에는 단층 건물이었다. 그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직접 매장을 운영하시고, 고대표는 방과 후 서점에서 주로 놀았다. 골목에서 축구나 땅따먹기를 하는 게 일쑤였다. 골목 문화가 있었다. 서점이 활황이라 부모님은 언제나 바쁘셨다. 늘 사람이 있었고, 즐겁게 장사를 했던 기억이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다. 책을 자연스럽게 접했다. 서점 아들이라서 친

구들이 부러움을 샀다.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던 것이 특혜처럼 느껴졌다. 예전엔 매장 안에 작은 방이 있어서, 그 방에서 숙제를 하고 가라고 하면, 그걸 쓰고 나서야 놀러 나갈 수 있었다. 처음으로 접한 극장은 현대극장이다. 그곳에서 <로보트 태권 v>를 보던 기억을 회상했다. 제일극장은 고지훈 대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생겼다. 새로 생긴 제일극장에 <람보 1>을 보러



사진 6. 고지훈 현대표

아버지 손을 잡고 갔다. 좋은 극장이라는 인상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지금 메가박스가 된 아카데미극장이다. 중학교 시절엔 그 극장이 최신식이었다. 그 다음으로 시네하우스와 피카디리 극장 등이 이어서 생겼다. 영화를 보러 다닌 건 중학교 이후의 일이다.

그 당시는 원도심 일대에 정주 인구가 많았던 시절이고, 취학아동의 수도 그만큼 많아서 북초등학교에는 오전 오후반이 있었다. 입학 한대로 북초등학교를 나왔으면 더욱 인맥이 넓었을 것이라 여긴다. 교육대학교 부속초등학교가 통학버스도 있고, 급식을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부모님의 교육열 때문에 3학년 때 전학을 갔다. 지원했을 때는 추천식이라 떨어졌다가, 나중에 전학을 갔다. 고지훈

대표는 이름보다도 우생당집 아들로 통하곤 했다. 오현고 동창들도 오랜만에 만나면 다른 건 기억 못해도 우생당 아들이지라고 기억한다. 성장과정의 땀해야 땀 수 없는 각인이었다. 처음에 제주에 와서 JDC를 다닐 때에는 쇼핑몰을 반대하는 게 의문이었다. 지금도 지하상가 분들은 쇼핑몰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 본인들의 영업에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올 거 같으면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점

아들은 파주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고지훈 대표의 가족은 서울에 있다. 처음에 제주에 온 이유는 우생당 때문은 아니었다. JDC에 취직하면서 내려오게 된 귀향길이었다. 조직에서는 경영이나 기획을 맡았다. 전공은 사회복지였기 때문에 전공을 살린 직장은 아니지만,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게 있지 않았을까 싶다. 인수인계 과정은 어머니의 병환에서 시작됐다. 아버님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남이 하기보다는 우리가 직접 해야하지 않겠냐는 논의에서 시작됐다. 고지훈 대표 역시 남 밑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발전적일 수 있겠다고 판단했다. 어쩌면 자연스런 과정이었다. 속초 동아서점의 대잇기도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제주 우생당의 3번째 대잇기도 자연스러웠다. 사회생활 5-6년차에 많은 고민을 하던 시기고, 이직의 개념으로 가업을 잇게 됐다. 조직

내에서의 이직이 아니라, 집안일을 해보자는 개념으로 시작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업에 대한 자부심은 있다. 원도심에서 해야한다는 소명의식은 없지만, 없어도 안 된다는 의식도 있다. 가업이라는 게 처음에는 몰랐지만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해 볼 만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도소매를 겸했던 경우에는 2-3세대에 이어 하는 경우가 꽤 많다. 서점업이 창업은 힘들어서 대를 이어 하는 경우가 많다.

서점도 유통업이다보니,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 실제 서점의 일은 정말 달랐다. 조직에서는 늘 갑의 위치였다면, 유통은 서비스업이라는 을의 입장에서 일하게 됐다. 학교를 가든 학원을 가든 을의 입장에서 일하게 된다. 학습물 총판의 경우, 본사와 대리점과의 관계도 을의 입장이다. 손해를 보기도 하면서 늘 을의 위치에 있어야 하는 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1-2년 뒤에 한계가 보인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 지점에 아버지와 논의했더니, 우선 집토끼부터 관리하라는 조언을 해주셨다. 업력이 쌓이면 문제가 다시 보인다는 조언을 들었다.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고 싶다는 인식을 천천히 끌고 가보려 하고 있다. 손님을 대하고 거래처 홍보하는 일도 모두 같은 맥락. 출판사 회의 등의 업무로 출장을 가기도 한다. 학습물 총판에서 정기적으로 일 년에 한두 번 회의가 있다. 사업 관련 정보 교류 등을 한다. 오후에는 주로 외부업무를 보고, 아침 저녁에는 서점에 주로 있다. 서점의 문을 열고 닫는 일은 맡아서 하고 있다. 학습물총판 외부 영업은

학교나 학원에 교재를 홍보하는 일이다. 교재를 써달라고 말씀 드리며 돌아다니는 일이다. 중 고등 수학이면 견본 보충자료들을 학교에 뿌리는 식으로 진행한다.

고지훈 대표의 경우 이미 많은 것들이 전산화된 상태에서 서점 일을 시작했다. 책의 종수는 많아지고 교보같은 대형검색 시스템은 안 갖춰져 있다. 책이 들어오면 서고칸을 짚어야 하는데, 한 칸 한 칸 번호를 부여하기에는 힘든 일이다. 책이라는 게 손님들이 선택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성을 해야 한다. 신간을 받는 게 아니라, 유통사에서 보내주는 책들이 있다. 책은 많은데 진열할 공간이 부족하다. 반품을 해야 하는 책들이 많이 나온다. 신간이 나와서 어느 정도 판매가 안 되면 반품을 해야 하는 데 반품을 결정하는 게 쉽지 않다.

향후 수익모델을 찾아가는 중이다. 학습물 총판도 소매서점 운영도 사실은 어려운 현실이다. 지금은 50대 50으로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궁극적으로 매장 안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돌아가는 구조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일은 자연스러워 보인다. 서점의 미래는 밝다는 전제하에 서점을 운영한다. 미국에 있는 누나가 미국에 있는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도 다 죽었다며 걱정을 표했지만, 고지훈 대표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단서는 매장일을 하면서 찾을 수 있었다. 매장은 피드백이 빨리 온다. 디스플레이를 하면 반응이 빨리 온다. 그런 직접적인 피드백에 재미를

느껴서, 앞으로 매장 위주의 경영을 생각하고 있다. 학습물산업의 그 래프는 더 급격히 꺾이고 있다. 학력인구도 줄어들고, 시험도 안보는 방향으로 교육이 이뤄지면서, 참고서 시장도 위축되고 있다. 우생당 만이 가진 정체성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오래된 장소에서, 오래된 서점을 한다는 것

주취자들이 와서 주정을 부리는 경우도 있었다. 책을 꺼내며 어지 르거나, 말을 계속 거는 등 영업을 방해하는 식이다. 가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랜만에 제주에 오셔서, 아직도 서점이 있냐고 말씀하실 때 는 기분이 좋다. 할아버지나 할머니와의 관계를 묻는 분들이 있다.



사진 7. 우생당 서점 내부

관광 오셨다가 예전에 왔던 곳을 다시 찾으려 하시면서, 반가워서 서점을 다시 찾아오시는 거다. 본인이 좋아하는 책을 사가거나, 최근의 잘나가는 책을 구입해서 가면서, 제주의 추억을 곱씹는다.

고지훈 대표는 서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지역문화인들과의 교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다. 문화프로그램이 우생당을 중심으로 활용된다면 기쁜 일이라 여긴다. 어제도 서울에서 영상하는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나눴다. 재일교포 건축가 이타미 준 영상을 찍어 전시를 했던 친구다. 그런 간담회의 장소로 우생당을 사용하라고 먼저 제안했을 정도다. 2층 공간을 조금씩 정비하고 있는 중이긴 한다. 마음 같아서는 싹 뜯어고치고 싶은 입장이지만, 예산과 시간의 문제로 미루고 있는 중이다.

고등학교 시절, 서점이 활황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언제나 서점은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신학기 때 아트박스에 문구를 사러 줄을 서는 것처럼, 예전엔 서점이 그랬다. 요즘은 문구도 인터넷으로 사기 때문에 그마저 옛날 얘기가 됐지만 말이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우생당에서 책을 훔쳐왔다고 자랑을 하면서 “직원 관리를 잘하라”라고 역으로 큰소리를 친 적이 있다. 그래서 크게 싸움을 벌인 기억도 있다. 책을 훔친 뒤에 샀다고 거짓말을 해서, 돈으로 교환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도 한두 권을 훔치는 줌도독이었지만, 그때는 그런 시절이었다. 서귀포 우생당은 작은아버지가 운영하시는 곳

이다. 서귀포 우생당과 일적인 교류는 없는 편이다. 운영은 분리돼서 한다. 사업적인 교류는 없지만 물론 친인척 간의 교류는 있다.

고지훈 대표는 원도심을 회복해야 한다는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전한다. 같은 지역의 이태리안경도 대를 이어 운영 중으로 동갑내기 친구다. 같이 술 한잔하며 옛날이야기를 나누곤 한다. 원도심 내에서 장사하는 동향 이야기를 주로 나누게 된다. 탐동 개발이 안 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야기를 자주 한다. 원도심 개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나눈다. 실제적인 콘텐츠가 와야지 차 없는 거리 등 물리적인 요소를 바꾸는 데는 부정적인 입장인 것이 사실이다. 차 없는 거리가 될 경우, 간단하게 생각하면 손님들이 올 것 같지 않다. 더 많은 볼거리가 있어야 오는 것이지, 광장을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올 거라고 여기지 않는다. 초반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었다가 나중에는 반신반의하는 입장이 됐다.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장사하는 거주자들과 행정과는 소통이 부족하다. 현업에서 일하다 보니 평일에 행사가 열리면 참가하기도 어렵다. 대안은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원거주자들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원도심이 잘 되려면, 기존의 오래된 가게들이 원하는 게 뭔지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 각 상가나 집에서 꼭 필요한 일이 뭔지 직접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거기서 공통되는 점을 골라서 정책을 만든다면 잡음이 줄어들

지 않을까 여긴다. 예전에 원도심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들 되살리는 일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생업에 시달리다보면, 뭔가 실제적인 제안을 하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많다. 편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다. 안 되는 부분을 논의해 보고, 행정에 맞는 방법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 같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여긴다. 관덕정 차 없는 거리를 만들려던 시도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경우도, 천천히 소통하며 접근했으면 잘 풀릴 수 있는 건이었다.

고지훈 대표의 유년기

지금 구도심 도지사 관사였던 제일산부인과에서 태어났다. 북초등학교 앞에서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는 아버지 형제들(4남 3녀)이 다 같이 모여 살았다. 마당에 닭도 키우고 친척들이 모두 모여 살았다. 각 형제분이 분가하면서 흩어졌다. 외할아버지가 제주시장을 하셨다. 광양로터리 근처에서 살았던 기억도 있다. 이사를 자주 다녔다. 성장 과정에선 카톨릭이던 집안 환경 탓에 성당을 다닌 기억이 있다. 중앙성당이 개척교회였던 까닭도 있겠지만, 원도심 내에 카톨릭 인구가 많았다. 이 지역이 지역유지들이 살았고, 중간에 성당이 있어서, 모두들 종교적 영향을 받았다. 고지훈 대표도 모태신앙이다. 누나나 고지훈 대표나 독실하지는 않지만, 성장 과정에서 성당과 관련한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성당에 가면 남교, 동교, 서교, 북교

친구들이 다 모여 있었다. 성당 안에서도 언제나 우생당 서점 아들로 통했다. 성당 활동을 열심히 하지 않은 탓에 교리 공부를 열심히 안 한다고 혼나고는 했다. 당시 성당의 김종현 선배가 성당의 리더 역할을 하곤 했다. 오현고 선배이기도 한 인연이 있다. 성가대를 이끌고 다양한 활동들을 했다. 친구 중에 신학대학교를 간 친구도 있다. 성당친구들 중 3-4명은 아직까지도 절친한 친구로 남았다. 중앙성당의 위치도 중요했지만 신부님의 영향력이 꽤 강했다. 당시 8-90년대만 해도 신도들도 굉장히 많았다. 크리스마스 행사를 한다고만 해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 신성여고가 붙어있던 영향도 있었겠다.

탑동광장이 자갈밭이었을 때, 물이 빠지면 계도 잡고 수영도 하고 그랬다. 용머리해안까지 가서 수영을 하기도 했다. 다녀오면 위험한 곳에서 물놀이 했다고 혼나기도 했지만, 열심히 바닷가에서 놀았다. 탑동광장이 간척이 된 후에는 학생들의 일탈의 장소였다. 친구들끼리 모여 술을 먹고 놀다가, 선생님이 오시면 도망가는 장소로 기억한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인 <효리네 민박>에서 원도심을 걷고 간 뒤, 주변에 유동인구가 많아졌다. 렌트카들이 주변에 많이 늘었는데, 이분들이 서점에 들러 책을 한 권 사갔으면 바라 보기도 한다. 그런 반응들을 보면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을 생각하게 된다. 지면에 소개된 것은 영향력이 없지만, 텔레비전에서 화제가 된 것들은 반응이 직접적

이다.

예전에는 서점이 성황이라 늘 일손을 보태고는 했다. 중고등학교 때부터 일치감치 서점 일에 도움을 드렸고, 대학생 때는 방학이면 무조건 제주로 내려와서 낮에는 서점 일을 돕고 저녁에 내 일을 보곤 했다. 인터넷 서점이 등장하기 전인 1995년도만 해도 서점 운영이 괜찮았다. 인터넷 서점이 등장 전과 후로 서점 운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변했다. 1970-1980년대는 출판업이 활황이던 때라 운영성과가 좋았고, 제주에 서점도 많이 생겼다. 소매만 하시는 분들 중에 주인이 고령이셔서 접는 경우가 있지만, 제주도는 그나마 현상유지는 하고 있는 상태라고 여긴다.

서점 주인의 퇴근 후 일상

원도심에서는 늦은 시간이면 운영하는 곳이 없어서 고지훈 대표 조차 서점 근처에서 저녁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또래 친구들은 다 신시가지에 살기 때문에, 고지훈 대표가 그 쪽으로 이동하지, 원도심에서 모여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진 않는다. 저녁을 함께 먹는 식으로 약속을 잡는 편이다. 업계에 온지 7-8년이 됐는데, 물류 담당 직원인 부장님은 벌써 우생당과 일한지 30년째다. 그분은 업무가 끝난 뒤에 소매서점 사장님이나 도매상 분들과 술도 하고 그런다. 고지훈 대표에겐 업계 분들이 하나같이 선배다 보니, 동종업 종사자들과 술

을 하는 기회는 없는 편이다. 어제만 해도 상가집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 친구들은 SNS(온라인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시작해 홍보하라는 조언을 하기도 한다. 고지훈 대표는 본인을 구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한다. 최근의 독립서점과 동네서점을 운영하는 젊은 세대의 사람들은 SNS를 주로 활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기존에 서점을 운영하던 분들은 소셜네트워크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요즘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서점조합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2-30년을 서점만 해오신 분들이다. 남문서점이나 탐라도서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가입해 있는 오래된 단체다. 남문서점도 인문학 강의나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활동을 하고 있다. 이제는 젊은 세대 새로운 서점들의 역량을 역으로 배우려 한다. 기획력과 콘텐츠를 만들어 홍보하는 능력이 중요해 보인다. 겉보기와 달리 사실 서점업이란 노동집약적인 일이다. 기본적으로 유통업이기 때문에, 물건을 받고 재고를 반품하고, 정리하는 일 등 생각보다 에너지 소비가 많이 된다. 기획이나 다른 일을 할 시간이 없이, 여유시간이 있으면 새로운 일을 기획하기 보다는 쉬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다. 첫째 셋째 일요일만 쉬고 한 달 내내 아침 9시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가게문을 연다.

서점의 수익은 소매가 50%고 그중의 45%가 다시 참고서다. 참고서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매출의 나머지 50%는 도매다. 동네서점의 참고서 점유율을 60%로 보는 것에 비하면 낮은 비율이다. 서



사진 8. 우생당 서점 내 참고서 코너

점에 대해서라면, 일로서 접하다 보니 낭만적인 요소는 없다. 매일매일 매출을 걱정하는 사장의 마인드가 강하다. 서점에 있으면 책을 많이 읽고, 안 바쁘니 책 읽을 시간도 많을 것 같다고 여기는데, 고지훈 대표에겐 엄연히 영업장이다 보니 독서에 집중할 수가 없다. 읽히는 책은 한 달에 한두 권이 될까 말까 하다. 서점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다. 텔레비전에 쿠바 여행지가 나오면 관련 책을 꺼내서 들춰보거나, 영화화된 책이 있으면 바로 원본이 되는 책을 찾아보는 식으로 읽고 싶은 책을 고르긴 한다. 텔레비전에 등장하는 책은 바로 반응이 오는 편이고, 고 대표 역시 바로 반응하게 됨을 깨닫는다.

우생당의 100년 약속

우생당 서점이 3대째 운영한다고 굉장히 특색이 있는 것처럼 부각되는 건 약간 과장인 느낌이 있다. 각 지역마다 2대 서점은 굉장히 많다. 물론 3대는 드물긴 하다. 우생당의 경우는 할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3대 경영이 좀 일찍 찾아온 것 같다고 여긴다. 옛그제인가 도 서점에 누군가 오셔서 100년을 채우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한다. 고지훈 대표도 장난처럼 “당연히 100년은 해야죠”라고 받아줬단다. 100년 뒤라면, 그쯤은 고지훈 대표의 아들이 진로를 고민할 때일 것이다. 그땐 아들의 선택에 맡기겠지만, 까짓 100년은 해 볼 만한 일인 것 같다.

물론 이곳을 처분하고 다른 곳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바로 지금 이 우생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뭔가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은 변하지 않으려 한다. 친구들은 매장이 낡고 오래됐다고 빨리 투자해 변화를 가져보라고 조언한다. 물리적 공간을 바꾸는 일이



사진 9. 동아출판으로부터 받은 감사패와 특별상

야 자본만 있다면 2-3개월이면 가능한 일이다. 고지훈 대표는 사실 서점을 더욱 객관적으로 노력 중이다. 스스로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우생당에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있다. 오히려 공간을 만들어 공간을 채우는 일, 바로 기획을 하는 전문가적 역량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 부분을 강화시켜 나가며 천천히 움직일 생각이다. 기획 실무자를 영입하는 방법도 있고, 방식은 다양하다. 다만 적절한 때를 노리고 있을 뿐이다. 책장을 한 장 한 장 음미하며 넘기는 애서가처럼, 서점 문을 매일 열고 닫으며 기회를 살핀다. 바로 서점이 고지훈 대표에게 말을 걸어올 때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 “바로 지금”이라는 메시지가 서가 한켠에서, 여닫는 셔터문 사이로 툭 하고 떨어질지 모를 일이다.

앞으로의 우생당에 대해 말하라면, 단지 오래된 것이 아닌, 오래됐지만 새로움을 추구하는 서점이 되고 싶은 것이 목표라고 말하겠다. 고지훈 대표는 자식이 서점을 하겠다고 하면 당연히 서점을 하라고 권하고 싶다. 단순히 장사차원에서만 접근해도, 책이란 문화컨텐츠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본다. 성장과정에서만 기억을 더듬어 보더라도 책을 읽는다고 욕하는 사람은 주변에 없었던 기억을 떠올린다. 어찌됐든, 고지훈 대표는 이제 다른 일은 못 한다고 여긴다. 책을 매개로, 우생당을 매개로, 할아버지가 그랬고 아버지가 그랬듯 아들을 교육시킬 생각이다. 예전 제주도의 어른들이 감귤나무로 자식들을 모두 대학에 보냈듯이, 고지훈 대표는

책으로 아이를 대학에 보내려 한다. 고지훈 대표의 또래 친구들을 명절에 만나보면,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은 고민이 많다. 프린터 연구원으로 20년을 보낸 친구가 있는데 대기업에서 프린터 파트를 아예 없애버린 일도 있다. 그 친구들이 이제야 제주도 갈까? 라는 고민을 한다. 그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쉽게 제주도에 오질 못한다. 제주도에서 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점점 더 자영업자들이 힘들어지는 시대다. 세상의 모든 사업에는 언제나 불확실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점이란 어느 정도의 확신을 주는 사업이다. 고지훈 대표가 정년을 하면 우생당이 거준 100년이 되는 즈음이다.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해 나가겠다는 막연한 의무감을 가지고 고민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서점을 경영한 지 이제 7년차, 이 정도는 직장에서는 대리급일 뿐이니까. 계속 경험을 쌓아가며 조금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제야 조금씩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이는 느낌이다.

고지훈 대표는 이제 원도심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 했다. 원도심 재생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도시재생아카데미 1기를 등록했고 수수료도 마쳤다. 제주의 원도심 역사나 건축 등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었다. 다음 과정인 전문가 과정은 이수하지 못했다. 솔직히 프로그램 1기만 듣고는 잘 이해할 수 없었다. 실제적이지 않고 학문적인 접근이라 원도심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도시재생을 잘 한 성공사례가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하다. 영상이든 지면이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것이든 콘텐츠가 활성화되는 현장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줬으면 좋겠다. 오히려 가끔 <미디어제주>나 <제주의소리>의 기획 기사를 보면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런 자료들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 한계가 있으니까, 기관이나 매체에서 실제적인 정보들을 좀더 많이 제공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서점에서 콘텐츠를 가지고 뭔가를 한다고 할 때, 동종업계의 사례들을 알려주고, 투어계획을 함께 잡아 본다면 하는 기획이 있을 수 있겠다. 지금은 내가 직접 찾아보고 리서치를 해야 하는 시점이지만, 이 부분은 단체에서 해준다면 훨씬 수월하게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 다 따로 노는 업주들을 모아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업이 아니면 상인들을 길 수 없는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원도심에서 축제가 열린다고 했을 때, 축제 때 책바자회를 한다거나 샌드위치를 판다거나 하는 제안을 해보는 시도조차 없었다. 엇그제 <미디어제주>를 보니, 주민도 이주민도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주민 입장에서선 모든 행사가 이주민 위주로 꾸러지는 느낌이다. 주민 참여의 방식이라는 게 생각하기에 따라서 다양하다. 예를 들면 예쁜 간판달기가 적용될 수도 있다. 한글단체에선 제주 사투리로 간판을 정비하면 어떠냐는 의견도 있었다. 예전에는 장사 안되는 가게를 호텔신라 주방팀과 매치시켜

서 방송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도 있었다. 꼭 이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주민들, 그리고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원한다.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도,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여러 명의 이야기를 실제로 듣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실무자가 보는 우생당, 손광국 부장

고지훈 전 대표와의 인터뷰 중에 30년 가량 근속한 가족같은 직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분의 시각을 추가로 들어보기로 했다. 1989년 입사, 올해 우생당과 함께 한지 꼬박 28해가 된 손광국 부장과의 인터뷰는 서점 운영의 실재를 들여볼 수 있는 기회였다. 손광국 부장의 명함에는 동아출판 제주시지사, 제주 우생당의 손광국 부장이라고 적혀있다. 동아출판에서 도매업무를 우생당에서 소매업무를 하는 까닭이다. 모체는 하나지만, 도매는 동아출판의 대리점 기능을 겸하게 된다. 배본업무를 하는 동아출판은 교육방송인 EBS같은 곳이라고 보면 된다. 신학기 때는 서점들이 줄을 서서 참고서를 받는 곳이다. 제주에선 22곳의 소매점에서 아침 11시와 오후 1시 사이의 출고시간에 책을 받아간다. 서점이 성황이던 시절에는 책을 받아가는 곳이 30여 곳이었다. 이 같은 도매를 겸하는 서점이 제주에는 5곳이 있다. 도매점을 관리하는 분을 업계에서는 창고장이라고 부른다. 노련한 노하우가 필요한 부분이 물량을 조정하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소매점들은 반품이고 뭐고 상관없이 한꺼번에 무조건 책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기 마련이다. 도매입장에서는 가져갔다가 반품이 들어오면 손해이기 때문에, 물량을 적절히 주는 것을 중요한 업무의 포인트로 여긴다. 도매업의 창고장에게 물류 조절의 권한이 있다. 개별 소매점들은 다 서점의 사장들이라 그들과 이 물류량과 관련해 신경전이 있기도 하다.

손광국 부장은 판매데이터를 분석해서 물량을 내어준다. 출판사에서 데이터가 있어서 총판(도매)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물량을 조절해 책을 보낸다. 요새는 밀어내기가 없는데, 예전에 본사에서는 밀어내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인구대비 몇 퍼센트를 팔라고 지정해주면, 못 판다고 말해버리고 반품하면 지불장부에서 까버리는 식이다. 못 판 분량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다. 얼마 전 남양유업 사태가 문제가 됐던 것처럼 이런 현상은 모든 유통에서 발생하는 일이다. 요새는 거의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남양유업 사태 후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인 듯하다. 손해 보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영업방침들이 조절되는 분위기다.

20년 넘게 일하던 다른 직원이 그만둔 상황이다. 요새 직원들이 일을 오래 안한다. 책을 나르는 게 물리적으로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참고서 10~20권이 묶이면 무게 탓에 운반하는 일이 막노동처럼 힘든 일이다. 어제만해도 한 팔레트 분량이 들어와 50 묶음을 혼자서 나르고 정리하는 일을 했다. 직원 없이 4개월을 해봤는데, 이제 힘든

상황임을 알고 새로 직원을 채용하려 하는 중이다. 학원을 대상으로 납품을 많이 한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고등학생은 학생이 교재를 직접 선택하고,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영업에 따라 교재 선정이 달라져서 영업이 효과를 볼 수 있다. 현재 소매 2명 도매 2명 직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서점에서 일하며 생겼던 에피소드를 물었다. 손광국 부장은 2007년 태풍 나리가 제주를 덮쳤을 때를 떠올렸다. 동문시장이고 뭐고 제주도 전체가 물에 잠겼을 때의 일이다. 당시에는 도매 창고가 화북에 있을 때인데, 창고에 발목까지 물이 들어왔다. 고현권 전 대표와 고지훈 대표, 부장과 함께 물을 퍼냈다. 책이란 물에 가장 취약한 존재였다. 책이 물에 흠뻑 젖는 건 상상만으로 아찔하다. 이렇게 책과 함께 30여 년 가까운 시간을 보내면서, 우생당과 손광국 부장은 가족이 됐다. 힘든 일도 좋은 일도 함께 견디며 돈독해진 관계다.

서귀포 우생당 고의권 전 대표와 현 대표 고수산나

1981년에 서귀포 동명백화점 바로 앞 자리에 서귀포 우생당이 탄생했다. 그때 당시가 서귀포읍에서 서귀포시로 승격되던 지점이다. 제주시는 이미 형인 고현권 대표가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생인 고의권 전 서귀포 우생당 대표는 서귀포에 우생당을 설립하게 된다.

처음에는 10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100평에 이르는 규모로 확장한 지금까지 오게 됐다. 서귀포 우생당 설립 당시의 분위기를 환기하자면, 서귀포는 제주시 사람들과 다르게 여유가 있었다. 훨씬 더 순박한 느낌도 있었다. 제주도 안에서도 지역별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되는 지점이다. 그 부분이 좋고, 적응이 되어서, 지금 고의권 대표는 서귀포가 제2의 고향이라고 여기며 살고 있다. 사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겠지만, 순박하고 여유로운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서점을 꾸렸다. 차근차근 돈을 모으면서 조금씩 평수를 넓히는 식으로 우생당을 운영했다. 독자들이 와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고객 친화적인 운영을 지속했다. 한 지역에서 오랜간 서점을 운영하는건, 서점에겐 장점이다. 학교 다닐 때의 추억, 혹은 유년기의 추억을 되새기면서 예전의 독자들이 지속적으로 찾는다. 책을 사던 기억, 공간에 들어서던 기억들을 환기해주는 곳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한 모양이다. 서귀포 우생당은 올해부터 고의권 전 대표의 막내딸인 고수산나 대표로 바뀌어, 이제 고의권 전 대표는 뒤에서 딸을 서포트하는 식으로 경영 방식을 바꾸려 한다. 고의권 전 대표나 고수산나 대표가 공통적으로 한 말은 책을 원래 좋아했다는 것이다. “이 일을 좋아하니까 하지, 제주에서 건설업을 했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이다”라는 말이 농담은 아니다. 고의권 대표가 아버님이 세운 제주시 우생당에서 유년기를 보냈을 때 가장 인상적인 기억 몇 가지를 들려주십사 청했다. 기억 하나는 출판사에서 활자 인쇄를 하던 기억이다. 예전에는 기계인쇄

가 아니라 일일이 활자를 조합해 만드는 활자 인쇄였다. 활자들을 조합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일이 지금 생각하면 꽤나 독특한 모습이었던 것 같다. 어쩌면 다시 볼 수 없는 시절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기억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생생하다.

고순하 설립자가 세운 제주시 우생당에서 교과서 공급을 맡아서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 열악했는데도, 제주도 전체에서 교과서를 사러 우생당 앞으로 몰려들곤 했다. 고의권 전 대표의 기억에 의존하자면, 그 줄이 동문로터리까지 이어지곤 했다. 그때 당시 운송수단이 우마차밖에 없던 때라, 우마차가 100개 정도 오기도 했다. 우마차가 교과서를 짊어지고 움직이는 옆으로 손님들이 함께 줄을 서 있었다. 장관이었다. 제주는 섬이므로 당연히 책은 배를 타고 부두로 들어왔다. 우마차 100대가 줄지어 섰다가, 부두에서 책을 실어 날라와 서점에 짐을 풀면, 인파가 몰려드는 식이라, 말 그대로 인산인해고 아수라장이었다. 그 줄이라는 게 다섯 명이 일렬로 줄을 서도 동문로터리까지 이어진 것이라, 어림짐작해도 몇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선친이 일찍 돌아가신 까닭에 그 사업의 자세한 뒷이야기를 세세하게 듣지는 못하지만, 어린아이의 기억 속에 장관으로 남았던 인상은 이렇게 생생하게 구전될 수 있는 모양이다.

고순하 설립자가 우생당을 세운 이유는 제주가 교육의 불모지였기 때문이다. 해방하자마자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문화를 고민하다

가 서점을 세우게 됐다. 고순하 설립자는 당시 제주의 교육위원이기도 해서, 6·25사변 때 육지에서 시인 등의 문인들이 많이 오면, 이들이 밥벌이가 없으니까 이들을 돕기 위해 우생출판을 설립해 후원하였다. 계몽록 시인과도 가깝게 지냈다. 이 부분은 문인들의 기록으로 꽤 남겨져 있는 내용이기도 하다.

고의권 전 대표가 당부하고 싶은 말은 단순했다. 서점에서 돈을 번다기보다는, 살아있는 제주의 전설이라는 이미지를 후대들이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요즘 책이 안 팔린다고는 하지만, 이 가업을 후대가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고의권 전 대표의 기억에, 제아무리 디지털이 발전한다고 해도, 서점은 계속 남아있을 거 같다. 아무래도 점점 빨라지는 사회에 살면서, 이 빠른 사회에 조금 더 살다보면 느낌이 아름답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서점 자체가 큰 문화의 터전이 될 거라 믿는다. 이제야 많은 이들이 엘피판을 찾는 것처럼, 종이책을 찾는 이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 믿는다.

그러면 서귀포 우생당의 새로운 대표인 고수산나의 시각을 조금 더 들여보자. 아버지 고의권 대표가 설립한 작은 서점에서 시작해 지금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공간에 대한 딸의 시각이다. 서귀포 우생당은 서귀포 최초의 서점은 아니다. 일호광장과 이중섭 거리 쪽에도 다른 서점이 있었다. 지금은 그쪽의 서점들이 다 문을 닫았고,

이 정도의 역사를 가진 서점은 없다. 서귀포 최초의 서점은 아니지만, 서귀포에서 가장 오래된 서점으로는 기록할 수 있다. 서귀포 우생당은 제주시 우생당과 마찬가지로 도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문을 닫을 다른 서점에 비해 운영이 수월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서점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니라 다양한 사업을 하는 곳이다. 아버지인 고의권 전 대표가 선견지명이 있어 당시 서귀포에는 없던 일인 잡지총판이나 만화책총판, 참고서총판을 맡아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서점의 규모가 점점 커졌다. 서귀포도 물론 전국, 혹은 전세계의 추세인 서점 출판계의 시장 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다. 과거와 비교하면 매출이 많이 줄어들었다. 지금은 고수산나 과장의 직책으로 시작해 5년 정도 실무를 거친 뒤, 올해 대표직을 넘겨받아 매장운영을 하고 있다. 일반 판매, 주문, 관공서 납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제주시 우생당과는 총판으로서 물건을 받아오고 주는 거래를 한다. 제주 우생당도 가지고 있는 동아출판 총판을 같이 가지고 있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 회식을 같이 하기도 한다.

고수산나 대표 역시 책을 접할 기회가 많다보니 책을 좋아했다는 얘기를 더했다. 서점업이 바쁘지만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찾아 읽고, 베스트셀러도 소화하려 노력한다. 책을 좋아했고, 문인들을 후원하던 할아버지, 고순하 설립자에 대한 기억은 없을 수밖에 없다. 얼굴을 본 적도 없는 분이지만, 여기저기서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도내에 있는 학교들이 휴교를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존경할 만한 분이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정도다.

에필로그_오래된 서점을 돌아나오며

도시와 함께 하는 오래된 서점의 젊은 미래

제주도에 있는 두 곳의 우생당, 제주시 우생당과 서귀포 우생당은 이렇게 모두 3대째 운영 중이다. 우생당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일은 어려웠다. 문화인들의 후견인이자 문화공간으로서의 우생당을 꿈꾼 창립자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 시작점을 찾지 못한 역사 쓰기는 중심에 가닿지 못한 채 주변만을 맴도는 것만 같았다. 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이들이 특징인지 모르겠다. 말은 정확하지만 짧았다. 다양한 이야기를 마음에 담고 편집하며 글을 쓰기 보단, 이미 있는 말들을 주워 담는 것으로도 부족했다. 말을 잃어 버릴까 잊어 버릴까 전전긍긍하며, 한 문장 한 문장을 받드는 마음으로 글자로 만들어 나갔다. 이 글자들이 하얀 종이를 채우고, 이 하얀 종이가 모여 한 덩어리의 책이 되어 우생당 서점의 서가에 꽂히는 상상을 하며 썼다. 서점의 과거보다 되려 서점의 미래를 논하는 이야기를 하며 대화에 활기를 띠기도 했다. 좋았던 과거를 되새김질 하는 일이 나쁠 예정인 미래를 말하는 것보다 슬픈 일인 것 같기도 했다. 세상은 전쟁이었지만 서점에는 피난문인들이 드나들며 제주문화를 꽃피었던



사진 10. 현재 우생당 서점

시기, 신학기만 되면 몇백 미터씩 줄을 서서 책을 구입하던 시기, 책을 사고 읽는 사람들로 가득하던 책방의 옛날 공기를 논하는 일은 오히려 종종 불편했다. 숫자만 보자면 명확히 나빠질 미래, 과거보다 좋아질 일이 없는 미래를 논하는 와중에도 우생당에선 계속 희망을 찾았다. 도시가 쇠락하고, 서점이 어렵더라도, 책이라면, 책이라는 인류의 오래된 장난감이라면, 다시 한 번 미래를 논할 만 했다. 그래서 이 우생당이라는 서점을 둘러싼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인터뷰는, 우생당의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록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좋은 시간과 힘든 시간들을 번갈아 견뎌내며 지금껏 건재하듯이, 현재를 견뎌내 건재한 미래를 함께 꿈꾸게 만

드는 시간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무엇보다 이야기를 듣고 정리하는 정성어린 시간이, 곧 이 낡고 오래된 서점이 누군가의 지속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는 응원이었을지도 모르겠다. 꽤 오랜 시간을 우생당 건물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 데 쏟으며, 나는 그런 마음이었다.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드만

- 싸구려 점방 아들 교회식 어르신



산다고 하는 게 그런 거드만

- 싸구려 점방 아들 고희식 어르신

프롤로그_기억의 습작

세월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있는 원도심. 이곳은 빠르게 흘러간 시간만큼이나 여러 시간이 교차한다. 조선 시대 제주목사가 호령했던 관아, 만세 소리가 울려 퍼졌던 관덕정 광장, 아이들의 놀이터였던 학교,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함께한 병원, 웃음과 울음이 가득했을 오래된 극장 등 곳곳에 세월의 때가 묻어있다. 아쉽게도 과거의 시간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사진 1. 고희식 어르신

있는 현장은 대부분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그 시간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먼지 쌓인 오래된 필름처럼 남아 있다.

그 기억을 만나기 위해 지난 여름부터 몇 번에 걸쳐 고희식 씨를 만났다. 올해로 여든 세 살을 맞는 고희식 씨는 원도심에서 태어나서 70여 년 동안 이곳에서 살았다. 일제 강점기 때 북초등학교에 입학해 해방을 맞았고, 오현중, 고등학교가 오현단에 자리잡고 있을 때 그곳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다. 제주시청이 관덕정 옆에 있을 때부터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고, 이후 삼도2동 동장까지 지냈으니 원도심과 고희식 씨의 인연은 각별하다.

그가 원도심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강산이 여러 번 변할 만큼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원도심의 모습도 많이 변했다. 고희식 씨 눈에 비춰진 과거 원도심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그의 기억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원도심의 옛 모습을 만나보자.

전통 있는 학교

초등학교 입학시험

제주목관아의 동쪽으로 난 작은 길을 따라 바다 방향으로 걸어가면 아담한 학교 운동장을 만난다. 바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북초등학교다. 북초등학교는 1907년에 개교한 이래 한 세기 넘도록 그 자

리를 지키고 있다. 북초등학교는 원도심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에 가장 먼저 문을 열었다. 그래서 원도심에 살았던 나이 지긋한 어른들은 북초등학교에 대한 추억을 하나쯤은 기억하고 있다.

고희식 씨는 일곱 살이 되던 1941년에 북초등학교에 입학해서 38 회로 졸업을 했다. 그때는 일곱 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했다고 한다. 초등학교가 지금처럼 의무교육이 아니었기에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입학시험을 치러야 했다. 과연 70년 전의 초등학교 입학시험은 어떠했을까? 시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왠지 책상에 앉아 시험지에 머리를 박고 문제를 열심히 푸는 코흘리개 아이들이 상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때의 시험은 시험관이 꺼내놓은 물건이 무엇인지, 물건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에 답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초등학교 입학시험이라고 우습게 볼 일이 아니다. 입학하려는 아이들은 많았지만 입학 정원은 정해져 있어서 시험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다음해에 다시 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지금 대학입시에서 볼 수 있던 모습이 그때는 초등학교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다 보니 친구들에 비해 한두 해 늦게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집안 형편 때문에 뒤늦게 나이 들어 입학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학년이어도 나이대가 다양할 수밖에 없었다.

고희식 씨 주변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다. 함께 입학한 동기들 중에 그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 후배 중에도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었다. 반을 나눌 때 이 점이 고려가 되었다. 입학

연령에 맞춰 입학한 아이들은 1조에, 조금 나이가 많은 아이는 2조에, 아주 나이가 많은 아이는 3조로 반이 나누어졌다고 한다. 고희식 씨는 제 연령에 입학을 해서 1조로 학교를 다녔다.

고희식 씨가 입학했을 때 그의 학년은 4개 반으로 나누어졌는데, 남자반이 3개, 여자반이 1개였다. 한 반의 정원은 보통 6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7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러다 5학년이 되던 1945년에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자 당시 일본에 건너 갔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제주도로 돌아왔다. 그와 더불어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학생들도 늘어났다. 북초등학교에서도 그 학생들을 수용하기 위해 학급을 늘려야 했다. 고희식 씨 학년에도 다섯 번째 반이 만들어졌다. 이 반은 다른 반들과 달리 남녀가 한 반에서 수업을 받았다.

지금은 북초등학교 전교생이 삼백 명도 되지 않지만 그가 재학 할 때만 해도 삼천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렇게 학생들이 많다 보니 학교는 빈 교실이 없이 학생들로 꽉 찼다. 지금은 북초등학교 운동장 서쪽에만 교실 건물이 들어서 있지만 고희식 씨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북쪽과 동쪽에 단층 목재 건물이 들어서 있었다. 지금은 공터로 남아 있는 운동장 동쪽의 옛 전매청(KT&G) 자리까지 학교 건물이 이어져 있었다. 평소에는 교실이 칸막이로 나뉘져 있다가 행사가 있으면 칸막이를 열어 수천 명의 학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강당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학교 한쪽에는 일본 신사도 있었다.

고희식 씨가 중학교에 진학한 후의 일이지만 북초등학교 옆에는

맹아학교도 있었다. 맹아학교는 장애인들을 위해 세운 학교이다. 6·25전쟁 때 피난을 온 고택구 목사가 자비를 들여서 가건물을 지어 학교를 세웠다. 이 학교는 나중에 삼성혈 인근의 시유지로 옮겼다.

초등학교에서는 국어, 산수, 과학, 지리 등을 배웠다. 과목명칭만으로는 지금과 크게 다를게 없지만 가장 큰 차이는 당시 국어가 일본어였다는 점이다. 일제 강점기의 막바지 시기라 한글은 가르치지 않았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많이 사용하게 했다. 그렇게 배운 일본어는 나중에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삼도2동 동장을 할 때 1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일본에 갈 일이 있었는데, 어릴 때 배웠던 것과 해방 이후에 일본책을 가끔 보고 했던 것으로 통역을 할 수 있었다고 한다.

나이 많은 동기, 나이 어린 선배

북초등학교는 아이들의 놀이터나 다름없었다. 교회식 씨는 집이 학교 바로 앞에 있어서 학교운동장이 마당과도 같았다. 아이들은 방과후에 운동장에서 공을 차고, 자치기 같은 놀이를 많이 했다. 나무로 만든 칼을 가지고 편을 갈라서 전쟁놀이를 하기도 했다. 아무래도 어른들이 수근대는 전쟁 이야기가 아이들에게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전쟁놀이가 치열해지면 어떨 때는 동네끼리 싸움이 나기도 했다고 한다.

소풍은 사라봉과 삼성혈에 주로 갔다. 그때는 소풍이라는 말 대신

원족이라고 했다. 해방 전후 성안에는 집들이 모여 있었지만 성 밖을 벗어나면 거의 집이 없었다. 동문, 남문이 있던 곳을 벗어나면 대부분 허허벌판이었다.

“초등학교 때 삼성혈에 원족을 갔어. 그때까지, 원족을 가면 거기까지 집이 없다는 거지. 남문 지나면 전부 숲이었어. 성안에만 마을이 있고, 동문통에도 다리 지나면 허허벌판이고, 논밭으로만 되어 있었어. 길은 있는데 일주도로만 짝 있고. 시청이나 광양이나 그런 것들은 다 그 이후에 생겼어. 광양도 도청이 처음 생겼을 때는 집이 별로 없었어. 거기가 운동장이었으니까. 광양에 몇 가구 있었지. 동광양 몇 가구, 서광양 몇 가구. 도남이 있었는데, 4·3사건 때 도남, 오등에 집들이 마을마다 있었던 말이야. 아라동도. 4·3사건 때 모두 철수했지.”

가을이 되면 전교생이 모여 운동회를 열었다. 학생 수가 많다 보니 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는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지 못했다. 당시 도청 옆에는(현재 제주시청 인근) 공설운동장 같은 큰 운동장이 있었다. 그곳에서 운동회를 했다.

각 반마다 홍팀과 백팀으로 편을 나눠서 응원을 했다. 운동회 종목은 주로 달리기였다. 장애물 넘기 같은 것도 하고, 도치볼도 했다. 달리기에서 1등을 하면 ‘상’이라는 도장이 찍힌 노트를 받았다. 지금 운동회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렇게 초등학교 6년을 다니고 졸업을 하면 상급학교로 진학을 해

야 했는데, 해방 이전에 제주시에는 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진학을 할 중학교가 마땅치 않았다. 제주농업중학교가 있었지만 입학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었다. 그래서 고등부라는 제도가 있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입학할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들과 같이 학교를 다녔는데 그 학생들을 고등부라고 불렀다.

그러다 제주중학교와 오현중학교, 제주여자중학교가 차례로 생기면서 고학년 중에 나이가 많은 학생들을 시험을 거쳐 중학교로 진학시켰다. 이 제도 때문에 같이 입학은 했지만 먼저 중학교에 진학을 하는 경우가 생겼다. 제주대 교수를 지낸 현용준 씨와 고희식 씨의 관계가 그랬다.

“시골 사람들은 바로 입학할 못하니까 늦어지지. 현용준 교수 알지? 나보다 2살 위인데 개도 3조라. 개들은 연령이 많으니까 우리 5학년 때에 중학교 입학 자격을 줬어. 6학년을 안다니고, 주로 3조 애들 몇 사람이 올라갔단 말이야. 현용준 교수는 국민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선배라. 근데 국민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말을 놓아. 딴 선배들이 보면 이상하지.”

이런 상황이다보니 나중에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선후배 관계가 모호하게 되기도 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먼저 진학해 학년은 높았지만 초등학교 때는 동기로서 말을 놓고 편하게 지낸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고희식 씨가 운동부 활동을 했던 것도 초

등학교 동창생이자 선배들을 편하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유치원도 같이 다니고 국민학교도 같이 다닌 친구 중에 연령이 많으니까 3조에 있다가 먼저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규율 부장이라. 대단한 친구인데, 2학년 밑에 놈이 말 놓으니까 말이야. 이상한거지. 딴 애들은 말 못 놔. 나는 중학교 2학년 때 배구선수였거든. 4학년이 주로 선순데 일 년 선배 이걸 아무것도 아니야. 체육과위가 있었거든. 그 덕을 봤지.”

가난하게 살던 시절 빛어졌던 추억의 에피소드들이다. 지금 북초등학교에는 오랜 역사를 기념하는 100주년 기념탑이 세워져 있다.



사진 2. 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고희식 어르신

그리고 운동장에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가득하다. 그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북초등학교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70년의 터전

정성을 들인 집

북초등학교 정문 남쪽 맞은 편에는 5층 건물이 들어서 있다. 바로 옆에 이웃한 제주목관아 건물들과는 이질적인 이 건물은 교회식 씨가 가족들과 함께 오랫동안 거주했던 곳이다. 그가 태어난 곳은 남문로 인근이지만 세 살 쯤 되었을 때 이곳으로 이사를 왔다. 그 후 70년에 이르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지냈다.

“태어나기는 남문로에서 태어났는데 어릴 때 그리로 갔지. 지금으로 하면 남양방송 있던 자리인데 지금은 마트로 됐지. 박태훈 가옥 아래쪽. 자세한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내가 세 살 때인가 북교 바로 앞으로 이사를 하고 거기서 쪽 살았지. 관아 관리사무소로 사용하는 집이 내가 지은 집인데, 기와집이었다가 5층 건물로 올렸어.”

지금은 번듯한 건물이지만 처음 이사를 왔을 때는 초가였다고 한다. 그때 집들이 다들 그러했을 테지만 지대가 길보다 낮아서 비만

오면 집에 물이 들어왔다. 지금과 같이 하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물이 빠질 곳이 없으니 빗물은 길을 따라 낮은 곳으로 흘렀다. 관덕정에서 북초등학교 방향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물들이 교회식 씨 집으로 쏟아져 내렸다고 한다.

집에 물이 들어오면 어른들은 물을 퍼내기에 급급했지만, 아이들은 평소에 경험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즐길 수 있는 놀이거리를 찾아낸다. 교회식 씨도 어린 마음에 물이 들어찬 집에 배를 띄우는 놀이를 했던 추억을 회상했다.

“어렸을 때 기억하기로는 지대가 길보다 낮아서 비만 오면 집에 물이 들어왔어. 아버지, 어머니는 물이 들었다고 난린데, 나는 배를 띄운다고 난리고. 그러니까 아예 뜰어 버린 거지. 관덕정에서 북교 쪽으로 막 쏟아져 내려오지. 그때 하수시설이 안됐으니까. 길로 그냥. 그게 하수구 역할을 했지.”

이렇게 물난리가 자주 일어나 집이 엉망이 되니 교회식 씨의 아버지는 초가를 뜰어 버리고 기와집으로 다시 지었다. 비만 오면 물난리를 경험해야 했던 것 때문에 꽤나 신경을 써서 집을 다시 지었다. 그 정성 덕분에 태풍이 와도 더 이상 물난리를 겪지 않아도 되었다. 우리나라에 많은 피해를 주었던 사라호 태풍 때도 별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었다.

“사라호 때. 내가 원주에 있을 때(군대에 있을때). 20일 특별휴가 받았지. 제주도에 특별히 피해가 심하니까 고향 가서 도와라. 아무 일도 없어 실컷 놀다 갔지. 우리 북교 앞에는 아무 지장이 없었거든. 그 당시에는 아버지가 특별히 지었으니까. 기와집인데 아주 잘 지었지. 전에 초가집 살 때는 비만 오면 뜯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정성들여 집을 지었지.”

새로 지은 집은 아궁이에다 땔감을 때서 방을 따뜻하게 하는 시스템이었다. 방이 두 개였는데 한쪽은 별도로 방과 연결된 아궁이를 만들고, 한쪽은 음식을 할 때 쓰는 아궁이와 연결을 해서 밥을 하면 난방이 되도록 해 놓았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밥을 하면 자연스럽게 방이 따뜻해졌다. 밤에 방이 차면 솥에다 물을 끓이면 되었다.

아궁이에 불을 피우려면 땔감이 필요했다. 당시에는 산에 가서 솔잎을 모아왔다. 한 짐 해오면 그것으로 며칠동안 난방을 했다고 한다. 솔잎으로 밥도 하고, 아궁이에 불도 붙였다. 솔잎이 불에 잘 타서 땔감으로는 안성맞춤이었다.

그 다음에 들어온 것이 연탄이었다. 원도심에도 연탄공장이 서너 곳 있었다. 고희식 씨 집은 북초등학교 바로 북쪽에 있었던 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사다 썼다.

“그때 구루마가 있으면 구루마 끌고서 오십 장, 삼십 장, 육십 장 사다가 형편에 따라서 사다가 날랐지. 나중에는 배달을 했지만은 처음에는 배달 안했거든. 우리는 구루마로 하니까. 집에 연탄창고가 따로 있었지. 그

특히 차면 한겨울을 나고.”

싸구려 점방

고희식 씨 아버지는 집에서 문구 같은 것을 파는 잡화점을 운영했다. 기와집의 절반은 살림하는 공간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절반을 이용해 가게를 열었다. 그래서 고희식 씨는 학교 다닐 때 학용품 걱정은 없었다고 한다.

이 가게를 학생들은 ‘싸구려 점방’이라 불렀다. 다른 가게에 비해 가격이 저렴했기 때문에 불린 이름이다. 덕분에 학생들이 많이 찾았다. 어떻게 다른 곳보다 물건들을 저렴하게 팔 수 있었을까? 그의 아버지는 일본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제주도 전체 가게에 학용품을 배달했다. 소위 말하는 도매업을 했던 것이다. 그래서 다른 소매점들보다 비교적 싸게 물건을 팔 수 있었다.

“우리집에서 군대환을 많이 이용했지, 아버지가 일본에서 물품을 들여왔으니까. 군대환이 들어오게 되면 집에다가 그냥 열 몇 짝씩 짐이 들어와. 들어오면 그걸 다 분류해서 다 배분해주고.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왔지. 배가 제주도 앞바다 멀리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서부두에서 종선이 나가가지고 사람도 태워가고 짐도 다 싣고 가고.”

당시 제주항은 작은 포구여서 큰 배가 드나들지 못했다. 그래서 작

은 배들이 포구와 큰 배를 왕래하면서 짐과 사람들을 날랐다. 지금 서부두에 어시장이 있는 곳이 부두였는데 거기까지 작은 배들이 드나들었다. 일본에서 건너오는 물건을 받아다 팔았기에 보다 저렴하게 판매가 가능했다.

원래 가게 이름은 고희식 씨 아버지의 성함인 ‘고원숙’에서 ‘원숙’을 따서 ‘원숙상회’였다고 한다. 하지만 워낙 ‘싸구려 점방’이라는 이름이 알려지다 보니 다들 그렇게 불렀다. 고희식 씨의 동생인 고희범 씨는 서울에서 지내다 제주도에 내려온 뒤 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싸구려 점방’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을 정도로 이 근방에서는 ‘싸구려 점방’이라는 이름이 유명세를 떨쳤다.

고희식 씨 아버지가 가게를 열게 된 계기는 우연히 다니게 된 교회와의 인연에서 시작된다. 고희식 씨 아버지가 열세 살쯤 되었을 때 갑자기 발이 부어올랐다. 그래서 한의사를 찾아가 진찰을 받았다. 그런데 한의사가 뜬금없이 아버지에게 예수를 믿어야 낫겠다고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 한의사는 교회에 다니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길로 바로 교회를 찾아가 다니기 시작했다.

그렇게 맺어진 교회와의 인연은 고희식 씨 아버지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교회를 다닌지 6개월 쯤 되었을 때 교회의 한 장로님이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는 아버지가 마음에 드셨는지 자신의 가게 점원으로 고용을 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숙식을 해결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고, 나중에 독립해서 자신의 가게를 차렸다. 그것이 싸구려 점방의 시작이었다.

그 한의사의 말 한마디가 고희식 씨 아버지의 인생이 경로를 바꿔 놓았던 것이다. 한의사는 왜 환자에게 교회를 다니라고 했을까. 그 내막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덕분에 동네에 유명한 싸구려 점방이 생기게 되었고, 아이들이 싼 값에 학용품을 사서 쓸 수 있었으니 그 한의사는 본의 아니게 동네에 기여를 한 셈이다.

싸구려 점방 외에도 원도심에서 운영되던 잡화점들이 여럿 있었다. 얼마 전까지도 문을 열었다가 지금은 문을 닫은 대산상회, 2대 째에 걸쳐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한양상회 등은 오랫동안 원도심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구입하던 곳이었다.

피난을 떠나다

고희식 씨 아버지는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장사를 시작해서 크게 성공한 기업가로 잘 알려진 박종실 씨와도 잘 알고 지냈다. 박종실 상점의 점원들은 나중에 제주에서 내로라하는 인물들이 되었다고 한다. 현재 외환은행 자리에 그의 가게가 있었다.

“처음 왔을 때 엿판을 들고 왔다고 그래. 젊었을 때 엿 장사를 하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래서 하여튼 제주도에서 내로라하는 사람들이 점원이 있거든. 아버지가 북국민학교 앞에 상점 하러 가니까. 글로 가지 말고 자기 집 옆에, 원정로에, 거기서 하는게 좋을 거다, 거기로 오라고 조언을 하더라고. 아버지하고 연령 차이는 심한데 아버지가 근실하게 일을 하니까

상당히 좋아해서 가지 말고 거기 있으라고 했다고 그래.”

장사에 나름 일가견이 있는 박종실 씨가 좋은 자리를 소개해 주었으니 누구라도 마음이 혹할 만하다. 그러나 아버지의 선택은 북초등학교 앞이었다. 만약 박종실 씨의 말을 듣고 원정로에 가게를 열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변화가였으니 장사는 훨씬 잘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고희식 씨는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도 육지로 떠난 후에 제주도로 내려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고희식 씨는 딱 두 번 제주도를 떠나 육지에서 생활을 했었다. 한번은 해방되기 바로 한 해 전에 가족이 모두 충남 장항으로 이주했을 때였고, 두 번째는 군대 생활을 했을 때였다. 충남 장항으로 떠났을 때는 일제 강점기 끝 무렵 일본군이 벌이는 전쟁으로 제주도가 한창 시끄러울 때였다.

“해방 전에 만주에 있던 관동군들이 제주도로 다 왔어. 그러니까 요새가 됐지. 그래서 아버지가 육지로 가려고 집을 내놔. 그런데 안 팔리는 거야. 처음에 2천 원에 팔려고 했는데 안 팔렸어. 나중에 천원이 되도 살 사람이 없어. 왜. 북교에 군인이 꼭 찻거든. 북교 바로 앞이니까 폭격하면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도 안사지. 원정로에 있었으면 금방 팔렸지. 그래서 못 팔고 갔어. 작은 아버지 장인이 배를 운전하니까 세 가정의 충남 장항으로 피난을 갔었어. 우리가 집에서 나가니까 우리집

도 군인들이 짝 살았지.”

일제 강점기에 제주도는 일본이 사수해야 하는 마지막 저항지 중 한 곳이었다. 수만에 이르는 일본군이 제주도로 들어와 연합군이 상륙하지 못하도록 방어를 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장소들을 군인들이 머무는 시설로 내주어야 했다. 북초등학교도 그런 이유에서 군사 용도로 사용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학교 앞에서 장사를 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외부적인 이유도 있었지만, 갑자기 떠나게 된 것에는 집안의 우환도 영향을 미쳤다. 그 당시 고희식 씨 밑으로 일곱 살 난 동생이 있었다. 그런데 간이 좋지 않아 그만 세상을 뜨고 말았다. 그 바람에 아버지가 제주도를 떠날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렇게 고희식 씨 가족과 친척들은 제주를 떠났다. 충남 장항의 시골마을에 초가 한 채를 마련해서 피난 생활을 시작했다. 고희식 씨는 그곳에서 초등학교를 다니며 지냈다. 일본어를 곧잘 해서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했다고 한다.

그런데 해방이 되던 해 5월쯤에 그는 아버지에게서 한글을 배우라는 말을 들었다. 우리나라가 곧 해방이 될 것 같다는 소문을 들으셨는지 해방되기 전에 한글을 배워야 된다고 하시면서 그때부터 한글을 가르쳐 주셨다고 한다.

얼마 후 아버지의 말처럼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었다. 고희식 씨 가족은 해방이 된 다음날 바로 목포를 거쳐 제주도로 내려왔다. 그렇

게 장항에서의 생활은 1년이 채 못 되어 끝이 났다. 해방되자마자 제주도도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제주도에 머물 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제주도를 떠날 때 집이 팔리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 것이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었다.

장사를 다시 시작하고 몇 년 후인 1950년 6·25전쟁이 터졌다. 전쟁이 일어나자 제주도에 주둔하는 군인들이 늘어났고, 피난을 온 사람들도 많아서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때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하지만 고희식 씨 아버지는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장사가 중요하냐’라고 하면서 가게를 닫아 버렸다고 한다. 장사를 하지 않으니 어떻게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해야 했다. 그래서 갖고 있던 밭을 팔면서 생활했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얼마 후에 다시 조그마하게 장사를 시작했다. 똑같은 자리에 간판도 없이, 이름도 없이 학용품을 팔았다. 다행히 북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삼천 명 정도 되어 학용품이 많이 팔렸다. 이 때는 일본이 아니라 서울에 가서 물건을 때다가 팔았다고 한다. 그렇게 싸구려 점방의 명맥은 1990년대까지 이어졌다.

아버지 연세가 70이 되자 힘에 부칠 것을 염려한 고희식 씨는 가게를 그만하시라고 했다고 한다. 그런데 가게를 접고 1년 후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다. 그는 아마도 장사를 계속 하셨다면 더 오래 사셨을 거라며 아쉬워했다.



사진 3. 70년간 살았던 집

“아버지가 70세 되니까 내가 그만두시라고, 그만두시라고 했는데 그 점포를 그냥 계속했으면 아버지가 사셨을 텐데 효자 노릇한다고 해서 그만두라고 했는데 1년 후에 돌아가셨지. 90년대까지 했으니 오래했어.”

현재 싸구려 점방을 하던 곳에 자리잡은 5층 건물은 30년 전쯤 고희식 씨가 기와집을 허물고 다시 지은 것이다. 아버지 손으로 지은 기와집 대신 올린 건물이기에 그에게는 의미 있는 건물이다. 아쉽게도 이 건물은 제주목관아에 수용되었고, 고희식 씨는 70년 넘게 정든 곳을 두고 아라동으로 이사를 떠났다.

이제 더 이상 싸구려 점방을 만날 수는 없지만 지금도 원도심 사람들에게 싸구려 점방의 이야기는 추억 속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떠들썩한 학창 시절

오현 옛터에

고희식 씨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는 1948년이였다. 바로 제주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상처로 남은 4·3사건이 일어났던 해이다. 고희식 씨를 비롯한 북초등학교 졸업반은 1948년 4월 5일에 졸업을 기념한 제주도 일주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2박 3일 여정이었다. 하지만 출발 이틀 전에 4·3이 일어나면서 취소되고 말았다.

“4·3사건 나는 헐갠 될거야. 왜냐하면 48년 4월 5일 날, 우리 졸업반 제주도 일주 수학여행을 떠나기로, 4월 5일 날 출발할 것으로 다 결정을 했는데 4·3사건 나는 바람에 못 갔지. 그래서 그걸 기억을 하지. 그때는 트럭을 타서 도일주 수학여행을 갔지. 보통 2박 3일. 동쪽으로 가서는 쪽 서귀포까지 가서 정방폭포 거기하고, 오다가 만장굴 보고. 4·3사건 나부니깐 못 갔고, 중학교 때도 4·3사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수학여행을 못 갔고. 그때는 육지로 안 가던 시대니까.”

해방 전후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주시내에 중·고등학교가 다수 들어섰다. 제주향교 옆에는 제주중학교가, 현재 칼호텔 자리에는 제주여자중·고등학교가, 오현단 인근에는 오현중·고등학교가 들어섰다. 이후 현재 중앙성당 자리에 신성여자중·고등학교도

생겼다.

오현단은 제주 교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곳이다. 조선 시대에는 굴림서원이 있어 유생들이 학문에 정진하던 곳이었고, 일제강점기에는 제주농업중학교가, 해방 이후에는 오현중·고등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의 터전이었다.

교회식 씨는 이곳에서 중·고등학교 학창시절을 보냈다. 오현중학교는 5회, 오현고등학교는 2회로 졸업했다. 지금 오현단 북쪽자리가 오현중·고등학교 교정이 있던 곳이었다. 오현중학교가 있던 곳은 일제강점기 때 제주농업중학교가 있던 곳이었다.

제주농업중학교가 광양으로 이전하면서 그 자리에 오현중학교가 들어섰다. 그래서 가끔 제주농업중학교 학생들이 자기네 땅을 내놓으라고 따지러 오기도 했었다고 한다. 지금 그 자리에는 목욕탕과 여관, 주택 등이 들어서 있다.

“지금 중앙로에 중앙시장 있잖아. 그 바운드리가 오현이지. 오현단 있는데가. 고등학교는 나중에 생겼지. 성벽이 그때도 있었지. 뒷담이 됐지. 그래서 거기 가서 놀기도 하고. 그때 처음에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지으니까 천막 쳐가지고 공부하고. 원칙은 그게 국소유지였지 아마. 농중이 거기 있었어. 농중이 이사 가니까 공터가 있으니까 오현이 들어갔어. 가끔 농중 애들이 와서 데모하곤 했지. 땅 내놓으라고.”

오현고등학교의 경우 3회 입학생까지는 2개 반으로 운영되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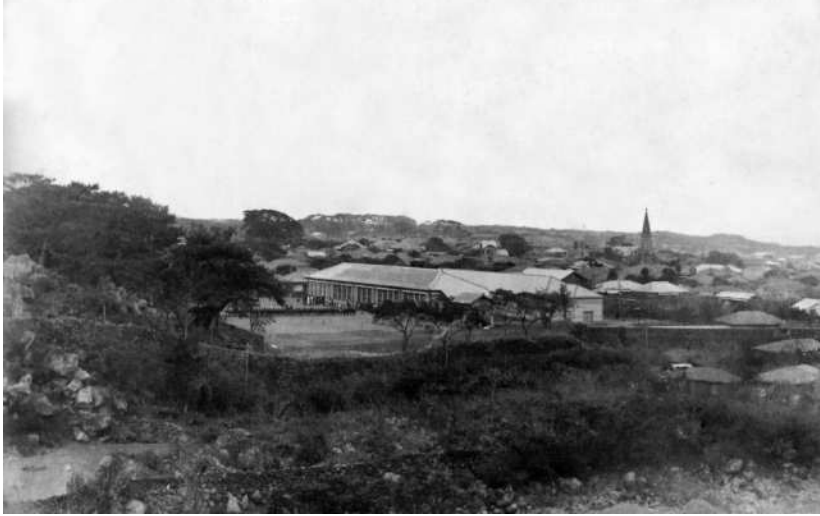


사진 4. 옛 오현중·고등학교 주변(출처: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과 현재 오현단 주변 모습

데, 1회와 2회 때는 직장인들이 다니는 야간부가 있어 3개 반으로 운영되었다. 처음에는 학교에 돈이 없어 천막을 치고 공부를 해야 했다. 그러다 4회 입학생부터 8개 학급으로 확장이 되었다. 수백 명의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니 학교에 들어오는 돈이 많아졌다. 그 돈으로 학교 건물들을 세울 수 있었다.

당시 오현고등학교에는 제주도내 최초로 관악대가 만들어졌다. UN 산하기구에서 일하던 길버트 소령이 악기를 지원했고, 오현고등학교에서는 음악관을 마련했다. 그래서 음악관 이름을 길버트음악관이라고 지었다. 길버트 소령은 관악대 지휘를 하면서 학생들에게 악기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오현고등학교 관악대는 전국경연 대회에 출전해서 1등을 할 정도로 실력이 좋았다.

그때 교회식 씨도 관악대에 들어가 트럼본을 배우려고 했었다. 그런데 그의 운동실력을 아까워한 박병석 선생님이 운동을 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관악대를 담당하는 고봉식 선생님과 서로 다투다가 결국은 박병석 선생님이 이겨서 운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그가 만약 그때 관악대에 갔다면 혹시 지금과는 또 다른 인생이 펼쳐지지 않았을까.

학도병과 피난민 학교

교회식 씨가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을 때 6·25전쟁이 일어났다. 다행히 제주도에서 총탄이 난무하는 전투는 벌어지지 않았지만

피난민들이 제주도로 몰려들어 어수선했던 시기였다. 많은 물자들이 전쟁에 동원이 되었다. 심지어 아직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쟁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오현중학교에서도 학도병을 선발했다.

“중학교 2학년 때 6·25가 났잖아. 그때 우리를 다 모아놓고, 양쪽 발을 못 쓰던 교사가 있었어. 국어를 가르쳤는데, 문 선생님인데, 지팡이 짚고. 그 분이 올라서가지고 “내가 발이 이렇게 않으면 지원한다. 너희들 젊은 혈기에 갈 사람이 있겠느냐” 하니까 우리도 다 손들었지. 학생 전원 모여서 손들라고 하니까. 중학교 1학년에서 우리가 4학년까지 있었는데. 딱 손들라고 하니까. 다 손들지 안 들어.”

학생들이 모두 손을 들었지만 자원하면 다 갈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신체검사를 받고 통과 되어야만 갈 수 있었다. 그의 중학교 동기 중에도 대여섯 사람이 차출되어 학도병으로 전장에 나갔다.

당시 전쟁이 일어나자 학도호국단이라고 해서 중학교 학생들도 목총을 가지고 군대식 훈련을 받았다. 그래서 선발된 학도병들은 일반적인 훈련을 생략하고 사격 연습만 한 뒤에 바로 전장에 투입되었다.

“육군들은 이틀씩이나 훈련받고 했는데, 학도병들은 학교에서 훈련이 되어 있던 말이야. 총만 안 쏘봤지. 그리고 나니까 그때 해병대로 간 애들 그냥 총 쏘는 방법만 배워서 나갔잖아. 다시 돌아온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고.”

학도병은 해병대 4기로 입대를 했다. 배를 타고 산지항에서 바로 인천으로 가서 인천상륙작전에 투입되었다. 여자들 중에도 입대를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주로 행정병으로 지원해서 갔다. 전쟁 중이어서 그런지 여자들도 해병대에 입대가 되었다. 교회식 씨 지인 분 중에 그때 해병대에 입대했던 여자분은 지금도 해병대 4기생 모임에 참석한다고 한다.

이렇게 전쟁은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모두를 싸움터로 내몰았다. 그중에는 무사히 살아 돌아온 사람도 있지만 안타깝게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 교회식 씨와 가까운 지인 중에는 북한군에게 잡혀갔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오는 극적인 경험을 한 분도 있다.

“큰 처남이 나하고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나보다 1년 선배야. 그때는 그런 관계가 없었으니까. 아주 친한 친구였지. 그 친구가 군대를 갔어. 학도병이니까 키가 작잖아. 그러니까 대대장 전령을 했던 말이야. 대대장이 자기 부대 순찰을 하잖아, 초소를 만들어서. 순찰하니까 이제 같이 따라 가잖아. 순찰하다 보니까 자기 부대 애들은 뒤로 가버렸고 적진에 들어간 거야. 대대장은 말이지 ‘적진이다!’ 하고 뛰어버렸어. 그러니 친구는 돌아서는 사이에 붙잡힌 거야. 붙잡아 간 애들이, 거기도 제대로 훈련을 안 받은 모양이라. 총을 다 들게 하고 간거야. 들어가면서 ‘야! 국군 잡았다’ 하고 그냥 뛰어 들어간 거야. 그냥 묶지도 않고 갔는데, 그러니까 그냥 바로 총을 쏘면서 도망가 버렸지. 그렇게 살아가지고 나왔어.”

6·25전쟁 중에도 제주도의 학교들은 계속 운영되었다. 전쟁을 피해 제주도에 정착한 피난민을 위한 학교도 마련되었다. 교회식 씨 기억으로는 피난민 학교가 처음에는 제주향교 옆에 있는 제주중학교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 피난 온 사람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서 학교에서 예배를 종종 보았는데, 향교에서는 그것을 좋지 않게 여겼던 것 같다. 이 문제로 향교와 피난민 사이에 마찰이 일자 피난민 학교를 옮기게 되었다.

당시 오현고등학교 교장이었던 이경수 선생님의 배려로 피난민 학교를 오현고등학교로 옮기게 되었다. 피난민 학교는 마땅한 건물이 없이 천막을 3~4개 쳐서 운영되었다. 오현중·고등학교는 남학생만 다니는 학교였지만, 피난민 학교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같이 수업을 받았다. 교사들도 피난을 온 분들이 많았는데 그중에는 대학 교수님들도 다수 있었다. 교회식 씨는 피난민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던 것으로 기억했다. 피난민 학교의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오현고등학교 졸업장을 주었고, 그것이 전국에 오현이라는 학교가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이후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서울이 수복되자 피난민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기 시작했다. 피난민 학교도 자연스럽게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 선생님들도 각자 자신이 있던 곳으로 돌아갔다. 마지막까지 남은 학생들은 오현고등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여학생들은 남학교인 오현고등학교에 다닐 수가 없었기에 인근의 제주여자고등학교나 신성여자고등학교에 다녔다고 한다.

배구를 만나다

고희식 씨의 학창 시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는 배구이다. 당시에 배구와 축구가 인기가 있었다고 한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구를 했다. 당시 배구는 지금과 같은 6인제가 아니라 9인제 배구였다. 고희식 씨는 주로 수비수로 출전했다. 중학교 때는 박스 사이드나 박스 센터를 담당했고, 고등학교 때는 하프 센터로 출전을 했다. 그는 배구선수로 활동하던 분에게 직접 배우기도 했다.

“그때 한양대학교 배구선수였던 분이 자원해서 우리를 가르쳐줬었어. 그때 공도 없으니까. 그 친구가 미제 공을 가지고 와서 가르쳤는데 미제 공은 무겁더라고. 지금 배구공보다 커. 그때 농구공 비슷했는데 그렇게 컸다고. 그 큰 배구공으로 연습하면서 배구를 했는데 무겁지는 않은데 좁았었어. 그 친구가 이름도 모르고, 얼굴만 기억하는데 6개월 동안 열심히 가르쳐 줬어.”

당시에는 중학교가 4학년까지 있었는데, 4학년 선배들이 주축이던 배구를 2학년 학생이 함께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그의 운동 실력을 인정받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배구팀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오현중학교는 제주농업중학교와, 오현고등학교는 제주사범학교와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기도 했다.

“나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구를 했지. 오현중학교 배구팀이 셋어. 오현중학교 2학년 때부터 4학년 선배들이 나를 불러서 운동을 시켰지. 꽤 했어. 중학교 다닐 때는 주로 농중, 고등학교 때는 제주사범이 관참게 했어. 제주사범하고 오고하고, 이렇게 라이벌이 됐었지.”

고희식 씨는 그때만 해도 운동을 해서 성질이 좀 거칠었다고 한다. 당시에 운동부라고 하면 학교에서 함부로 건드리지 못했다. 운동부 선배들이 배경이 되어서 학교에서 큰소리치고 다녔다. 한번은 친구가 다른 학교 후배한테 맞고 왔길래 그 학교에 들어가서 다 모이라고 해서 혼쫌을 내준 적도 있다고 했다. 또 멧을 부리느라 교복을 잘 입지 않고 이것저것 입고 다녔다. 운동선수들은 학교에서 그런대로 조금 혜택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을 다른 아이들이 부러워했다.

“그때 운동복이 면으로 된 건데, 그렇게 멋진 건 아니었어. 지금은 상당히 운동복이 좋게 나오는데, 그땐 별로 멋지게 안 나왔어. 런닝 같은 것에 그냥 ‘오현’이라고 박은 거야.”

그때도 운동선수들은 학교에서 합숙을 했다. 고등학교 때는 축구부는 합숙을 많이 했지만 배구부는 합숙을 하지 않고 일과시간 후에 연습을 했다고 한다. 지금처럼 학교에 식당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교 밖의 식당에서 식사를 해결했다. 주로 빵을 실컷 먹었다. 지금 제주은행 바로 옆자리에 호남당이라는 빵집이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을 잘라서 버터를 발라서 먹었다.

고희식 씨가 고등학교 때 제주도를 떠들썩하게 했던 시합이 있었다. 도민체전에서 오현고와 사범학교가 배구 결승전에서 맞붙게 되었다. 당시에 응원도 대단해서 학생들은 배구 코트를 둘러싸고 응원가를 연신 불렀다. 그렇게 경기를 하던 중에 상대방의 네트터치를 심판이 볼지 않자 박스 센터를 보던 고희식 씨가 공을 냅다 빵 쳐버렸다. 그것이 하나의 신호가 되어 화가 난 학생들이 사범학교 학생들에게 달려들었다. 지금 시청 동쪽에 사범학교가 있었는데 거기까지 학생들이 달려 들어가 간판들을 때려 부시기도 했다. 경찰들이 말썽을 피운 학생들을 경찰서에 잡아 가둘 정도로 떠들썩했다. 고희식 씨도 그 일 때문에 유치장에서 하룻밤을 보내야 했다.

특별한 인연들

취소된 학력고사

고희식 씨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가 되자 대학에 가기 위해 학력고사를 치렀다. 가장 먼저 학력고사를 치른 세대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시험을 보고 문교부에서 시험 점수와 시험 합격증까지 다 나눠줬다가 시험 자체를 취소시켰다. 그래서 대학별로 시험을 다시 봐야 했다.

“근데 우리가 종합고시, 지금 말하면 학력고사 1회야. 그때 시험봤어. 시험 봤는데 발표하고나서 말썽이 많았어. 떨어진 사람들이 많아서. 시험 보고 시험 점수까지 다 나눠줘 가지고 그것 가지고 대학 간다고 하다가 시험 자체를 취소시켰어. 그때 재벌이니 뭐니 하는 애들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 시험 합격증이 나왔었다고. 그것을 보관했어야 했는데. 문교부에서 합격증이 나왔었어. 그때가 57년인가 58년”

그는 제주대학교 국문과에 2회로 입학했다. 그때 제주대학교는 용담동에 있었고, 막 종합대학이 되었을 때였다. 국문과, 영문과, 법학과, 축산과 이렇게 4개과가 있었다. 국문과는 한 학년에 40명 정도 되었다.

청록파 시인으로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 제주도에 내려와 있을 때 국문과에서 강의를 하기도 했다. 고희식 씨가 3학년 때 내려와서 2년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아주 겸손하고 유머도 있었다고 했다.

국문과의 문학을 하는 친구들은 시도 쓰고, 자기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술도 마시고 했지만 고희식 씨는 모태 신앙이라 술을 하지 않았다. 대신에 중·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온 운동 쪽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운동부 활동을 많이 했다. 고희식 씨는 학창시절 했던 배구를 대학에서도 계속했다.

“제주대학에 우리가 올라가면서 배구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는 일반

부가 없으니까 훈련소팀 하고. 그때는 경찰국에도 배구팀이 있었고, 주
정공장에도 배구팀이 있었고. 일반팀이.”

대학생 때는 오현중학교의 배구 담당 선생이 아주 가까운 사람이
라 아이들을 1년 정도 코치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가르치기도 했다.
코치비는 받지 않고 취미로 가르쳐 줬다. 그렇게 중학교 때부터 한
10여 년 동안 배구를 했다.

고희식 씨는 배구와 더불어 정구도 즐겼다. 정구는 어렸을 때 그의
아버지가 서울에 갔다가 정구 라켓을 사오면서 인연을 맺었다. 옛날
에 지금 노인당 뒤에 경찰서하고 사이에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곳이
정구장이었다. 거기서 정구를 많이 배우고 했다. 나중에는 정구협회
를 만들어서 전무이사로 오래 있었다. 전국체육대회에 선수들을 데
리고 출전을 하는 등 열심히 활동을 했다.

하늘을 달린 휴가길

대학을 졸업하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야 했다. 그는 육군으로 입
대를 하고,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았다. 하필 그때 논산훈련소에
서 “흙썩이와 똥똥이 훈련소 가다”라는 영화를 촬영했다. 영화 속 훈
련받는 장면을 그가 속한 1연대가 촬영했다. 영화 촬영 때문에 훈련
은 지독하게 받아야 했지만 대신에 대우가 아주 좋았다.

훈련소에서 40일 정도 훈련을 하고, 병참으로 주특기 교육을 받았

다. 그리고 강원도 원주에 있는 1군 사령부 제1병참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다. 그곳에서는 중대본부에서 교육계를 맡았다. 군대에 있으면서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 봉사를 다니기도 했다.

“강원도 군대 있을 때 작은 교회에다가 보통국민학교를 하나 만들었지. 그래서 밤에 외출을 해서 가르치곤 했지. 그니까 학교 못 다니는 애들이 있지. 초등학생 기억나지 않지만 5~6명 정도. 그거 한 1년 6개월 했어.”

군인들이 군대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다리는 일은 바로 휴가일 것이다. 그때는 강원도에서 제주도로 휴가를 오려면 목포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에 배를 타서 제주에 도착했다. 강원도에서 목포까지 오는 것도 시간이 꽤 걸렸고, 목포에서 제주까지도 8~9시간을 배 위에서 보내야 했다. 목포에 도착해서 바로 배를 탈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하루를 묵어야 할 때도 있었다. 고희식 씨는 마침 목포에 친척 고모가 있어 휴가를 가게 되면 그 집에서 묵었다. 그런데 우연찮게 군대에서 알게 된 인연으로 제주도로 오는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되었다.

“군대 가서 조금 있으니까, 대구에 있는, 기상대에 있는 대위를 알아가고, 우리 동생하고 연락이 되어가지고, 딱 목요일에 제주로 오는 공군 비행기가 있었어. 그러면 딱 출발하는 날 휴가증을 끊어가지고, 20일 동안 살고 가는 거지. 그러면 대단하다 그래. 딴 애들은 배타고 왔다가면 3일, 5일 까먹어야 되거든. 난 당일 왔다가 20일 살고, 20일 비행기 타고.

거기서 허가를 해줘. 비행기 탈 수 있도록. 그분이 기상대 있으니까, 대위니까. 몇 시에 떠나니까 오라 그러면, 그때 휴가증 가지고, 내려와서, 그 라인 타가지고 제주도 오면. 제주공항에 내릴 때도 있고, 모슬포에 내릴 때도 있고. 내리면 또 딱 약속하는 거야. 몇 월 몇 시에 출발한다. 그럼 그 날 딱.”

그 인연으로 고희식 씨는 남들보다 편하게 제주도를 왕래할 수 있었다. 장시간 동안 육로와 바다를 이동해야 했던 휴가길에서 하늘을 가로질러 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덕분에 다른 제주출신 군인들보다 제주도에서 보내는 시간이 훨씬 길었다. 그러나 그만큼 위험이 도사리기도 했다. 한 번은 엔진에 새가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bird strike)로 문제가 생겨 큰일이 날 뻔한 적도 있었다.

“근데 한번은 딱 탔는데, 공군수송기가 잡음이 아주 시끄러워. 여객기는 전부 다 방음 되니까 그러는데, 그 엔진 소리가 대단해. 프로펠러 비행기였어. 근데 공군 장교랑 같이 탔단 말이야. 비행기가 갑자기 짝 기울었어. 공군 장교는 난리야. 옆드리고 어쩔 줄 모르고, 우리야 태평하지. 뭔지 모르니까. 제주도 와서 알고 보니까, 그 한쪽 프로펠러에 새가 들어가버렸어. 그니까 엔진이 돌지 않으니까, 한쪽 엔진만 가지고 온거야. 그러니 공군 장교는 말은 못하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 사람은 막 불안해서 난리지. 우리야 떨어져도 관계없잖아, 모르니까. 모르는 게 약이지. 우리도 알았으면 얼마 당황했을 거야. 공포의 도가니지. 제주도 와서

야 알았어.”

고희식 씨의 강원도에서의 군생활은 생각보다 일찍 끝이 났다. 대전의 병참사령부로 발령이 난 것이다. 지금도 그렇지만 병사가 자대를 옮기는 발령이 난다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리고 새로 발령 받은 곳에서 우연히 강원도에서 함께 근무하던 상관을 만났다.

“그리고 나서 1년 몇 개월 있다가 전속발령이 나서 대전에 있는 병참사령부인데 9기지창으로 발령이 났어. 사병이 대전으로 전속발령이 났어. 사병이 전속발령이 난 예가 별로 없거든. 그때 마침 우리 중대에 선임하사, 상사가 있었는데 나하고 같이 원주에서 근무하다가 대전으로 병참사령부로 갔어. 일부로 끌어진 것은 아는데 내가 대전으로 발령이 나니까. 나를 병참사령부로 발령을 내서 본부 사령실에 같이 있었지. 그래서 편하게 있었지. 1년 6개월. 그때는 군대가 3년이었지.”

그렇게 군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사회에서는 4·19와 5·16의 격변기를 맞았다. 5·16 당시 그는 제대를 앞두고 있었는데 5·16 때문에 제대가 취소가 되기도 했다. 그때 군대 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병장들을 하사로 진급시키고 군대에 말뚝을 박게 한다는 것이었다.

“5·16이 나니까. 우리가 병장인데 하사로 진급시킨다는 거야. 제대 명

령이 났는데 5·16 나니깐 제대 취소가 되어 버렸어. 그런데 하사 진급한다고 하니깐. 이걸 당연히 장기근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중사가 하나 있는데 ‘하사로 진급되는 바람에 말뚝박았다’ 그러니까 진급 안 하려고 말이지. 그래서 탈영 아닌 탈영도 하고 말이지. 빨간 줄 그으려고. 나중에 그제 일선에 있는 동기들은 하사로 진급을 했고, 우리들은 후방에 있으니까 진급이 안 됐지. 막상 제대하려고 보충대에 가니까. 우리가 천 원인가 이천 원인가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육천 원인가 칠천 원인가 받아. 하사니까. 그러니까. 후회가 되더라고. 그 사람들도 말뚝은 안 박고.”

결국 군대에 말뚝을 박게 한다는 소문은 해프닝으로 끝이 났지만 함께 입대하고, 제대하는 동기들 중에 일부는 하사로 일부는 병장으로 제대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생겼다.

고희식 씨는 정해진 군생활보다 일주일 더 근무를 했다. 제대할 무렵 대전에서 본부사령실의 서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었다. 제대를 앞두고 인수인계를 해 주었는데 후임이 일을 잘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일주일을 더 근무를 해주고 제대를 했다. 물론 제대한 날도 대구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왔다. 군대에 있는 동안 공군의 덕을 많이 보았다.

편지가 맺어준 백년가약

군대에서 제대를 한 뒤 고희식 씨는 같은 동네에서 자란 친구 동생

과 결혼을 했다. 그러나 결혼에 이르기까지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한다. 교회식 씨는 어릴 때 무척이나 장난꾸러기였다. 어찌나 장난이 심한지 교회에서 말썹이란 말썹은 다 부리고 다닌 걸로 유명했다고 한다.

혼사가 오고 가는 중에 아내분이 몰래 서울로 떠나버렸다. 교회식 씨는 자신의 심한 장난기를 모두 보고 자란 아내가 결혼을 하는 것이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것으로 결혼 이야기가 그냥 끝나는 줄 알았다고 한다.

그런데 아내분이 집에 편지를 보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었다. 그 편지를 받은 장인어른이 바로 연락을 해서 내려오라고 했다. 그해 12월에 제주도에 내려오자 성질이 급한 장인어른이 바로 결혼식 날짜를 잡아버렸다고 한다.

“결혼은 62년도 2월 28일 날 했지. 왜냐면 그 때 61년도에 그런 편지 받으니까, 내려오라 그러니까 12월에 내려왔단 말이야. 장인도 보통 성질이 급한 사람이 아니거든. 야, 며칠 날 해볼라. 장인이 너 2월 28일 날 결혼 해볼라. 그걸로 결정된 거야.”

그의 어머니는 아들 결혼 잔치 때 쓰려고 오일장에서 돼지를 한 마리 사다 키웠다. 그때는 차가 없으니 오일장에서 집까지 직접 돼지를 몰아서 데려왔다. 120근이 나가는 돼지였으니 굉장히 컸다. 완전히 비계 덩어리였다. 어머니는 옆집에 땅을 빌려서 담을 쌓아놓고

거기서 돼지를 길렀다. 그 돼지를 결혼식 때 잡아서 손님들을 대접했다.

결혼식은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했다. 그런데 결혼식날 아침 교회에 가는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신부를 식당까지 태워오기 위해 애써 빌린 택시가 길 한가운데서 고장이 나 버린 것이다.

“그때 시발택시가 있었는데, 시발택시 말고 택시가 하나 있었어. 시발택시보다 나은 택시를 빌렸는데. 집사람 집이 서문통인데 서문다리를 올라오지 못해서 중간에 차가 고장이 났어. 우리 교회가 서문다리 옆에 있거든.”

그래서 시발택시를 다시 불러 교회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교회식 씨는 신혼여행을 독특한 곳으로 갔다. 바로 한라산이다. 육지에서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온 사람들이 한라산을 가는 경우는 많았겠지만, 제주도 사람이 신혼여행을 한라산으로 간 경우는 드물었을 거다. 남주고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던 교회식 씨는 학생들과 함께 한라산 등반을 할 때 아내분과 함께 했다. 그것이 신혼여행이었다.

“신혼여행을 못 갔지. 그게 내가 남주고등학교 선생을 할 때야. 학기 초니까 바로 서귀포에서 신혼살림을 차렸지. 신혼여행을 못 갔다왔어. 그 대신에 신혼여행 겸 검사겸사 학교에서 한라산 등산을 했던 말이야. 그때

한라산에 가서 하루저녁 같이 잤지. 그때가 몇 월인지 기억을 못하는데, 철쭉꽃 피었으니까, 5월 달쯤 될 건가. 철쭉꽃 막 만발할 때 봤으니까 참 좋았지. 철쭉꽃 막 보고. 천막도 안치고 그냥 낭에다가 불 때면 앞에는 따슌고 뒤는 서늘해. 이렇게 돌아앉았다 애들이랑. 그리고 신혼여행 했어. 그게 신혼여행이었지. 애들이랑 같이 등산을 해서. 서귀포로 직접 올라갔지. 돈내코로. 그게 신혼여행이야.”

고희식 씨는 대학졸업 후 남주고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았다. 대학에서 전공한 국어는 물론 체육과 세계사도 가르쳤다. 학교가 서귀포에 있다보니 제주시내를 떠나 서귀포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교사의 한 달 월급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분이 피아노 학원에서 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나갔다. 모두들 어려운 시절이었다.

“그때도 이제 우리 봉급이 안 좋으니까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에 가서 강사로 거기서, 오등 뭇이라고 하는 선생이 중학교 선생인데 피아노 학원을 했어. 그 학원을 반 맡아서 하다시피 하면서 거기서 돈도 벌어가. 그때 내가 봉급을 삼천 원 받았나. 삼천 원이 제때 나온 것도 아니지. 학교가 빈약하니까 말이지. 그니까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나마 집사람이 피아노 학원을 해서. 또 집에서 쌀은 다 보내주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거 참 산다고 하는게 그런 거드만.”

사실 고희식 씨는 계속 교편을 잡고 싶었다. 하지만 교사 생활을 2

년쯤 하다 그만두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계기가 좀 특이하다. 바로 음식 때문이었다. 음식 솜씨가 좋은 아내분이 임신을 하자 몸조리를 위해 제주시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교회식 씨는 본의 아니게 혼자서 지내야 했다. 집에 밥을 해줄 사람이 없으니 끼니마다 식당을 전전해야 했다. 매번 아내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먹다가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되니 고역이었다.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학교를 그만 두었다.

“결혼하고 나서 처가 아침, 점심, 저녁을 따뜻한 밥을 해주는데 학교 점심 때도 꼭 집에 와서 먹었으니까. 음식을 참 잘했어. 식당 밥이 맛있게 나와도 비교가 안 될거야. 정성 들인 거 하고. 그 신혼의 여자가 얼마나 정성 들였을 거야. 아침, 막 더운 밥, 점심에 12시에 가면 꼬박 더운 밥, 저녁에도 이렇게 해 놓으니 뭐. 참 맛있게 먹었는데 와이프가 그때 임신이 됐나 어떻게 몸이 안 좋았어. 제주시로 와버렸단 말이야, 혼자 살려니 말이지, 그 다음에 식당 밥을 먹으려니까 냄새가 나서 못 먹겠어. 그렇게 잘 먹던 밥도. 각시가 해주던 밥 먹다가 말이지 식당 밥을 먹으려니까. 정성 들인 거하고 그냥 해준 거하고 맛이 다르잖아. 아주 냄새 나서 못 먹겠어. 그래 나중에는 하숙을 또 했지, 하숙을 했는데 도무지 안 되겠다 하고 사표 내고. 그냥 했으면 내가 선생했지. 학교 그만두고 와서 한 삼 개월 놀다가 제주시청으로 들어갔지.”

그렇게 교단을 떠나 공무원으로 인생의 2막을 열게 되었다. 처음

에는 임시직으로 들어갔다가 이후 특채가 되었다. 그 후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 그는 공무원 생활 대부분을 제주시청에서 일했다. 1990년에서 1995년까지는 삼도2동장으로 임명되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이 살던 동네를 책임지는 자리에 올랐으니 감회가 남달랐을 거다. 그는 동장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로 나이 드신 분들 생일에 선물을 들고 방문을 한 것을 꼽았다. 처음에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대상자가 많아 70세 이상으로 바꿔 선물을 드렸다.

“삼도2동 동장을 5년을 했어. 장수 동장이야. 삼도2동에서는 꽤 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동장할 때 70세 이상 노인에게 생일선물 나눠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지. 큰 건 아니야. 이북에서 온 할아버지 생일날 찾아가서 깍듯이 인사하고 ‘축하합니다.’ 하고 드렸단 말이야. 이를 후에 찾아왔어. 그분이 하는 소리가 ‘내 새끼들도 내 생일을 모르는데 고맙다’고, ‘당신이 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줘서 고맙다’라고 하더라고. 많은 것은 아닌데 5, 6천 원짜리 선물인데 노인들이 아주 나를 좋아했지. 이제까지 동장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생일이라고 찾아와서 선물 주고 앉아서 가니까. 지금도 나를 보면 ‘동장님, 동장님’ 하는 사람들이 있어.”

비록 몇 천 원에 불과한 작은 선물이었지만 사람들은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고마워했다고 한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동민들

이 동장을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교회식 씨는 동장 임기가 끝나고 정년 퇴임을 한 후에도 삼도2동의 개발위원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을 하면서 원도심과의 인연을 계속이어나갔다.

사연을 따라 걷는 원도심

관덕정 광장

조선 시대에 세워진 관덕정은 제주목관아의 여러 건물들이 사라지는 와중에도 헐리지 않고 남아있는 유일한 건물이다. 오랫동안 원도심의 변화를 지켜봐온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관덕정은 해방 직후에 미국의 문화공보원으로 사용되기도 했다. 그때의 사진을 보면 지금과 달리 기둥과 기둥 사이에 문이 달려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때 제주목관아 자리에는 법원과 경찰서, 제주도청 등 중요한 관청들이 들어서 있었다.

관덕정 앞의 광장에서는 제주도의 큰 행사들이 많이 열렸다. 3·1절이나 광복절과 같은 국가적인 기념일에는 이곳에서 대규모 행사를 열었다. 4·3과도 무관하지 않다. 4·3의 도화선이 되었던 3·1사건의 현장이기도 하다. 당시에 교회식 씨도 그 자리에 있었다.

“47년도 때는 내가 6학년 때인데, 그때 왜 내가 거기 갔는지는 모르겠

는데, 6학년 때 거기 갔다가 기마대, 말 타는 경찰이 경찰서에 막 뛰어들어오더구만. 그러니까 중앙로 쪽에서 사람들이 돌팔매질을 한 거야. 말 탄 순경에게. 그냥 말 탄 순경이 들어오니까 엄호로, 경찰서 앞에 검문대가 있었어. 보초 서듯이. 거기서 총을 팡팡팡 몇 발 쏘지. 엄호사격으로. 애가 죽었다 한 말이 있는데 사람을 향해 쏜 것은 아니고, 그때 내가 관덕정에 있었으니까. 6학년 때인데 왜 거기 나 혼자 있었는지 모르겠어.”

그는 관덕정 광장에 무장대의 수장이었던 이덕구의 시신이 놓여 있던 것도 기억했다. 우체국 옆의 칠성통 입구로 들어가서 현재 일도일문화센터 맞은 편쯤에 방첩대가 있었다. 그 방첩대 정문에 이덕구 시신이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주머니에는 현기영 소설가의 글에 나오듯이 손가락이 끼워져 있었다.

“우체국 지나서 칠성통 가면 들어가는 입구 좀 지나서 우리 어릴 때에 2층 건물이 있었는데 2층에 방첩대, 군인 방첩대가 있었어. 해군 방첩대가 있었어. 그 앞에다가 그냥 세워서 두었어. 손가락 하나 꼽고. 며칠 동안 세워두었어. ‘총사령관 이덕구’ 인가 글을 붙이고.”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한 후 제주도를 방문했을 때는 관덕정에서 환영대회가 열렸었다. 그때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모두 동원이 되어 태극기를 흔들었다. 관덕정 앞에서 시작된 행렬은 지금의 중앙로 사거리까지 이르렀다고 했다. 고희식 씨도 중학교에 다닐 때



사진 5. 고희식 어르신과 김진철 작가 (옛 방첩대 앞 자리)

여서 그 자리에 있었다. 이승만 대통령은 탐라여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고 한다(다른 기록에서는 동양여관에서 묵었다고 하는데 고희식 씨는 탐라여관 주인의 외손자와 친구여서 그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다음날에는 현재 노인정 자리에 있었던 도지사 관사에서 묵었다.

국회의원 선거 때 후보들의 연설도 처음에는 관덕정 앞에서 했다. 그 이후에는 주로 북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연설을 많이 했다. 관덕정 앞에 배구 코트를 만들어서 배구시합도 했었다.

지금은 사라졌지만 관덕정 앞에 분수대가 있었다. 고희식 씨는 해방 이후에 제일교포가 돈을 내서 만들었던 것으로 기억을 했다. 그

가 동장으로 있을 때 관덕정 바로 앞에 있던 가게에서 잉어를 기증 받아 분수대 안에 풀어놓고 키웠다. 한번은 낚시대로 잉어를 낚으려는 사람이 있어 혼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한다. 먹이를 잘 줘서 잉어가 굉장히 컸다. 1990년대까지도 분수대가 남아 있었다.

관덕정 인근은 교통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제주시내와 외곽을 이어주는 버스들이 왕래하는 곳이었다. 버스들은 관덕정 광장에서 출발하고, 관덕정 광장으로 되돌아 왔다. 지금의 터미널과 같은 역할을 했다. 하지만 도로 사정이 좋지 못해 서귀포까지 가는데만 4시간이 걸렸다.

“제주차부라고 해서 관덕정에 있었지. 지금은 호텔이 있어. 거기가 제주자동차. 자동차도 거기 세웠고, 차부가 돼서. 거기서 동쪽, 서쪽으로 장거리 버스가 다녔지. 여기서 서귀포까지 네 시간 걸렸어. 다시 오는데 또 네 시간. 근데 나는 버스를 별로 타 본 기억이 없는데, 촌에 가는 애들은 트럭 뒤에 몰래 탔다가 뛰어내리고 했었어. 우리 때는 목탄차였으니까. 쓱 붙붙여서 증기로 가는 거지. 트럭들은 목탄차였어. 버스는 잘 모르겠고. 그때는 차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

당시에는 중앙성당 앞을 지나는 한짓골이 큰 길이었다. 버스도 이 길을 이용했다. 한짓골과 관덕정 광장이 만나는 곳에는 교통대가 있었다. 길 한가운데서 경찰이 서서 지나가는 차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지금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했다.

지금은 제주서중학교 옆에서 열리는 오일장도 관덕정 광장에 있었다. 제주도 속담 가운데 ‘관덕정 설탕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먹을 줄 아는 사람이 먹는다’라는 뜻이다. 오일장은 교회식 씨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이후로 여러 번 장소가 바뀌었다. 탑동에도 있었고, 용담에서 열리기도 했다. 교회식 씨가 제주시청 상공계장을 하면서 지금의 애향운동장 자리에 오일장을 유치하기도 했었다.

산지천의 추억

중앙로 사거리에서 동문시장까지 이어지는 길을 원정로라고 했다. 이 길을 사람들은 배부른 동산이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길 가운데가 불룩하게 올라와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정로로 불리던 곳에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동문시장이 오랫동안 자리잡고 있다. 동문시장은 여러 번에 걸쳐 화재를 겪기도 했다. 대부분 목재로 지은 건물들이라 피해가 컸다.

“동문시장이 지금 로터리 있잖아. 거기가 시장이었어. 그 자체가 시장이었는데 거기가 불 나가지고 전소되는 바람에 이쪽으로 다시 지어가지고 이제 동문시장이 된 거지. 불이 크게 났었어. 전체적으로 다 시장이었는데 그제 전부 다 가건물, 다 나무로 지어진 집 아니야. 그니까 불나기 시작하니까 짹-악. 하여튼 제주도에서 제일 큰 불이었어. 우리 어렸을 때.

그땐 소방시설이 맨 이거였지. 펌프질.”

동문시장 앞에는 바다로 이어지는 하천인 산지천이 있다. 제주도
의 대부분의 하천이 물이 흐르지 않는 건천이다. 그렇지만 산지천에
서는 여러 용천수가 솟아났다. 고희식 씨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성안
사람들은 산지천에서 물을 얻었다. 마실 물을 길어가기도 했고, 물이
솟아나는 곳에는 빨래터도 있었다. 산지천은 아이들에게도 좋은 놀
이터였다.

“우리 어렸을 때 산지천에서 장어도 잡아먹고, 미꾸라지도 잡고, 많이
잡아먹었어. 같은 학년인데 나이는 두 살 위인 친구가 그런 것을 좋아해
서. 학교 끝나면 ‘야, 가자’ 해서 잡아서 먹고 했어. 산지천에 가면 음료수
가 있어. 거기 물을 길어다 먹었어. 산지천은 계속 나와. 옛날 빨래터 있던
데. 물 나오는 데가 이서.”

고등학생들 중에는 물을 길어다 주고 번 돈으로 학교를 다녔던 사
람도 있다. 산지천에서 물을 길어다가 집까지 옮겨주는 값으로 돈을
벌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나중에 제주대학교 총장까지 된
사람도 있다고 한다.

그의 집에서는 숙식을 하면서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사람들이 허벅에 물을 길어다 주었다. 나중에 다른 집보다는 빨리 집
에 수도를 깔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집집마다 아침에 밥을 하기 위해서 산지천에서 물을 전날 길어 놓았다. 한번은 교회식 씨가 피난민들이 함께 살고 있는 친구의 집에 놀러갔다. 그리고 밤중에 피난민 여학생이 길어놓은 물을 몰래 가져다가 밥을 해 먹었다. 그러다 물을 다 써 버려서 아침에 난리가 나기도 했다.

그가 어렸을 때는 산지천 하류 인근에 주정공장이 세워져 있었다. 주정공장 근처에 4·3 당시 성안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교회식 씨는 그 사람들에게 김치를 나눠주는 교회봉사활동에 참여하기도 했었다.

6·25전쟁 때는 피난을 온 화교들이 타고 온 배가 산지천에 정박해 있었다. 한 가족이 배를 타고 인천에서 제주까지 피난을 온 것이다. 그들이 타고 왔던 배가 꽤 커서 배에서 머물면서 생활을 했다. 이후에 화교들은 중국집을 열

사진 6. 현재 산지천 하류

어 생계를 이어 나갔다. 고희식 씨도 그 중국집에 꽤 자주 다녔다.

산지천을 거슬러 올라가면 동문시장을 통과해서 오현단 앞으로 이어진다. 이곳은 하류와 달리 물이 흐르지 않는다. 고희식 씨가 어릴 때만 해도 이곳에 가락춧물이 있어 물이 많이 솟았었다. 이 물에서 사람들은 빨래를 하고, 목욕도 했다. 가락춧물은 밤이 되면 공중 목욕탕이었다. 하지만 남탕과 여탕의 구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서 잘못하면 서로 마주치는 민망한 일이 생기기도 했다.

“밤에 목욕 하러 다니고 그랬어. 가락춧물도 물이 흐를 때 되면 말이지 혼탕이니까 한번은 거기 놀러갔다가 깜짝 놀랐어. 물에 들어갔는데 여자가 다 벗고 목욕을 하고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어. 구분해 놓은 게 아니고 혼탕이야. 더우면 그냥 목욕하니까. 여자들은 늦게 하지. 어두울 때. 지금은 물이 안 나와. 그 전에는 물이 상당히 많았지. 또 비 오게 되면 물이 찰찰 흘렀지. 주로 산지천으로 내려가는 거야.”

먹돌해안의 탑동

여름에는 주로 탑동에서 놀았다. 무근성 아래쪽을 탑동이라 불렀는데, 이곳을 탑동이라고 불렀던 이유는 바다 가까이에 탑을 쌓아 놓았기 때문이었다. 탑을 이용해 고깃배가 드나들 때 불빛으로 신호를 보냈다. 원래 있던 탑은 매립을 하면서 없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고희식 씨가 주민자치위원을 할 때 삼도119센터 맞은편에 옛날의 탑을

상징하는 의미로 탑을 세 개 쌓아 놓았다. 이 탑들은 얼마 전 도로 공사를 하면서 라마다 호텔 옆의 공원으로 옮겨졌다.

고희식 씨가 어렸을 때는 현재 라마다 호텔 맞은편 집들이 있는 곳까지가 육지였고, 도로 북쪽은 모두 바다였다. 바닷가는 탑 아래쪽이라고 해서 탑알이라고 했다. 지금은 매립이 되어 바다에 내려갈 수 없게 되었지만, 과거 탑동의 바닷가는 반짝반짝한 먹돌들이 펼쳐져 있던 해안이었다.

“탑알하면 바다지.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탑 아래 목욕하러 간다. 고기잡으러 간다. 보말 잡으러 간다.’ 지금 있었으면 명물이 되었겠지. 묘해 그쪽만. 반짝반짝. 짜-악. 탑동 돌이 참 좋았어. 희범이는 지금도 가끔 그 이야기를 하지. 자기 어렸을 때 보았던 그 모습들을.”

고희식 씨가 아주 어릴 때는 탑동에 원담 같이 돌을 쌓은 곳도 있었다. 그 안에서 보말이나 소라, 전복을 잡았다. 바다는 풍요로웠다. 가까운 바다에서도 해산물이 많이 잡혔다. 탑동 해변에는 작은 돌들이 많았고, 깊이 들어갈수록 큰 돌들이 있었다. 큰 돌 아래가 보말이나 게들이 많았다. 바다에서 수영을 배우기도 했다. 그에게 탑동 바닷가는 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나게 하는 곳이다.

“아버지랑 가면 한 바구니, 들어가면 한 바구니를. 어떻게 그렇게 손매가 좋은지 말이야. 전복이니, 소라니. 큰 바구니에다, 삶아 먹고 말이지.



사진 7. 옛날 탑동에 있던 탑을 상징하는 의미로 세운 세 개의 탑 앞에서

잔치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50년 전 이야기 아니야. 그때 그냥 들어가서 전복 막 큰 거. 자연산 전복.”

그때는 그 바다에 해산물이 많았다. 아버지가 손 솜씨가 좋아서 함께 바다에 가면 해산물을 잘 잡아내었다고 했다. 한 바구니 꽉 채워 잡아가지고 와서 며칠씩 끓여서 먹고, 삶아서 먹었다. 보말도 밤새 까서 먹었다. 문어와 소라도 잡고 하면서 어렸을 때 탑동에서 놀던 기억이 많다고 했다.

탑동에는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 어부들은 서부두에서 배를 끌고 나가 고기를 잡았다. 주로 고등어나 갈

치를 많이 잡았고, 자리도 잡았다. 자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어부의 경험에 의존했다. 물안경을 물에 대서 자리떼의 이동을 확인하기도 했다.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지. 어부도 많았어. 서부두에 어장이 되니까. 거기서 배를 가지고 가서. 고등어, 갈치를 많이 낚아왔지. 주로 그땐 낚았지. 자리만 뜨고. 자리는 그물로 짝 하면 떠서 올라가지고. 자리는 떼 지어 다니니까. 그냥 돛 크게 잡아가지고, 그 돛에다가 그물을 짝 내려서. 싸악~.”

탐동 앞바다에서 흑산호를 많이 캐기도 했다. 흑산호로 파이프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았다. 흑산호로 만든 파이프가 선물로 유행을 했다. 칠성통에는 흑산호로 만든 기념품을 판매하는 가게가 여러 곳이 있었다고 했다.

“그 당시에 흑산호 많이 캐어.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파이프, 그게 유명했지. 흑산호로 만든 파이프. 군인들이 휴가 왔다 갈 때에 상사들에게 그거 하나 사다주면 좋아들 했어. 나는 그러질 못했는데, 판 사람들은 주로 그렇게 한 사람들 많아. 탐동 바닷가에서 조금 나가서. 머구리들이 캐지. 해녀들은 못 캐. 머구리들이 깊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너무 단단해서 해녀들 가서 들어갔다가, 그거 캐다가 죽어. 빨간 거 이런 것도 캐오기도 하고, 까만 거에다가 잘라가지고 파이프 만들고, 비녀 만들고. 지금은 그제

었는데, 옛날에는 아주 사람들이 파이프를 좋아했다고. 담배 파이프.”

소금이 귀하던 시절이라 김장을 하기 위해 탑동의 바닷물을 이용하기도 했다. 집집마다 수레에 배추를 싣고 탑동으로 가서 바닷물에 씻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배추가 바다의 짠물에 절여졌다. 식구가 많지 않아도 김치를 많이 담그던 시절이었다.

제주의 명동이었던 칠성통

예전 칠성통은 제주도 제일의 변화가였다. 서울로 치면 한창 때의 명동과 같았다.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고, 다양한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다. 옷 가게나 시계 같은 금속을 판매하는 가게들도 많았다. 지금은 사라진 가게들이 많지만 기억 속에 남아있는 이름들이 있다.

요즘은 구석구석마다 커피숍이 들어서 있어 만남의 장소로 많이 이용한다. 그때는 빵집이 그 역할을 했다. 당시 칠성통에는 유명한 빵집들이 있었다. 고희식 씨는 그중에 호랑이빵을 팔았던 뉴욕다과점, 찌방을 잘 만들었던 영춘빵집, 그리고 오스카양과를 기억했다.

“뉴욕다과점. 아주 맛도 좋았지. 호랑이빵인가. 그때에는 지금 말하면 뭐라 그럴까, 호빵, 구워서 호빵이야. 지금은 찌잖아. 근데 그건 구운거야. 그때 앙꼬가 그 팔을 놓지 않고 탄 거를 놔서. 많이 사먹고 그랬는데. 비지 근하고 달콤하고 그래서 지금은 뭐지 모르겠는데 맛있었어. 칠성통의 꼬

트머리에 있었던 영춘빵집도 유명했지. 찌빵을 잘 만들었어. 학생들이 많이 찾았어. 호남빵집 다음으로 생겼어. 오스카양과도 있었지.”

칠성통에는 제주도 유일한 백화점인 아리랑 백화점도 있었다. 해방 후에 제일교포가 시작했고, 아들이 경영을 했다. 지금과 같은 백화점은 아니겠지만 나름 고급 물건들을 팔았다. 언제 없어졌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꽤 오랫동안 운영되었다고 한다.

고희식 씨는 운동을 좋아해서 취미로 당구장을 많이 다녔다. 칠성통에 있던 서북청년단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나중에 당구장으로 바뀌었는데 그곳을 자주 다녔다. 아들, 손자와도 당구를 칠 정도로 즐겼다.

“당구를 많이 치러다녔지. 내가 그 때 다마 100까지 쳤으니까. 당구장이 칠성통에 하나 밖에 없었어. 코리아극장 좀 지나서 아래 쪽으로 조금 칠성통 내려가는 길. 칠성다마장인가 칠성당구장인가 했어. 지금 당구대와 똑같았어. 큰아들이 군대있을 때 휴가 와서 같이 당구장 가니까 애들이 막 와서 신기하게 봐. 얼마 전에는 손자하고도 쳤어. 처음에 왔을 때는 내가 이겼는데 휴가 나와서 쳤을 때는 내가 졌어.”

과거 칠성통에는 중앙극장을 비롯해 여러 극장들이 있어 사람들을 웃기고 울리는 영화들을 상영했다. 고희식 씨는 주로 운동에 관심이 많아 극장에 잘 가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 고희식 씨에게도 극



사진 8. 제주극장을 증개축한 구 현대극장 모습

장에 대한 에피소드가 하나 있다. 극장에 몰래 숨어들어갔던 일이다. 그것도 초등학교 때 말이다.

“초등학교 다닐 때 제주극장 사장 손자가 나하고 동창이야. 그놈이 야! 극장 가자. 그런단 말이야. 사장 손자가 가자고 하니 정문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지. 변소 구멍이 있어, 변소를 사용안하니깐 그쪽으로 고양이기를 해서 들어갔었어.”

고희식 씨는 칠성통에 있는 목욕탕에 다녔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목욕탕에 갔다고 한다. 자주 다니던 목욕탕은 일출목욕탕이었다. 일

제 강점기부터 운영하던 목욕탕이어서 내부 모습은 일본풍이었다고 한다.

“칠성동에 일출목욕탕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지. 그게 아주 오랜 목욕탕이야. 중앙극장 바로 아래. 우리 어릴 때 쪽 거기 목욕탕 다녔지. 굴뚝도 있고. 일본식으로 지어졌어. 거기가 중간에 카운터를 한 사람이 보는데 남자가 앉으면 여자 쪽에 커튼 치고, 여자 앉으면 남자 쪽에 커튼 치고. 카운터가 양쪽 보게. 그렇게 해서 일본식. 내가 일본 갈 때 보면 대개 목욕탕이 그렇게 되어있더라. 저쪽, 서부두 옆에 거기에는 산지탕이라고 있었어. 그게 일본 사람이 했던 사우나탕인데. 그것도 일본식으로, 2층으로 건물 지어져가지고. 내가 그 목욕탕은 안 가봤는데, 안 가본 목욕탕은 없는데, 거긴 안 가봤어. 산지탕은 못 가봤어.”

고희식 씨는 아라동으로 이사를 간 지 꽤 되었지만 여전히 탑동에 있는 사우나에 다닌다. 북초등학교 앞에 있을 때 생기자마자 다니기 시작해서 벌써 20년이 넘었다고 한다.

향사당과 신성여학교

삼도2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향사당은 예전에 학교로 사용되었던 곳이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신성여고의 기원인 신성여학교가 운영되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에는 신성유치원이 운영되기도 했었

다. 향사당은 1980년대에 복원작업이 진행되었다. 고희식 씨가 제주 시청에 근무할 때였다. 그때 향사당 상량문을 서예로 유명한 김광추 선생님의 글씨를 받아다 작업을 했다고 한다.

“1980년대 쯤에 복원 시작했지. 복원 시작할 때 내가 공보실에 있을 때야. 그래서 내가 상량문을, 김광추 그분에게 써 달라고 해서, 부시장이 메모를 하고, 내가 찾아가서 그분에게 받아왔어. 지금 서까래가 김광추 씨가 쓴 서까래야.”

이아 건물 앞에 있는 인천문화당 건물이 예전 신성여자고등학교 별관이었다. 현재도 옛날 건물의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 2층을 보면 교실이었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학교가 옮겨 가면서 인



사진 9. 향사당

천에 내려온 사람이 건물을 사서 인천문화당을 열었다.

신성학원과 관련이 있는 인물은 최정숙 교육감이다. 최정숙 교육감은 신성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활동했다. 또한 제주도 교육감으로 제주 교육에 많은 기여를 했다. 그녀는 서울에서 의학대학을 졸업하고 제주도에 개인 병원을 열기도 했다.

“이웃골에는 병원 하나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당시 내가 어렸을 때, 신성여고 초대 교장했던 최정숙. 그분이 의사였지. 그분의 병원이 관덕정 조금 안쪽에 큰 길 건너가지고, 교회 쪽 말고 동사무소 쪽에 도립 병원이라 멀지 않은 곳에 가정의학 비슷하게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어. 주로 내과지 뭐. 개인병원 하다가 신성여고가 생기면서 바로 교장으로 갔어. 최씨 집안이 제주에서 내로라하는 집안이지. 제주도에서 여자 공부시키는 사람 별로 없었어. 거기서 판사도 나오고 최광식 교장도 나오고. 제주도 유지지. 판사까지 나올 정도면.”

고희식 씨는 최정숙 교육감 집안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 최정숙 교육감의 오빠인 최광식 선생님은 고희식 씨 아버지의 초등학교 담임이었다. 학교에 다니기 어려웠던 그의 아버지는 최광식 선생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최정숙 교육감님 하고는 인사할 정도였고, 그분 오빠도 잘 알지. 그 오빠가 북국민학교 선생이었는데, 아버지 4학년 때 담임이었어. 근데 아버

지가 학비를 못 내니까 그분이 내줬어. 학교를 다니도록 해줬던 분이야. 그래서 명절이면 아버지가 꼭 나를 데리고 가서 새배를 드렸던 기억이나. 은사라고 해서. ‘공부 못할 나를 공부하도록 장학생으로 만들어줬다’ 그런 거라고 해서. 졸업은 못했지만 해줬다고 해서 아버지가 명절만 되면 매년, 아버지 따라가 새배했지. 그래서 그분은 친히 알지. 그분이 좀 겸손했던 게 놓고 교장을 했어. 그 당시에 교장이면 꽤 컸잖아, 유지고. 모자 영 쓰시고 탄 학생들한테는 모르지만, 내가 인사를 하면 모자를 벗고, 그냥 받는 게 아니야, 모자 벗고 딱 절을 받아줘. 아주 인상적이었어.”

사람을 구하는 병원

지금 예술공간 이아가 들어서 있는 곳은 일제 강점기 때 자혜의원 이 있던 곳이고, 해방 이후 도립병원, 제주대학병원에 이르기까지 꽤 오랫동안 원도심 사람들은 물론 제주도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던 곳이었다. 병원의 간호사들은 제주도 사람이 많았던 것으로 기억했다. 한라대학교의 전신인 간호대학이 꽤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지금 한라전문대학이, 간호대학이 생긴지가 꽤 되지. 광양에서 간호대학 하다가 그제 한라대학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전문대학이 되었지. 모체는 간호대학이었지. 그래서 상당히 간호사들이 양성이 많이 되었지. 아마 내가 알기로는 1기들이 60대 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 몇 년 생인지는 모르겠는데.”

제주대학교 병원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드나들었다. 좁은 도로에 차들과 사람들이 많이 다녀 혼잡하기도 했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그때가 고희식씨가 삼동2동장을 할 때이다.

“동장할 때는 상권이 아주 좋았지. 제주대학병원 있으니까. 하여튼 거기 교통정리하느라고 동직원들이 땀 뻘어. 거기 주차단속 하느라고. 하루 종일 그것에 시달렸지. 주차장이 없으니까. 막 그냥 세워 버리고 말이지. 딱지 떼면 동장실에 와서 난리피고, 동직원들한테 딱지 떼는 권한을 줬단 말이야. 딱지 붙여 버리면 난리 피워가지고 말이야. 병원 규모가 아주 컸어. 도립병원할 때보다 대학병원하면서 많이 커졌지. 도립병원 때도 꽤 컸다고 보는데 그때보다 더 컸어. 동장할 때는 병원이 계속 있었고, 동장 끝나고 병원이 옮겨갔어. 제주대학병원하고, 우리 직원하고 축구도 했는데, 그때는 동직원들도 많았으니까.”

고희식 씨는 병원 신세를 크게 진적이 있었다. 중학교 3학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다. 그는 운동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그래서 운동 경기 구경을 자주 다녔다. 마침 그때 모슬포 훈련소에서 럭비 경기가 했다. 다른 운동은 다 보았는데 럭비 경비를 보지 못했었다. 미군들이 하는 것을 보기 했지만 어떻게 하는 줄을 몰랐다. 그래서 차를 타고 구경하러 가다가 목숨이 위협할 만큼 큰 사고가 나고 말았다.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모슬포에 체육대회가 있었어. 모슬포에서 군용 차가 몇 대가 나왔어. 제주시 사람을 싣고 간다고. 내가 재향군인회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재향군인회 차에 탔는데 그 차가 트럭인데 짹 짹 말이야. 그런데 그 차가 전복이 되었던 말이야. 그래서 죽을 뻔 했지. 그래서 그때 도립병원에 왔는데 입원실이 없어. 내가 죽는다고 소문났었지. 후생 의원으로 가다가, 동문통에 있었어. 중간에 소아과 의원이 있었어. 아버지가 다니던 곳. 한양대학교 이사장했던 김형준 형이 6·25 때 왔었는데 그분이 그 병원에 들어간 거야. 머리가 완전히 깨졌는데. 그 의사가 3일 동안 나를 거기서 진료를 했지. 그때는 백부도 아들이 없었고, 숙부도 아들이 없었거든, 3형제 가운데 아들이 나 하나야. 나밖에 없었거든. 3대 독자가 죽는다고 난리가 난거지. 소아과니까 입원실이 없으니까 숙부 친구가 옆집에 있어가지고 방을 얻어가지고 의사가 나를 위해서 상주를 했어. 3일 지나니까 ‘살겠습니다.’ 했단 말이야. 아버지가 아니 ‘3일 동안 아무 대답 안 하더니 왜 그러느냐.’ 하니 자신이 없었다 이거야. 3일이 지나니 이제 살겠다고. 자신이 생긴 거야. 그때가 중학교 3학년 때, 졸업반 때.”

그 소아과는 김영순 의원이었다. 3개월을 입원하니 나중에는 걷지 못하고 당분간은 기어서 다녔다. 졸업반이어서 고등학교 입학시험에 응시해야 했는데 그 몸으로 준비하기가 어려웠다. 다행히 중학교 때 운동 선수였기 때문에 따로 시험을 보지 않고 입학할 수 있었다. 선수로 스카우트 된 것이다.

현대식 병원도 있었지만 오랫동안 전통 한약방도 운영해 오고 있는 곳도 있다. 중앙로 사거리의 한쪽에 자리한 인수당은 대를 이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한약방이다.

“약방 몇 군데 있었지. 인수당이 제일 유명했지. 아주 오래됐지. 지금 손지가 말아서 하는데 큰 아들이 나하고 동창인데. 검찰에 있었는데, 두 아들을 전부 한의대에 보내서 큰 아들은 인수당 자리에 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신제주에서 하고 있어. 3대째지 한의사로는. 아버지 땀 약재만 했는데 손지는 진료를 하지. 한의대 나왔으니까. 인수당에서 약도 지어 먹고 했지. 감기약 같은 거. 그리고 우리 장인이 한약방을 했지. 서문통에서. 가끔 보약을 지어줘서 먹긴 먹었지. 우황청심환이라고 해서. 소 쓸개. 담석 인거 같아. 그거 해가지고 만들어서 주면 먹었지.”

대를 이은 신앙

제주 기독교의 역사는 이기풍 목사가 제주도에 선교하러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 이기풍 목사는 함께 신학교를 졸업한 8명 중에 제주도 선교사로 선발되어 제주로 향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운명같은 일을 겪었다고 한다.

“여덟 사람이 신학교를 나왔는데 한 사람을 선발해서 제주도로 선교사로 보낼거야. 배를 타고 제주도로 오는데 배가 파손이 되었어. 다른 사람

은 다 죽었는데 이기풍 목사님만 추자도 모래사장에 올려진 거야. 동네 사람들이 보니까 살았거든. 그래서 그런지 추자도에 천주교든 불교든 다른 종교가 들어가도 안 되었는데, 교회만 세 곳이 있어. 교회 안 나가도 크리스마스 때는 꼭 아침 새벽에 찬송가를 불렀어. 안 부르면 막 섭섭해 하고, 그 동네가.”

신기하게도 혼자서 목숨을 구한 이기풍牧사는 제주도에 들어와 교회가 뿌리내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그 시작으로 제주도 최초의 교회인 성내교회를 세웠다. 성내교회를 지을 땅은 제주에 유배 온 박영효 대감이 100원을 헌금한 돈으로 샀다고 한다.

고희식 씨 가족은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다. 그의 아버지는 1910년 생인데 1924년 경부터 성내교회를 다녔다. 아버지는 교회 장로로 활동했고, 숙부도 동부교회의 장로를 했을 정도로 열심히 교회 활동을 했다. 아버지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새벽기도를 다녀오고 나서 어려운 집마다 찾아다니며 기도를 해주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아버지를 그렇게 좋아했다고 한다.

“제주도에 있는 교회 분들 가운데 아버지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내가 장로 된 다음에도 이제 가면, 나를 장로로 부르지 않고, 고 장로 아들 왔다고, 그때에 교회에서는 아버지가, 제주도 사회에서는 좀 알아주는 분이었지.”

제주성내에서 유일한 교회였던 성내교회는 신자들이 늘어나자 1947년도에 동쪽에 사는 사람은 동부교회, 서쪽에 사는 사람은 서부교회로 나뉘었다. 동부교회는 동문시장 쪽에 옛날 제주신탁자리에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목포교도소 사람들이 와서 지었다고 했다. 그 때는 교도소에 수용할 자원이 없어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인건비를 받았다고 한다. 돌담으로 잘 지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아있지 않다.

이후 1972년도에 중부교회와 서부교회가 통합되면서 성안교회가 되었다. 성안교회는 이후 아라동으로 이전하였는데 현재는 삼천 명이 넘는 신자수에 서귀포, 모슬포, 한경면 등 제주도 전역에서 예배를 보러 찾아올 정도로 큰 교회로 성장했다.

교회식 씨도 아버지 못지않게 교회 활동을 열심히 했다. 특히 학창 시절에 기독교 클럽을 만들어서 고등학생들이 신앙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나는 고등학교 때 하이와이(Highschool YMCA)를 각 학교마다 만들었어. 오고에는 광풍대클럽이라고 해서 그걸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와이틴도 만들었는데 와이틴은 여자하이스쿨. 그래서 오고, 농고, 상고 이렇게 해서 하이와이, 신고, 여고 해서 와이틴 만들어서 연합해 가지고. 연합회 초대 회장도 하고. 아주 열심히 했지. 제주대학교에서 다닐 때에 제주대학YMCA를 만들었고.”

고희식 씨가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다보니 이른 나이에 시무장로가 되었다. 장로가 되는 것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교인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도 시무장로였다. 부자가 동시에 장로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점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장로가 되는 것을 극구 사양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설득에 장로가 되었고, 5년 정도 아버지와 함께 시무장로를 했다.

“내가 1975년도에 장로가 되었거든, 마흔 살에 장로야. 빨리 된 거란 말이지, 장로로서. 요즘은 장로 마흔 살에 되기가 힘든데. 그때 아버지가 5년, 은퇴하기 5년이 남을 때야, 5년 동안 같이 장로를 했었잖아. 시무장로를 5년 동안. 그게 드문 일이지. 내가 처음에 이제 장로 피택 받고, 네 사람이 이제 됐는데, 내가 안 한다 그랬어. ‘아버지가 시무하고 계시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시무한다고 하는 게 좋지 않다’라고 반대를 했더니 이 세 사람이 ‘그럼 당신 안하면 나도 안한다’라는 거야. 목사님이 죽을 맛이야. 내가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겠다 할 수 있나. 그러니 아버지를 설득한 거야.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아버지가 한번 나를 찾드만. 아버지가 욕을 하는데 ‘너가 똥똥해서 되는 줄 아느냐’라고 막, ‘그래도 교인들이 투표를 해서 해줬으니 순종하는 게 도리이지, 어디 그러느냐’라고. 막 욕을 먹고, ‘예 알았습니다’ 하고 돌아서니까 전화가 따르릉 왔어, 목사님한테. 오늘 저녁부터 교육이 있대.”

장로는 교인들이 투표해서 뽑는데 투표인원이 3분의 2 이상의 지

지를 받아야 했다.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게 장로로서의 역할을 벌써 30년 넘게 해오고 있다. 지금은 원로장로가 되어 교회에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에필로그_소중한 기억

교회식 씨의 하루는 오전에 성경을 필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오후에는 하루에 만보 정도를 걷는다. 날씨가 더울 때는 오전에 운동을 한다. 저녁에는 야구를 즐겨 본다. 삼성 라이온즈의 팬이다. 매달 16일마다는 동창들과 모임을 갖는다. 동창들도 지금은 다 은퇴를 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친구도 있고, 자식들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분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 오랜만에 만나면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려고 한다. 교회식 씨는 주로 가만히 들어주는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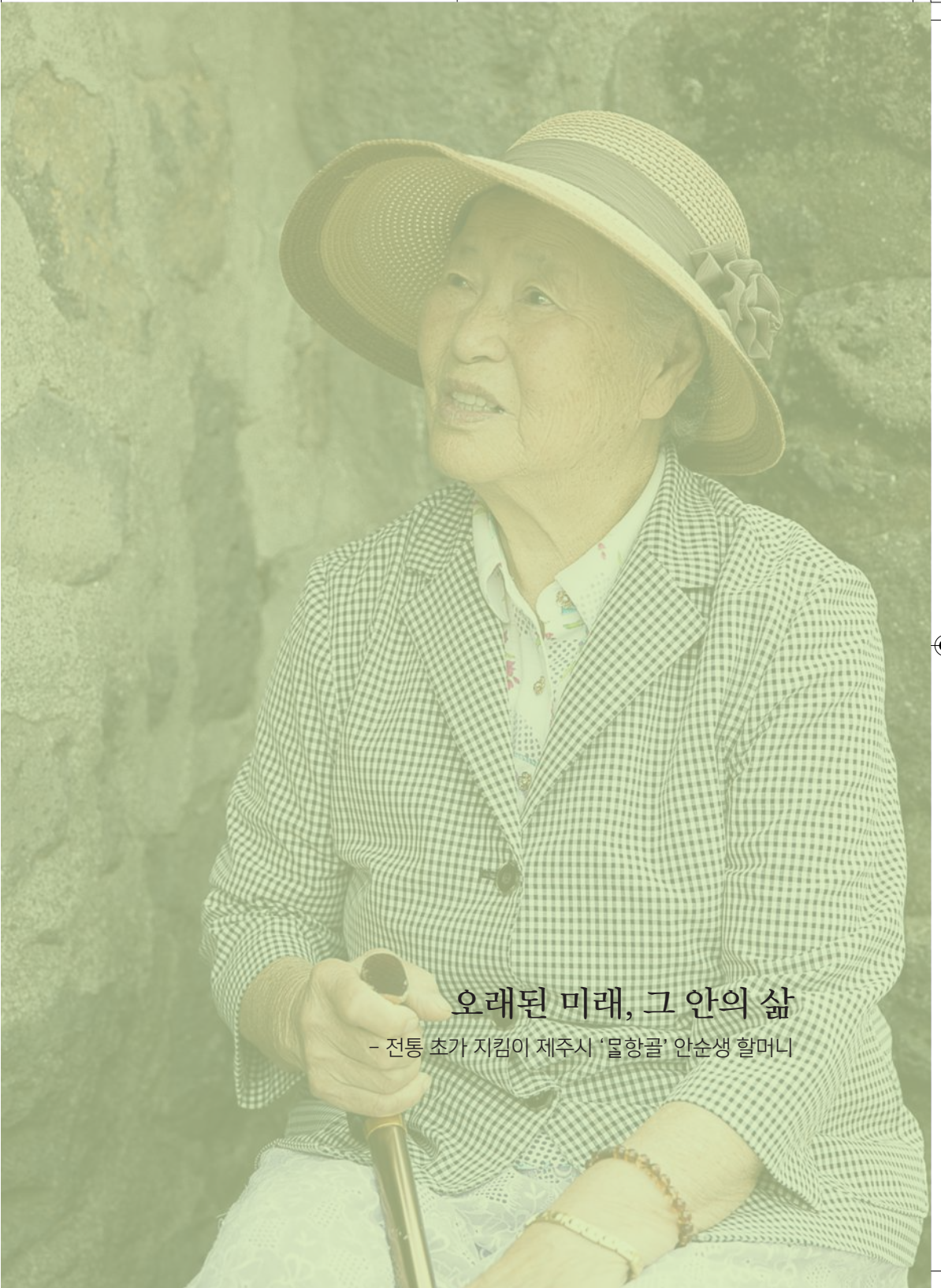
그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탑동에 있는 사우나를 다닌다. 차를 타서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 걸어 내려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다. 그때는 꼭 오현단 앞길로 지나간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그 길을 걸으며 옛 기억을 되새기려는 것일테다.

개구쟁이였던 한 소년이 주름진 노인이 되기까지 한 세월을 마주하는 동안 시간을 거슬러 원도심 곳곳의 옛 이야기들을 만났다. 켜켜이 쌓여 있는 소중한 기억들이 누군가에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또 누군가에게는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엿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원도심이 앞으로 어떻게 되었으면 좋겠냐는 질문을 던져 보았다. 그는 전직 동장답게 지역의 발전을 걱정했다. 그가 동장을 할 때는 삼도2동의 인구가 1만 5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9천 명 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불과 20년 사이에 인구의 3분의 1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그래서 원도심이 예전의 활기를 되찾게 좀 더 발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





오래된 미래, 그 안의 삶

- 전통 초가 지킴이 제주시 '뭍항골' 안순생 할머니



오래된 미래, 그 안의 삶

- 전통 초가 지킴이 제주시 '물항골' 안순생 할머니

프롤로그

제주시 중앙로 14길 15-16. 중앙
신협과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옛 제주도립병원) 사이로 난 좁은
골목, '물항골'로 들어서면 민속촌
에서나 보아왔던 오래된 초가 두
채가 나온다. '이문간'이라 불리는
공간에 나무 대문을 달고 있는 이
집은 '박 판사댁'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시멘트 건물과 고층 빌딩
이 숲을 이루는 요즘, 낮은 키의 초
가 두 채는 제주 도심의 낯선 풍경



사진 1. 안순생 할머니

으로 다가와 오기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기에 충분하다. 멀쩡한 살림집도 허물어 빌딩을 세우는 시대에 제주시 중앙로 한복판에 딱하니 버티어 선 초가 두 채가 지난했던 세월을 증거하고 있다.

2017년 9월 12일 오전 10시. 끼이 낚, ‘이문간’이라 불리는 나무 대문을 밀치고 들어서니 파란 잔디를 깎 좁은 마당에 재재거리는 아이들 소리가 넘쳐흘렀다. 제주의 옛 문화를 배우려는 제주북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초가 견학차 방문했기 때문이다. 조용했던 집안에 모처럼 활기가 피자 조상들의 삶터를 곳곳이 지키며 살고 있는 아흔다섯 고령의 안순생 할머니의 얼굴에도 흐뭇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오래된 미래, 조상들의 삶터인 전통 초가에서 삶을 꾸리고 있는 안순생 할머니. 그녀는 일제 강점기, 제주4·3사건, 6·25전쟁, 새마을운동, 제주개발 등 100년 가까이 제주에서 생활하며 크고 작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급변하는 제주 사회를 온몸으로 껴안고 살아왔다.

안 할머니의 삶은 당대를 살아온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자 제주 사회의 한 축을 이룬다. 지금은 기억이 쇠하여 할머니가 살아온 삶을 다 풀어내진 못하지만, 할머니 뇌리 속에 파편처럼 박힌 이야기들을 조각보 기우듯 모아내니 제주 사람들의 웅이진 고된 삶이 파노라마처럼 엮어진다. 이들 삶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어머니들의 삶이자 제주 사람들의 역사다. 제주 사회의 굴곡진 역사를 품어온 아흔다섯 안순생 할머니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자.

옛날은 놈으 집 사는 사름 핫지

출생

안순생 할머니는 제주시 중앙로 옛 제주도립병원을 끼고 있는 작은 골목 ‘물항골’에 산다. 1923년 제주시 아라동 간드락 마을에서 태어난 안 할머니는 우리 나이로 아흔다섯이다.

“우리 아버지는 간드락이엔 헌 디서 티어나고 나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한 열 술 뉘난 웨편인 삼양을 간 살앗지. 버렁은 웨편.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는 화북인데 아라동 간드락이엔 헌 디 아기 없는 할아버지 친족네 집의 양을 들었어. 간드락 살단 스삼사건 때 화북 고향으로 갔지.”

우리 아버지는 ‘간드락’이라고 한 데서 태어나고 나도 거기서 태어났는데 한 열 살 되니까 외편인 삼양을 가서 살앗지. ‘버렁’은 외편. 우리 할아버지는 원래는 화북인데 아라동 ‘간드락’이라고 한 데 아기 없는 할아버지 친족네 집에 양자를 들었어. ‘간드락’ 살다가 사삼사건 때 화북 고향으로 갔지.

안 할머니가 태어난 ‘간드락’은 화북이 고향이었던 할아버지가 친척 집에 양자를 들면서 인연을 맺은 곳이다. 안 할머니는 간드락 마을에서 유년 시절을 보내다 외가인 ‘버렁(삼양3동)’으로 이사하여 살

았다. 제주4·3사건으로 간드락 마을이 소개되자 할아버지 또한 고향인 화북으로 이주해 살았다.

혼인

안 할머니는 외가인 제주시 삼양3동 ‘버령’ 마을에서 살다가 열여덟에 제주시 ‘물항골’ 출신 박창우와 혼인하였다.

안 할머니는 명주저고리에 명주치마를 입고 가마 타고 신랑 집에 가서 전통 혼례를 치렀다.

“옛날덜이사게 멩지벷기 더 입어. 이불 틀레기 두어 개 허영 아정덩것 주. 옛날은이 요강 하나 허는 거. 요강에 오줌덜토 안 누멍. 그때 아르미 요강일 거라. 그때도 특별한 사름은 양단 그거 입었어. 잘 사는 사름도 이불이나 하나 더 허고. 이제덜거찌 세간살일 허여주까. 아이고, 그거 허영 가도 잘 사는 사름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름은 못 살고, 그계 다 필요 없는 거.”

옛날들이야 명주밖에 더 입어. 이불 두어 개 해서 가져 다녔지. 옛날은 요강 하나 허는 거. 요강에 오줌들도 안 누면서. 그때 알루미눔 요강일 거야. 그때도 특별한 사름은 양단 그거 입었어. 잘 사는 사름도 이불이나 하나 더 하고. 이제들같이 세간살이를 해줄까. 아이고, 그거 해서 가도 잘 사는 사름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름은 못 살고, 그계 다 필요 없는 거.

안 할머니가 시집갈 당시 새색시들은 대부분 명주저고리에 명주 치마를 입고 혼인하였다. 잘 사는 집에서는 새색시에게 특별히 양단 옷을 해주기도 하였다. 혼수라고 해 봐야 이불 두어 개, 요강, 궤 정도였다. 할머니도 보통 사람들처럼 이불과 궤와 요강 등을 혼수로 가져갔다. 혼수로 가져간 궤는 친정에 두었는데 제주4·3사건에 잃어버렸다.

“젠디 우리 궤 스삼사건 때에 피란 텅기난 친정에 놔두난 문막덜 도둑놈덜 아저가불언. 집덜 비완 내부난게. 아이고, 그거 엇어도이 원 묵음이 잘못사 헤점신디 을큰허질 안허여게. 엇이민 엇인 대로 살고.”

그런데 우리 궤는 사삼사건 때에 피란 다니니까 친정에 놔뒀는데 몽땅 도둑놈들 가져가 버렸어. 집들 비워서 내버리니까. 아이고, 그거 없어도 전혀 마음이 잘못이야 하고 있는지 서운하질 않아.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할머니는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것이 인생이니까 궤를 잃어버려도 크게 ‘을큰하지(서운하지)’는 앓더라.

“새각시상 들어오랏젠 허영 아이덜 창무똥에덜 스뭇 드랑드랑 사민 하 남덜이 수까락으로 곤밥 흔 수까락씩 거리명덜 아이덜 손에덜 쥐낫어. 그 땐 하남덜 찬 헤엿주게. 그때 하남은 심방들이주게. 여자 심방덜 몰 테왕은에 남자 편이서 문 보내낫어.”

새새식상 들어왔다고 해서 아이들 창문 앞에 사뭇 주렁주렁 서면 하님들이 손가락으로 흰밥 한 손가락씩 뜨면서들 아이들 손에들 줬었어. 그땐 하님들 차서 했지. 그때 하님은 심방들이지. 여자 심방들 말 태워서 남자편에서 몽땅 보냈었어.

안 할머니는 잔칫날, ‘새각시상’이라고 해서 ‘곤밥’과 닭다리와 지짐이, 고기 등 맛난 음식들도 올라왔지만 ‘곤밥’에 얽힌 아픈 추억만큼은 잊을 수 없다. 안 할머니가 혼인할 당시만 해도 ‘곤밥’은 잔치나 제사 때나 맛볼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곤밥’은 발벼쌀이나 벼쌀로 지은 흰밥으로, 보리밥과 조밥을 주로 먹던 사람들에게는 별식 중의 별식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새각시상(신부상)’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느새 동네 아이들이 새색시가 밥을 먹는 방의 창문 앞에 줄줄이 몰려든다. 그러면 신부 옆에 앉았던 대반이나 하님이 새색시의 ‘곤밥’ 그릇을 들고 창문 앞으로 다가가 아이들 손에 ‘곤밥’ 한 술씩 떠놓아준다. 그러면 아이들은 선채로 그 ‘곤밥’을 맛있다고 아껴 먹었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파제 후에 부모들은 잠든 아이들을 깨워서 ‘곤밥’을 먹일 정도로, ‘곤밥’은 귀하디귀한 음식이었다.

살림살이

안 할머니는 결혼해서 산지천 ‘노리물’ 동네에서 집을 빌려 보금자

리를 꾸몄다. ‘노리물’은 ‘산지교(山地橋)’ 앞 동네다. 그 동네에서 안 할머니는 농사를 짓고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다.

“우린 노리물 그 다리 앞의서 살안. 그 다리 어염에 노리물. 그디 물이 제주도에서 질 큰물이라났지. 산지물은 노리물 밑으로 잇고, 가락콧물이 영 금산물도 잇었지.”

우린 ‘노리물’ 그 다리 앞에서 살았어. 그 다리 곁에 ‘노리물’. 거기 물이 제주도에서 젤 큰물이었지. 산지물은 ‘노리물’ 밑으로 잇고, ‘가락콧물’이 랑 ‘금산물’도 있었지.

안 할머니가 살았던 ‘노리물’ 동네 인근에는 ‘산지물’, ‘가락콧물’, ‘금산물’ 등 물이 풍성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이다.

할머니에게 노루물 동네는 아픔 그 자체다. 제주4·3사건이 터지자 안 할머니는 아기가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다섯 살 난 아이를 가슴에 묻어야 했다. 할머니는 또 그곳에서 제주4·3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들의 슬한 울부짓음을 들어야 했다.

이사

산지교 노리물 동네에 살던 안 할머니네는 1950년대 초에 ‘항골’ 동네로 이사를 했다. 항골 동네는 예전에 제주서림이 있던 마을이다.

제주시 중앙로 본죽 사거리가 있는 동네가 바로 ‘항골’이다.

“우리 어릴 때 항골 완 살았지. 제주서림 잇는 데가 항골. 본죽 사거리 중앙로 거리가 항골 동네였지.”

우리 어릴 때 ‘항골’ 와서 살았지. 제주서림 잇는 데가 ‘항골’. 본죽 사거리 중앙로 거리가 ‘항골’ 동네였지.

안 할머니의 큰딸 박순 씨(1950년생)의 말이다. 박순 씨는 자신이 초등학교 4학년 때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항골’로 이사한 것 같다고 했다.

“그때덜은이 놈으 집 사는 사름덜이 핫지. 계난 이디 오난 항골에도 살 아보고, 몰항골에도 살아보곡. 놈이 집 사는 사름이 이디저디 살지.”

그때들은 남의 집 사는 사람들이 많았지. 그러니까 여기 오니까 ‘항골’ 에도 살아보고, ‘몰항골’에도 살아보고.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여기저기 살지.

‘항골’에 살던 안 할머니네는 또 ‘몰항골’로 이사를 하였다. 시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박 판사 댁’이라 불리는 현재 사는 집이 비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할머니의 막내딸 박효순 씨가 두 살 때다. 할머니

의 막내딸 나이가 올해(2017년) 스다섯이니 햇수로 치면 53년 전으로, 1960년대 중반의 일이다.

“우리 늬으 집의 살단 씨부모덜 돌아가셔부난 이디 온 거지. 옛날은게 이디저디 돌아다니명 늬으 집만 살았지. 이녁 집 사는 사름 얼마나 셔게. 옛날은 늬으 집 사는 사람이 핫지. 산지 살단 항골 살단 여기 온 거지.”

우리 남의 집에 살다가 시부모들 돌아가서 버리니까 여기 온 거지. 옛날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남의 집에만 살았지. 이녁 집에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 옛날은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 많았지. 산지 살다가 ‘항골’ 살다가 여기 온 거지.

안 할머니네는 비로소 남의집살이를 끝내고 조상들의 삶터에 보금자리를 틀었다. 시부모가 살던 집인 ‘항골’로 이사온 안 할머니는 조상들의 삶터에서 자식들을 공부시키고 출가시켰다. 이후에는 안 할머니 홀로 초가를 지키고 있다.

할머니네가 사는 ‘물항골’은 이웃 ‘한짓골’, ‘이웃골’, ‘영도골’ 등과 함께 제주시내 유지들이 살았던 ‘제주 성안’의 명망 깊은 곳이다. 1967년에 중앙로를 개발할 때 옛 도로를 넓히는 대신에 주택을 수용해 새롭게 길을 뚫은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시댁 이야기

‘물항골’은 안 할머니 시댁 고향이다. 시할아버지인 박경보는 조선 말기에 조천 조방장을 지낸 인물이고, 시아버지 박명효(朴明效)는 1946년 8월 1일 제주도제(濟州道制) 실시 때 초대 북제주군수를 지냈다. 박명효는 당대 제주를 이끄는 지역 유지 가운데 한 명으로, 전라남도 제주도(濟州島)를 제주도(濟州道)로 승격시키는 도제(道制) 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당시 제주 사회에서는 박명효를 비롯하여 박종실, 박치순(朴致順), 박우상(朴雨相) 등 박씨 4명이 지역 여론을 이끌고 나가고 있었다. 이들 네 명을 ‘4朴’이라고 불리었다고 한다. 박명효는 1949년 1월 3일 방화로 불에 타버린 도청 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박우상 박치순 등 11명으로 구성된 도청건립추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는 등 제주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었다.

안 할머니 시댁은 일찍부터 개화한 집안이었다. 아들은 물론이고 딸들까지 신교육을 시킬 정도로 깨어있는 집안이었다.

“우리 씨할머니가 아기 나쁜 죽억죽억허난 성당엘 갔어. 손지덜도 할머니가 성당을 땡기난 성당에 간 학교를 허엿주게. 겨난 우리 씨누이덜은 그때 시절이라도 성당학교에도 허곡. 그땐 경 학교 허는 사름이 별로 엿어났주게. 우리 씨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허영 땡기곡 땡손지덜도 당신

이 들앙뎡기멍 학교??지라도 시켰는디 우리 씨할머니가 딱 돌아가시난 성당에서 완 신부덜이 이제 씨아버지신디 계를 주젠 허난 우리 씨아버지가 당추 안 뎡덴, 나는 어머니를 자유를 줘서 허엇지 성당 안 믿넨. 신부도 오랑 스뎡 벨 스정해도 안 뎡연. 그때엔이 최 선생엔 헌 어른, 최정숙 그 분이 오랑 벨 스정허여도 안 믿연. 그래서 우리 씨아지방이고 누게고 절간으로 막 믿어불연. 절간으로 허고. 우리 씨할머니만 성당에 뎡경 허멍 허난 허엿주.”

우리 시할머니가 아기 나면 죽고죽고하니 성당엘 갔어. 손주들도 할머니가 성당을 다니니까 성당에 가서 학교를 했지. 그러니까 우리 시누이들은 그때 시절이어도 성당학교에도 하고. 그뎡 그렇게 학교 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었지. 우리 시할머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다니고 손녀들도 당신이 데려 다니면서 학교까지라도 시켰는데 우리 시할머니가 딱 돌아가시니까 성당에서 와서 신부들이 이제 시아버지한테 계를 주려고 하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당최 안 된다고, 나는 어머니를 자유를 줘서 했지 성당 안 믿는다고. 신부도 와서 사뎡 별 사정해도 안 뎡어. 그때엔 최 선생이라고 한 어른, 최정숙 그 분이 와서 별 사정해도 안 믿었어. 그래서 우리 시아주버니고 누구고 절간으로 아주 믿어버렸어. 절간으로 하고. 우리 시할머니만 성당에 다녀서 하면서 하니까 했지.

안 할머니 큰시누이인 박은석은 일제 강점기에 항일운동을 했던 고수선 강평국 최정숙과 함께 신성여학교에서 동문 수학했다. 큰시

누이가 학교를 다닐 수 있었던 것은 시할머니 영향이 컸다. 안 할머니의 시할머니는 독실한 성당 신자로, 시할머니 덕에 손녀딸들도 성당에서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갈 수 있었다. 중앙성당과 신성여학교는 안 할머니 집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되는 위치에 있다.

“옛날은이 학교를 허민이 초상덜이 지집년이 공부허민 똥갈보 뉘덴.”

옛날은 학교를 하면 조상들이 계집년이 공부하면 갈보 된다고.

안 할머니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성들은 서당식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점차 현대식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생길 때이다. 그러나 자연 여성들은 집안에서 가계를 돕는 존재로서 외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됐고, 교육 받을 기회조차 쉽게 얻지 못할 때이다. 오죽해야 ‘상두집의 가온 메뉴리 안 알아준다(향도에 다녀온 며느리 안 알아준다)’는 속담까지 생겼을까.

그러나 안 할머니의 시대 식구들은 남녀 모두 현대식 교육을 받았다. 안 할머니 시할머니 덕에 시누이들은 제주도내 첫 여성 교육 기관인 신성여학교에 다닐 수 있었다. 큰시누이 박은석은 신성여학교 1회 졸업생으로, 제주 초대 교육감을 지낸 최정숙의 동기동창이다.

“최 선생은 우리 큰씨누이광 동창이주게. 경헌디 학교에서 선생허단 그디서 교육감 뉘엇어. 젊은 때부떠 (성당에) 들어간 게 막 늙도록 그냥 거

기서 살았지. 우리 씨누이덜랑 친구를 허여도 무난하게 땡겼어.”

최 선생은 우리 큰시누이와 동창이지. 그런데 학교에서 선생하다가 거기서 교육감 되었어. 젊을 때부터 (성당에) 들어간 것이 아주 늙도록 그냥 거기서 살았지. 우리 시누이들과 친구를 해도 무난하게 다녔어.

안 할머니는 큰시누이 친구였던 최정숙 선생도 기억했다. 최정숙은 신성여학교를 나와서 신성여중고에서 교편을 잡다가 교육감을 지냈지만 소탈하고 무난하게 시누이들이랑 지냈다고 덧붙였다.

시아버지 박명효에게는 아들 셋과 딸 둘이 있었다. 큰아들 박창택은 판사를 지냈고, 둘째아들은 안 할머니 남편인 박창우, 셋째아들은 초등학교장을 지낸 박창재다.

“우리 큰씨아지방은 제주도 얼마 안 살았났주게. 판스뉘연 목포로 발령 반안 객지에만 살아부난.”

우리 큰시아주버니는 제주도 얼마 안 살았었지. 판사되어서 목포로 발령 받아서 객지에만 살아버리니까.

할머니의 큰시아주버니 박창택은 목포에서 공직생활을 하다가 거주지를 서울로 옮겨서 살다가 돌아갔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이 집

도 큰시아주버니 소유로 되었다가 돌아가시자 자손들이 물려 받아 지금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보존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16 국정농단 의혹사건 수사 특별검사팀’의 박영수 특별검사가 큰시아주버니 박창택의 아들로, 안 할머니의 조카다.

남편인 박창우는 일본을 오가며 사업을 했으나 잘 되지 않아 제주에 돌아와 농사를 짓다가 쇠여섯에 작고했다. 그래서 일찍부터 안 할머니는 가정 경제를 책임져야 했다.

출산 이야기

예전 우리 어머니들에게 출산과 육아도 힘든 일이었다. 우리 어머니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아기를 낳아도 몸조리를 못한 채 부엌에 들어가 직접 밥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낳아도 온전하게 기르지 못한 채 가슴에 묻는 일도 있었다. 안 할머니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보담 나이 한 사람덜은 보리낭 짚앙 낫주. 우린 짚진 아녀고. 아기 낳게 뉘면은 스주헌 사람 오랑 허리나 안아주곡 허민 낭곡 어려와가문 산파 빌어당덜 나곡 헛주게. 호꿈 스주헌 할마니가 잇주. 그런 할머니들을 잇당은에 빌언. 그땐 그런 할마니가 아기덜 내왓주게. 그땐 흙볼로 산파 빌영 헛어? 돈 엇인 사람덜은 산파 못 빌주게. 병원에 가는 사람이 유드 물지게. 밥도 친정어멍 허는 사람도 잇곡 씨어멍 허는 사람 잇고. 아기에

명 후탈 아녀른 지냥으로 국거뜬 거나 꿍영 먹곡. 이제치록 호강시럽게. 요새에 벨 호강 다허는 거 보민. 옛날은 아기 나뉘근에 그냥 강 밥허곡 경허엿지. 에이고, 이제 아기 낳양 호강허는 거 아기 남이라. 경허당 보민 아래덜 싹령덜 고생허곡. 자궁 바우가 헤싸전. 그땐 줍지 아녀부니까 옷에 다가 싹거림 뒹허난 헐리나불곡. 게난 아래 싹렸덴 허영 그거 못 전덜덜 허는 사람덜 하낫지.”

우리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보릿대 깔아서 낳았지. 우린 깔진 않고. 아기 낳게 되면 사주한 사람 와서 허리나 안아주고 하면 낳고 어려워가면 산파 빌려다가 낳고 했지. 조금 사주한 할머니가 있지. 그런 할머니들을 이따금 빌려서. 그땐 그런 할머니가 아기를 낳게 했지. 그땐 함부로 산파 빌려서 했어? 돈 없는 사람들은 산파 못 빌지.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 드물지. 밥도 친정어머니가 하는 사람도 있고 시어머니가 하는 사람 있고. 아기 어머니 후탈 앓으면 저대로 국 같은 거나 꿍여먹고. 이제처럼 호강스럽게. 요새에 벨 호강 다 허는 것 보면. 옛날은 아기 낳아두고 그냥 가서 밥하고 그렇게 했지. 아이고, 이제 아기 낳아서 호강하는 것 아기 낳음이야. 그렇게 하다 보면 아래들 쓸려서 고생하고. 자궁 가장자리가 헤어져서. 그땐 기우지 않으니까 옷에다 실을 뭐하니까 헌데나버리고. 그러니까 아래 쓸렸다고 해서 그거 못 견뎌서 하는 사람들 많았었지.

아기를 낳을 때도 병원에 가거나 산파를 빌리지 않고 이웃에 사는 사주 좋은 할머니의 도움을 빌렸다. 아기를 낳으면 시어머니나 친정

어머니 도움을 받아서 몸조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후탈이 없으면 대개는 부엌일도 직접 해야 했다. 산후조리를 못한 채 움직이다보면 밑이 헐어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제주에서는 이런 현상을 ‘알 쓸렸다’고 한다.

자식 이야기

안 할머니 앞에서 가족 이야기는 아픔을 떠올리게 하는 일이어서 미안한 마음이 앞선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첫 아기는 제주4·3 사건 소용돌이 속에 병원 치료도 못한 채 다섯 살에 저 세상으로 보냈고, 두 번째 아들은 고등학생이었을 당시 사고로 가슴에 묻었기 때문이다.

“그때엔 아기덜도 아프민 구완 못헨 문 죽어불었지. 첫애기는 저 옛날 문병원이엔 헌 병원장 신 때에 사삼스건이 일어났주게. 사삼사건이 일어나난 감기 들리난. 그 아기 감기를 생각헐어. 제주도가 탁 얹어져볼 때 멩기단 보난 뇌막염 걸리난 죽어불언. 다섯 설 때. 그땐 막 이디 팡팡팡팡팡 팡 사름 죽일 때. 경허난 경 팡팡힐 때난 아파도 병원에 갈 수가 없었주게.”

그때에는 아기들도 아프면 구완 못해서 몽땅 죽어버렸지. 첫아이는 저 옛날 문병원이라고 한 병원장 있을 때에 사삼사건이 일어났지. 사삼사건

이 일어나니까 감기 걸리니까. 그 아기 감기를 생각했어. 제주도가 탁 얽
어져버릴 때 다니다 보니까 뇌막염 걸리니까 죽어버렸어. 다섯 살 때. 그
땐 매우 여기 팡팡팡팡팡팡 사람 죽일 때. 그렇게 하니깐 그렇게 팡팡할
때니까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었지.

그래도 남은 자식들은 병치레 없이 잘 커주었다. 보리밥만 먹는 어
려운 살림이었지만 자식들이 잘 커준 것이 고맙단다.

“춤 아기덜 병원에 한번 별로 가보지도 아녀곡 기자 무난하게 보리밥
만 먹어도 살안 오늘꺼지 살고 나도 오늘꺼지 살고 헌디, 계난 그게 감사
하게 생각허멍 나도 살암주게.”

참 아기들 병원에 한번 별로 가보지도 았고 그저 무난하게 보리밥만 먹
어도 살아서 오늘까지 살고 나도 오늘까지 살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나도 살고 있지.

안 할머니는 자식을 키울 때는 아기 배부른 것을 행복으로 여기며
살았다.

“자식 키울 때는이 애기 배부른 것이 질 행복으로 생각허곡. 돈이 엇어
도 ‘아이고, 나가 돈 잇어서 헐 걸, 돈 잇어서 헐 걸’ 경 안 헤보난 몰라. 그
런 생각이 안 나대. ‘내가 벼을영 살지, 내가 노력헤영 살지.’ 우리 아덜도,

딸도 고등학교 허는 것도 무난하게끔. 자오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젠 허난 이제 기림 특기로 올라간 합격뒤연. 또 아덜도 대학교에 갈 때는 어디 가가든 ‘어디 감디? 시간 꼭 직허라.’ 영 허민 ‘예, 아무 시간에 오쿠다.’ 허민 꼭 그 시간에 와. 아, 소곶으로 ‘고맙구다’. 시간을 께끼질 아녕 그 대학을 뭇천. 나만 소곶으로 ‘아이고 시험을 봐살걸’ 허민. 아덜이 낮이는 누웠만 자불곡 밤이는 붉도록 앓앙 공부허여. 경허영 요 방에서 지만 딱로 허여도 일허당 보면은 지청 자불곡. 자당 들어보민 천수경 소리가 나. 와들랑이 깨어 보민 니 시가 뒤엇어. 아, 그걸 아덜이 멧 들을 헤여. ‘아, 고맙구나! 부치님이 고맙구나!’ 영허단 도청에 시험을 아무 날 본다 허난, 애가 타단 보난 도청에 칠급으로 뒤연. 경허난 난 신경을 쓰질 안 허영. ‘시험을 봐취살 걸디 어떻 헐 건고’ 허영 소곶으로만 생각허연 뎡기당 시험을 간 보난 딱 뎡 거라. 도청에 들어간 올히 정년퇴직 뒤업주게. 경허난 사름이 엔 현 건 그자 자기 그 진심만, 마음만 항상 허염시민 좋은 일도 싯곡 굿인 일도 싯곡. 겨난 아기들이 펜안헤도 펜안허여. 아기들 펜안허난 난 그 걸로 행복하게 생각허영 살안.”

자식 키울 때는 아기 배부른 것이 젤 행복으로 생각하고. 돈이 없어도 ‘아이고, 내가 돈 있어야 할 걸. 돈 있어야 할 걸.’ 그렇게 안 해보니까 몰라. 그런 생각이 안 나대. ‘내가 벌어서 살지. 내가 노력해서 살지.’ 우리 아들도, 딸도 고등학교 하는 것도 무난하게끔. 재[큰딸]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그림 특기로 올라가서 합격되엇어. 또 아들도 대학교에 갈 때는 어디 가가면 ‘어디 가니? 시간 꼭 지켜라.’ 이렇게 하면 ‘예,

아무 시간에 오겠습니다.’ 하면 꼭 그 시간에 와. 아, 속으로 ‘고맙구나.’ 시간을 깎질 않고 그 대학을 마쳤어. 나만 속으로 ‘아이고, 시험을 봐야 하는데’ 하면. 아들이 낮에는 누워서 잠만 자버리고 밤에는 밝도록 앉아서 공부해. 그렇게 해서 요 방에서 저만 따로 해도 일하다 보면 지쳐서 자버리고. 자다 들어보면 천수경 소리가 나. 벌떡 깨어보면 네 시가 되었어. 아, 그걸 아들이 몇 달을 해. ‘아, 고맙구나! 부처님이 고맙구나!’ 이렇게 하다가 도청에 시험을 아무 날 본다 하니까, 애가 타다보니까 도청에 칠급으로 되었어. 그러니까 난 신경을 쓰질 안 해서. ‘시험을 봐줘야 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해서 속으로만 생각해서 다니다가 시험을 가서 보니까 딱 된 거야. 도청에 들어가서 올해 정년퇴직하고 있지. 그러니까 사람이 라고 한 것은 그저 자기 진심만, 마음만 항상하고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궂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아기들이 편안해도 편안해. 아기들 편안하니까 난 그걸로 행복하게 생각해서 살았어.

안 할머니는 힘든 삶이었지만 자식들이 잘 커주고, 제 역할을 다해 주어서 힘들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단다. 오히려 그런 자식들을 고맙게 여기며 살았다. 자식들 편안을 행복으로 여기며 산 안 할머니는 항상 진심을 가지고 살면 좋은 일도 생기고 궂은 일도 헤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조언한다.

남편이 돌아간 후에는 자식들의 일은 전적으로 안 할머니의 몫이 되었다. 그래서 안 할머니는 안 해본 일이 없다. 독실한 불교 신도인

안 할머니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업으로 삼아 힘든 삶도 이겨내었다. 안 할머니는 자식들이 편안하게 사는 길은 자신이 노력해서 사는 길밖에 없음을 터득했다. 그래서 안 할머니에게 힘든 일은 고생길이 아니라 ‘헤치고 나가야 하는 인생길’이었던 셈이다.

“고생엔 허민 고생이 뉘고 아녀민 아니 뉘곡. 고생으로 생각허민 헐 말 엇고. 겐디 ‘내 탓이주. 내 탓이주.’ 누구 탓할 필요가 엇어. 고생허는 것도 내 탓이고 다 내가 지은 업을 지고 나오난 업대로 사는 거주. 잘 사는 사람도 자기가 잘 허연 뉘두니까 부모형제라도 잘 허연 뉘두난 그 은덕으로 살아가는 거고. 고생허는 사람도 부모덜 잘못허영 그계 다 즈손에서. 게 난 이녁이 잘 헤여사 즈순덜이라도 펜안허게 살주 헐 거벵긴 더 헐 수가 셔. 헐 게 없어.”

고생이라고 하면 고생이 되고 앓으면 아니 되고. 고생으로 생각하면 할 말 없고. 그런데 ‘내 탓이지, 내 탓이지.’ 누구 탓할 필요가 없어. 고생하는 것도 내 탓이고 다 내가 지은 업을 지고 나오니까 업대로 사는 거지. 잘 사는 사람도 자기가 잘 해서 뉘두니까 부모형제라도 잘 해서 뉘두니까 그 은덕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고생하는 사람도 부모들 잘못해서 그계 다 자손에서. 그러니까 이녁이 잘 해야 자손들이라도 편안하게 살지 한 거밖엔 더 할 수가 있어. 할 게 없어.

안 할머니는 고생을 했지만 그 고생은 당신이 타고 난 업으로, 그

업대로 잘 살면 된다고 여겼다. 그래서 좋은 업으로 자손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남 탓 하지 않고 감사한 마음으로 현재까지 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함도 감사함으로 바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에 여유를 가질 수 있었는지 모른다.

“이 녀석이 고생하여도 마음만 깨끗이 먹영 놔두면 언제라도 자식이라도 편안할 수 있어. 겨난 젊은 사름이고 누게고 마음 깨끗하게 먹영 놔둬야 자식한테 은덕이 가는 거주. 내가 마음 깨끗이 먹어야 자식도 잘 되는 거.”

이 녀석이 고생해도 마음만 깨끗이 먹어서 놔두면 언제라도 자식이라도 편안할 수 있어. 그러니까 젊은 사름이고 누구고 마음 깨끗하게 먹어서 놔둬야 자식한테 은덕이 가는 거지. 내가 마음 깨끗이 먹어야 자식도 잘 되는 거.

‘마음을 깨끗이 먹는 것’은 안 할머니의 생활 철학이다. 마음을 깨끗이 먹어야 일도 잘 풀리고, 자식들도 잘 된다는 것이 안 할머니의 삶 속에서 우러나온 믿음이다. 마음에 꼭 새겨두고 지켜야 할 격언이다.

안 할머니는 지금은 아들 박윤수 씨와 두 딸 박순·박효순 씨를 의지해 살고 있다. 아들 박윤수 씨는 제주도청 법무담당관을 거쳐 제주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으로 있다가 공로연수 중으로 정년을 앞두고 있다.

몸빼 안 입으면 벌도 주었어

자락치마와 몸빼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몸도 마음도 피폐한 법이다. 할머니는 일제 강점기에 여성들이 늘 입었던 ‘자락치메’가 생활 속에서 사라졌다고 여기고 있다. ‘자락치메’는 양쪽으로 선단이 있어 돌려 입게 만든 치마로, 전통적인 한복 치마를 말한다. ‘자락치메’는 달리 ‘각치메’라고 하는데, 표준어 ‘풀치마’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즉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우리 동포들에게 ‘자락치메’ 대신에 ‘몸빼’를 입게 하고, 일본어를 쓰도록 강요하였다. ‘몸빼’는 여자들이 할 때 입는 바지의 일종으로, 일본에서 들어온 일 바지다.

“그 옛날은 이 쓰봉도 안 입곡 몸빼도 안 입는 시절이라. 자락치메 입엉 각 돌렁 보통 밥허는 디고 빨래허는 디고 다 입엉 땡것어. 일본 시대 난난 세상 원 이젠 몸뻘 입게 뒤엇어. 몸빼는 일본식이지. 거 일본 놈덜이 몸빼 안 입으면 벌도 주곡. 치멜 입엉은 못 땡기게 헛주게. 경허곡 공부허는 사름덜은 일본글로 허여사 허곡, 일본말 베와야 허고. 계난 그때 일본말 더러 뻘는 사름도 싣고 아니 뻘는 사름도 잇곡 경허연 살앗주기. 또 학교 마당에 강 체조허렌 허고. 우리도 베와도 잇어불언. 그땐 돈딱 일본식으로만 허렌.”

그 옛날은 이 바지도 안 입고 몸빼도 안 입는 시절이야. 풀치마 입어서 선단 둘러서 보통 밥하는 데고 빨래하는 데고 다 입어서 다녔어. 일본 시대 되니까 세상 원 이제 몸빼를 입게 되었어. 몸빼는 일본식이지. 거 일본 놈들이 몸빼 안 입으면 벌도 주고. 치마 입어서는 못 다니게 했지. 그리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일본글로 해야 하고, 일본말 배워야 하고. 그러니까 그때 일본말 더러 배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 배우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 또 학교 마당에 가서 체조하라고 하고. 우리도 배워도 잊어 버렸어. 그땐 몽땅 일본식으로만 하라고.

이처럼 일본은 일제 강점기에 몸빼 입기를 강요하는가 하면 말과 글도 일본식으로 쓰도록 하는 문화 말살 정책을 폈다.

공출

공출도 심했다. 농사를 지어도 공출하다보면 먹을거리가 없어서 굶는 사람들도 많았다.

“공출허민게 농사가 뉘고 아니 뉘고 보리 허민 보리가 이 집이 얼마, 조 허민 조가 얼마, 경허멍 바껴야지. 못 바치민 아무 걸로 바껴도 바껴야지. 어떤 사름은 바짖 게 없이. 게난 살기가 얼마나 곤란허여. 게난이 그때는 공출로 머리 아프곡.”

공출하면 농사가 되고 아니 되고 보리 하면 보리가 이 집에 얼마, 조하면 조가 얼마, 그렇게 하면서 바쳐야지. 못 바치면 아무것으로 바쳐도 바쳐야지. 어떤 사람은 바칠 게 없이. 그러니까 살기가 얼마나 곤란해. 그러니까 그때는 공출로 머리 아프고.

곡식 공출과 함께 낫그릇도 공출하였다.

“옛날은 낫그릇을 대목 써놔주게. 동이여 무시거여. 어디 사둔칩의도 떡 헤영 갈 때민 동이에 떡을 헤영 가주게. 그런 것도 문딱 바쳐 부는 사람은 바쳐 불고. 좋은 그릇덜 다 바쳐분 사람은 바쳐 불언. 경허난 그때엔 좋은 세간 이인 사람은 곱지는 사람은 곱져불곡. 그땐 문 조사허멍 낫그릇 그냥 털어가고 헤엿네.”

옛날은 낫그릇을 대목 썼었지. 동이야 무엇이디. 어디 사둔집에도 떡해서 갈 때면 동이에 떡을 해서 가지. 그런 것도 몽땅 바쳐 버리는 사람은 바쳐 버리고. 좋은 그릇들 다 바쳐버린 사람은 바쳐 버렸어. 그러니까 그때엔 좋은 세간 있는 사람은 숨기는 사람은 숨겨버리고. 그땐 몽땅 조사하면서 낫그릇 그냥 털어가고 했네.

예전에는 낫그릇을 많이 썼다. 특히 제기(祭器)는 낫그릇이 주종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많은 제기들은 일제 강점기에 공출로 사라져버렸다. 조사를 다니면서 남아 있는 낫그릇도 몽땅 털어갔다.

동이는 주로 질흙으로 만든다. 주로 물을 길어 다닐 때 머리에 이고 다닐 수 있게 양쪽에 손잡이가 달려 있다. 제주에서는 이 동이 대신에 ‘허벅’을 이용하여 물을 길었다. 육지에서는 머리에 이고 다녔지만 제주에서는 ‘물구덕’에 ‘허벅’을 넣어서 등짐으로 지고 다녔다.

안 할머니가 공출했다는 동이는 낫으로 만든 것이 ‘낫동이’이다. ‘낫동이’는 예전에 큰일이 있을 때 떡 등을 담아서 가지고 다니는 용도로 썼던 낫그릇이다.

“동인이 양편이 이렇게 들르는 코 돌안. 계민 쓸 훈 말 허영 시리떡 허민 그것에 소복이 허영 그 스답구덕 소랑허게 허영 것에 담양 질빵허연 저아정 사돈칩의 가곡 경허여낫주, 그때에.”

동이는 양편에 이렇게 드는 고리 돌아서. 그러면 쌀 한 말 해서 시루떡 하면 그것에 소복이 해서 그 빨랫바구니 기름하게 해서 그것에 담아서 질빵해서 저가지고 사돈집에 가고 그렇게 했었지, 그때에.

낫동이기도 아무 집에서나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아니었다. 부잣집에서나 사용하는 제기였다. 일반 사람들은 낫동이 대신에 대오리로 결은 작은 바구니를 이용하였다.

쥐 잇인 사름덜 죽은 거 너미 억울해

4·3사건

제주4·3사건은 할머니에겐 살 떨리는 아픔을 남겼다. 다섯 살 된 아이가 아팠는데도 4·3사건 때문에 병원에 데려가지 못해 가슴에 묻은 것도 모자라 혈육인 남동생 둘의 무고한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이다. 4·3사건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몸이 바들바들 떨린다는 안 할머니가 어렵사리 말문을 열었다.

“그땐 산지 살 때지. 사삼사건 때엔 우리는 에 아기덜이영 살단 보단 그런 걸 가담을 못허지. 그때에는 누계가 왕 쓸 훈 뉘 내렌 허믄, 그런 사름덜은 분시 몰란 쓸도 요 뉘싱 훈 뉘라도 낸 사름덜은 다 심어가는 거 아니. 다 조사허멍. 경허멍 허여가는 게 문 사름덜을 죽여분 거 아니. 기냥 오널 그디 밧당 뒷날은 심어당 문딱 죽여분 거. 차로 그 사름덜 시경, 차가 훈 다섯 개. 어둑어가민 쥐인덜 문딱 훈 차씩 그득게 허영 가민 신착으로 그 차 문 두드리멍 와당탕와당탕허민. 이 질 곳디 사는 사름은 와당탕와당탕 차에서 헤여가민 대문 곶양으로 영 보민이 그 옛날 신착로로 헤영 동부두 레 가. 그 동부두로 허영 강 덴메 닳은 배로 시경 바다에 강 문딱 팡팡 손 발 무경 들어쳐분 거 아니. 그때 시절엔 아, 그때 말을 못허여.”

그때는 산지 살 때지. 사삼사건 때에는 우리는 에 아기들이랑 살다가

보니까 그런 걸 가담을 못하지. 그때에는 누가 와서 쌀 한 되 내라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 분수 몰라서 쌀도 요 되로 한 되라도 낸 사람들은 다 잡아 가는 거 아니. 다 조사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해가는 게 몽땅 사람들을 죽여버린 거 아니. 그냥 오늘 거기 봤다가 뒷날은 잡아다가 몽땅 죽여버린 거. 차로 그 사람들 실어서, 차가 한 다섯 개. 어두워가면 죄인들 몽땅 한 차씩 가득하게 해서 가면 신작으로 그 차 문 두들기면서 와당탕와당탕하면. 이 길가에 사는 사람은 와당탕와당탕 차에서 해가면 대문 구멍으로 이렇게 보면 그 옛날 신작로로 해서 동부두로 가. 그 동부두로 해서 가서 전마선 같은 배로 실어서 바다에 가서 몽땅 팡팡 손발 묶어서 들이뜨려버린 거 아니. 그때 시절엔 아, 그때 말을 못해.

안 할머니는 4·3사건은 입으로 다 말할 수 없다고 한다. 그때는 아무 죄가 없어도 감정 때문에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잡아다가 죽이는 세상이었다. 사람들을 차에 실어 동부두 쪽으로 나가는 것을 보았다. 트럭 안에서 와당탕와당탕 신발작으로 두들기던 사람들이 눈에 선해 4·3만 생각하면 오금이 저리고 몸서리가 나는 것이다.

“그때 말을 못하여. 넘어가당도 누게가이 감정 잇영 영만(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허민 질레에 잇는 사름도 경찰에서 무주건 심어간. 쫄 혼 뒀넨 사름도 심어당 죽여불곡 그때는 말헐 수가 없어. 억울헌 사름덜 너무 죽엇지. 밤이 잠시민 울담 튀영 순경덜이 오랑 막 조사허곡.”

그때 말을 못해. 넘어가다가도 누가 감정이 있어서 이렇게만(손가락을 가리키면서) 하면 길에 있는 사람도 경찰에서 무조건 잡아갔어. 쌀 한 되 낸 사람도 잡아가서 죽여버리고 그때는 말할 수가 없어. 억울한 사람들 너무 죽었지. 밤에 자고 있으면 울담 뛰어서 순경들이 와서 마구 조사하고.

4.3사건 때는 낮밤 가리지 않고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혔다. 밤에 자는데 울담을 뛰어넘어와 조사를 하고, 감정 때문에 손가락질 당하여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었다.

“우리 아버지는 스물다섯에 어머니는 마흔일곱에 죽어부난 자식 그디 우리 서이뿐이랴지게. 오래비 두 개 심어단 경 죽어부난. 겨난이 이제도 그런 거 보민 나 몸 떨영 못 살아. 올해엔 어머니가 죽어불고 뒷해엔 스슴스건 일어났지. 사삼스건. 계난 죄 잇는 사름덜은 죄를 이제 당허여야 허지마는 죄 엇인 사름덜 죽은 거 너무 억울헤. 죽은오래빈, 큰오래빈 집의덜 시난 나오렌 허영 나가난 그냥 죄 잇는 사름이고 죄 엇는 사름이고 그때덜은 마을로 불 부찌고 죽여불지 안 헛어, 그치록계. 그때는 그디 접촉을 못허게 허난 우리도 경헌디도 가보지 못허연. 저 사라봉 굴 제국 시대에 파논 디 그디 문 답아당 그 신체 좃아오지도 못 헤연. 그디 저 집덜 짓젠 신체덜 문 치우렌 허난 누계사 파간 어디사 물어불어신디 신체아 올라 이디서 잃어불연. 하난 육지 시꺼불곡.”

우리 아버지는 스물다섯에 어머니는 마흔일곱에 죽어버리니까 자식

거기 우리 셋뿐이었지. 오라비 두 개 잡아다가 그렇게 죽여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도 그런 것 보면 나 몸 떨려서 못 살아. 올해에는 어머니가 죽어버리고 뒷해에는 사삼사건 일어났지. 사삼사건.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죄를 이제 당해야 하지만 죄 없는 사람들 죽은 거 너무 억울해. 작은 오라비는, 큰오라비는 집에들 있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나가니까 그냥 죄 있는 사람이고 죄 없는 사람이고 그때들은 마을로 불 붙이고 죽여버리지 않았어, 것처럼. 그때는 거기 접촉을 못하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도 가보지 못했어. 저 사라봉 굴 일제 강점기에 파놓은 데 거기 몽땅 다다가 그 신체 찾아오지도 못했어. 거기 저 집들 지으려고 신체들 몽땅 치우라고 하니까 누가 파가서 어디야 물어버렸는지 신체마저 여기서 잃어버렸어. 하나는 육지 실어버리고.

안 할머니는 4·3사건으로 인해 고아가 되어 버렸다. 아버지는 스물다섯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사삼사건이 나기 전 해에 마흔일곱의 나이로 돌아가셨다. 가족이던 남동생 둘이 4·3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아 할머니 혼자 세상에 남겨진 것이다. 그래서 할머니에게 4·3사건은 몸서리쳐지는, 떠올리기 싫은, 말할 수도 말하기도 싫은 큰 아픔인 것이다.

안 할머니의 두 남동생의 억울한 죽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동생이 죽었는데도 접근하지 못하게 해 가보지 못했다. 동생 한 명은 사라봉에서 집단 매장당했는데 어느 순간 사라져 찾지 못하고 있다. 또 한 명의 동생은 육지 형무소에 갔다가 행방불명되었다.

현재 안 할머니의 두 동생 안창윤, 안창규는 제주4·3평화공원에 추모비만 세워 있다. 할머니의 사촌 동생이 두 동생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큰오래비가 그때엔 열아홉인가 스물인가. 그때엔 이제 시에광 화북 새에도 연락을 못하게덜. 어떡언 죽어도 못가게 했지. 막 그냥 법에서 금기 허여노난. 나라에서도 너무 억울헌 짓덜 헤엿주기. 너무 억울헌 짓덜. 사름이 암만 쥬가 있어도 그 쥬를 영 가르멍 죽여살 건디 식구가 하나 나쁘다 허민 온 식구 물애기 7찌 문딱 심어당 죽여불었지. 그 사름 형제간이엔 허민 다 심어간 죽어불곡. 어멍이고 아방이고 경허영 죽은 사름이 천지. 제라허게 죽은 사름 하나토 엇어. 게난 그때 생각만 허민 너무 너무 억울허여.”

큰오라비가 그때엔 열아홉인가 스물인가. 그때엔 이제 제주시와 화북 새에도 연락을 못하게덜. 옥먹어 죽어도 못가게 했지. 마구 그냥 법에서 금기해놓으니까. 나라에서도 너무 억울한 짓들 했지. 너무 억울한 짓들. 사람이 암만 죄가 있어도 그 죄를 이렇게 가르면서 죽여야할 건데 식구가 하나 나쁘다 하면 온 식구 갓난아기까지 몽땅 잡아다가 죽어버렸지. 그 사람 형제간이라고 하면 다 잡아다 죽여버리고. 어머니고 아버지고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천지. 제대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너무 억울해.

4.3은 그렇게 무서운 사건이었다. 식구가 한 명 나쁘다 하면 ‘물애기(갓난아기)’까지 잡아다가 죽여버리는 세상이었다고 했다. 그렇게 해서 죽은 사람이 천지여서, 안 할머니는 그때 생각만 하면 너무 억울하다.

“무소왕 살 수가 서계. 밤중에 자는디도 그 사람이 쥐가 싯고 엇고 이런 울담으로 탕허게 기여들언 무주건 매질이라. ‘너 빨갱이 아니냐? 너 빨갱이 아니냐?’ 그건 무주건이라. 경허민 쥐가 엇인 사름이라도 달달 털게 뉘민이 ‘이거 쥐가 있구나’ 무주건이라. 계난 씨 멸죽헌 디가 하지. 촌엔 문딱 죽여부난 밧데 농스혈 사름이 엇어났어. 그때 문딱 죽여부난. 남자덜 다. 삼양에서도 지서레 나오렌 허영 하영 죽엇젠 허여.”

무서워서 살 수가 있어? 밤중에 자는데도 그 사람이 죄가 있고 없고 이런 울담으로 탕허게 기여들어서 무조건 매질이야. ‘너 빨갱이 아니냐? 너 빨갱이 아니냐?’ 그건 무조건이야. 그러면 죄가 없는 사람이라도 달달 털게 되면 ‘이거 죄가 있구나’ 무조건이야. 그러니까 씨 멸죽헌 데가 많지. 촌에는 몽땅 죽여버리니까 밧에 농사할 사름이 없엇었어. 그때 몽땅 죽여버리니까. 남자들 다. 삼양에서도 지서로 나오라고 해서 많이 죽었다고 해.

4.3사건 당시에는 경찰에서 빨갱이 색출한다며 밤중에 남의 집 울담을 넘어와서 매질하기 일쑤였다고 한다. 죄가 없는 사람도 죄를 뒤집어 씌어서 죽이는 바람에 씨가 멸족된 집안도 많다고 한다. 안 할

머니 고향인 삼양에서는 남자들을 지서로 나오라고 해서 몰살하는 바람에 밭에 농사지를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 안 할머니는 항변한다. “이런 억울함을 어떻게 말을 해서 살 수 있냐?, 죽은 사람만 억울하다.”라고. 이유 있는 항변이다.

“그땐 순경덜이 마을로 강 다 나오렌 허지. 마을로 다 나오렌 허민 죽여 불카부덴 누계가 허여. 순경덜 강 나오렌 허민 동네에서라도 영 허민(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팡팡. 우리도 오래비 경허연 죽어불언. 동네로 나오렌 허연. 하나는 여기서 신첸 좇고 하나는 육지 대구형무소에 가부난. 대구형무소 그때 이북에서 문 올라부난 이북디레 가는 사름은 이북디레 돌아나불고 이디서 죽이는 사름은 이디서 죽여불곡. 경허난 조사허멍 이디서 이제 비석허연 그디(4·3평화공원) 오래비 두 개. 계난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사름이 살아야지 뭐. 그때 사삼스건 생각허민 너미 징징. 계난 우린 저 톨도 순경안티 중진와도 나 순경엔 허민 그냥 몸이 나 원 달달 털언 순경 상덜 허구정 아년 잔치도 안 헛어. 췌 잇영 가는 거는 자기 췌가 이시난 췌 답달이나 허주마는 편칙헌 사름덜 아이고.”

그땐 순경들이 마을로 가서 다 나오라고 하지. 마을로 다 나오라고 하면 죽여버릴까 봐 누가 해. 순경들 가서 나오라고 하면 동네에서라도 이렇게 하면(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팡팡. 우리도 오래비 그렇게 해서 죽어버렸어. 동네로 나오라고 해서. 하나는 여기서 신체는 찾고 하나는 육지 대구형무소에 가버리니까. 대구형무소 그때 이북에서 문 열어버리니

까 이북으로 가는 사람은 이북으로 달아나버리고 여기서 죽이는 사람은 여기서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조사하면서 여기서 이제 비석해서 거기 오라비 두 개.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필요 없어. 사람이 살아야지 뭐. 그때 삼사건 생각하면 너무 징징. 그러니까 우린 저 딸도 순경한테 중매와도 나 순경이라고 하면 그냥 몸이 나 정말 달달 떨어져 순경 상뎐 하고자 안 해서 잔치도 안 했어. 죄 있어서 가는 거는 자기 죄가 있으니까 죄 닦달이라 하지만 깨끗한 사람들 아이고.

안 할머니는 4·3만 생각하면 징징하다고 한숨을 몰아쉬었다. 순경이라고 하면 몸이 떨어져 상대하고 싶지 않다는 안 할머니. 큰딸 배필로 순경한테서 중매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마다한 이유도 4·3 사건의 아픔 때문이다.

6·25전쟁과 피란민

안 할머니에게 6·25전쟁은 그리 큰 사건은 아니다. 피란민이 제주에 몰려들었지만, 큰 피해는 없었기 때문이다.

“피란민 이디 오난 피란민도 꼭이 제주 사람 살렘살 듯 살아. 제주 사람 거찌 강허게 살곡 육지 사름덜 닙지 아녕 성질이 달라. 초담 올 땐 철탁덜 청 막 살앗지. 천막 살단덜 집덜 허영 살고. 피란민 제주도 하영 오라났주. 그 피란민덜토이 강허게 허니까 막 부지런허여. 놈 경 무신 공거나 먹젠

덜 안 허고 음식도 뿔허곡 살림살이도 강허게 살곡. 계난 이제도 이북 사람들 육지덜 다 나가단 남은 사람 이디 사는 거 보든 참 부지런히 잘 살아. 그 사람덜 우리덜 연령광 7타.”

피란민 여기 오니까 피란민도 꼭 제주 사람 살림살 듯이 살아. 제주 사람같이 강허게 살고 육지 사람들 같지 않아서 성질이 달라. 처음 올 땐 천막들 쳐서 마구 살았지. 천막에 살다가들 집들 해서 살고. 피란민 제주도 많이 왔었지. 그 피란민들도 강허게 하니까 매우 부지런해. 남 그렇게 무슨 공거나 먹으려고들 안 하고 음식도 뭐하고 살림살이도 강허게 살고. 그러니까 이제도 이북 사람들 육지들 다 나가다가 남은 사람 여기 사는 거 보면 참 부지런히 잘 살아. 그 사람들 우리들 연령과 같아.

피란민이 처음 제주에 들어왔을 때는 집들이 부족해 천막들을 많이 쳐서 살았다고 한다. 차츰 안정되니까 떠난 사람도 있고, 제주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도 있었다. 피란민 가운데 이북이 고향인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처럼 부지런했다는 것이 안 할머니의 기억이다.

안 할머니의 ‘밭거리(바깥채)’에도 피난 온 이북 사람들이 세를 들어 살았다고 한다. 그 사람들은 ‘풀빵’을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했다고 하였다.

여기 완 산 게 오십 년 넘었어

초가

안 할머니가 살고 있고 곳은 제주시 중앙로다. 옛 제주도립병원(현재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과 중앙신협 사이로 난 좁은 길을 따라 가다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문패가 달린 파란 슬레이트의 낮은 건물이 나오고, 그 길을 따라 조금만 더 들어가며 오래된 초가 두 채가 나온다. 바로 안 할머니가 살고 있는 ‘물항골’ ‘박 판사 댁’이다. ‘박 판사 댁’은 이 집 주인인 시아버지 박명효의 맏아들이 판사를 지냈기 때문에 붙은 별칭이다.

“우리 씨하르버지가 이 앞의 살단 이 집 풀게 뒀난 이디 산 완. 우리 씨하르버지는 밧거리 살고 우리 씨아버진 안거리 살았주게. 우리 씨아버지 살단 여기서 돌아가시난 우리덜이 살게 뒀 거지. 우리 씨아지방은 목포 간 판스로 살아불고. 그 어른덜 육지 가부난. 또 다른 아기덜은 다 갈려져 부난. 초상 살던 집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오란 마탄 사는 거지. 우리 죽은똥이 오십이 넘으난 오십 년이 넘었어.”

우리 시할아버지가 이 앞에 살다가 이 집 팔게 되니까 여기 사서 왔어. 우리 시할아버지는 바깥채 살고 우리 시아버진 안채 살았지. 우리 시아버지 살다가 여기서 돌아가시니까 우리들이 살게 된 거지. 우리 시아주버니

는 목포 가서 판사로 살아버리고. 그 어른들 육지 가버리니까. 또 다른 아
기들은 다 갈라져버리니까. 조상 살던 집이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와서
말아서 사는 거지. 우리 작은딸이 오십이 넘으니까 오십 년이 넘었어.

안 할머니가 살고 있는 초가는 시할아버지, 시아버지에 이어 삼대
째 살고 있다. 이 초가는 ‘안거리(안채)’와 ‘밭거리(바깥채)’ 두 채로
구성되었다. 대문 역할을 하는 ‘이문간’으로 들어서면 잔디가 깔린
마당이 나온다. 할머니네 집은 마당이 집보다 낮은 구조다. 집 옆으
로 돌담을 쌓은 동산이 있고, 동산 약간 밑으로 텃밭이 있어 요즘도
채소 등을 직접 갈아서 먹고 있다. 동산과 텃밭에 올라가려면 돌계



사진 2. 안순생 할머니집

단을 이용해야 한다. ‘안거리’ 처마 밑으로는 양하가 심어 있고, 뒤쪽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다. 예전에 쌀 등을 갈 때 사용했던 ‘구레창(멧돌짜)’이 장독 밑을 받치고 있다. 집 뒤쪽 울담 쪽으로는 오래된 나무들이 예스러움을 더하고 있다.

“이 집 한 삼백 년 됐었젠. 우리 생각에 이디서 난 어른들이 백이 넘언. 우리 큰씨아주버니도 이디서 난디 백이 넘었지. 그 초상에부떠 여기 살아 시난 여기 살건 지도 이백 년은 됐었지. 계난 이 집 짓건 디가 삼백 년 됐었젠 허는 거 닻아. 이 집은이 옛날 나무라도 든든허난 이런 디 곳앗주. 이 서리 7톤 디 좀먹언 좀약 해당 돌아매고. 다른 디덜은 다 혈언.”

이 집 한 삼백 년 되었다고. 우리 생각에 여기서 낳은 어른들이 백이 넘었어. 우리 큰시아주버니도 여기서 낳았는데 백이 넘었지. 그 초상에서부터 여기 살았으니까 여기 산 지도 이백 년은 되었지. 그러니까 이 집 지은 지가 삼백 년 되었다고 하는 것 같아. 이 집은 옛날 나무여도 든든하니까 이런 데 온전했지. 이 서까래 같은 데 좀먹어서 좀약 해다가 매달고. 다른 데들은 다 혈었어.

이 집은 지어진 지 삼백 년이 넘었다. 시할아버지 때 사서 온 집으로, 시할아버지의 아버지, 시할아버지, 시아버지, 할머니까지 4대이상 살았다. 그러다 보니 집 곳곳이 혈었다.

집 보수

할머니가 이 집에 들어와 산 지도 50년이 훌쩍 넘었다. 50년 동안 제주 시가지는 변화에 변화를 거듭해 빌딩 숲이 들어서고 있지만 할머니 집은 옛 모습 그대로를 간직하고 있다. 초가이다 보니 시간이 흐를수록 집이 낡아 간다. 따라서 이 집을 유지하기 위한 안 할머니의 수고로움도 갈수록 늘어간다.

주기적으로 집을 이어야 하고, 쥐들이 드나드는 구멍을 막아줘야 한다. 옛 집이어서 쥐가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많아 ‘쥐구멍’ 막는 일이 여간한 일이 아니다. 나무가 썩어 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서리(서까래)’에 쯤약을 매달아 놓기도 하였다.

“삼 년에 한 번 이 집을 일었주. 이걸 항상 아니 일영은 이거 썩어 빠져 불주게. 이진이 다른 거 닳지 아녕 이 새는 한 해 안 일민 막 썩어빠지지. 삼 년에 한 번씩 일단 작년은 태풍이 부난 이디 활딱 벗겨불었지. 새는 저 촌에서 새 질루는 사람이 잇주게. 그런 디 부탁허영 놔두민 오랑 일어주 주. 돈만 주민.”

삼 년에 한 번 이 집을 이었지. 이걸 항상 아니 이어서는 이거 썩어빠져 버리지. 이진 다른 거 같지 않아서 이 띠는 한 해 안 이면 매우 썩어빠지지. 삼 년에 한 번씩 이다가 작년은 태풍이 부니까 여기 활딱 벗겨버렸지. 띠는 저 촌에서 띠 기르는 사람이 있지. 그런 데 부탁해서 놔두면 와서 이

어주지. 돈만 주면.

할머니의 집 지붕은 삼 년에 한 번 이다가 태풍에 지붕이 날려서 작년에 새로 이었다. 집을 이는 사람에게 부탁해 두면 초가 이을 ‘새’를 가져다 일어주는데 한 번 지붕을 일 때마다 2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단다.

울담 안에는 오래된 먹구슬나무와 머귀나무, 무화과나무 등 고목들이 오래된 미래를 증거하고 있다. 나무 대문도 시아버지가 살던 때 모습 그대로이다. 집 울타리도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어 고풍스럽다. 그렇다 보니 손이 많이 간다. 금방 마당을 쓸어도 고목이 많다 보니 이파리가 떨어지는 가을에는 돌아서면 나뭇잎으로 마당이 가득하였다.

요즘 할머니 집 마당은 잔디가 깔려있고, 마당 양쪽으로는 화단과 화분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다. 사철 꽃을 구경하며 사는 것이 할머니의 새로운 즐거움이다.

“옛날은이 이 집이 흥품 높아났지. 웨 높았나 허믄이 나가 완 보난에 노 인네덜이 이 마당이 물이 골라도 그걸 어떻힐 걸 아니헨 내부난 마당엔 비와나쁜 물 골르민 퍼런 늦이 둔앙. 나가 온 후에 저 앞의 집이 풀떡 장실 헤났어. 피란민이 완 풀떡 장시 허난 연탄재를 화물차로 하나 이디 들 었어. 층거레 하날 들어가불언. 경헌 후엔 물 안 골라. 계난 집이 야파불엇

지. 계남 옛날 본 사람보다는 층거릴 하날 들어가부난게 집이 야프지게.”

옛날은 이 집이 조금 높았었지. 왜 높았나 하면 내가 와서 보니까 노인네들이 이 마당에 물이 고여도 그걸 어떻게 할 걸 아니해서 내버리니까 마당에는 비와나면 물 고이면 퍼런 이끼가 돌아서. 내가 온 후에 저 앞에 집에서 풀빵 장사를 했었어. 피란민이 와서 풀빵 장사 하니까 연탄재를 화물차로 하나 여기 들었어. 층계 하날 들어가버렸어. 그런 후에 물 안 고여. 그러니까 집이 알아버렸지. 그러니까 옛날 본 사람보다는 층계 하날 들어가 버리니까 집이 얇지.

지금 초가는 옛 모습에서 조금 변했다고 한다. 안 할머니가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비가 내린 후면 마당에 물이 고이고 파란 이끼가 끼더란다. 그래서 할머니가 앞집에 부탁하여 화물차로 하나 정도의 연탄재를 마당에 깔았다. 그 이후에는 마당에 물이 고이지 않았다. 하지만 초가 키는 한층 낮아져버렸다.

노인들의 쉼터 ‘동산’

안 할머니 댁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안거리(안채)’ 오른쪽의 먹구슬나무가 심어진 동산이다. 돌계단을 올라야 다다를 수 있는 이 동산은 안 할머니의 시아버지가 살았을 당시, 한때 제주 시내 여론을 주도했던 인사들의 쉼터였다. 집보다 높게 쌓은 돌담 위에는 아름답

리 먹구슬나무가 그늘을 드리우는 동산이 있어 사람들이 휴식 취하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저 동산 위의 이제 먹구슬나무 신디 그디 자갈 깔아근에 노인네덜 이디 이시 안네 노인네덜은 다 와났어. 박종실 하르방네 요디 박약국네 이디 짐약국네 먼 그런 어른덜 오란에 저디서 시조 불르명덜 오랑덜 앓아근에. 혼 일곱산디 그 어른덜 오랑 하루 해천 거기서덜 놀곡. 저 동산 위의덜 오랑 느런히 나무아래다 앓이민 높은 집덜 엇이난 바당을 봐져. 목포 배 들어오는 것도 저디서 봐지곡 영허는디 이젠 하나도 못 봐. 높은 집덜 셔부난 이젠 못 봐도. 그 노인네덜 오랑 저디 오랑 앓앙. 경허연 저 나무가 잇인 거 닻아. 우리 동산 위의엔 항상 할아버지덜 앓앙 놀곡. 계난 그 하르버지덜 돌아가셔부난 그르후엔 엇어. 우영 그디선 야채덜 허여 먹곡.”

저 동산 위에 이제 먹구슬나무 있는 데 거기 자갈 깔아서 노인네들 여기 이시 안의 노인네들은 다 왔었어. 박종실 할아버지네 요디 박약국네 여기 짐약국네 몽땅 그런 어른들 와서 저기서 시조 부르면서 와서들 앉아서. 한 일곱인지 그 어른덜 와서 하루 해종일 거기서들 놀고. 저 동산 위에 들 와서 나란히 나무 아래다 앉으면 높은 집들 없으니까 바다를 봐져. 목포 배 들어오는 것도 저기서 보이고 이러는데 이젠 하나도 못 봐. 높은 집들 있어버리니까 이젠 못 봐도. 그 노인네들 와서 저기 와서 앉아서. 그래서 저 나무가 있는 거 같아. 우리 동산 위엔 항상 할아버지들 앉아서 놀고.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들 돌아가셔버리니까 그 이후에는 없어. 텃밭 거기

선 채소들 해서 먹고.

동산 위의 먹구슬나무는 예전에 시아버지가 있었을 때의 나무가 아니다. 그때 나무는 썩어서 죽고 지금 나무는 맹아가 큰 것이란다.

동산 옆으로 좀 나지막하게 텃밭인 ‘우영’이 있다. 안 할머니는 요즘도 그 ‘우영’에서 푸성귀를 직접 갈아서 먹고 있다. 안 할머니를 만났던 2017년 여름에도 ‘우영’에는 고추와 가지, 깻잎, 부추, 파 등의 채소가 자라고 있었고, 울담 한 쪽에는 양하도 심어져 예스러움을 더하고 있었다. ‘안거리(안채)’ 뒤쪽에는 머귀나무와 무화과나무 등 오래된 나무들이 위용을 자랑하고 있다.

고층 건물이 없을 때는 안 할머니집 동산에 앉아 있으면 탑동 바다가 흰해 육지로 오가는 배도 보였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중앙성당 첨탑과 높은 건물이 앞을 가려 바다는 보이지 않는다.

‘우영’ 한쪽에는 ‘놀awat’도 있었다. 그래서 동산은 어른들의 쉼터이자 아이들의 놀이터였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던 큰딸 박순 씨가 여고 시절에 친구들이랑 동산에서 많이 놀았다며 한마디 거들었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와이에서 누가 왔는데 육이오 때 피난 온 사람이, 우리 밭거리에 왔단 사람이 일곱 살에 피난을 왔었넬. 그때 어린 시절이라도 사령관네 집이라고 생각했넬 행 막 찾앙 왔는데 너무 변해부니까 모르겠더라. 그 사람덜은 도립병원벳기 모르고. 도립병원에 와서 보니까 너무 변해불엇고. 켄디 여기 딱 와서 대문을 보니까 기억이 낫넬. 근데

‘집은 너무 적어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적지.’ 자기가 일곱 살이니까 크게 보였던가 봐. 들어왕 받게마는 ‘아이고, 그 돌계단 올라간 그 놀에 강 뛰어 놀곡’ 이제 생각남덴 허멍 하와이에서 완에 전부 찾아와십데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하와이에서 누가 왔는데 육이오 때 피난 온 사람이, 우리 바깥채에 왔던 사람이 일곱 살에 피난을 왔었다고. 그때 어린 시절이어도 사령관네 집이라고 생각했다고 해서 막 찾아서 왔는데 너무 변해버려서 모르겠더라. 그 사람들은 독립병원밖에 모르고. 독립병원에 와서 보니까 너무 변해버렸고. 그런데 여기 딱 와서 대문을 보니까 기억이 났다고. 그런데 ‘집은 너무 작아서 이상하다. 왜 이렇게 작지.’ 자기가 일곱 살이니까 크게 보였던가 봐. 들어와서 보더니만 ‘아이고, 그 돌계단 올라가서 그 가리에 가서 뛰어 놀고.’ 이제 생각난다고 하면서 하와이에서 와서 전부 찾아왔습니다.

이처럼 안 할머니 집 동산은 오랜 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은 유물이다. 6·25전쟁으로 일곱 살 때 제주에 피난 왔던 하와이 동포가 찾아와서는 제주가 너무 변했지만 예전에 놀았던 동산과 돌계단이 그대로인 모습을 보고는 ‘놀’ 틈에서 놀았던 옛 기억을 떠올리더라.

오래된 물건들

할머니 집을 둘러보다보면 옛 사람들의 삶의 온기가 느껴진다. 초가 ‘안거리’ 부엌 앞쪽에 세워진 ‘물팡’, 수돗가에 놓여 있는 ‘풀그레’, 집 뒤에 설치된 장독대, 장독을 받치는 ‘그레착(맷돌착)’, 부엌에 바닥을 파서 묻어 놓은 ‘물항’ 등은 할머니의 고단한 삶의 흔적들이다.

‘풀그레’는 예전에 옷과 이불 훔청 등에 풀을 할 때 썼던 도구이고, ‘물팡’은 예전에 ‘가락쿣물’을 길어다 먹을 때 ‘허벅’을 부러놓았던 공간이다. 다른 집의 ‘물팡’이 넓적한 돌 두 개를 양쪽으로 세운 후에 그 위에 넓적한 돌을 얹어서 만들었다면 안 할머니 집의 ‘물팡’은 큰 돌 하나를 네모나게 깎아서 만든 것이 이채로웠다. 안 할머니가 빨래할 때 썼던 ‘물마께(빨랫방망이)’도 눈에 띄었다.

“옛날 써난 것도 하나토 없어. 그레 그든 것도 장항 아래 끌아불고. 저 풀그레는 저디 놓고. 저런 돌 그든 건 누게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불고. 우리 씨하르버지가 저 조천 조방장으로 살아났어. 씨하르버지 써난 건 칼 잇엇인디. 그건 우리 주연 산 때까진 잇어난디 안 보여. 등초롱도 다 잇어 나고.”

옛날 썼던 것도 하나도 없어. 맷돌 같은 것도 장독 아래 깔아버리고. 저 풀매는 저기 놓고. 저런 돌 같은 건 누가 가져가는 사람은 가져가버리고. 우리 시할아버지가 저 조천 조방장으로 살았었어. 시할아버지 썼던 건 칼



사진 3. 물팡, 그레와 마깨, 심팡, 장독대 사진(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

있었는데. 그건 우리 주인 산 때까지는 있었는데 안 보여. 초롱도 다 있었
었고.

안 할머니는 집은 오래되었지만 시할아버지와 시아버지가 예전에
썼던 물건들은 거의 없다고 한다. 남편이 둘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집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 옛 사람들이 썼던 ‘귀한’ 물건들이 눈에
들어온다.

“우리 이제도 물항 있어. 그거는 땅 판 묻었지. 그거는 으름에도 물 놓
민 물이 실려와. 땅 팡 묻으난에 으름에 그 항에 물 질영 놔두민 그렇게 실
려왕 맛 좋아.”

우리 이제 물독 있어. 그거는 땅 파서 묻었지. 그거는 여름에도 물 넣으면 물이 차가워. 땅 파서 묻으니까 여름에 그 항에 물 길어서 놔두면 그렇게 차가워서 맛 좋아.

안 할머니가 사용했던 ‘물항’은 부엌 한쪽에 땅을 파서 묻힌 그대로 놓여 있었다. 지금은 사용하지 않아 알루미늄 포일로 싸서 그 위에 찬장 등을 얹어 놓아 언뜻 보면 찾을 수 없다. 안 할머니가 사용했던 ‘물항’은 ‘지새항’이라고 불리는 잿빛 항아리로, 물을 길어두면 물 맛이 좋았다고 하였다.

안 할머니 집 앞 두 개의 ‘팡’은 ‘물항골’을 오가는 사람들의 쉼터다. 할머니도 가끔 집밖에 나가 ‘팡’에 앉아 쉬기도 하고, ‘팡’에 앉아서 길을 오가는 사람들 구경도 한다.

“이디 집 안 짓인 때 우린 영 앓앗당 들어가곡 허주게. 넘어가단 이디 오랑 앓는 사람 하. 늙은 사름들도 일로 넘어가당 지치민 이 팡에 앓양 쉬엇당 가곡. 할망덜은 많이 앓아. 할머니덜이나 하르버지나 지치민 이레 꼭 앓앗당 가주게. 우리도 절로 강 오당 지치민 이디 우선 앓앗당 들어가지.”

여기 집 안 지을 때 우리 이렇게 앓았다가 들어가고 하지. 지나가다가 여기 와서 앓는 사람도 많아. 늙은 사름들도 이리로 지나가다가 지치면 이 ‘팡’에 앉아서 쉬었다 가고. 할머니들은 많이 앓아. 할머니들이나 할아

버지나 지치면 여기 꼭 앉았다가 가지. 우리도 저리로 가서 오다가 지치면 여기 우선 앉았다가 들어가지.

이 ‘팡’은 할머니의 쉼터이기도 하지만 할머니 집 앞 길을 오가는 사람들이 앉았다 가는 쉼터이고도 하였다. 곧 이문간 앞의 ‘팡’은 할머니네 쉼터이자 동네 사람들이 쉬고 갈 수 있는 쉼터로, 배려의 공간인 셈이다.

농사짓고 질 다르고 장사허멍 살안

농사

안 할머니네는 농사지으며 살았다. 남편이 일찍 돌아가는 바람에 안 할머니는 가계를 책임져야 하였다.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식당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국토건설이라고 해서 도로 공사하는 데도 쫓아다녔다. 전기 공사하는 한경면 산양리에 가서 일꾼들에게 밥해주는 일도 하였다. 제주와 목포를 오가며 장사도 하였다.

농사는 결혼하면서 시작했다. 제주시가 도시화되기 이전까지 안 할머니는 농사도 짓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며 전통 방식대로 살았다.

“보리, 조, 콩 그거 허멍 살았지. 그때에 헐 거들이 있어. 젊은이도 뭐 직장 뎅기는 사름 드물었지. 그땐 특별한 사름벤틀기 못 뎅겼지. 그땐 공부덜을 암만 잘해도 이제거찌 못했지. 산지 살 때 과영팟덜 있어났지. 그디서 농스허연. 밧 한 사름은 놈 세 쥘, 병작 쥘덜 갈라단 떡곡. 우린 식구 엇이난 갈라당도 떡곡. 그때엔 젊을 때난게 흐 스물뎃 뉘난 무신 경 흐엇이 농스도게 힘들이 안 헛주게.”

보리, 조, 콩 그거 하면서 살았지. 그때에 할 것들이 있어. 젊은이도 뭐 직장 다니는 사름 드물었지. 그땐 특별한 사름밖에 못 다녔지. 그땐 공부들을 암만 잘해도 이제같이 못했지. 산지 살 때 광양밭들 있었었지. 거기서 농사지었어. 밧 많은 사름은 남에게 세를 줘서, 병작 줘서들 나눠다가 먹고. 우린 식구 없으니까 나눠다가도 먹고. 그때엔 젊은 때니까 한 스물뎃 되니까 무슨 그렇게 한없이 농사도 힘들게 안 했지.

안 할머니는 결혼해서 산지에 살 때 광양 쪽에 있는 밧에서 농사를 지었다. 그때는 제주시 사름들 대부분이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전통적인 농법으로 조와 보리 등의 농사를 지었다.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였고, 남에게 병작을 줘서 쌀을 나눠다 먹기도 하였다.

“할마니 돌아가시난 우리가 이디 완 살안. 게나제나 우리도 이디서 농스지었지. 그땐 아기 낳고 무신 일허멍 살았어. 그자 농스허고 그자 자식허연 그럭저럭 살단 보난 세월이 다 가고 경허연 살았지.”

할머니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여기 와서 살았어. 그러나저러나 우리도 여기서 농사지었지. 그땐 아기 낳고 무슨 일하면서 살았어. 그저 농사짓고 그저 자식해서 그럭저럭 살다 보니까 세월이 다 가고 그렇게 해서 살았지.

“우리 농스혈 땀 슬우리보리를 많이 갈았지. 조허곡 콩, 보리, 슬우리보리 쓸허고. 잇당 즐보리 흐뎡씩 갈았지. 이제 저 동문시장 안넨 농업 학교 셔났지. 농업 학교 신 디서 옛날은 그디서 학생들 똥통 매여당 농업 학교 에서 야채 갈양은에 그디서 오쥬 똥을 뉀 주곡 헤여난디. 이젠 밋밋 시장 안네 집 짓어분 거지게. 동문시장이 옛날 농업 학교 자리라.”

우리 농사할 땐 쌀보리를 많이 갈았지. 조하고 콩, 보리, 쌀보리쌀하고. 이따금 맥주보리 조금씩 갈았지. 이제 저 동문시장 안에는 농업 학교 있었지. 농업 학교 있는 데서 옛날은 거기서 학생들 똥통 매어다가 농업 학교 에서 야채 갈아서 거기서 오쥬 똥을 똥땅 주고 했었는데. 이젠 밋밋 시장 안에 집 지어버린 거지. 동문시장이 옛날 농업 학교 자리야.

농사는 주로 쌀보리와 조와 콩을 갈았고, 맥주보리는 가끔 갈았다. 안 할머니는 동문시장 안에 있는 제주농업 학교 학생들이 똥통을 매다가 채소 간 데 뿌리며 농사짓는 걸 보기도 하였다.

“그땐 소 아져사 농술 헤엿주게. 걸름은 똥걸름 쉼걸름 그것벳기 안 헛

지. 그 돛걸름 일년내낭 내영 메왓당은에 그디서 걸름 밧디 문 시꺼다 놓
 곡. 쉼 질름는 단 쉼허고. 계난 집마다 출 산덩이치록 놀곡 경헌디. 이젠
 쉼 메는 디도 엇곡. 그 도새기 질랑 도새기 풀양 용돈도 쓰곡. 명절 때 잡
 양도 먹곡. 옛날은 경벳기 더 살았어게.”

그땐 소 가져야 농사를 했지. 거름은 돼지거름 소두엄 그것밖에 안 했
 지. 그 돼지거름 일 년 내내 내어서 모였다가 거기서 거름 밧에 몽땅 실어
 다 놓고. 소 기르는 덴 소하고. 그러니까 집마다 풀 산더미처럼 가리고 그
 랐는데. 이제는 소 메는 데도 없고. 그 돼지 키워서 돼지 팔아서 용돈도 쓰
 고. 명절 때 잡아서도 먹고. 옛날은 그렇게밖에 더 살았어.

농사를 지으려면 집에서는 소와 돼지를 키워야 했다. 소는 밭을 갈
 고 짐을 운반할 때 소용되었다. 거름 생산도 하였다. 돼지는 거름을
 제공하는 한편 고기를 제공하고, 크면 팔아서 용돈도 썼다.

제주 사람들에게 돼지는 아주 유용한 동물이었다. 집에서 나오는
 음식 관련 부산물을 없애주는 한편 거름을 생산하기도 하였다. 또 돼
 지를 키워 팔면 가용으로 쓸 용돈을 벌어주고, 잔치나 명절 때 고기
 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제주에서는 혼사를 앞둔 자식이 있으
 면 집에서 돼지를 키우기도 하였다.

“그때사 보리허영 보리밥벳권 더 먹었어. 암만 부제라도 쓸밥 먹는 집이
 유드물었지. 제주돈 산디. 이제 춤쉴도 제주도는 츠나룩엔 허영 그런 건

이제 사름덜 부모덜 밥 혼 직 즐바도 안 해주는 사름 천지로 있어. 아이고, 경 사는 건 잘 사는 거 아니여.”

부자는 쌀도 조금 섞어서 먹고 가난한 사람은 보리밥에 좁쌀 넣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았지. 이젠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쌀밥 먹어서 살고. 있는 사람은 반찬도 잘 해서 먹고 없는 사람은 고기 한 꼬리도 야채나 밖에 안 먹었지. 그러니까 옛날은 없는 사람 있는 사람 층하가 많이 있었지. 그래도 옛날은 부모들 위해서 살고 부모 아프면 치료해 드리고 제사 명절하고. 그런데 이제 사람들 부모들 밥 한 술 제대로 안 해주는 사람 천지로 있어. 아이고, 그렇게 사는 건 잘 사는 거 아니야.

안 할머니는 예전에는 사는 데 층하가 있었지만 지금은 다들 잘 사는 것 같다고 했다. 예전에는 가난할 때도 부모 공양을 잘 했는데, 요즘은 먹을거리가 넘쳐나도 부모를 잘 모시지 않은 사람이 많다며 아쉬워했다. 그런 삶은 잘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 안 할머니의 걱정거리다.

국토건설

안 할머니에게 ‘국토건설’은 제주 시가지를 확장하고 도로를 넓히는 공사를 통칭하는 용어다. 안 할머니는 도시 개발로 신작로가 개설될 때, 공사현장에 나가 돌을 저 나르고 길에 돌과 흙을 까는 일도

했다. 이른바 ‘국토건설’에 참여한 것이다.

“나도 혼자 살젠 허난 아니 헤여 본 일 엿이 현 사름이라. 국토건설 그 런 일도 간 허곡. 이 여관할 때 식당에도 강 허여 보곡. 나 못헌 일 엿어. 살 젠 허난. 아버진 아무 일도 엿이 놀단 죽어부난 이 애기덜 서으누이 공부 시기젠 허난. 저기 신작로 다 우리가 현 거지. 가시나물, 월평디레 가는 찻 질도 국민들이 현 거라. 그 신작로 다끄젠 허민 돌멩이 등으로 저당 농곡 흑 저당 농곡 경허명. 그거 이젠 혼 들이믄 혼 들, 두 들이민 두 들 경허영 하루 얼마 일당 나오랑 허민 이제 밀크르 주는 사름도 있고 돈으로 주는 사름도 잇곡 경허영 허엿주게. 우리 경 살아온 걸 다 말할 수가 없어.”

나도 혼자 살려고 하니까 아니 해 본 일 없이 한 사람이야. 국토건설 그 런 일도 가서 하고. 이 여관할 때 식당에도 가서 해 보고. 나 못한 일 없어. 살려고 하니까. 아버진(남편은) 아무 일도 없이 놀다가 죽어버리니까 이 아기들 세 오누이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저기 신작로 다 우리가 한 거지. 가시나물, 월평으로 가는 찻길도 국민들이 한 거야. 그 신작로 닦으려고 하면 돌멩이 등으로 저다 놓고 흙을 지어다 놓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이 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그렇게 해서 하루 얼마 일당 나와서 하면 이제 밀가루 주는 사람도 있고 돈으로 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 서 했지. 우리 그렇게 살아온 걸 다 말할 수가 없어.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안 할머니

니. 그는 제주시에 새 길을 낼 때 돌을 지고 흙을 져 나르는 일을 하였다. 그렇게 한 달이나 두 달 일하면 일당을 주었다고 한다. 일당은 돈으로 받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밀가루로 받았다. 자신이 힘들게 살아온 삶은 말로 다 할 수 없다는 안 할머니는 그런 힘든 일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단다.

“아기도 툇 사름 잇이민 아기도 업영 강 출석부 불르젠 허민, 아기 툇 사름은 일 안 시기젠 허민 므녀 출석부 불른 사름신디 아기 낵땡 강 일름 불렁 오랑 아이 눅져땡덜 일허는 사름 잇고. 벨 사름이 다. 에이고, 이제거찌 월급도 하곡 돈 잘 줍시른 우리도 그만 노력을 허여시란 우리가 집 하나 이라도 자기 냥으로 살 수 잇어야주만 그때는 밀 ㄱ르 타당 먹음도 버쳐.”

아기도 돌볼 사람 없으면 아기도 업어서 가서 출석부 부르려고 하면, 아기 데린 사람은 일 안 시키려고 하면 먼저 출석부 부른 사람한테 아기 낵땡 가서 이름 불러서 와서 아이 눅혀두고 일하는 사름 잇고. 벨 사름이다. 아이고, 이제같이 월급도 많고 돈 잘 주면 우리도 그만한 노력을 했으니까 우리가 집 하나라도 자기 대로 살 수 잇어야지만 그때는 밀가루 타다가 먹음도 부쳐.

아이를 단 사람은 일을 할 수 없으니 출석부를 부를 때는 아기를 남한테 맡겨두었다가, 출석을 확인한 후에 길가에 아이를 눅혀두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할머니도 아들을 데리고 일을 다녔다. 그

때 기억을 아들인 박윤수 씨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박윤수 씨는 “어머니가 일한 대가로 밀가루를 받아 오는 날은 칼국수를 해먹고, 이것저것 해먹으면서 그날만큼은 배 터지게 먹는 날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그러나 일당으로 받은 밀가루는 가족이 생활하기에도 빠듯했다.

“국토건설 나가민 거기 이만한 티켓 하나씩 줘. 보름이민 보름 한 달이민 한 달 되면 밀가루로 대신 줘. 게른 동사무소에 가민 숫자대로 밀가루 주민 그날은 배 터지게 칼국수 허영 먹고 뭐헿 먹고. 그때는 밀가루도 정부에서 준 거 아니라 미국 원조 밀가루. 나 초등학교 때, 1960년대 말. 덕용치과 그 자리가 이도1동사무소지. 그때 쓰러져가는 기와집이랴어. 그디 밀가루 타레 가명. 중앙로 나기 전에 공동수도도 있어났어. 공동수도 가민 도장 하나 주민 요만한 바가쓰에 물 주곡.”

국토건설 나가면 거기 이만한 티켓 하나씩 줘.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되면 밀가루로 대신 줘. 그러면 동사무소에 가면 숫자대로 밀가루 주면 그날은 배 터지게 칼국수 해서 먹고 뭐해서 먹고. 그때는 밀가루도 정부에서 준 거 아니라 미국 원조 밀가루. 나 초등학교 때, 1960년대 말. 덕용치과 그 자리가 이도1동사무소지. 그때 쓰러져가는 기와집이었지. 거기 밀가루 타러 가면서. 중앙로 나기 전에 공동수도도 있었어. 공동수도 가면 도장 하나 주면 요만한 바케스에 물 주고.

일한 대가는 도장 찍힌 티켓으로 받았다. 보름이나 한 달 만에 일당으로 티켓을 받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밀가루로 바꿔왔다. 그러면 그날은 포식하는 날이었다. 공동 수도가 생겼을 때도 그랬다. 물이 귀하니 골고루 분배했다. 박윤수 씨가 초등학교 시절이던 1960년 후반의 이야기다. 지금으로부터 50여 년 전 제주시 사람들의 삶의 풍경이다.

목포 장사

안 할머니는 아이들을 거의 키우고 농사를 짓지 않게 되자 장사를 시작하였다. 소소한 장사가 아니라 목포와 부산을 나들면서 장사꾼(?)으로 살았다. 제주에서 미역과 툇, 마늘 등을 사서 목포에 가서 팔았고, 제주에 나지 않은 쌀이나 강낭콩 등의 곡식과 고추 등을 해다가 제주시오일장 등지에서 팔았다.

“장사는 혼 육십 대에 헛지. 아기덜 난 문 키운 후제계. 저 로터리에 12호 상회가 있어났주계. 계난 12호 상회 그 어른이 목포 장사를 헛어. 쓸도 혼 백 가마니씩 혼번에 시꺼당 풀곡 허는 어른, 그 어른이영 강 흐루쳐낙 ㄱ치 강 목포 강 살앙. 고치도 혼 밤새낭 곡지 다듬앙 붉아가민 그디서 ㄱ아근에 담아아정 뒷날 오곡. 그땐 여즈덜이 목포 장시덜을 많이 헛지계. 계난 애기덜 다 키와부난 그 어른덜이영 ㄱ치 목포에 강 쓸도 해당 풀곡, 제주에 안 나는 거 두불콩도 허여당 풀곡, 고치도 허여당 왕 오일장에서

폴곡 허멍 살았주게. 옛날 사름덜은 고생만 많이 헛어게.”

장사는 한 육십 대에 했지. 아기들 낳아서 몽땅 키운 후에, 저 로터리에 12호 상회가 있었었지. 그러니까 12호 상회 그 어른이 목포 장사를 했어. 쌀도 한 백 가마니씩 한번에 실어다가 팔고 하는 어른, 그 어른이랑 가서 하루저녁 같이 가서 목포 가서 살아서, 고추도 한 밤새껏 꼭지 다듬어서 밝아가면 거기서 빵아서 담아가지고 뒷날 오고. 그땐 여자들이 목포 장사들을 많이 했지. 그러니까 아기들 다 키워버리니까 그 어른들이랑 같이 목포에 가서 쌀도 해다가 팔고, 제주에 안 나는 거 강낭콩도 해다가 팔고, 고추도 해다가 와서 오일장에서 팔고 하면서 살았지. 옛날 사람들은 고생만 많이 했어.

예전 사람들은 고생만 하며 살았다는 안 할머니. 목포에 가서 하루 이틀 살면서 쌀이나 고추 등의 물건을 사다가 제주시오일장 등에서 소매했다. 목포에 나갈 때는 제주에서 생산되는 미역이나 톳 등을 가지고 가서 팔았다. 그때는 여자들이 장사를 많이 했다. 오일장에서 계란을 낱으로 사다 모아서 부산에 가서 팔기도 했다.

“목포 가민 저 조천하숙집이엔 허연 하숙집의 강 살멍 그디 강 물건 상 시꺼야정 그자 오곡. 이틀을 장 오나 허를 장 오나 그치룩허멍 세월 냉긴 겨주. 장신 허민 때에 뜰랑 그때그때 미까는 것도 잇고 많이 냉기는 것도 잇곡. 계란도 오일장에 강 낱낱이 멧 개 씩 반양 부산 강 풀아도 보고 머

역 칭으로 사근에 머역 시경 목포 가곡 톨 시경 목포 강 풀곡. 여기서 콤 데산이 씨혈 거 아정 강 풀아나곡. 그럭저럭허멍 세상 사난 몰라. 또 육지 서 나오는 건 이리 오랑 풀곡 그땐 경헛주게.”

목포 가면 저 조천하숙집이라고 해서 하숙집에 가서 살면서 거기 가서 물건 사서 실어가지고 그저 오고. 이틀을 자서 오나 하루를 자서 오나 그 처럼하면서 세월 넘긴 거지. 장사는 하면 때에 따라서 그때그때 밀지는 것도 있고 많이 남기는 것도 있고. 계란도 오일장에 가서 낱알이 몇 개씩 받아서 부산 가서 팔아도 보고 미역도 칭으로 사서 미역 실어서 목포 가고 톨 실어서 목포 가서 팔고. 여기서 미늘 씨할 거 가져 가서 팔았었고. 그럭저럭하면서 세상 사니까 몰라. 또 육지서 나오는 것은 여기 와서 팔고 그땐 그렇게 했지.

안 할머니가 목포에 가서 살았던 곳은 ‘조천하숙집’이다. 거기에 머물면서 물건을 사다가 상회에 가져가서 팔기도 하고 직접 집에서 팔기도 하고 오일장에 내다 팔기도 하였다. 안 할머니가 장사할 때 이용했던 오일장은 오라동 종합경기장 실내수영장 주변의 오일장이다. 오라동오일장은 제주시 용담동에서 1982년과 1984년, 다시 신광초등학교 부지로 옮겨지기 전까지 섰던 장이다.

“고추도 가민 혼 오백 근 허영 와도 이녁이 그디서 굶인 거 하나 서트지 아녕 곱게 허영 오민 잘 풀아. 쓸도 가맹이로게 목포서 이제 상회에 강이

제 열 가뎡이민 열 가뎡이 그거 허여다근 장에 강 그거 앓앙 풀곡. 고춧
르 그튼 건 집의서도 다 나가주게. 그때에는 목포 가사 콩, 팥 그런 거 많
이 나난 그거 아정강 풀곡.”

고추도 가면 한 오백 근 해서 와도 이녁이 거기서 굶은 거 하나 섞지 않
고 곱게 해서 오면 잘 팔아. 쌀도 가마니로 목포서 이제 상회에 가서 이제
열 가마니면 열 가마니 그거 해다가 장에 가서 그거 앓아서 팔고. 고춧가
루 같은 건 집에서도 다 나가지. 그때에는 목포 가야 콩, 팥 그런 거 많이
나니까 그거 가져가서 팔고.

안 할머니의 장사 철학은 정직과 좋은 물건이다. 고추를 사도 깨
끗한 것만 골라서 팔고, 되를 줘도 수북수북 줘서 손님들을 불러 모
았다.

“장스 허명도 ‘아, 뉘 골르게 주민 췌 짓일 거로구나.’ 장스 허당 보민 뉘
를 까끄질 못허주게. 고춧 르도 저울 약허게 주민 췌 짓일 걸로 허문 고
춧 르 해도 뉘도 수북수북 낱 허민. 쓸 혼 가뎡이 풀면은 가뎡이벧긔 안
남아. 뉘 골르게 안 주니까. 경헌디 다른 사름덜은 이제 장스허는 사름덜
이 꼭 그짚 허여도이 그 사름덜은 돈을 하영 냉기주게. 뉘 박박박 썰민 쓸
도 냉기곡 모든 걸 냉기주게. 게민 소곱으로 ‘뉘 썰지 말아살 걸.’ 뉘 아니
썰영 폭난 나신디만 하영 오주. 하영 오민 하영 풀긴 허주게. 경허민 많이
풀면은 가뎡일 하나 남아도, 남으면 ‘이것이 공정헌 거로구나.’ 경허명 우

린 장술 했어.”

장사 하면서도 ‘아, 되 고르게 주면 죄 지을 거로구나.’ 장사 하다가 보면 되를 깎질 못하지. 고춧가루도 저울 약하게 주면 죄 지을 걸로 하면 고춧가루 해도 되도 수북수북 놓아서 하면. 쌀 한 가마니 팔면 가마니밖에 안 남아. 되를 고르게 안 주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장사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하여도 그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남기지. 되 박박박 쓸면 쌀도 남기고 모든 걸 남기지. 그러면 속으로 ‘되 쓸지 말아야 할 걸.’ 되 아니 쓸어서 파니까 나한테만 많이 오지. 많이 오면 많이 팔긴 하지. 그러면 많이 팔면 가마니 하나 남아도, 남으면 ‘이것이 공정한 거로구나.’ 그렇게 하면서 우린 장사를 했어.

안 할머니는 너무 야박하게 하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되를 수북수북 주다보니 쌀 한 가마니를 다 팔고 나면 빈 가마니밖에 남지 않더라. 그래도 손님들이 많이 찾으니까 결국은 남는 장사란다. 박리다매로 실익을 챙긴 셈이다.

“그때는 보리술은 막 싸곡 곤술은 비싸곡. 경헌디 이젠 보리술이 비싸 불었지. 보리술 줍술은 멧 곱으로 올라불곡 곤술은 약해불었지. 그때 보리술 두 말 줘서 술 혼 말 받았어.”

그때는 보리쌀은 매우 싸고 흰쌀(볍쌀)은 비싸고. 그런데 이젠 보리쌀

이 비싸버렸지. 보리쌀 좁쌀은 몇 곱으로 올라버리고 흰쌀은 약해버렸지.
그땐 보리쌀 두 말 줘서 쌀 한 말 받았어.

안 할머니가 장사할 때만 해도 흰쌀이 귀했다. 가격도 보리쌀을 두
말 줘야 쌀 한 말 줬다고 한다. 지금은 쌀이 남아돌고 쌀밥을 선호하
지 않으니 보리쌀과 좁쌀이 더욱 가격이 비싸졌다. 격세지감이다.

“목포 출입할 때 탕 덩긴 배가 이제거찌 큰 배가 아니고 가야호. 통통통
통허멍 덩길 때. 이디서 머역도 허영 가곡 이디 엇인 것도 허영 오고. 그땐
사는 게 더욱 여북허었지. 옛날 사름덜은 이제거찌 눈 뜨고 놈 속영 살아?
그런 거 엇어. 장사허멍도 서로 도우멍 나만 잘 살주 허지 안헐어.”

목포 출입할 때 타서 다닌 배가 이제같이 큰 배가 아니고 가야호. 통통
통통하면서 다닐 때. 여기서 미역도 해서 가고 여기 없는 것도 해서 오고.
그땐 사는 것이 더욱 여북했지. 옛날 사람들은 이제같이 눈 뜨고 남 속여
서 살아? 그런 것 없어. 장사하면서 서로 도우면서 나만 잘 살지 하지
않았어.

안 할머니가 타고 다녔던 배는 제주-목포를 운항하는 ‘가야호’였
다. 통통거리는 작은 배로 다니느라 멀미도 많이 했다. 육지에서 물
건을 해다 상회에 넘기고, 오일장에 가서 팔기도 했지만 고춧가루 등
소소한 것은 집에서 많이 팔았다. 예전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남의

눈을 속이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아무리 어려워도 도우면서 살려고 했다고 한다.

“가게 요디 이제 이 높은 집 그땐 초가집 셔낫주게. 그 집 혼 칸 빌언에 그디서 혼 이년 해져실 거라. 집의서 하영 풀안. 혼 오 년 허난 늙언 허지 못헨. 오 년 탕겨가난 심장이 뛰언 수질허난 못헨 시작헿주게.”

가게 요기 이제 이 높은 집 그땐 초가집 있었지. 그 집 한 칸 빌려서 거기서 한 이년 했을 거야. 집에서 많이 팔았어. 한 오 년 하니까 늙어서 하지 못했어. 오 년 다녀가니까 심장이 뛰어서 심장 뛰어서 멀미하니까 못하기 시작했지.

5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 심장이 뛰고 멀미가 잦아서 장사를 그만두었다.

“그때는 이제거찌 돈 못 벌어. 그냥 돈이 난덴 허여도 어떤 거 미까불곡 어떤 거 혼 푼 남으민 생활비도 허곡 허여. 아기덜 고등혹교덜 시키고 아덜 대학도 멩기곡 허난. 우리 제주도논이 불 일이 하. 불 일이 하난 친족 일덜 보곡 허단 보난 세월 다 넘었어. 경허연 보난 어떻 살아진 것도 몰라. 자기 마음만 깨끗하게 허민 그런 거 저런 거이 손해 안 가민 버으는 거지.”

그때는 이제같이 돈 못 벌어. 그냥 돈이 난다고 해도 어떤 거 밑져버리

고 어떤 거 한 푼 남으면 생활비도 하고 해. 아기들 고등학교들 시키고 아들 대학도 다니고 하니까. 우리 제주도는 볼 일이 많아. 볼 일이 많으니까 친척 일들 보고 하다 보니까 세월 다 넘겼어. 그렇게 해서 보니까 어떻게 살아진 것도 몰라. 자기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그런 거 저런 거 손해 안 가면 버는 거지.

그렇게 장사를 해도 안 할머니는 큰돈은 못 벌었다고 한다. 아이들 학교 시키고, 생활비 하고, 친족들 일 보고 하다보니까 세월이 다 가 더란다. 안 할머니는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손해 안 가면 버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다.

옛날은 과세오민 ‘골미떡’ 혜영 안네

과세

옛 사람들의 일과 가운데 하나는 대소사를 챙기는 일이다. 그 가운데 과세는 여성들의 큰일 가운데 하나다. 필자가 초등학교 시절인 1970년대까지만 해도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세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면 으레 떡국이나 술 등을 대접하였다. 옛 어른들은 이 과세를 아주 큰일로 여겼다. 설날이 돌아오기 전에 두부도 만들고 ‘골미떡(가래떡)’도 만들고 칼국수도 밀어야 했다.

“정월 명절 돌아오라가민 집의서 이제 콩 물에 동갓당 그걸로 된 골아 근에 두부 이녁쿠로 헤영 두부도 싹피 먹고. 이제거찌 기계에 강 햄서계? 좁쌀 골미떡 허곡 곤쌀로 골미떡 허곡 허엿당 명질에 그 떡국을 허여낱 쌀로 마제 허영 올리곡 허여낱주. 골미떡은 다 집의서 멘들주게. 반죽허 영 이제 동글동글 멘들앙게 메칠 앗앙 집의 식구덜이영 다 칼로 된 썰어. 옛날은 그치룩허명. 그르도이 한 거는 영 둥그러가는 물방에 강 쫓아오 주마는 잇이민 남방에 쫓 쫓아근에 영 그디서 반죽허영 멘들민 뉘주게. 이제 부제집은 그 남방에 하나씩 시메. 좁쌀도 물에 동갓다근에 남방에 서 쫓아근에 허민 뉘고. 이제 부모가 잇인 사름은 과세 오민 그거 떡국 허 명 안네고. 그때엔이 좁쌀 골미떡을 허영 두부 농곡 소고기 농곡 그 떡덜 농민 좁쌀 건 건지명 어명 모르게 곱정 데껴불고. 좁쌀은 옛날 먹을 걸로 아니 알앙. 이젠 좁쌀이 금쪽 꺾기 귀헤영. 스못 조침떡도 보민 이젠 꿀거 찌도 떡곡 오메기떡덜도 경허곡.”

정월 명절 돌아와가면 집에서 이제 콩 물에 담갓다가 그것으로 몽팡 갈 아서 두부 이녁대로 해서 두부도 싹컷 먹고. 이제같이 기계에 가서 하고 있어? 좁쌀 가래떡 하고 흰쌀로 가래떡 하고 했다가 명절에 그 떡국을 해 놓아서 쌀로 마지 해서 올리고 했었지. 가래떡은 다 집에서 만들지. 반죽 해서 이제 동글동글 만들어서 며칠 앗아서 집에 식구들이랑 다 칼로 몽팡 썰어. 옛날은 그렇게 하면서. 가루도 많은 것은 이렇게 굴러가는 연자매 에 가서 빵아오지만 없으면 남방아 쌀 빵아다가 이렇게 거기서 반죽해서 만들면 되지. 이제 부갓집은 그 남방아 하나씩 있어. 좁쌀도 물에 담갓다

가 남방아에 빵아서 하면 되고. 이제 부모가 있는 사람은 과세 오면 그거 떡국 하면서 드리고. 그때엔 좁쌀 가래떡을 해서 두부 넣고 소고기 넣고 그 떡들 넣으면 좁쌀 건 건지면서 어머니 모르게 숨겨서 던져버리고. 좁쌀은 옛날 먹을 걸로 아니 알아서. 이젠 좁쌀이 금쪽같이 귀해서. 사뭇 좁쌀시루떡도 보면 이젠 꿀같이도 먹고 오메기떡들도 그렇게 하고.

예전에는 ‘골미떡(가래떡)’도 집에서 직접 반죽을 밀어서 만들었다. ‘골미떡’은 흰쌀로도 만들고 좁쌀로도 만들었다. 어른이 있어 세배를 오는 사람들에게는 ‘골미떡’으로 떡국을 끓여 대접하였다. 좁쌀에 질린 아이들은 ‘좁쌀 떡국’을 숨겼다가 어머니 몰래 내다버리기도 하였다. ‘골미떡국’ 대신에 메밀칼국수로 대접하는 집도 있었다.

“옛날은 정월나면은 노인네 시민 과세를 보름 뒤편 허주게. 과세 오는 사름이 시민 모멸술 허영 그걸 허여당 낫당 칼국수 문탁 몰양 칼국수 문 썰영 낫당 오민 물만 끓이민 허영 맥영 보네고. 옛날은 노인네 하나만 시민 아버지나 신 사름은 그걸로 정월 보름 되도록 그거 허여사. 그거 보름까지 출리젠 해봐. 이제 밥허영 누룩허영 낫당 동동주 그 술로 놓주게. 겨문 정월 혼 들에 그거 혼 망데기 헤영 낫당 그거 거리멍 맥이곡. 이젠 부모가 셔도 그런 거 엇주마는 옛날은 부모 시민 맥여사. 옛날 어른덜거 찌 못 전디게 산 사름 엇어게. 사람도 죽으민 삼 년을 허여야 허지, 이제 뭐 줄곡이니 담제니 이건 뭐 사람 죽으민 그런 허는 것이 하. 옛날 어른 덜 먹진 못허고 고생만 모큰 허단 갖지.”

옛날은 정월되면 노인네 있으면 과세를 보름 되도록 하지. 과세 오는 사람이 있으면 메밀쌀 해서 그걸 해다가 뉘다가 칼국수 몽땅 반죽해서 칼국수 몽땅 썰어서 뉘다가 오면 물만 끓으면 해서 먹어서 보내고. 옛날은 노인네 하나만 있으면 아버지나 있는 사람은 그걸로 정월 보름 되도록 그거 해야. 그거 보름까지 차리려고 해봐. 이제 밥해서 누룩해서 놔두었다가 동동주 그 술로 놓지. 그러면 정월 한 달에 그거 한 동이 해서 뉘다가 그거 뜨면서 먹이고. 이젠 부모가 있어도 그런 것 없지만 옛날은 부모 있으면 먹여야. 옛날 어른들같이 못 견디게 산 사람 없어. 사람도 죽으면 삼년을 해야 하지, 이제 뭐 줄곡이니 담제니 이걸 뭐 사람 죽으면 그런 하는 것이 많아. 옛날 어른들 먹진 못하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갔지.

어른이 있는 집에서는 과세를 보름 넘도록 하는 집도 있었다. 그러면 여자들의 일도 그만큼 고될 수밖에 없었다. 떡국을 만들고, 칼국수를 밀고, 직접 술도 담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부모가 돌아가면 삼년상을 했다. 줄곡과 담제와 제사도 정성을 기울여서 했다. 그러니 옛 여성들은 ‘모큰’ 고생만 하다 돌아간 셈이다. 요즘 사람들은 엄두도 낼 수 없는 일이다.

제사

제사를 하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음식의 변화와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마음 변화일 것이다. 집에서

만들었던 떡도 전문 떡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예전처럼 복잡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 자정이 넘어서 하던 파제도 당일제로 옮겨 자정 전에 하는 경우도 많다. 무엇보다 달라진 것은 사람들의 마음으로, 제사 때문에 가족끼리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이다. 안 할머니 세대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제스 때에 막 잘 흘렸젠 귀신이 먹영 가지 아녀고. 귀신은 짐 풍풍풍 풍 나는 거나 원미만 썩은에 허여도 마음 편안하게. 아이고, 이 저녁은 어머니민 어머니 아버지민 아버지, ‘아이고, 많이 잡쌍 갑서.’ 허영 마음 편안하게 허영. 영 형제간들이라도 앓아도 웃임 웃이명이 술 혼 잔이라도 누명 그렇게 허면은 귀신이 좋아허는 거난. 잘 흘렸젠 잘 먹는 거 아니. 요새에 상다리가 부서지게 흘리민 혼쪽에선 주둥이 나오곡 혼쪽에서 눈이 흘긱흘긱하고 부에 나곡 부모가 마음 편안할 리가 있어. 제난 자기 마음에 달린 거. 잘 흘리젠도 말곡 그자 ‘우리 어머니 제스로구나.’ ‘아버지 제스로구나.’ 기자 있는 대로 경헤여도 부모는 ‘아이고, 고맙다, 착허다.’ 영 허주. 요새 제사허는 거 보민 제삿날 앓앙 ‘제사 하겠네, 안 하겠네, 제사도 설러부러시민 좋켜.’ 영 허여가민. 우리 듣는 사람이 속 아프민 귀신도 마찬가지로.”

제사 때에 매우 잘 차렸다고 귀신이 먹어서 가지 않고. 귀신은 김만 풍풍풍 나는 거나 원미만 썩서 해도 마음 편안하게. 아이고, 이 저녁은 어머니면 어머니, 아버지면 아버지, ‘아이고, 많이 잡썩서 가십시오.’ 해서 마

음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형제간들이어도 앉아도 웃음 웃으면서 술 한 잔이라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면 귀신이 좋아하는 거니까. 잘 차렸다고 잘 먹는 거 아니. 요새에 상다리 부러지게 차리면 한쪽에서 주둥이 나오고 한쪽에서 눈이 흘깃흘깃하고 부아 나고 부모가 마음 편안할 리 있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달린 거. 잘 차리려고도 말고 그저 ‘우리 어머니 제사로구나.’, ‘아버지 제사로구나.’ 그저 있는 대로 그렇게 해도 부모는 ‘아이고, 고맙다, 착하다.’ 이렇게 하지. 요새 제사하는 것 보면 제삿날 앉아서 ‘제사 하겠네, 안 하겠네, 제사도 그만뒀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가면. 우리 듣는 사람이 속 아프면 귀신도 마찬가지야.

안 할머니는 제사는 부모를 생각하고 조상을 생각하는 일이란다. 그래서 많이 차리려 말고 마음으로 ‘오늘은 어머니 제사구나’, ‘오늘은 아버지 제사구나’ 하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성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산 사람이 마음이 불편하면 죽은 사람 역시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다.

“겨난 젊은 사름덜 절대 제사 명질 때에 군소리덜 허지 말앙 छ러 놓아사. 잘 छ러젼 귀신이 먹어가는 거 아니고 그 짐만 췌는 거니까. 요새 젊은 사름덜 초상덜 너무너무 안 모셔. 이 친족덜이라도 옛날은 이제 식게 명질이라도 친족덜이 십춘이고 멧 춘이고 오랑 제사 7치 छ러주고 멧 치와주고 헤신디 이젠 친족도 안 허여. 잔치를 허어나나 식게 허어나민 7찌 오랑 치와주민 주연도 한글허곡 본인덜토 좋곡. 이젠 그런 건 엇어. 사

촌도 놔 보듯, 요즘 세상은 너무 박하여.”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절대 제사 명절 때에 군소리들 하지 말고 차려 놓아야. 잘 차렸다고 귀신이 먹어가는 거 아니고 그 김만 쏘이는 거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 조상들 너무너무 안 모셔. 이 친족들이라도 옛날은 이제 제사 명절이어도 친척들이 십촌이고 몇 촌이고 와서 제사 같이 차려주고 몽땅 치워주고 했는데 이젠 친족도 안 해. 잔치를 해하나 제사 해나면 같이 와서 치워주면 주인도 한가하고 본인들도 좋고. 이젠 그런 거 없어. 사촌도 남 보듯, 요즘 세상은 너무 박해.

안 할머니는 제사와 명절은 조상을 생각하는 것으로 귀찮은 일이 아니라 지켜야 할 예법임을 강조하였다. 예전에는 제사나 잔치 등이 있으면 친족들이 모여들어 서로 도우며 일을 했는데 요즘은 사촌도 남을 보듯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다며 각박한 현실을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삿날 외할아버지한테 배웠던 삶의 교훈 한 자락을 들려주었다.

“젠디 옛날에 나 춤 하르버지안티 배운 건 혼 가지 잊지. 이제 아흔 넘어도 배운 것은 그거 하난 내가 초상안티 배웠는데, 제스를 돌아왔는가 어평가 몰라도 어머니가 방 썰단 비치력으로 뭇사 잘못 헤신디 나를 혼 번 때리난. 어멍이 혼웃이 때려서 경 비비등당힐 거여! 그 비비 비비 울어가 난 하르버지가 어머니한테 욕을 허는데, ‘왜 널모리 제스 돌아오는데 아으

들을 올리느냐’고. ‘으, 초상은 사흘 앞서 울담 베갯디로 오랑 돌아본다.’고. ‘으, 왜 아을 올리느냐.’고. 아, 그게 나이 다 혼긔 뒤엔, 열 술 못헌 때라. 그게 마음이 꺼림뒤엔 시방까지도 제스 돌아와 가민 아이덜ㅋ라 ‘아으덜 올리지 말라.’ 아으덜찌레라도 부뜰락허민 ‘아이고, 줌줍허라. 오늘랑 줌줍허라.’ 경허영 하르버지가 그 말을 곶아난 게 시방까지도 내가 딱 직허여 지는 거 보몬 이녁이 직허영 보몬 그것이 온말 닐아베여.”

그런데 옛날에 나 참 할아버지한테 배운 건 한 가지 있지. 이제 아흔 넘 어도 배운 것은 그거 하나 내가 조상한테 배웠는데, 제사가 돌아왔는가 어떤가 몰라도 어머니가 방 쓸던 빗자루로 뒤이 잘못했는지 나를 한 번 때리니까. 어머니가 한없이 때려서 그렇게 비비등당할 거야! 그 비비 비비 울 어가니까 할아버지가 어머니한테 욕을 하는데, ‘왜 내일모레 제사 돌아오는데 아이들을 올리느냐.’고. ‘으, 조상은 사흘 앞서 울담 바깥으로 와서 돌아본다.’고. ‘으, 왜 아일 올리느냐.’고. 아, 그게 나 다 한끝 되어서, 열 살 못한 때야. 그게 마음에 꺼림되어서 시방까지도 제사 돌아와가면 아이들보고 ‘아이들 올리지 말라.’ 아이들끼리라도 붙음질하면 ‘아이고, 잠잠해라. 오늘은 잠잠해라.’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가 그 말을 말했던 게 시방까지도 내가 딱 지켜지는 거 보면 이녁이 지켜서 보면 그것이 정말 같아베.

안 할머니는 할아버지 가르침이 ‘온말’임을 살면서 터득하였다. ‘제사 때는 조상들이 사흘 앞서부터 집 앞에 온다, 큰소리 내지 말라.’라는 할아버지 말을 가슴에 새겨 가족끼리 큰소리 내지 않고 정성스럽

고 조용하게 제사를 준비하는 게 산자들이 지켜야 할 범절임을 안 할머니는 일깨워주었다.

산짓물에 강 빨레허곡 가락쿿물 질어당 먹고

산짓물과 가락쿿물

제주시 사람들에게 ‘산짓물’과 ‘가락쿿물’은 생명수나 다름없다. 안 할머니도 수도가 생기기 전에는 ‘산짓물’과 ‘가락쿿물’에 의지해서 살았다. ‘산짓물’과 ‘가락쿿물’은 음용수로 사용하는 동시에 온갖 빨랫감을 깨끗하게 해주는 청정수였다. 그래서 아낙들은 새벽에 빨랫감을 지고 산지물로 향하였다. 산지물에서 빨랫방망이로 ‘팡팡’ 두들기며 빨래를 하다보면 빨래도 깨끗하게 빨아지고 살림하며 쌓인 스트레스며 막혔던 가슴도 뻥하니 뚫렸으리라.

“이제는 서답구덕도 필요 없곡. 아무것도 얻어도 옛날은 빨레도 허젠 허민 서답구덕에 문탁 벗어 낱 이부자리, 이불 훌청이나 뒗이든지 허영 빨앙 이제 산짓물에 강 빨앙 집의 오랑 양젯물 사당 숲앙 망데기에 낱 지 어아정 강 그것도 빨앙 오곡. 옛날은 빨레도 막음대로 못헐. 팡 치지허젠 허민 세백이 마녀 돌아강, 놈보단 인척 가노렌 허영 세백이 강 착착 빨레 허당 보민 그 물 조갯디 하르방은 오랑 물 지쳐불고 돌맹이 아정 오랑 물

러레 문 들이쳐볼곡 허민 겁냥. 새벽이 아니 가민 빨래할 사람이 하도 하
노니까 트멍이 었어.”

이제는 빨랫바구니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옛날은 빨래도 하려
고 하면 빨랫바구니에 몽땅 벗어 놓아서 이부자리, 이불 흘청이나 뒤틀이든
지 해서 빨아서 이제 산짓물에 가서 빨아서 집에 와서 양젓물 사다가 삶
아서 ‘망데기’에 넣어서 저가지고 가서 그것도 빨아서 오고. 옛날은 빨래
도 마음대로 못했어. ‘팡’ 차지하려고 하면 새벽에 먼저 달려가서, 남보다
일찍 가노라고 해서 새벽에 가서 착착 빨래하다 보면 그 물 곁의 할아버
지는 와서 물 끼얹어버리고 돌멩이 가져와서 물로 몽땅 집어넣어버리고
하면 겁나서. 새벽에 아니 가면 빨래할 사람이 하도 많아놓으니까 틈이
없어.

산짓물은 천혜의 빨래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시 안에 사람들은
은 이불 따위의 큰 빨래가 있을 때는 빨랫바구니에 빨랫감을 담고
새벽녘에 ‘산짓물’로 향하였다. 새벽에 빨래터에 가서 빨랫방망이로
착착 두들기며 빨래를 하다보면 산짓물 인근에 사는 할아버지들이
새벽잠을 깨웠다며 나와서 빨래하는 것을 방해하기 일쑤였다. 새벽
잠이 깨버린 할아버지들은 빨래터에 와서는 물도 끼얹고 돌도 집어
넣으며 몽니 아닌 몽니를 부렸다. 빨래터를 찾은 사람들은 겁이 나
기도 했지만 빨래를 멈출 수는 없었다. 지금은 산짓물에서 빨래를 했
던 사람들이나 돌을 집어넣으며 관심(?)을 보냈던 사람들 모두에게

추억의 풍경이 되어 버린 ‘산짓물’ 빨래터는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 버렸다.

제주시 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산짓물’과 함께 ‘가락콧물’도 많이 이용하였다. 특히 ‘가락콧물’은 음용수로 널리 이용했는데, ‘가락콧물’이 터질 때는 사방에 사는 사람들이 다 몰려들었다.

“가락콧물은 아무 때나 터지질 아녀주게. 가락콧물은 일 년에 꼭 혼 번은 터져. 터진 때에는 이던 친정이고 서귀포ن 씨집이엔 허영, 씨집의 갖다 근에 친정에 혼 번 온덴 허영 일 년에 혼 번 그 물이 터지주게. 그 가락콧물 베졌디레 미미허게 터지민 그디서 빨래허젠덜 스뭇 난리주게.”

‘가락콧물’은 아무 때나 터지질 않지. ‘가락콧물’은 일 년에 꼭 한 번은 터져. 터질 때에는 여기는 친정이고 서귀포는 시집이라고 해서, 시집에 갔다가 친정에 한 번 온다고 해서 일 년에 한 번 그 물이 터지지. 그 ‘가락콧물’ 바깥으로 줄줄이 터지면 거기서 빨래하려고들 사뭇 난리지.

장마철이면 ‘가락콧물’에는 내를 따라 큰물이 밀려든다. 그렇게 큰물이 밀려오는 것을 제주에서는 ‘구멍 터졌다’고 한다. 물이 터지면 빨래하기가 좋다. 그래서 장마에 많은 비를 뿌렸다가 날이 개면 너도나도 ‘가락콧물’로 빨래하러 나간다. 이렇게 ‘가락콧물’이 터질 때면 사람들은 ‘시집 서귀포에 갔던 물이 친정으로 돌아온다.’고 비유

해서 말했다. 옛 사람들의 비유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가락콧물’은 빨래보다는 음용수로 많이 활용되었다.

“게난 먹는 거는가락콧물 그 물로 죽장 먹었주게. 가라콧물덜을 많이 짚어당 먹었지. 우리도이 옛날 독, 큰 허벅 열 허벅 더 지는 독에 가라콧물 짚어당. 그 독 정제에 땅 판 묻었주게. 허벅으로 그레 저당 열 허벅이고 멧 허벅이고 그디 저당 그디 팡팡 비왕.”

그러니까 먹는 거는 ‘가라콧물’ 그 물로 줄곧 먹었지. ‘가라콧물’들을 많이 길어다가 먹었지. 우리도 옛날 독, 큰 허벅 열 허벅 더 긴 독에 ‘가라콧물’ 길어다가. 그 독 부엌에 땅 파서 묻었지. 허벅으로 그리로 저다가 열 허벅이고 멧 허벅이고 거기 저다가 거기 팡팡 부어서.

제주는 물이 귀한 섬이다. 그래서 수도가 보급되기 전에는 해안가 용천수를 길어다 먹었는데, 한라산에서 발원한 ‘가라콧물’도 연중 마르지 않은 샘물로 제주시 사람들의 생명수였다.

“이 수도 나오기 전인 가라콧물 안 먹은 사름 엇주게. 수도 나난 우리가 큰씨아지방이 판스가 뉘난이 이 동네에서 우리 집의가 므녀 수도 걸었어. 이거 우리 물은 어스쟁이 물이라. 우리 물은이 으름엔 씨원허곡 겨울엔 미지근헤. 우리 수도 경헤여.”

이 수도 나오기 전에는 ‘가락콧물’ 안 먹은 사람 없지. 수도 나니까 우리가 큰시아주버니가 판사가 되니까 이 동네에서 우리 집에가 먼저 수도를 걸었어. 이거 우리 물은 어승생 물이야. 우리 물은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엔 미지근해. 우리 수도는 그래.

안 할머니네도 가락콧물을 많이 먹었다. 물 길는 일은 여자들의 큰 일 가운데 하나였다. 물은 ‘허벅’에 걸어 ‘물구덕’이라는 바구니에 넣어서 저서 날라다 부엌에 있는 ‘물항’에 넣어두고 썼다. 할머니가 썼던 물항은 아직도 할머니의 부엌을 지키고 있다. 할머니가 사는 ‘안거리’ 부엌 앞에 놓여 있는 ‘물팡’도 옛 여인들이 물을 길던 세월을 증거하는 유산이다. ‘물팡’은 물을 저 나를 때 사용하는 ‘물구덕’을 놓아두는 돌로 만든 대(臺)다. 안 할머니네는 주변 사람들보다 일찍이 수도를 걸어서 물 길는 수고로움을 덜었다고 한다.

‘물항골’ 주변이 질 도회지라

‘물항골’은 안 할머니가 살고 있는 마을이다. 예전에는 골목을 경계로 마을 이름들을 붙였다. ‘물항골’, ‘한짓골’, ‘이웃골’, ‘영도골’, ‘항골’, ‘불망골’ 등이 그 예이다. 할머니가 거주하는 ‘물항골’과 그 이웃하는 마을에선 제주시 안의 세도가들이 많이 살았다.

“이 스방 옛날 막 대목헌 사람 돈 살아난디 이젠 뜯어부난 돈딱 잊어불 언. 이제 연탄 공장덜도 허영 이디서 돈딱 배달허여난 거. 이디서 살림 사는 사람은 벨로 잊어났어. 이디 우리 제주도에선 질 도회지로. 옛날은 이 도나리가 질 큰 디라. 이 알려레도 밋밋 몽땅 뒹덜 허연 살아난 디라.”

이 스방 옛날 막 대목한 사람 몽땅 살았었는데 이젠 뜯어버리니까 몽땅 잊어버렸어. 이제 연탄 공장들도 해서 여기서 몽땅 배달했던 거. 여기서 살림 사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 여기 우리 제주도에서 젤 도회지로 옛날은 이 이웃이 젤 큰 데야. 이 아래로도 밋밋 몽땅 뒹들 해서 살았던 데야.

‘물항골’ 주변에는 대목한 사람, 즉 특정한 사람들이 살았던 곳이다. 할머니 집 주변에는 도립병원, 연탄 공장, 학교, 성당, 인쇄소, 철공소, 여관 등이 있던 도회지였다. 여기에서 연탄 공장은 현재 예술공간 ‘이아’ 맞은편에 있었고 신성학원이 있던 3층 건물에는 인천문화당이 입주해 있다.

“인천문화당이 그 자리가 성당학교 셔난 디라. 그디가 성당학교, 신고 셔난 자리. 그 학골 뜯어부난에 인천문화당 그디 헌 거.”

인천문화당 그 자리가 성당 학교 있던 데야. 거기가 성당 학교, 신고 있던 자리. 그 학교를 뜯어버리니까 인천문화당 거기 한 거.



사진 4. 물항골 골목 사진. 왼쪽 초가가 안 할머니 집이다.(파란색 지붕이 '마깨집'이다.)

안 할머니가 말한 ‘성당학교’는 곧 천주교재단에서 운영하니까 붙은 명칭으로, 신성여중고를 일컫는 이름이다.

“아이고, 흥동안이사 스몫 그디 성당 할 말엇이 꼭 차낫주게. 요즘은 그전 님진 아년 썩이라. 아척 미사덜 보레도 막 얼러뎡기는 게이 옛날 님지 아녀.”

아이고, 흥동안이야 사몫 거기 성당 할 말엇이 꼭 찻엇지. 요즘은 그전 같진 았은 모양이야. 아침 미사들 보러도 마구 얼썩거리는 게 옛날 같지 았아.

중양성당도 보면 예전처럼 사람이 붐비지 않는단다. 성당이 커진 것도 이유겠지만 안 할머니 눈에는 예전처럼 신도들이 꽉 차지 않은 것 같다. 예전에는 아침에 미사 보러 오는 사람이 많았지만 요즘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것이 안 할머니의 생각이다.

동흥인쇄소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 담벼락 붙은 왼쪽 공터는 예전에 동흥인쇄소 자리다.

“이디 이거 뜯어본 집은 활판소 허연 책도 만들고 허단 하르방이 살단 죽어부난 이디 뜯어볼렌 허난 삼 년 전이 이거 뜯어본 거고. 동흥인쇄소 그 하르방 젊은 때부터 허연 늙도록 허연 아들 물려진 아들도 허단 죽어 불었지. 이 담 부튼 디.”

여기 이거 뜯어버린 집은 활판소 해서 책도 만들고 하다가 할아버지가 살다가 죽어버리니까 여기 뜯어버리라고 하니까 삼 년 전에 이거 뜯어버린 거고. 동흥인쇄소 그 할아버지 젊은 때부터 해서 늙도록 해서 아들 물려줘서 아들도 하다가 죽어버렸지. 이 담 붙은 데.

동흥인쇄소 주인은 일본에서 인쇄소에 다니다가 고향 제주에 인쇄소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온 서덕권이다. 서덕권은 일본에

서 돌아와서 ‘사원인쇄소’에 입사하였다. 1937년 ‘사원인쇄소’에는 모두 제주 사람들로 채워졌는데 여기에서 서덕권은 기계를 맡았었다. 훗날 서덕권은 동흥인쇄소를 경영하였고, 아들에게 인쇄소를 물려 주었다. 안 할머니가 활판소라고 한 것은 예전에 인쇄소에서 활자로 짜서 만든 인쇄용 판으로 책 따위를 찍었기 때문이다.

포롱환집과 초깃집

인쇄소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포롱환’을 만들어 팔던 집이고, 그 옆은 ‘초깃집’이었다. ‘초깃집’은 ‘초기’, 즉 표고버섯을 재배했던 사람이 살아서 붙은 이름이다.

“이 골목 기와집 옛날 어린아기들 먹이는 포롱환 멘들멍 풀아난 디. 그 디서가 포롱환 멘들멍 살앗지게. 심죽이엔 헌 할망네 포롱환 허멍 풀안 아으덜 맥언 살앗주. 그때엔 다른 약 쓰지 아녀고 포롱환만 아이덜 맥영 살렸주. 기와집 허영 스뭇 울르멍 살아난 집덜이라.”

이 골목 기와집 옛날 어린아기들 먹이는 포롱환 만들면서 팔았던 데. 거 기서가 포롱환 만들면서 살앗지. 심죽이라고 한 할머니네 포롱환 하면서 팔아서 아이들 먹여서 살앗지. 그때엔 다른 약 쓰지 않고 포롱환만 아이들 먹여서 살렸지. 기와집 해서 사뭇 땅땅거리며 살았던 집들이야.

예전에는 아이들이 아프면 다른 약을 쓰지 않고 포룡환(抱龍丸)으로 구완했다. 포룡환은 아이들의 경기(驚氣)와 신열, 혼수상태 등의 위급한 경우에 많이 사용하는 구급약으로, 오랫동안 소아과 약으로 사용됐던 민족의 약으로 토착화된 환약의 하나이다.

마깨집

옛 제주도립병원 담벼락을 따라 조금 안으로 들어오면 제주특별자치도 도심재생지원센터가 나오는데, 그곳은 ‘마깨 하르방’이 살던 집이다. ‘마깨 하르방’은 ‘마깨’ 즉 ‘방망이’를 만들어 팔던 할아버지가 살던 집이라는 데서 붙은 이름이다.

“이제 요디 들어오는 디 마깨집. 옛날 덩드렁마깨 잇잖아. 그거 멘들멍 풀아난 집이라. 그딘 마깨허곡 솔박 파고. 경허영 솔박 파근에 장에 강 풀곡 마깨 허영 풀곡. 물마깨고 무시거고 문딱 만들영. 계난 마깨 하르방, 마깨 하르방 헤여낫주.”

이제 요기 들어오는 데 ‘마깨집’. 옛날 ‘덩드렁마깨’ 잇잖아. 그거 만들면서 팔았던 집이야. 거긴 방망이하고 ‘솔박’ 파고. 그렇게 해서 ‘솔박’ 파서 장에 가서 팔고 방망이 해서 팔고. 빨랫방망이고 무엇이고 몽땅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깨 하르방’ ‘마깨 하르방’ 했었지.

할머니 집 맞은편에는 교육장과 복제주군수를 지낸 김동익씨가 살던 곳이나 지금은 자취가 없다. 김동익 부부는 할머니에게 ‘베풀며 사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안 할머니는 그들과 50년을 접촉하면서 살아도 그들의 마음이 다를 때가 없었단다. 그들에게 베풀며 사는 법과 겸손함을 배웠다고 하였다.

“옛날 이 알력집이 동익 씨엔 허여근에 도청에 과장으로 있던 어른 마누라가 그렇게 좋아. 남편이 도청에 과장으로도 서나고 학교에 교장으로도 서나고 헤여도이 ‘내가 잘 낫다’ 허고 ‘내가 크다’ 현 생각을 요만이도 아녕 살아난. 우리가 그 어른광 접촉허영 오십 년을 살아도 그때 마음이나 죽어가멍이라도 틀린 일이 없어. 딸 여섯에 아들 셋 이젠 경허연 살단 부부간이 다 죽어불고. 이제 아기덜은 서울덜 간 살암주마는 그 어른넌 뭐이든지 허민 나만 먹젠 안 허고, 그자 ‘오라, 오라 먹으라, 오라 먹으라.’ 그렇게 허연 사는 것만. 우리도 영 허영 보난이 ‘저치록 살아야 헐로구나.’ 계난 남 사는 걸 봐도 ‘아, 저영허영 살아야 헐로구나.’”

옛날 이 아랫집이 동익 씨라고 해서 도청에 과장으로 있던 어른 마누라가 그렇게 좋아. 남편이 도청에 과장으로도 있었고 학교에 교장으로도 있었고 해도 ‘내가 잘 낫다’ 하고 ‘내가 크다’ 한 생각을 요만큼도 않아서 살았어. 우리가 그 어른과 접촉해서 오십 년을 살아도 그때 마음이나 죽어가면서라도 다른 일이 없어. 딸 여섯에 아들 셋 이젠 그렇게 해서 살다가 부부간이 다 죽어버리고. 이제 아기들 서울들 가서 살고 있지만 그 어른

넌 뭐든지 하면 나만 먹으려고 안 하고. 그저 ‘오라, 오라 먹으라, 오라 먹으라.’ 그렇게 해서 사는 것만. 우리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저처럼 살아야 하겠구나.’ 그러니까 남 사는 걸 봐도 ‘아 저렇게 해서 살아야겠구나.’

위 구술은 배움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소소한 것에서 배울 수 있다는 진리를 일깨워주는 일화다.

제주도립병원

안 할머니 집 인근에는 제주도립병원이 있었다. 안 할머니의 기억 속의 도립병원은 폐병 환자들이 최후를 맞는 곳이었다. 예전 사람들에게 폐병은 가장 무서운 병이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폐병 환자는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 않도록 격리 조치를 당했다.

“도립병원이 옛날은 저영 커나서계. 쪼그만허게 허영. 폐병다린 무신 경 함광. 도립병원이엔 허민 큰 병원으로 그디 허영 그 폐병다리덜 그디 허여당 낳. 폐병 걸러텐 허민 그냥 잡질 못헤시난. 폐병 환자 죽으민 그디서 솔곡 경허여난 디난. 안네 이제 큰 나무 있어. 큰 나무 신 디서 폐병덜 들령 허민 사름이나 엇인 사름은 하나씩 그디서 살아불고 그디서 신체덜 놓곡 허단 이젠 설러불곡. 그때는이 폐병엔 허영 막 무서운 걸로 알주게. 폐병 걸러민 집안에서 살면 전염헌덴 허영 도립병원에. 그때 병원을 허여도 훈쪽으로 영 마당거찌 갈라져근에 훈쪽 갈라진 디 문딱 이제 폐병다

리만 혼쪽으로 딱 완장허영 다른 사람은 상대를 안 허주게. 밥이나 날라 다 준 거 뿐이주. 폐병만 그디 낡 내불민 그디서 살명 죽으면 술아불곡 허 여난디. 자꾸 개명뉘명 개명뉘명 뉘허난 허주. 옛날은 형편이 서서게. 폐 병다린 춤 들렀다 허면은 뉘 죽을 걸로 알앙 그런 디레 몰아다청불민.”

도립병원이 옛날은 저렇게 컸었어? 조그마하게 해서. 폐병쟁이는 무슨 그렇게 많은지. 도립병원이라고 하면 큰 병원으로 거기 해서 그 폐병쟁이 들 거기 해다가 놓아서. 폐병 걸렸다고 하면 그냥 잡질 못했으니까. 폐병 환자 죽으면 거기서 사르고 그랬던 데니까. 안에 이제 큰 나무 있어. 큰 나무 있는 데서 폐병들 들려서 하면 사람이나 없는 사람은 하나씩 거기서 살라버리고 거기서 신체들 놓고 하다가 이젠 그만뉘버리고. 그때는 폐병 이라고 해서 매우 무서운 것으로 알지. 폐병 걸리면 집안에서 살면 전염 한다고 해서 도립병원에. 그때 병원을 해도 한쪽으로 이렇게 마당같이 갈라져서 한쪽 갈라진 데 몽땅 폐병쟁이만 한쪽으로 딱 완장해서 다른 사람은 상대를 안 하지. 밥이나 날라다 준 거 뿐이지. 폐병만 거기 놓아서 내버리면 거기서 살면서 죽으면 살라버리고 했었는데. 자꾸 개명되면서 개명 되면서 뉘하니까 하지, 옛날은 형편이 있었어? 폐병쟁이는 참 들렀다 하면 뉘 죽을 걸로 알아서 그런 데로 몰아다쳐버리면.

도립병원은 폐병쟁이들의 죽음을 맞는 곳이었다. 병원 한쪽에선 일반 환자들을 받고 한쪽에선 폐병쟁이들을 수용했다고 한다. 그때는 폐병에 걸리면 죽을 것으로 알았다. 폐병 쟁이가 죽으면 병원 뒤

쪽 나무 있는 곳에서 화장도 시켰다고 한다.

제주도립병원은 이처럼 제주 사람들의 건강과 보건을 책임지는 병원이었다. 1912년 8월 전라남도 제주자혜의원으로서 진료를 개시하여 1927년 3월 전라남도 도립 제주의원으로 이름을 고쳤다. 1946년 8월 제주도로 승격되면서 제주도립병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1964년 4월 제주도립병원 서귀분원을 신설하고, 1976년 1월부터 제주도립 제주병원, 1983년 지방공사 제주도 제주의료원으로 전환하고, 1993년 3월 인턴 수련 병원으로 지정되었다. 1997년 11월 전공의 수련병원, 1999년 5월 응급의료센터, 1999년 7월 제주대 의대 임상십습병원으로 지정되었고, 2001년 10월 교육부(제주대학교)에 매각한 후에 2002년 제주시 아라동에 병원을 신축 개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0년 5월에는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1년 11월 1일 제주의료원을 사들여 개원한 제주대학교병원은 2009년 3월 30일 제주시 아라동으로 신축 이전하기까지 9년 동안 도립병원 자리에서 진료를 하였다. 제주대학교병원은 중앙로에서 아라동으로 병원을 이전하면서 낡은 병원 건물을 비워두었다. 최근에는 건물을 새롭게 고쳐서 한쪽은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로, 다른 한쪽은 문화공간 ‘이아’로 탈바꿈하여 시민들의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쓰고 있다.

도립병원 옆에는 간호원 숙소도 있었다. 현재 중앙신협 자리가 제주도립병원 간호원 숙소였다.

중앙로 나명 사람덜이 혼돈 뉘불언

중앙로 개발

1960년대 후반 제주시 중앙로 개발은 제주 사람들에게 변혁적인 사건이었다. 제주시를 남북으로 관통하는 남문로터리~중앙로 도로 확장 개설은 기존 시가지의 면모를 혁명적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되었고, 사람들에게는 삶의 방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1966년부터 1969년 6월까지 3년간에 걸쳐 이루어진 중앙로 공사로 인하여 제주시 당국은 저축가옥의 보상금액을 놓고 이해관계가 많은 주민들과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 등 파란을 겪기도 했다. 20m 노폭에 650m 길이로 확장하는 이 공사에는 시비 7,300만 원이 투입되었고, 107동의 가옥과 1,510㎡의 저축 토지가 철거 또는 보상됐다.

땅이 수용된 사람들은 중앙로가 개설되면서 조상들의 터전을 떠나 여기저기 흩어져갔다.

“중앙로 나명 이 사람덜이 다 혼돈뉘여부난 어디 어뎡 뉘영 사는 것도 몰르고 싹 갈려부난. 이 동네 살아난 사람 우리 보나건디 혼 이십 년도 더 뉘여. 집덜 문 뜯영 떠나불언. 질 내어가난 이런 집들 밋밋 신 거 뜯으멍. 문 이디 반착씩 그치지멍. 이제도 반착씩 그차진 집덜 사는 사람은 살곡 푸는 사람은 풀아불곡. 우린 항골에 살아도 우리 살아난 딘 이제 살았어. 그디덜은 집 살고 중앙로 가까운 디 집덜은 기냥 아주 엇어불었고. 엇어

부난 어디덜 터덜 주난 저레 막 나가불곡. 이 동네는 그자 사는데로 살아 불곡.”

중앙로 나면서 이 사람들이 다 혼돈되어버리니까 어디 어떻게 되어서 사는 것도 모르고 싹 갈려버리니까. 이 동네 살았던 사람 우리 봐본지가 한 이십 년도 더 돼. 집들 몽땅 뜯어서 떠나버렸어. 길 내어가니까 이런 집들 밋밋 있는 거 뜯으면서. 몽땅 여기 반쪽씩 잘라지며. 이제도 반쪽씩 잘라진 집어들 사는 사람은 살고 파는 사람은 팔아버리고. 우린 항골에 살아도 우리 살았던 덴 이제 살았어. 거기들은 집 살고 중앙로 가까운 데 집들은 그냥 아주 없어버렸고. 없어버리니까 어디들 터들 주니까 저리로 마구 나가버리고. 이 동네는 그저 사는데로 살아버리고.

새 길을 만들면서 집이 모두 헐린 사람들도 생기고, 반쪽만 헐린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중앙로는 개설되었다.

안 할머니는 중앙로가 개설되면서 혼란이 왔다고 한다. 집이 수용된 사람은 떠나고 집이 살아난 사람들도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경우도 많았다. ‘물항골’ 사람들은 집이 수용되지 않아 오래도록 살았다. 즉 ‘물항골’은 세도가들이 살아서 그런지 옛 터전을 오래도록 지켰다. 남문로 길을 놔두고 중앙로를 새롭게 낸 것도 당시 ‘물항골’과 ‘한짓골’ 등지에 막강한 권력자들이 살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기억 속의 중앙로

안 할머니에게 중앙로는 삶의 현장이었다. 소금집, 박약국, 불미집, ‘숫하르방네’, 김복실 산파, 우물통, 두붓집, 제주여관, 양 판사네 집, 예배당, 금원철공소 등등이 안 할머니가 기억하는 장소다. 이들 공간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물항골’ 인근의 ‘한짓골’, ‘항골’, 중앙로 등지를 무대로, 할머니의 생활 무대와 함께하였다.

소금집에선 관덕정 오일장이 설 때면 학교 가기 전에 아들이 소금을 저다주면 어머니는 장에 앉아 소금을 팔았다. 사람들은 숫 파는 가게에서 숫을 사다가 화로에 넣어서 불을 살랐다. ‘불미칩’은 밭일을 하는 사람들이 호미나 낫이 무디면 버리러 갔던 장소다.

“요디 소금칩은 그디 어머니는 아덜이 학교에 가기 전에 소곰 저당 관덕청 마당에 놔뵈 학교에 가민 어멍은 관덕청 마당에서덜 앓앙덜 소곰 풀곡 하간 거 풀아낫주께.”

요기 소금집은 거기 어머니는 아덜이 학교에 가기 전에 소곰 저다가 관덕정 마당에 놔뵈서 학교에 가면 어머니는 관덕정 마당에서 앓아서들 소금 팔고 온갓 거 팔았었지.

“그 옛날은 방에 불살랏주께. 옛날은 굴묵 집언 살앗지 안 헛어께. 굴묵 집으난 낫인 추우민 정동화리 신 사름은 정동화리에 불살랑 그 숫을 허영

허곡. 반찬이라도 간데기서 허젠 허민 숯 서사 허곡. 경허른 저 무신 포세 끼 요만인 헌 걸로 허영 숯 사단. 그 숯하르방네 그 집은 나무도 스뭇 숲 으멍 짓언. 이제 그 큰손지 각시 살암실 거라.”

그 옛날은 방에 불살랐지. 옛날은 아궁이 때면서 살았지 안 했는가. 아궁이 때니까 낮에는 추우면 청동화로 있는 사람은 청동화로에 불살라서 그 숯을 해서 하고. 반찬이라도 풍로에서 하려고 하면 숯 있어야 하고. 그러면 저 무슨 보자기 요만큼 한 걸로 해서 숯 사다가. 그 숯 할아버지네 그 집은 나무도 사뭇 삶으면서 지었어. 이제 그 큰손자 각시 살고 있을 거야.

숯은 화로에 불을 댈 때도 썼지만 소소한 반찬을 하는 풍로를 사용할 때도 이용하였다. 그래서 ‘숯하르방네’ 집은 안 할머니네 주변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던 장소다.

‘불미칩’에서는 호미와 낫을 버렸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중앙로에서도 농사짓는 사람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불미칩(대장간)’에는 호미와 낫을 버리려는 사람들이 들락거렸다. 중앙로가 나면서 ‘불미칩’은 수용되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져갔다.

“불미칩에선 호미, 굴쟁이 그런 것덜 영. 이젠 검질메여낭 호미나 굴쟁이나 막 몽글민 가근에 그거 베리영 그거 허어나난 불미칩. 하르방 젊은 때부떠 늙도록 헛지. 중앙로 질 나멍 불미 하르방네 집도 들어가불고.”

대장간에선 낫, 호미 그런 것들 이렇게. 이젠 김매어나서 낫이나 호미나 마구 몽툽하면 가서 그거 버려서 그거 했었으니까 대장간. 할아버지 젊은 때부터 늙도록 했지. 중앙로 길 나면서 풀무 할아버지네 집도 들어가버리고.

관덕정은 조선 말 보부상의 상거래 장소로 이용되었다. 1905년에 오일장이 개설되었다가 1930년대에 건입동으로 오일장을 옮겼다가 1960년대 관덕정으로 오일장이 다시 옮겨왔다. 소금집 주인이 관덕정 오일장에다 소금을 내다 판 것은 1960년대의 오일장을 말한다. 소금집은 안 할머니 집에서 바로 나와 오른쪽으로 보이는 공터 오른쪽에 있었다. 그곳에는 훗날 ‘가보자아이스케키 공장’이 들어서 있었고, 왼쪽에는 제일호텔이 있었던 자리다. 훗날 제일호텔은 제주여관으로 바뀌었는데 지금은 건물 자체가 헐려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가보자아이스케키가 제주시에서 젤 큰 아이스케키 공장이었주게. 그 옆은 제주여관. 처음 지을 때는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호텔이라고 해서 제일호텔이라고 했는데 큰 건물덜이 나오면서 호텔 명맥이 유지되지 않으니까 여관으로 바꾸자고 해서 제주여관으로 바꿨다고 해.”

가보자아이스케이프가 제주시에서 젤 큰 아이스케이프 공장이었지. 그 옆은 제주여관. 처음 지을 때는 제주도에서 제일 높은 호텔이라고 해서 제일호텔이라고 했는데 큰 건물들이 나오면서 호텔 명맥이 유지되지

앞으니까 여관으로 바꾸자고 해서 제주여관으로 바꿨다고 해.

박 할머니의 아들 박윤수 씨의 부연 설명이다.

말 흔곡지라도 놈 가심 아프게 말아사

안 할머니는 격랑의 세월을 살면서 고생을 생활처럼 껴안고 살았다. 그럼에도 안 할머니는 불평보다는 자족하면서 자신의 삶을 꾸려왔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지런히 노력하며 살았다. 그러다 보니 안 할머니는 행복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음을 일찍이 터득하였다.

안 할머니는 독실한 불교 신도다. 부처님을 의지해 안분자족하며 사는 안 할머니에게선 태생부터 불교와 인연이 깊음을 만나면서 알 수 있었다.

“안봉려관 시님이 화북서 절간은 허엿는디, 그때도 절간허는 걸 그렇게 싫어허는 사름덜은 막 헤여낫거든. 화북서 절간을 허연 법당을 시난 화북 청년덜이 막 부러로 드야지고기 허영 그 절간에 강 돌아매불곡. 나 뿐 짓들을 경 하도 허난 산천당에 절이 잇이난 그디 갔어. 그디 간에 안봉려관이 살단 그 절이 스삼사건 때에 테와부난 이제 저 관음사로 간. 관음사서 잘 허여낫어.”

안봉려관 스님이 화북에서 절간을 했는데, 그때도 절간하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은 마구 했었거든. 화북에서 절간을 해서 법당이 있으니 까 화북 청년들이 마구 부러로 돼지고기 해서 그 절간에 가서 매달아버리고. 나쁜 짓들을 그렇게 하도 하니까 산천단에 절이 있으니까 거기 갔어. 거기 가서 안봉려관이 살던 그 절이 사삼사건 때에 태워버리니까 이제 저 관음사로 갔어. 관음사서 잘 해놓았어.

근대 제주불교의 중흥조 안봉려관 스님과 한 집안인 안 할머니는 불교를 의지하며 평생을 살아왔다.

안봉려관 스님이 제주불교 재건을 위해 관음사 창건 등 수많은 불사를 하기까지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유교 사상이 짙었던 시절에 사찰을 운영하는 것은 유림들에게는 ‘타도(?)’의 대상이었고, 수모의 대상이었다. 안봉려관 스님은 동네 사람들에게 수모를 당하자 제주 시 아라동 산천단 인근으로 절을 옮겼다. 이마저도 제주4·3사건 때 불에 타버렸다. 이후 관음사 해월굴로 옮겨 정진한 안봉려관 스님은 1908년 근대 제주불교의 시초인 관음사를 창건하는 등 제주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인물이다.

안 할머니의 큰딸 박순 씨가 옆에서 어머니 말을 거든다. 안봉려관 스님이 딸로 태어나서 안 할머니의 할아버지가 안봉려관 스님 집으로 양자로 들었다는 것이다.

“안봉려관 스님이 아들로 낫다면 우리 하르버지가 저기 양을 안 갖덴 헛잖아. 옛날부터 이제 그 옛날 할아버지가 안봉려관 스님네 아들이 옛이 난 양을 갖덴 허는 거 다향게.”

안봉려관 스님이 아들로 태어났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양자를 안 갖다고 했잖아. 옛날부터 이제 그 옛날 할아버지가 안봉려관 스님네 아들이 없으니까 양자를 갖다고 하는 거 같던데.

안 할머니는 이를 확인이라도 해주듯 할머니 어머니네는 관음사에 다녔었다고 덧붙였다. 어렸을 때 관음사에서 가져온 떡을 먹었던 기억을 떠올렸다.

“우리 어머니넨 관암술 땡겨낫주. 그 옛날에. 옛날은 땡겨젠 헛자 일 년 이면 한번씩. 어린 때에 보든 절간에 간 오고렌 혜영 일 년에 한번 떡을 혜 영 아정은 걸 먹어난 도렌 잇주기. 관음사??진 우린 가보진 못헛주만은. 우린 삼양 원당사에 땡겨.”

우리 어머니넨 관음사를 다녔었지. 그 옛날. 옛날은 다녔다고 헛자 일 년이면 한번씩. 어린 때에 보면 절간에 가왔다고 해서 일 년에 한번 떡을 해서 가져온 걸 먹었던 적은 있지. 관음사까진 우린 가보진 못헛지만. 우 린 삼양 원당사에 다녀.

관음사에 인연이 있지만 안 할머니는 관음사에 가보지 못했다고 한다. 안 할머니는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원당사에 다니는데, 지금도 노구를 이끌고 절에 다닌다. 독실한 불교 신도답게 할머니 집에서는 쉽게 부처님과 경전을 만날 수 있다. 혼자 있을 때는 천수경을 틀어 놓고 생활할 정도로 할머니는 불교에 심취해 있다.

“부처님 딱 하나만 집중하면 더 좋은 거세기 어디 있어? 다 선도 ㄱ
르쳐 주고 양심도 ㄱ르쳐 주고 마음도 ㄱ르쳐 주곡.”

부처님 딱 하나만 집중하면 더 좋은 거시기가 어디 있어? 다 선(善)도
가르쳐 주고 양심도 가르쳐 주고 마음도 가르쳐 주고.

부처님의 말씀처럼 생활하니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안 할머니. 요즘은 “나라에서덜 돈덜 해주난 펜안허게 살암서.(나라에서 돈들 해주니까 편안하게 살고 있다.)”라는 안 할머니가 백 년 가까이 살면서 터득한 인생철학은 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지 않는 것이다.

“사는 게 뭐라. 내가 지곡, 말 혼곡지라도 놈안티 가슴 아프게 허지 말
문 뉘는 거라.”

사는 게 뭐야. 내가 지고, 말 한마디라도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지 말면

되는 거야.

안 할머니를 만나면서 필자가 얻은 깨달음은 모든 일은 마음먹기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나의 행복도, 나의 불행도 다 나의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짐을 느낄 수 있었다. 안 할머니의 말 한 마디, 한 마디가 가슴속을 파고들고 귓가에 맴돌았다.

에필로그_더 많은 기록을 위하여

할머니의 기억 속의 장면들은 이제 사라진 역사가 되었다. 역사의 중심이었던 중앙로도 이제 새로운 도시 개발로 인하여 생기를 잃고 있다. 제주도에서 원도심을 살리려는 ‘도심 재생 사업’을 활발히 펴는 것도 옛 사람들의 삶의 무대였던 공간들을 잊지 않고 지켜내겠다는 다짐이 아닐까.

공간이 사라지고, 그 공간을 지켰던 사람들이 사라지는 것은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역사도 함께 묻혀버리고 만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진 5. 안순생 할머니 가족사진

그러기 때문에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경험과 기억 등을 더 많이 불러 내어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과 공간이 사라지기 전에, 기록이라도 해 두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안 할머니를 만나면서 나는 어머니는 절대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 비움의 철학, 자족하는 마음을 배웠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견지해야 할 자세다.

붙임

이 글을 쓰기 위하여 글쓴이는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안 할머니를 만났다. 세 번은 할머니가 살아온 삶의 내력을 채록하였고, 한 번은 정리된 원고를 가지고 내용 확인차 만났다.

할머니가 구술해 준 녹음 자료는 전사를 한 후에 원고로 활용하였다. 이 글에서는 할머니의 생생한 육성 자료를 최대한으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 당시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관련 자료도 보탬고, 글쓴이의 생각도 덧붙였다.

할머니를 만날 때는 큰딸인 박순 씨나 아들 박윤수 씨가 자리를 함께하였다. 아흔다섯 고령의 나이에 오래된 기억들을 끄집어내어 구술하시는 게 힘들셨을 텐데 불평 한마디 없이 구술해 주신 안순생 할머니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무근성 꽃집 이모, 양정숙 할머니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무근성 꽃집 이모, 양정숙 할머니

프롤로그_무근성 가는 길

여덟 살 때, 옆집에 살던 소꿉친구가 무근성으로 이사를 갔다. 그 때까지 동네 앞 한길을 건너 본 적 없던 나는 친구를 보고 싶은 생각에 무작정 그곳으로 걸었다. 차를 살피며 한길을 건너고 오른쪽 서문 다리 끝에서 바닷가를 향해 왼쪽으로 계속 들어가면 친구 집이 있다고 했다. 그러나 어린 마음에 금방 찾을 수 있을 것 같던 친구 집은 좁은 골목이 많은 그곳에서 쉽게

사진 1. 양정숙 어르신

찾을 수 없었다. 문패 없는 집이 많았고, 간혹 있어도 한자가 대부분이라 읽을 수가 없었다. 할 수 없이 친구 만나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서는데,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돌아보니 바로 그 친구였다. 친구는 손에 든 검은 비닐봉지를 흔들며 바다에 놀러갈 참이라고 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손을 잡고 커다란 먹돌 틈새로 파도가 드나드는 버렁이깎으로 내려갔다. 그때까지 바다에 가 본 적이 없던 나는 친구가 갯바위를 들추며 잡는 물도새기와 보말이 신기하기만 했다. 한참 갯가의 돌을 들추던 친구가 돌멩이로 껍질을 깨고 꺼낸 하얀 덩어리를 굴이라며 내밀었다. 입안에 넣자 짠맛이 퍼지면서 비릿한 바다 냄새가 입안 전체에 퍼졌다. 태어나 처음 먹는 맛이였다. 그날 친구와 바닷가 놀이에 흠뻑 빠져 어스름해져서야 집으로 갔고, 부모님께 꾸지람을 듣고 난 뒤 다시는 그곳에 가지 못했다.

처음 무근성에 대한 이야기를 채록할 거란 말을 들었을 때, 그 친구 얼굴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너무 오랜 시간이 흘러 이름도 잊어버리고 한 살 위 남자아이였다는 것만 기억날 뿐인데 웬지 무근성에 살았던 어르신을 만나러 가는 길이 친구 집에 놀러 가는 기분이었다.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동안 다른 일로 여러 차례 무근성을 방문할 때는 한 번도 떠오르지 않던 친구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무근성이란 말을 들었을 때부터 갑자기 그 친구가 생각났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선명한 버렁이깎의 먹돌과 푸른 물결위에서 반짝반짝 빛나던 햇살. 아마 그 시절의 이야기를 들을 거란 기대감이 친구에 대한 기억을 불러온 모양이었다.

사진 2. 현재의 무근성(장공장 골목)

그래서인지 몰라도 김수열 시인의 어머니이신 양정숙 할머니를 만나는 길이 설레고 즐거웠다. 할머니와 마주하면 삭막한 콘크리트로 매몰된 탑동 인근의 무근성이 아니라 푸른 물결이 일렁이고 아이들이 환한 햇살처럼 파도 위로 뛰어 내리던 무근성을 만날 수 있었다. 제주에서 나고 자라 제주를 노래하는 시인을 키워낸 자혜롭고 옹골찬 제주 어머니의 삶을 들을 수 있었다.

전쟁을 이긴 성장통

이쿠노구에서 부르는 아리랑

양정숙 할머니는 1929년 12월 25일 제주도 한경면 조수리에서 태어났다. 출생신고를 늦게 해서 호적에는 1933년생으로 올라가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 여든다섯이다. 육남매 중 첫째 딸이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님 등에 업혀 일본 오사카 이쿠노구로 이주했다. 그곳에서 할머니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부모님은 안경알을 세공하는 가내 공장을 운영했다. 공장 운영이 제법 잘 돼 끼니 굶을 걱정은 없었다. 할머니는 또래보다 키가 크고 얼굴이 유난히 희어 어딜 가나 주목을 받았다. 공부를 잘해 반에서 일등을 놓치지 않았고 소학교를 지나 고등과 2년을 졸업하는 때까지 절반장을 벗지 않았다.

“일본어를 워낙 잘하고 셈이 빨라서 어딜 가나 일본 사람으로 알아봤어. 내가 조선 사람이라고 하면 다들 깜짝 놀랐지.”

어린 시절부터 능숙한 일본어 덕에 동네 어르신이나 동무들이 시내로 외출할 때면 할머니를 찾았다. 그러면 할머니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일본말과 글이 서툰 그들 대신 장사꾼과 흥정을 하고, 관공서 서류를 작성했다. 다들 고향을 떠나 타국에서 궁핍하게 사는 처지니 이웃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다.

할머니가 소학교를 졸업할 무렵,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면

서 일본의 상황이 나빠졌다.

“1944년 말부터 공습이 잦아졌어. 밤중에 사이렌이 울리면 집안의 불을 다 끄고 이불을 뒤집어쓰거나 가까운 방공호로 얼른 달려가야 했어. 보통 서너 시간 울렸는데, 긴 경우엔 밤을 꼬박 새우고 새벽까지 이어지기도 했지. 1945년 3월 13일에는 밤새 비행기 소리가 끊이지 않고 동네 건물이 와르르 흔들릴 정도로 공습이 심했어. 아침에 밖을 내다보니 오사카 시내 쪽에서 검은 연기가 팡팡 피어오르고, 심하게 그을린 냄새가 이쿠노구까지 풍겨왔지. 얼마나 무섭고 끔찍했는지 오사카에 폭탄이 떨어진 그 날짜를 아직도 또렷이 기억해.”

오사카 공습은 연합군의 일본 공습 중 가장 큰 폭격으로 공중에서 뿌린 1733톤의 소이탄 때문에 오사카 시민 4천 명이 죽고, 8천 명이 부상당하고 500명 이상이 행방불명되었다. 현장은 집이며 사람 타는 냄새로 아비규환이었다. 오사카 시내에 사는 고향 사람은 다 죽었다. 언제 어디서 폭탄이 떨어질지 모르는 공습은 같은 해 8월 히로시마와

사진 3. 일본에서 찍은 사진(열일곱 살 때)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질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마침내 8월 15일 정오, 일본천황이 연합국에게 항복하면서 긴 대동아 전쟁이 막을 내렸다.

할머니는 해방되자 더 이상 일본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았다. 열여덟 해를 산 일본이지만 해방되었으니 한국으로 가야 한다고 부모님을 설득했다. 마음 한구석이 뭐에 눌린 듯 무거웠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면 참 당돌하지. 나이도 어린 것이 한국 사람은 한국에서 살아야 한다고 바득바득 우겼으니 말이야. 부모님은 결국 내 성화에 못이겨 18년 동안 쌓아 올린 공장 사업을 정리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건너지 못한 해협

제주로 가는 길은 출발부터 쉽지 않았다. 지금은 비행기로 한 시간이면 가지만 그때는 제주와 일본을 연결하는 군대환 운항이 중단된 상태였다. 시모노세키 항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거기에서 대전을 거쳐 목포에 가서 제주로 향하는 배를 타야했다. 이를 넘게 걸리는 여정이 녹록치 않았지만 고향에 가는 설렘에 비할 바는 아니었다. 할머니는 선실에 눕지도 못하고 갑판에 서서 뱃전에 부딪히는 파도를 보며 처음 볼 고향을 떠올렸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18년 만에 돌아온 제주는 낯설고 황폐했다. 제주항에서 두시간 트럭을 타고 도착한 고향마을이란 곳은 흙먼지 일

렁이는 발담 사이로 추레한 초가집 몇 채가 보일 뿐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할머니 고향 조수는 시외버스 정류장이 있는 한림에서 한 시간을 걸어 들어가야 하는 외진 촌이었다. 게다가 해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엔 일제 수탈의 흔적과 전쟁이 남긴 생채기가 곳곳에 남아 있었다.

“협재 앞바다에 군함이 하나 침몰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못 썼지. 나중에 해남들이 군함에 들어가 문을 열었더니 그 안에서 유골들이 우르르 떨어졌대. 얼마나 끔찍하고 기가 막힌 광경이었는지 유골을 발견한 사람은 그 후유증으로 앓다가 죽었어. 그것 말고도 일본군이 주둔했던 흔적이 여겨지기 남아 있었지.”

모든 것이 막막했다. 일제치하에서 갖은 수탈에 시달려 황량해진 그곳에는 열여덟 살의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결국 고향에 돌아온 지 육 개월도 되지 않아 다시 일본으로 가야겠다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여비 대신 일본말을 전혀 못 하는 선주를 도와서 밀항자들을 안내해주기로 하고 밀항선에 올랐다.

밀항선이라고 해봤자 조그만 어선이었다. 네 명이 정원인 좁은 어선에 열세 명이 끼어 뒀다. 선실 한쪽을 천으로 둘러막은 곳에서 옷을 갈아입고 용변을 봤다. 옆 사람이 구토한 냄새와 요강에서 올라오는 지린내가 범벅된 곳에서 하루 한 끼 마른밥을 씹어 삼키며 견뎠다. 멀미가 심해도 경비정에 걸릴까 갑판으로 나갈 수도 없었다.

그저 좁은 선실의 어둠 속에 숨어 빨리 일본에 도착하기만을 기도했다.

그렇게 여러 밤낮이 흘러 배 밑창이 미친 듯이 흔들려도 더 이상 토할 기력조차 없을 무렵 드디어 배가 멈추는 기미가 느껴졌다. 바깥으로 나오라는 선주의 손짓에 따라 나가니 익숙한 섬이 하나 보였다. 어두운 선실에 있느라 침침해진 눈을 비비며 할머니는 선주에게 물었다.

“일본에 도착했수과?”

선주는 고개를 저었다.

“비양도우다.”

선주는 일기가 너무 나쁘고 감시가 엄중해 도저히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했다고 했다. 할머니는 어쩔 수 없이 배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워 잘 떨어지지 않았다.

낮에는 군경이, 밤에는 산사람이

집에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난리가 터졌다. 매일 경찰과 군인이 폭도를 잡는다며 집 구석구석을 수색했고, 군경이 사라진 밤에는 산사람들이 내려와 먹을 것을 구걸했다. 한 동리에서 니 편 내 편으로 갈라져 한편이 아닌 사람은 목숨을 잃었다. 일본에서 십수 년을 살다 돌아온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어느 날 할머니 집에도 경찰이 찾아왔다. 산사람과 내통한 누군가

가 할머니와 친구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경찰서로 끌려가 조사를 받았다.

“그저 이름자나 쓸 줄 아는 사람이라서 이름을 댄 모양이라. 조사해봤자 특별히 나올 게 없으니 풀려나긴 했는데. 무조건 욕박지르고 매질하러는 경찰 때문에 한참 악몽을 꾸었어.”

비록 그날은 경찰서에서 별 탈 없이 석방됐지만 또 언제 붙들려가 수난을 겪을지 몰랐다. 갑자기 소리 소문 없이 끌려가 시체로 돌아오는 일이 빈번한 시절이었다. 군경에서 시키는 대로 해안가에 있는 판포로 소개를 내려와서도 불안감은 여전했다. 이대로 제주에 있으면 큰 변을 당할 것 같은 생각에 할머니는 짐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다.

서울의 상황도 좋지 않았다. 해방되면 기쁘고 행복한 일만 생길 줄 알았는데, 정부는 정부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불안하기 짝이 없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김구 선생이 운명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는 순간,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김구 선생이 누구인가? 첫째 소원도 조선의 독립이고, 나머지 소원도 조선의 독립뿐이라던, 그야말로 일제식민지에서 대한민국이 벗어나길 누구보다 학수고대하던 지도자라고 하지 않았던가.’

할머니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1949년 7월 5일 김구 선생을 보내는 국민장에 갔다. 멀리서 선생이 누워 있는 관을 보는 데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멀어지는 관 뒤로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자꾸 가

숨을 서늘하게 해 운구행렬이 지난 뒤에도 한참동안 발걸음을 땔 수 없었다.

전쟁 뒤 피어난 사랑

김구 선생이 떠나고 일 년쯤 됐을 무렵, 북한이 일요일 새벽을 틈타 남침을 감행했다. 남침 소식이 알려진 지 며칠 되지 않아 서울 거리에 누런 군복을 입은 인민군들이 소총을 메고 돌아다녔다. 멀리서 누런 군복이 보이면 할머니는 하던 일을 멈추고 후다닥 방안에 들어가 몸을 숨겼다. 거리에서 낯선 북한말씨가 들리면 서둘러 불을 끄고 숨을 죽였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머지않은 곳에서 콩알

볶듯 요란스레 울리는 총소리를 듣지 않으려 애썼다.

할머니에게는 잊을 수 없는 끔찍한 시간의 연속이었다. 일본에서 대동아전쟁을 겪고 제주로 돌아가니 난데없는 4·3이 터지고 그걸 피해 서울로 오니 이번엔 북한군이 쳐들어 왔다.

“가만 보면 내 인생은 한국의 역사야. 일본의 태평양 전쟁을 겪고 나서

사진 4. 남편 군시절

한국에 돌아오니까 고향에서 4·3사건이 터지고, 그거 피해서 서울로 가니까 6·25가 터진 거라. 그냥 전쟁만전쟁만 따라다닌 거라.”

지금도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진저리를 쳤다. 그렇게 전쟁이 한창인 서울에서 인민군과 불편한 생활을 하다 1월 4일 걸어서 철길을 따라 얼음 언 한강을 지났다. 영등포에서 남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려 했지만 차를 못 구해 철길을 따라 인천으로 내려갔다. 어렵사리 인천에서 피난 내려온 가족을 만나 그 사람 배로 목포까지 갈 수 있었다.

“부산에 있는 동광 중 고등학교 서무과에서 일을 하며 혼자 9년을 살았어. 그때 나이가 있어서 주변에서 주선이 여러 번 들어와도 다 거절했는데,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만난 게 애들 아버지야.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통역장교였지. 처음에 봤을 때 키가 흰칠하고 인자해 보이는 인상이 나쁜 사람 같지 않았어.”

친한 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주선한 이는 한림이 고향인 김중현 씨였다. 혼자 사는 동안 여러 사람이 만나자고 선을 댔지만 모두 거절했던 할머니는 워낙 괜찮은 사람이라 칭찬이 자자해 얼굴이나 한번 볼 요량으로 김중현씨를 만났다.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부터 군인답지 않게 부드러운 말씨와 단정한 외모, 무엇보다 할머니에게 적극적으로 애정을 표하는 모습이 싫지 않았다. 만날수록 이 사람이면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는 김중현 씨의



사진 5. 둘째 아들 유치원 사진

청혼을 받아들여 간소하게 식을 올리고, 진해 육군부대 근처에 신접 살림을 꾸렸다.

소중한 내 아이들

결혼하고 수재, 수열, 경화 삼 남매를 낳도록 부산과 진해, 강원도를 오가며 생활했다. 당시 군인 봉급은 장교라 해도 고작 720원이었다. 남들은 군부대에서 쌀, 커피, 옷, 피혁제품을 들고 와 살림에 보태는데 남편은 절대 그러는 법이 없었다. 오히려 집에 특별한 게 들어오면 들고 나가 군부대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우리도 가진 게 없는

데 왜 저러나 싶으면서도 할머니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싫지 않았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다. 남의 것을 탐내지 않고 제 것을 나누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아버지를 믿고 따랐다. 휴일이면 남편은 아이들을 지프차에 태워 자신이 근무하는 군부대로 데려갔다. 그곳에서 미국식 스테이크를 사 주고 미군 부대를 구경 시켰다. 아이들은 넓은 미군 부대 시설에 놀라워하며 등치 큰 미군 앞에서도 전혀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하게 대하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다. 그 덕분인지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헌옷을 기워 입고 찬이 별로 없는 식사를 해도 건강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었다. 할머니는 그 모든 게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분 같아 늘 감사했다.

“내가 사람 복은 있는 모양이라. 다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수재가 네 살 때 홍역에 걸렸는데 수열이까지 같이 걸리는 바람에 혼난 적이 있었거든. 지금은 홍역이 별로 큰 병이 아니어도 그땐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이었어. 특별한 처방약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그냥 크게 아프지 않고 지나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

하루는 수재 얼굴에 빨갱게 열꽃이 피니까 수열이가 그때 두 살밖에 되지 않아서 되도 않는 발음으로 ‘형 얼굴에 뭐 붙었다, 떼어줄까’ 하면서 지형 얼굴에 있는 딱지를 떼려고 하는 거라. 딱지를 억지로 떼면 흉터가 남는다는 걸 들어서 난 하지 말라고 말렸지. 그걸 본 앞집 군의관이 약을 지어 주면서 사이다를 먹으면 열이 좀 빨리 떨어질 거라고 말해줬어. 그래서 군의관이 준 약과 함께 사이다를 먹었더니 신통하게도 열이 내리면서

수월해졌어. 덕분에 홍역이 얼굴에 흉터 하나 남기지 않고 곱게 지나갔지.
참 고마운 일이야.”

하지만 직업군인의 삶이란 언제 어디로 옮겨야 할지 모르는 것이었다. 이웃과 친해질 만하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다. 진해, 부산, 서울, 먼 강원도까지. 할머니는 안 가본 곳이 없었다. 거기다 시댁까지 제주도니 집안에 일이 생기면 온 가족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왕래했다. 그러다 보니 한번은 아들을 잃어버리는 일까지 생겼다.

김수열을 찾습니다!

제주에 내려갔다 부산 영도다리 근처에 사는 사촌 집에 들를 때였다. 잘 따라오는 줄 알았던 수열이가 갑자기 보이지 않았다. 뒤에 처졌나 싶어 황급히 뛰어 가봤는데 아이가 없었다. 아이를 잃어버렸구나 싶어 남편은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할머니는 울며 집 근처를 살살이 뒤졌다. 동네가 떠나려가도록 아이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다. 할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소리내 울었다. 낯선 타지에서 겨우 네 살짜리 아이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어 속이 터질 것 같았다.

그때 먼데서 “김수열을 찾습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남편이었다. 남편이 군에서 빌린 지프차를 타고 인근을 돌며 확성기로 방송을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기운을 내 차가 못

들어가는 골목 사이를 돌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 그런 할머니를 지나던 나이 지긋한 사람이 불러 세웠다.

“아지매요, 혹시 아 잃어버린 거?”

할머니는 목이 메여 말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이 지긋한 부산 사람은 할머니에게 몇 블록 앞에 있는 구멍가게로 가 보라고 했다. 가게 주인이 울며 걸어가는 아이를 붙들어 돌보고 있다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서둘러 그곳으로 달려갔다. 부산 사람이 가르쳐 준 구멍가게 앞에 다다르자 남편의 팔에 안긴 수월이가 보였다. 정신없이 달려가 아이를 안으니 가게 주인이 사정을 설명했다. 울며 지나가는 아이를 불러 왜 우냐고 물었더니 길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과자를 먹이며 붙잡았는데 아이가 방송으로 나오는 제 이름을 듣고 아빠라고 했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 함께 있던 동네 사람이 뛰어나가 지나가는 차를 불러 세웠고, 아버지와 아들은 그렇게 눈물 콧물 범벅의 진한 상봉을 할 수 있었다.

남편의 명예 제대

그 일이 있고나서도 전근이 잦은 군인 생활은 여전했다. 나라의 부름에 따라 전국 각지로 이동해야 하는 군인 가족의 생활 때문에 어느 한곳에 마음을 붙이기가 어려웠다. 할머니는 부대를 옮기고 이삿짐 부리고 내리는 것을 반복할 때마다 고향이 그리웠다. 언제쯤 다시 갈 수 있으려나? 떠올릴 때마다 까마득하게 느껴졌다.

그런 어느 날이었다.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서울 본대에서 들어오라는 연락이 왔다. 월남파병 때문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당시 대한민국정부에서 베트남으로 군인들을 파병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징병한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느 때보다 통역장교가 필요한 시기였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미군 부대에서 오래 근무한 남편이 파병1기로 선출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때까지 한 번도 남편이 하는 일에 토를 달지 않았던 할머니가 그때만은 말렸다. 이미 오십에 가까운 남편을 사지로 보내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지 않아도 일본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만주로 가서 타향생활을 하고, 제주에 들렀다가 6·25 때문에 갑작스레 입대해 그날까지 군복을 벗어본 적이 없는 남편이었다. 가족과 떨어져 천리만리 먼 땅에서 군복을 입은 채 지내게 하고 싶지 않았다.

부부는 조금 이르지만 명예 제대를 결심했다. 서울 본대에서 간소하게 퇴임식을 치르고 그간의 살림살이를 정리했다. 이제 갈 곳은 한 곳뿐이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지만 단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리운 곳. 할머니는 갓 초등학교에 들어간 큰 아이와 여섯 살 난 둘째, 세 살짜리 막내 손을 잡고 제주로 가는 배에 올랐다.

우리 동네 무근성

장공장 골목 사람들

제주시 삼도2동 1174-5. 무근성에서 탑바리로 내려가는 길 왼편에 조그맣게 난 막은창 골목이 하나 있었다. 간장을 만드는 장공장이 그 끝에 있어 장공장 골목이라 불리는 곳에 비슷비슷한 기와를 얹은 여남은 가구가 오순도순 모여 살았다.

집과 집 사이의 경계는 대문높이 정도에 맞춘 돌담 한 줄이 전부였다. 여름이면 담 아래 심은 호박 덩굴이 옆집으로 기어 들어가고, 가을이면 담 위로 뻗은 감나무가 양쪽 마당에 골고루 감을 떨어뜨렸다. 제삿날에는 담 너머로 금방 부친 생선전이나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시루떡이 오갔다.

“지금이야 큰일 생기면 식당 빌영 밖에서 하주만 그때는 잔치건 장례건 다 집에서 치렀잖아. 우리 장공장 골목에 사는 사람들은 큰일이 생겨도 일손 걱정을 해 본 적이 없어. 크건 작건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발벗고 도와주는 덕에 별 어려움 없이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

할머니 집은 동네에서 마당이 가장 넓어 마당 너른 집으로 통했다. 장공장 골목 사람들은 자주 할머니 집에 모였다. 넓은 상방(사랑방)에 앉아 수박을 갈라 먹고 팔죽이나 만둣국을 만들어 나눠 먹으며



사진 6. 장공장 골목 사람들

마을일을 의논하곤 했다.

바쁜 농번기엔 품앗이를 해 돕고, 농한기에는 동네에 있는 통조림 공장에 함께 나가 굴 통조림 만드는 일을 했다. 공장이라 해도 지금처럼 기계화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밀감을 선별하고 껍질을 까는 일부터 통조림 안에 담는 것 까지 전부 수작업이었다.



사진 7. 장공장 골목 친목회

“혼자 하랴 해시몬 힘들어서 못할 건데, 그냥 같이들 앞양 얘기허멍 허니까, 못할 일이 어서고. 그렇게 일 끝내고 나면 고치들 산에도 놀러 가고, 초파일엔 절간에도 같이 다녔주께.”

유독 할머니 앨범에는 장공장 골목 사람들 사진이 많았다. 특히 한복을 입고 놀러간 사진이나 흥에 겨워 어깨춤을 추는 사진은 죄다 장공장 골목 사람들과 함께 한 것이다. 어려운 일을 함께, 즐거운 일은 더욱더 함께하는 장공장 골목 사람들은 누가 먼저 제안한 일이 없는데도 자연스레 골목 친목을

형성했다.

무근성 꽃집

나무로 만든 대문을 열면 푸릇한 이파리를 시원하게 뺀 등나무 터널이 가장 먼저 반겼다. 파란 이파리 새 수줍게 숨은 하얀 등꽃냄새를 맡으며 걸음을 내딛으면 마당 한가운데 우뚝 솟은 와싱톤 야자수와 빨간 알이 곱디고운 앵두나무, 무화과, 비파나무가 자태를 뽐냈다. 딱히 간식거리가 없던 시절 출출하면 마당으로 나와 손 닿는 가지에서 열린 과일 하나 따 옷섶에 쓱 문질러 베어 물면 그야말로 꿀맛이었다. 무근성에 사는 동안은 넓은 마당 덕에 과일을 살 필요가 없었다.

과수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많은 게 묘목이었다. 남편은 일본에서 씨앗을 사다 마당에서 길러 어느 정도 자란 묘목을 팔거나 임대한 넓은 밭에 심어 더 크게 키워 판매했다. 워낙 부지런하고 손재주가 좋아 남편이 키운 묘목은 전국 각지로 팔려 나갔다.

남편은 무척 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외출하고 돌아온 남편 손에는 동네 어딘가에서 꺾은 꽃이 한 다발씩 들려 있었다. 가끔 그 모습에 남세스러워 돈도 되지 않는 것 들고 오지 말라고 타박해도 남편은 아랑곳 않고 예쁜 꽃이 보이면 꼭 집에 들고 왔다. 덕분에 남편이 가꾸는 마당엔 흔한 야생화부터 희귀한 난까지 온갖 꽃과 나무가 철마다 피고 졌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 집을 ‘마당 너른 집’에서 ‘꽃

집'이라고 바꿔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작 꽃을 사러오는 손님은 많지 않았다. 예나 지금이나 장사는 손님을 찾아 나서야 하는 법이었다. 할머니는 화분에 옮긴 모종을 리어카에 싣고 밭이 많은 동네를 돌아다니며 팔았다. 이웃에 사는 상혁이 엄마가 많이 도와주었다. 할머니가 꽃 팔러 간다고 하면 상혁이 엄마는 집안일을 제쳐두고 함께 나섰다.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면 상혁이 엄마가 뒤에서 밀고, 상혁이 엄마가 끌 땀 할머니가 뒤에서 밀었다. 둘이 함께해도 포장되지 않아 울퉁불퉁한 길 위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돌아다니는 일은 무척 힘들었다. 하루 종일 “꽃 사세요, 고추 사세요.”를 외치고 돌아오는 저녁이면 발은 부어오르고 성대가 부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다.

그런 할머니를 돕겠다고 휴일에는 아이들이 따라 나섰다. 아이들은 리어카를 뒤에서 밀며 병아리 울음같이 낭랑한 목소리로 “꽃 사세요, 고추 사세요!”를 대신 외쳤다. 할머니는 행여 아이가 아는 친구와 마주쳐 부끄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아이들은 마치 꽃을 파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인 것처럼 신나게 흥정을 했다.

그 모습이 기특해 보여서일까? 아이들이 함께 한 날에는 모종이 평소보다 많이 팔렸다. 어스름한 귀가길, 한결 가벼워진 리어카를 끌고 아이들에게 사탕 한 알씩 쥐어주고 걷는 발걸음이 평소와 달리 가벼웠다.



사진 8. 예전 자택에서 남편과 함께



사진 9. 예전 자택에서 남편과 딸

닭들의 장례

어느 해 봄, 닭값이 오르자 남편이 창고에 닭장을 만들었다. 넓은 창고 안에서 별다른 곳을 골라 이층 높이로 닭장을 세우고 아래 칸에는 중닭을, 윗칸에는 병아리를 키웠다. 잘 키워 장에 내다팔면 수입이 꽤 짹짹할 거라 생각했다.

병아리를 닭까지 키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 고양이나 개가 병아리를 물어가지 못하게 지켜야 했고, 병치레에 약해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접종을 해야 했다. 할머니는 이웃에 있는 서가축병원에서 주사약을 사왔다. 마당 한가운데 병아리를 몰아 놓고 한 마리

씩 잡아 주사를 놓으면 아들은 주사 맞은 병아리 머리에 빨간약을 발라 표시했다. 두 번 맞거나 행여 맞지 않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두 달여 키우자 노란 배내털을 벗고 하얀 중닭으로 성장해 달걀을 낳기 시작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닭장을 돌며 달걀을 꺼내는 일로 하루를 시작했다. 아이들 도시락으로, 고기를 대신할 반찬으로 달걀만한 것이 없었다. 식구들은 매일 먹으니 물리다고 불평했지만 할머니는 새로 낳은 달걀을 꺼낼 때마다 부자가 된 것처럼 기분이 좋았다. 더구나 싱싱하고 고소하다며 일부러 사러 오는 손님까지 생기니 닭이란 게 여간 신통방통한 게 아니었다. 조금만 더 크면 중닭을 모두 장에 내다 팔고 병아리를 더 살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갑자기 닭 전염병이 돈다는 뉴스가 나왔다. 한 마리가 걸리면 닭장 전체가 폐사하는 무시무시한 전염병이라고 했다. 시장에서 가금류를 사고파는 일이 금지됐다. 할머니는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끝에 닭이 멀쩡할 때 골목 사람들에게 몸보신이라도 하라고 나눠 주었다.

며칠 동안 장공장 골목 전체에 닭 삶는 냄새가 진동했다. 평소 같으면 쌀 익는 냄새가 퍼질 식사 시간에 밥 냄새 대신 뜨거운 고기 육수 냄새가 집집마다 흘러 나왔다. 덕분에 할머니와 장공장 골목 사람들은 그 해 여름을 여느 때보다 건강하게 보낼 수 있었다.

소년과 우물

마당 한편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었다. 집을 처음 지었을 때부터 있었던 우물은 예전에는 사람들이 식수로 이용했겠지만, 할머니가 살 무렵엔 이미 수도시설이 되어 있어 우물물을 길어다 마실 필요가 없었다. 대신 여름에 과일을 담아 두면 냉장고보다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었고, 바다에서 수영하고 돌아온 아이들이 몸을 헹구기에 그보다 좋은 게 없었다. 어찌나 시원한지 한여름 땀 때문에 발진이 생겨 가려운 등허리에 몇 바가지를 떠 끼었으면 단번에 땀띠가 사라졌다.

우물 속이 깊어 물이 깨끗하고 맑았다. 동네 꼬마 녀석들은 우물을 들여다보거나 두레박으로 물을 퍼 서로에게 물 뿌리는 장난을 즐겨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독 호기심이 많던 수열이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두레박을 타고 내려가다 무게를 이기지 못한 줄이 툭 끊어지는 바람에 두레박과 함께 물속에 빠졌다. 집안에 어른은 아무도 없어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아이들은 당황했다. 우물 속에 빠진 수열이는 계속 살려달라 소리 지르고 동무가 빠진 것을 본 아이들은 어떡할까 고민을 하다 다른 집 우물가에서 두레박을 훔쳐 왔다. 아이들이 길게 내려준 두레박을 타고 수열이는 비상하는 나무꾼처럼 올라왔다. 무사히 구조되자 이제 할머니에게 혼날 일이 염려된 수열은 친구와 우물에게 함구령을 내렸다. 절대 죽는 날까지 우물에 빠진 이야기는 하지 말기로. 소년을 품었던 우물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그 약속을 지켰다.

혹독한 무근성의 겨울나기

바닷가 근처 마을에 산다는 것은 바람과 싸우는 일이었다. 입춘이 지났는데도 추위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았다. 무근성 집은 탑바리에서 머지않아 우풍이 섰다. 이른 새벽에 문을 열면 처마에 고드름이 짹짹하게 얼어 매달려 있었다. 아이들이 고뿔이라도 걸릴까봐 할머니는 부지런히 땀감을 장만했다. 무근성은 바닷가 동네라 땀감으로 쓸 만한 솔잎이 없었다. 구들을 데필 솔잎을 구하려면 집에서 두어 시간 거리에 있는 아라동까지 가야 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 사촌 언니와 노끈을 들고 아라동 윗마을에 올라가 잘 마른 솔잎을 골라 한 짐씩 묶었다. 그렇게 서너 짐을 만들어 도남 인근 공터에 쟁여 두고 며칠 동안 한 짐씩 집으로 날랐다. 버스가 잘 다니지 않아 짐을 등에 이고 걸어서 이동하는데 내리막이라 올라갈 때보다는 덜 힘들다 해도 워낙 많은 양이라 조금만 걸어도 숨이 가빴다. 이파리가 까슬까슬한 가지는 계속 등을 찌르고 바다에서 불어오는 찬바람 때문에 드러난 피부는 금세 감각을 잃었다.

“지금 생각하면 어떻 겐 살았는지 모르크라. 솔잎이 이서야 밥도 얹히고 물도 끓이고 뿔보다 겨울에 방도 데피니까 혈수어시 간다 하면서도 막 상 솔밭에서 송충이한테 물리고 가지에 생살 긁혀가명 솔잎 해왕 창고에 쌓으믄 막 부자 된 거 같아뻔. 이제 또 한철 또시게 보낼 거라생각하면 절로 힘이 생겨. 아마 그런 게 살림하는 여자의 힘인 것 같아.”

할머니가 한겨울에 뽕뽕 언 손으로 솔잎만 끊었을까! 할머니의 모든 신경마디는 가족의 먹을거리와 잠자리를 비롯한 일상에 쏟렸다. 집안의 여자는 온 가족이 편하고 따뜻하게 살 수 있도록 지켜주는 온돌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머니는 생각했다.

헤엄치면 가지켜만은

남편은 전분공장일과 묘목재배를 하루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했지만 큰돈을 벌지는 못했다. 그 사이 아이들은 훌쩍 자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다녔다. 월사금을 내야 하는 아이가 셋이 되다보니 그러지 않아도 빠듯한 가게에서 돈을 보기가 더 힘들어졌다.

이웃 사람 몇이 일본에 가서 돈을 벌어오겠다는 말을 들었다. 할머니는 귀가 솔깃했다. 엔화 환율이 높은 때라 일본에서 몇 달 고생하면 제법 큰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특히 할머니는 일본 생활에 익숙하니 무슨 일이라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할머니는 다시 밀항선에 몸을 실었다. 지난번 일기가 나빠 대한해협을 건너지 못하고 회항해야 했던 때와 달리 두 번째 항해는 순조로웠다. 출발한지 하루 만에 일본해에 도착했다. 잠시 후면 항구에 도착한다는 선주의 말을 들으며 선실에 숨어 있던 할머니 일행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러나 무사히 도착했다는 안도감을 누리기도 전, 갑자기 배가 크게 덜컹하고 흔들렸다. 뭔가 커다란 물체와 세계 부딪친 느낌이었다.

선실에 숨어 있던 사람들은 크게 당황해 어쩔 줄을 몰랐다. 할머니는 제발 별일이 아니기를 부처님께 기도했다. 배는 그렇게 몇 번 크게 휘청 거리더다 아예 멈췄다.

얼마나 기다렸을까? 모두 침묵 속에서 한숨만 쉬고 있는데, 선주가 선실 문을 열었다.

“암초에 걸렁 배가 꼼짝을 안함수다. 해경에 연락해야되쿠다.”

모두 갑판위로 올라갔다. 선주 말대로 배가 암초에 걸렸는지 바다 한가운데 딱 멈춘 채 미동하지 않았다. 뱃전에 부딪히는 물결 너머로 육지가 보였다.

“저기 보이는 데가 히로시마 항구인데.”

선주는 말끝을 잊지 못했다. 한눈에 보기에도 가까운 거리였다.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면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면 될 것 같았다. 할머니는 수영을 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은 헤엄쳐 간다해도 일본 말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통과할지 몰라 해경의 구조를 기다렸다. 다행히 얼마 되지 않아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되고 할머니 일행은 각자 흩어져 시모노세키로 가는 열차에 올랐다. 모두의 얼굴에 다행이라는 안도의 미소가 흘렀다.

그러나 기쁨은 잠시뿐. 열차에서 내리자 역 앞에 이미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일본말을 잘하는 할머니는 통과할 수 있었으나 문제는 함께 간 남동생이었다. 일본어를 잘 못하는 남동생이 경찰에 붙잡히자 할머니는 일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라고 털어놓았다. 역전에 대기하고 있는 호송차에 타니 함께 밀항했던

일행이 모두 있었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쓴웃음만 나왔다.

오무라 수용소에서 보낸 날들

호송차가 도착한 곳은 불법체류자를 강제 송환할 때까지 감금하는 오무라 수용소였다. 그곳에 할머니와 일행은 송환선이 올 때까지 일 년 가까이 있었다. 일행은 남자와 여자로 나뉘어 여섯 명씩 두 방에 수용되었다. 그곳에서는 일을 하거나 외출을 할 수 없었다. 무료한 시간이었다. 그나마 필요한 물품은 사비로 살 수 있어 할머니는 일행이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수용소 측에 건의할 게 있으면 거들었다. 정작 돈이 없는 할머니는 뭘 사거나 시간을 보낼 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할머니의 유일한 낙은 가족에게 편지를 보내고 받는 것이었다.

어찌다 돈이 생기면 제일 먼저 편지와 우표를 샀다. 오무라 수용소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편지는 죄다 검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소식을 전할 방법은 편지가 유일했다. 할머니는 걱정하고 있을 가족에게 편지를 보냈다. 편지를 검열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할머니는 보란듯이 일본어로 편



사진 10. 오무라 수용소에서

지를 썼다. 할머니 편지를 받은 남편도 일본에서 공부한 적이 있어 일본어로 답장을 보냈다. 편지 끝에 적는 남편의 인사는 늘 같았다.

“最愛の妻 (사이아이노즈마)”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로 사랑하는 아내에게’란 뜻이다. 제주에서 편지가 온 날엔 한데 모여 편지를 읽었다. 남편의 끝인사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 버리고 여기 온 거냐’며 놀렸다. 할머니는 그럴 때마다 부끄러우면서 내심 한국에 있는 남편이 고맙고 그리웠다.

남편보다 자주 편지를 보내온 건 수재와 수열이었다. 중학교 2학년밖에 안된 아들이 남은 식구들 잘 돌보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제발 건강해달라는 편지를 보낼 때마다 온 방안이 울음바다였다. 할머니는 아들의 편지를 읽을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초등학교생인 막내딸이 엄마대신 식구들 끼니를 챙기고, 학교 공부에 매달려야 할 아들이 엄마의 부재에 힘겨워 할 생각을 하면 수용소를 탈출해서라도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심정뿐이었다.

그런 할머니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시간은 더디게 흘러 일년을 넘기고 겨울이 되어서야 할머니는 겨우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제주항에 도착해 마중 나온 가족을 보는 데 고향에 돌아온 반가움과 동시에 처음 출발할 때와 다름없이 여전히 빈손인 게 속상해 눈물이 흘렀다.

배꼽 두 개 달린 소년

밀항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사이 자란 아이들 얼굴이 안 쓰러웠다. 엄마 대신 밥과 빨래를 비롯한 집안일을 거둔 막내딸은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부터 터뜨렸다. 수용소에 있는 동안 편지를 보내 눈물 흘리게 한 수열이도 그사이 많이 크고 씩씩해졌다. 어릴 때는 장난만 치던 개구쟁이였는데 그새 훌쩍 자란 모습에 괜스레 울컥 해서 아이를 끌어안았다. 수열의 등을 끌어안는데, 얇은 옷 위로 툭 튀어 나온 상흔이 느껴졌다. ‘여기가 뒷배꼽이구나.’ 할머니는 그 상처가 또 안쓰러워 어루만졌다.

조용하고 암전한 다른 형제와 달리 수열이는 어릴 때부터 남 웃기는 말을 잘하고 장난기가 많았다. 동네 아래쪽에 모여 사는 피난민촌 아이들과 전쟁놀이를 하다 상처를 입고 오는 일이 허다했고, 팬티바람으로 탐바리까지 뛰어가 그대로 바다에 다이빙하곤 했다.

그맘때 아이들이 다 그러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때 아찔한 일이 벌어졌다. 안채 옆에 슬라브 지붕으로 대충 지은 창고가 있었다. 남편이 서까래에 아이들이 탈 그네를 매달았는데, 수열이가 그네를 타다 나무에 박아둔 큰 못 위로 떨어지고 말았다. 떨어지는 힘에 의해 어른 손가락만한 대못이 그대로 아이 등에 콕 박혔다.

“수열이 어머니!” 하고 수열이 친구가 부르는 소리에 가 보니 아이 등허리에 나무가 박힌 채 서 있었다. 아이는 혼날 게 무서워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이 기가 막혀 아

이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때마침 달려온 남편이 때리는 할머니를 나무라며 아이 등에 박힌 나무를 톱으로 잘랐다. 나무토막을 등에 단 채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의사가 다행이란 말을 몇 번이나 했다. 3밀리만 더 가운데로 찔렸으면 꼬추가 났을지 모른다는 거였다.

그 말을 듣고 속상해 그러지 않아도 붕대를 칭칭 감고 앓는 아이를 나무랐다. 어린 것이 아팠을 텐데,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게 속상해서 괜히 아이를 타박했다.

병원 치료가 끝나고 다행히 못이 들어간 자리는 아물었지만 큰 구멍 자국이 남았다. 딱 배꼽 크기의 상처였다. 그때부터 아이들은 수열이를 보고 배꼽이 두 개라고 놀렸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그러지 말라고 나무라면서도 그만한게 얼마나 다행인지 할머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나는 장한 어머니 될 자격이 없다

일본에서 돌아와 밀감 따는 일을 하러 다녔다. 샅이 후하진 않았지만 현장에서 바로 받고 파치를 맘껏 주워갈 수 있어서 좋았다. 날이 나빠 굴밭에 가지 못하는 날이면 동문시장 입구에 좌판을 깔고 파치를 팔았다. 바람막이 하나 없는 한길이라 잠바 깃을 세우고 목도리를 싸매도 추위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사실 추위보다 무서운 건 단속반이었다. 누군가 단속반 떴다라고 외치면 뒤도 돌아보지 않

은 채 밀감을 챙겨 달아나야 했다. 늦으면 남은 밀감을 다 뺏기니 재빠르게 도망을 쳐야 했던 것이다.

조금만 더 팔아야지 하다 보면 짧은 겨울해가 금새 이울고 배고픈 아이들이 할머니를 데리러 왔다. 할머니는 아이들이 오기 전에 서둘러 팔아야 했다. 하루는 어둡지도 않았는데 수열이가 왔다. 교복 차림인 걸 보니 학교가 끝나고 바로 온 모양이었다. 낯익은 눈치였다. 어미 옆에 쪼그려 앉아 눈치를 살피던 수열이가 말을 꺼냈다. 중학교 졸업식장에서 장한 어머니 시상을 하는 데 선생님이 할머니를 추천했다는 것이었다. 실은 이년 전 형이 졸업할 때도 후보로 올랐지만 그때는 더 나이 많은 학부모에게 양보했고, 이번엔 또 됐으니 졸업식장에 꼭 참석하라고 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밀항 가다 잡혀 형무소 생활하느라 제대로 먹이지도 입히지도 못한 에미가 무슨 장한 어머니! 남부끄럽다!”

할머니가 거절할 거라 예상하지 못했는지 수열이는 몇 번 더 권하다 급기야 울음을 터뜨렸다.

“선생님이 어머니 생각해서 추천한 건디 무산 안 가켄햄수과! 나도 졸업식 안 가쿠다!”

아들은 버럭 성을 내며 눈발 날리는 거리를 울며 달려갔다. 그 뒷모습을 보는 할머니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이고, 수열이가 우네. 등에 대못이 박혀도 울지 않던 내 새끼가 그 놈의 장한 어머니상 때문에 울어.”

선생님 이야기는 핑계일 뿐이고 에미 자랑하고 싶은 아들의 마음을 잘 알면서도 할머니는 졸업식장에 갈 수 없었다. 변변한 외출복 하나 없고 선생님들 커피라도 사 드시라고 드릴 돈 한 푼 없는 빈 몸뚱이가 어떻게 갈 수 있단 말인가! 할머니는 그저 내리는 눈발을 핑계로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연돌공장에 취직하다

밀감 따는 철이 지나고 다른 일거리를 찾던 참에 고향 후배를 만났다. 반갑다는 인사를 하기가 바쁘게 서사라에서 연돌공장을 한다는 후배는 일할 사람을 알아봐달라고 했다. 할머니는 내가 하겠다고 했다. 후배를 따라 서사라 근처에 있는 연돌공장에 갔다. 여자 세 명이 기다란 천 위에 시멘트를 부어 연돌을 만들고 있는 게 보였다. 아궁이 위에 달아 연기를 빼내는 연돌은 큰 건 할머니 키를 훌쩍 넘겼다. 후배는 그 모습을 가리키며 정말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대답도 않고 일하는 여자들 사이에 끼어 앉아 시멘트를 다지고 굳히는 것을 잠자코 돕기 시작했다.

그렇게 할머니는 연돌공장에서 연돌 만드는 일을 시작했다. 월급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만드는 개수만큼 돈을 받았다. 한 푼이라도 더 벌려면 쉬지 않고 만들어야 했다.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각목 위로 커다란 천을 깔고 물에 갠 시멘트를 그 위에 부어가며 연돌 모양을 만들었다. 큰 힘이 들어가는 일은 아니었지만 워낙 크고 긴 연돌

틀이라 함께 하는 사람과 손발이 잘 맞아야 했다. 할머니는 비슷한 연배의 동료들과 어울려 재미있게 일했다. 가끔 집안에서 속상한 일을 털어 놓아 위로 받고, 남편 앞에서 홍보지 못했던 허물을 그들과 웃으며 털어냈다.

우리 집 호박의 비밀

무근성 인근이 시내 한복판이긴 해도 한 골목만 돌아나가면 바다와 밭담이 펼쳐졌다. 동네 사람들은 집 마당과 우영밭에 뭔가를 심느라 분주했고, 빈 땅을 놀리는 법이 없었다. 덕분에 서로 재배한 채소나 과일을 나누는 인심이 후했다. 할머니네 밭에서는 다른 곳보다 크고 과즙이 풍부한 채소들이 자랐다. 특히 할머니네 담을 기어 자란 호박과 물외는 크기부터 남달라 동네 사람들이 볼 때마다 탄성을 지르곤 했다.

“대체 어떻 키우는 거라?”

이웃들이 물어도 할머니는 웃기만 했다. 할머니네 호박이 유독 큰 데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다. 할머니는 이른 아침 밭을 돌며 물을 주고 붓에 호박 수꽃의 가루를 묻혀 암꽃술에 문질렀다. 활짝 벌린 꽃마다 그렇게 한 덕분인지 몰라도 꽃이 지면 다른 곳보다 훨씬 크고 맛있는 열매가 맺혔다.

“뭘든 암수가 잘 맞아야 결실이 큰 법이지, 암.”

동네 사람들은 아침마다 할머니가 돌담 가에 허리를 굽히고 뭘 하

는지 몰랐다. 아마 알았다면 무근성 전체가 슈퍼 호박의 재배지로 알려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내 손으로 받은 아이

일을 다녀도 주머니에 돈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평소엔 늘 그러니 잇고 지내다 잔치라도 먹을 일이 생기면 며칠 전부터 옷장을 열었다 닫았다 서랍을 뒤적거렸다. 그래봤자 없는 새 옷이 짝하고 나타날 리 없고, 담아 두지 않은 돈이 갑자기 튀어나올 리 없는 데도 말이다. 궁리 끝에 목수 일을 하는 사촌형부 손을 빌어 창고를 방 두 개가 딸린 집으로 꾸며 세를 주었다.

할머니는 지금까지 그 집에 머물렀던 가족을 한명도 빠짐없이 기억했다. 맨 처음 들어온 한림이 고향인 고등학교 선생네, 두 번째로 들어온 동문시장에서 바느질을 하던 처녀는 거기서 결혼을 하고 더 큰 집으로 옮겼다. 세 번째는 떡방앗간을 하는 부부, 네 번째는 어린 아들을 위해 개구리를 달여 먹이던 아빠, 그 뒤로 피붙이 없이 혼자 살던 노파, 마지막은 이마트에서 일하는 젊은 여자였다. 이름은 가물 가물해도 지금도 길에서 마주치면 바로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이 얼굴들은 또렷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지금도 가끔 찾아오는 가족이 있다. 바로 신제주에서 떡집을 하는 건아네인데, 건아와 할머니 사이에는 특별한 일이 있다. 다 늦은 밤이었는데, 문앞에서 “삼촌!”이라며 부르

는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방앗간을 하는 새댁이 배를 잡고 서 있었다. 출산이 얼마 남지 않아 일 나가지 않고 집에서 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째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삼촌, 아기가, 아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새댁의 다리 사이로 양수가 흘렀다. 할머니는 깜짝 놀라 얼른 새댁을 방안에 데려다 눕혔다. 그날따라 식구들이 모두 나가 집안에 아무도 없었다. 산파를 찾으러 나가면 늦을 것 같고 전화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수도 없었다.

할머니는 할 수없이 새댁의 배를 손으로 문지르면서 부처님께 기도했다.

“곱게 곱게 애기 낳게 해줍써.”

얼마나 그렇게 배를 쓸어내리고 기도를 올렸을까? 새댁 다리 사이로 아기 머리가 나오는 게 보였다.

“아이고, 이제 됐쎬. 조금만 힘내! 조금만 더!”

마치 할머니 말에 대답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기 몸이 쓰윽 미끄러지며 나왔다. 할머니는 얼른 탯줄을 잘라 끝을 야무지게 묶었다. 그리곤 감기에 걸리지 않게 미리 준비한 이불로 아기 몸을 돌돌 감았다.

그렇게 출산을 마치고 뒤처리를 할 때쯤 아기 아빠가 들어왔다. 아기 아빠는 방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무사히 출산해 이불에 싸인 아기 모습이 신기하기도 하고, 고생했을 할머니와 아내에게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했다.

“아이고, 삼촌! 어떻게 받을데까! 낮에까지도 아무렇지 않아 신디.”
아기와 산모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는 아기 아빠에게 할머니는 태연하게 말했다.

“게든, 애기랜 헌게 어떻 알아 저게, 언제 어떻 될지 모르는다. 그냥 손으로 문지르난 오그래기 나완 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할머니는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나온 아기가 고맙고 신기했다. 한 줌밖에 안 된 아기가 자라 ‘건아’란 이름을 갖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친손자처럼 대견하고 기뻐다.

“아무래도 이녀이 직접 받은 아기라 틀린 생이라. 이제는 다 커서 시집 갈 나이가 되신 디도 보문 그냥 아?와게. 건아네 식구 만나문 건아 이야 기부터 물어봐지고. 손으로 만난 인연이 큰 생이라.”

불교에서는 만남을 ‘타생지연’이라고 했다. 옷깃을 스치는 만남도 전생의 큰 인연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말인데, 하물며 처음 세상을 만나는 일을 함께 한 인연의 크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아마 인간의 셈으로는 절대 가늠이 불가능할 것이다.

술 권하는 바다

이른 잠에서 깨는 날이면 이웃에 사는 사촌 언니와 새벽 산책을 갔다. 곤히 잠든 식구들이 깨지 않게 조심스레 장지문을 열고 나가면

깜깜한 어둠에 잠긴 마을과 달리 바다는 먼 바다에서 돌아오는 고깃배 불빛과 새벽달빛을 반사하는 물결 덕에 그다지 어둡지 않았다. 제주에서는 늘 아침이 바다에서 시작됐다.

골목 입구에서 언니와 만나 탑알을 지나 서부두 방파제까지 걸었다. 살짝 땀이 났 정도의 산책이 끝나면 방파제 끝에 앉아 들고 간 비닐봉지를 열었다. 비닐봉지 안에는 전날 미리 산 이홉들이 소주가 한 병 들어 있었다. 갯내가 가득한 방파제에서 검푸른 수평선 위로 새벽달이 저무는 것을 바라보며 들이키는 한 잔의 술. 언니와 마주앉아 두어잔 따르면 이내 바닥이 나는 양이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술 한 잔에 가슴속 서운한 이야기 한 자락, 흘러간 노래 한 자락씩 펼치면 오래 묵은 근심이 발아래 흐르는 파도처럼 풀어졌다. 바다에서 술을 마시고 뺨은 말은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마주한 사라봉에서 반짝이는 등댓불이 새날을 살 기운을 주었다. 바다는 술을 권하면서도 취하게 만들지 않았다.

가끔 윤활망과 사촌 언니와 막걸리 추렴을 하거나 오합주를 담갔다. 탁배기에 껍질을 벗기지 않은 계란과 누룩에 꿀과 참기름을 넣고 한 달 정도 푹 담그면 완성되는 오합주는 만드는 방법이 어렵지 않았다. 할머니는 누구에게 특별히 제조법을 전수받지 않고 어깨너머로 익혀 직접 만들었다.

오합주를 한 독 담갔다. 손님이 왔을 때 내가면 그렇게 좋아할 수가 없었다. 다들 맛이 깊고 향이 그윽하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마 찹쌀을 짓이겨 누룩을 빚어 독에 담을 때 갖는 마음이 술향으

로 남는 듯 했다.

그래서일까? 할머니의 오합주를 맛 본 사람은 꼭 담그는 법을 물었다. 그럼 할머니는 자세하게 오합주 담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하지만 대부분 들은 대로 만들었는데 그 맛이 안 난다고 투덜거렸다. 혹시 숨겨둔 비법이 더 있냐고 캐묻는 이도 더러 있었다. 당연히 그런 것은 없었다. 그저 좋아하는 이웃과 함께 어울려 마시는 걸 상상하며 담글 뿐이었다.

늦깎이 보험사원

연돌공장에서 일 하던 중에 사촌 언니가 찾아와 보험사 입사를 권했다. 남들에게 보험 가입하라는 권유를 잘 못할 것 같아 할머니는 계속 거절했지만 사촌 언니는 집요했다. 게다가 평소 할머니의 근면 성실한 모습을 잘 아는 연돌공장 사장까지 언니를 거들었다. 할머니가 보험사에 들어가면 첫 고객이 되어주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천만 원짜리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 일이 그렇게 되다 보니 그냥 가서 보험 설계사 교육이라도 받아볼까 해서 찾아간 것이 그곳에서 정년퇴직까지 하게 됐다.

매일 아침 8시면 아침상을 준비하고 집을 나와 회사까지 걸어갔다. 중앙 성당 옆으로 난 길을 따라 올라가면 삼십여 분이 걸렸다. 멀지 않은 거리지만 남문로터리에서 회사가 있는 칼호텔까지는 경사가 급한 언덕길이었다. 여름이면 얼굴 위로 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다.

그보다 힘든 건 겨울이었다. 지금의 도로사정과는 비교되지 않게 초루하고 좋지 않아 비가 오면 패인 길에서 흙탕물이 튀고, 특히 언 얼어붙었다. 조금만 부주의해도 엉덩방아를 찧고 넘어졌다. 길이 언 날엔 퇴근할 때마다 미끄러지지 않게 거북이처럼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 구두를 벗어 양손에 들고 맨발로 조심조심 내려온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눈이 많이 내려 도저히 내려갈 수 없는 날에는 남문로터리 골목에 있는 팔죽집에 들어가 언 손을 녹이며 눈발이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하얀 김 서린 유리문을 바라보며 팔죽을 먹으면 추위는 잠시 잊었지만 집에 있는 남편과 아이 걱정 때문에 조급해져 단맛을 느낄 수 없었다.

아들의 여자 1

사실 아이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서 제 몫을 다하고 있었다. 대학 다니는 내내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부담을 주지 않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학교 발령을 받아 월급을 들고 왔다. 남들보다 공부를 더 시키지 못했고, 특별히 잘 해 준 것도 없는데 반듯하게 자라 월급봉투를 고스란히 내미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저 감사하고 고마울 뿐이었다.

그쯤 되니 마음에 걸리는 하나가 두 아들이 서른이 다 되도록 제 짝을 데리고 오지 않는 거였다. 원래 말이 없고 얌전한 수재는 그렇다 쳐도 대학 다니는 동안 친구가 많던 수열이는 왜 짝이 없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할머니는 두 아들을 불러 앉혔다.

“내가 여태 중매해서 결혼 시킨 부부만 해도 열 쌍이 넘는데, 정작 내 아들들은 내가 못하켜. 어떻 쌍둥이 어멍한테라도 중매 부탁해 보느냐?”

이웃에 사는 쌍둥이 어멍은 중매를 많이 서기로 소문이 났다. 내 며느리 자리니 스스로 나서서 찾기는 뭣하고 정식으로 선 자리를 알 아볼까 싶어서 물은 거였다. 할머니 말을 들은 두 아들은 서로 눈치만 슬금슬금 살피며 가타부타 말이 없었다. 대답을 기다리다 지친 할머니가 한 번 더 재촉하자 그제야 수재가 입을 열었다.

“우리가 평생 데리고 살 여자인데 남한테 부탁합니까? 우리가 알아볼 테니 걱정 마쎬.”

형의 말에 수열이도 큰 눈을 깜빡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알아서 한다니 더 말하기도 뭐해 할머니도 알았다고 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수재가 결혼할 여자 집에 함께 가자고 했다. 할머니는 서둘러 외출 준비를 마치고 예비 며느리를 만나러 갔다. 그런데 아들이 이끄는 곳이 엉뚱하게도 옆집이었다. 아들이 옆집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심 무슨 일인가 싶었는데, 따라 들어가니 그 집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일어서 반기는 어른들 옆에서 옆집 딸이 허리 숙여 인사했다. 바로 수재 아내가 될 여자였다.

아들의 여자 2

수재 결혼 이후 웬만한 인연으로는 놀라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수열이가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여자 친구를 보고 다시 한번 깜짝 놀랐다. 한길 건너편에 사는 아이라 어린 시절부터 자주 봐 왔던 동네 아이였기 때문이다.

아들이 전교조 활동으로 보안과 형사들에게 쫓길 때 대신 집에 와서 책을 정리하는 것을 보면서 그저 친구려니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다. 우연찮게 교사 생활을 하는 두 아들 모두 같은 교직에 있는 후배와 연이 닿는 걸 보니 인연이란 게 정말 귀한 거란 생각이 들었다.

수재 때와 마찬가지로 한 동네에서 두 집이 같은 날 잔치를 하다 보니 잔치 내내 온 동네가 북적북적 소란스러웠다. 돼지 잡는 날부터 시작해 잔치를 마친 며칠 뒤까지 동네에서 축하인사를 받느라 바빴다. 동네 사람들은 할머니를 볼 때마다 입을 모아 부러워했다.

“무근성에서 좋은 며느릿감은 다 꽃집에서 데려감 신계.”

그랬다. 동네에서 다들 탐내던 며느릿감을 만나니 할머니는 더없이 마음이 편했다. 서른 되도록 장가 갈 생각을 안 해 걱정을 끼치더니 부모 모르게 연애를 걸어온 것이 앙큼하기도 하고 스스로 좋은 짝을 찾아 온 것이 대견하기도 했다. 이제는 정말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았다.

보험 여왕에 등극하다

처음 보험사에 들어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부터 소장은 할머니를 차기 소장감이라고 칭찬했다. 그저 결근하지 않고 부지런히 출퇴근한 것 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을 하나 싶었다. 남들한테 아쉬운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성격이라 보험 가입을 억지로 하기보다 꼭 필요한 것만 소개하고 고객이 되면 가끔 찾아가 어려운 일이 없는 지 안부를 물은 것 밖에 없었다. 드러내 아끼는 소장 때문에 먼저 입사한 동기들의 질투가 심했다. 할머니보다 먼저 소장이 되어야 한다고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 동료도 있었다. 할머니는 개의치 않았다. 그저 내 할 일만 잘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장이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했다. “뭘 축하해요?” 하고 물었더니 할머니가 일등이라고 전했다. 처음엔 그 달 실적이 좋아 제주지점에서 일등을 했나보다 생각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전국 일등이라고요! 전국 일등!!”

소장은 할머니 양팔을 치켜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제주도에서 전국 일등이 나오는 일이 무척 드물었기 때문에 회사 전 직원이 축하 박수를 보냈다. 그때부터는 할머니를 질투하던 동료의 시선

사진 11. 대한생명보험여왕 뽀힌 소장 발표 사진

도 달라졌다. 더 이상 어느 누구도 할머니가 소장이 되는 것을 이견을 달지 않았다.

회사 설립 이래 가장 단기간에 소장 자리에 올랐다. 오른 뒤에도 할머니는 전국 일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비결은 하나였다. 소장은 받는 월급이 있으니 할머니가 담당할 영업소에서 번 영업수당을 모두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었다. 매달 목표치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면 영업소에 지급되는 수당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공평하게 나눠줬다. 소장이라고 따로 챙기는 것은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당연히 직원들이 열심히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소장을 맡은 영업소는 늘 일등을 했고, 할머니 역시 전국에서 일등 소장으로 이름을 날렸다. 덕분에 서울 올림픽이 열린 1988년에는 우수사원만 받는 특별상품으로 일본 여행을 가게 되었다.

퇴직의 갈림길에 떠난 일본 여행

오랜만에 다시 찾은 일본이었다. 어릴 적 기억이란 게 왜 그렇게 또렷하고 확실한 것인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조금도 일본어를 잊어버리지 않은 것이 신기했다.

동료들과 일본 디즈니랜드를 방문하고 도쿄 시내와 젊은이들로 넘치는 신주쿠 거리도 돌아다녔다. 일행들은 일어를 잘 하는 할머니가 있어 아무 걱정이 없다며 즐거워했다. 할머니도 모처럼만에 방문한 일본에서 새록새록 돋는 유년시절의 추억으로 여행기간 내내 신



사진 12. 보험사 소장들과 일본 여행 사진

이 났다.

무엇보다 반가운 것은 사촌 언니와의 재회였다. 할머니가 밀항에 실패해 귀국했을 때 언니는 밀항에 성공해 일본에서 안정된 삶을 꾸리고 있었다. 여행 중 짬을 내 언니를 만나러 간 자리에서 언니는 할머니 손을 꼭 잡으며 퇴직하면 일본으로 오라고 말했다.

그러지 않아도 퇴직까지 일 년 밖에 남지 않았다. 소장 일을 하면서 봉급 외에 모든 수당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다 보니 돈을 모으지 못했다. 오히려 아이들 잔치를 치르느라 진 빚이 남아 있었다. 지점장은 퇴직 후에도 그만두지 말고 상담직으로 근무하라고 권했지만, 그러면 돈을 모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사촌 언니 말대로 일본에서 몇 년 고생하면 빚을 갚고 여유자금도 모을 수 있었다. 할머니는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퇴직하면 바로 일본에 가야겠다고 마음을 다졌다.

내 손으로 진 빚은 내가 갚으켜!

퇴임식이 있는 날 오후, 지점장과 전 직원이 회사 강당에 모였다.

할머니 퇴임식이 있었다. 제주지점이 창립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퇴임 전날까지도 더 근무하면 안 되냐고 만류한 지점장을 비롯해 동료들의 아쉬운 인사와 축하가 끊이지 않는 시간 속에서 처음 입사한 때가 생각났다. 그때는 이렇게 퇴직 때까지 남아 있을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었다. 돌이켜보면 가장 오래 다닌 직장이고 정든 곳이었다. 축하주를 건네는 직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악수를 나누며 인사했다. 이제 퇴직하고 일본에 가면 언제 또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마주할 수 있으려나? 가슴 깊숙한 곳에서 그동안 잘 버텼다는 뿌듯함과 좋은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쉬움이 교차했다.

퇴임식을 마치고 지점장 이하 참석한 동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데 아련했다. 이제 퇴임식까지 끝났으니 집에 돌아가면 일본으로 갈 짐을 꾸려야 했다.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는 해도 한국에서 산 세월이 두 배는 더 됐다. 그 사이 많이 변하고 바뀌었을 거라 생각하면 들뜬 마음은 잠시뿐이고 걱정이 밀려왔다.

게다가 넓은 집구석에 늙은 남편만 혼자 남는 것도 걱정이었다. 아이들이 자주 들여다보고 돌본다고 해도 각시만은 못할 게 뻔했다. 평소에도 속내를 드러내는 일이 없는 남편이 궂어도 아이들한테 티를 낼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 돈을 벌어서 빚을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먼저였다. 일본에서 일하고 오겠다는 말을 꺼내자 자식들은 대신 갚겠다며 일본행을 말렸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말

했다.

“내 손으로 진 빛은 내가 갚으켜!”

그 빛이란 게 아이들 학교 보내고 시집 장가보내느라 든 빛이라는 건 다 아는 일이었지만 부모 마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 남편이 더 붙들지 않고 알았다고 조심히 다녀오라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마지막 퇴근길이 그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점점 길어졌다. 다시는 이 길을 걸어 올라갈 일도 어둡기 전에 서둘러 집에 가려고 종종 걸음 칠 일도 없을 거란 아쉬움과 새로운 일에 도전해야한다는 불안함이 발걸음을 더디게 만들었다.

이별을 배우는 시간

막내딸이 첫 손자를 순산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일본행 비행기에 올랐다. 공항으로 마중 나온 언니를 따라 직장으로 갔다. 호스피스 병원이었다. 죽음을 직면한 환자들이 대부분인 병원에서 할머니가 할 일은 환자들이 편하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간병하는 것이었다. 보통 일본에 들어온 한국 사람들이 식당이나 가게 보조를 하는 것보다 수입은 많았지만 그만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린 아이를 돌보는 것도 힘에 부칠 나이에 아이가 된 어른을 돌보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일이었다. 매일 아침 병실에 들어가 밤사이 변화를 확인하고 따뜻한 물을 받아 환자 몸을 닦았다. 자주 목욕을

할 수 없는 환자들이니만큼 몸 구석구석을 꼼꼼히 닦고, 욕창이 생기지 않도록 누워 있는 자세를 바꿔주는 게 중요했다. 50kg밖에 나가지 않는 할머니가 하기엔 버거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일과는 일정했다.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마치면 독경을 먼저 하고 환자 씻을 물을 뜨러 수돗가로 갔다. 그날도 목욕물을 준비하러 막 자리에서 일어나는 데 머리 위에서 커다란 덤프차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소리만이 아니었다. 마치 거대한 힘을 지닌 괴물체가 건물을 잡아 올렸다 내려놓는 것처럼 건물이 올라갔다 텅하고 내려앉았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올 정도로 큰 힘이었다. 할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몸을 최대한 웅크리고 건물의 진동이 멈추기를 기다렸다.

한동안 건물을 상하로 흔들던 지진파가 잠시 멈추더니 건물을 아예 부술 것처럼 옆구리를 쥐고 흔들어댔다. 여진이었다. 이전에도 지진을 몇 번 겪었지만 이렇게까지 크고 무서운 지진은 처음이었다. 한참 후에야 진동이 멈추고 나갔던 전기가 들어왔다. 할머니가 있는 오사카에서 머지않은 고베에서 일어난 7.2가 넘는 강진이었다. 6,300명이 사망하고 43,000명이 부상당하고 290,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일본 최대의 지진이었다. 고베 지진은 예고 없이 발생한 직하형 지진으로 건물들이 붕괴되고 여진으로 인하여 화재 및 가스가 폭발하여 피해가 더 증폭되었다. 도로는 거북이 등과 같이 갈라졌고, 철도는 엇가락처럼 휘어진 채 열차가 나뒹굴었다. 게다가 1월의 추운 날씨 때문에 이재민들은 굶주림과 더불어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다

행히 할머니가 사는 동네는 인명피해나 가옥 피해가 없었지만 연일 텔레비전에 나오는 피해상황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의 가족들도 고베 지진을 뉴스로 알았는지 수시로 전화를 걸어 할머니 안부를 확인했다.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는 데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왠지 꺼림칙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고 뜸만 들였다. 아무래도 좋지 않은 예감이 들어 재차 물었더니 그제야 아무 일도 아니라며 아버지(남편)가 조금 아파 병원에서 검사를 받는다는 말을 했다. 어디가 어떻게 아프냐고 묻자 할머니가 일본 간 다음 술을 좀 많이 하셨는지 위가 좋지 않아 검진을 받는다고 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라고 신신당부하고 전화를 끊는데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다. 남편의 나이가 어느덧 일흔을 바라보고 있으니 걱정 안 될 수가 없었다.

호스피스 병동에서 근무하다 보면 병동 특성상 간병하던 환자와 갑자기 이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분명 퇴근 전까지 멀쩡히 밥 먹고 잠든 것을 확인했는데 출근해 방에 들어가면 침대가 텅 비어 있거나 갑자기 상황이 좋지 않아져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그런 일은 단련되지 않는 것인지 겪을 때마다 마음 한 구석이 찢렁하고 이상했다. 남편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니 그런 모습이 상기되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제발 크게 아프지는 말아야 할 텐데. 걱정 말라면서도 말끝을 흐리던 아들의 음성이 자꾸 마음에 걸렸다.

아내는 남편 옆에 머무는 것

며칠 뒤 전화를 걸어 확인했더니 남편이 수술할 거라고 했다. 그 말도 하지 않으려는 걸 낚새가 이상해 캐물으며 많이 아픈 거면 한국에 들어가겠다고 하자 그때서야 털어 놓았다. 아들은 한숨을 쉬며 할머니가 걱정할까봐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사실 아버지 증상이 심각했노라고 말했다.

아들이 퇴근하고 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하러 집에 들렀더니 아버지가 알아보지 못하고 멍하게 쳐다보기만 했다.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며 얼굴을 살피니 핏기 하나 없이 창백하고 시선을 마주치지 못하는 게 크게 탈이 났다는 직감이 들었다. 곧바로 아버지를 들쳐 업고



사진 13. 가족 사진(1990년대 무렵)

서둘러 119 구급대가 있는 옆 동네로 뛰었다.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들어가 검사를 하니 위에 구멍이 세 개 뚫려 그 자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였다. 의사는 서둘러 수혈해 혈액을 보충하고 위 구멍을 메우는 수술을 준비했다. 피가 어찌나 빠른 속도로 새는지 수혈바늘로 들어가는 양을 늘리려고 링거 줄에 연결된 피봉지 위로 청진기를 둘둘 감아 펌프질을 했다.

위궤양으로 위에 구멍이 세 군데 생겨서 피가 바깥으로 흐르는 바람에 뇌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니 자식을 알아보지 못하고 멍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였다. 의사는 그나마 빨리 발견해서 천만다행이라고 몇 시간만 늦었어도 뇌 손상이 왔을 거라고 했다. 그런 사연을 차마 할머니에게 말하지 못하다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하자 털어놓은 것이었다.

전화를 끊자마자 하던 일을 마무리하고 짐을 챙기는 데 코끝이 시큰했다. 생판 남을 간호하고 보살피면서 정작 지켜야 할 가족은 버려둔 것 같은 죄책감이 들었다. 몇 년 동안 부지런히 벌어서 빚은 다 갚았으니 여윌돈이 없어도 가족의 곁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할머니가 돌아가겠다고 하자 누구보다 함께 일하는 동료와 환자들이 서운해 했다. 특히 왜 한국으로 가냐는 말에 원래 한국에 사는 가족에게 돌아간다고 답하면 환자들이 깜짝 놀랐다. 전혀 한국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였다. 자기와 똑같은 일본 국민인 줄 알았다며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내심 가족한테 간다니까 잡지는 못하지만 다시 오면 안 되냐고 부탁했다. 할머니는 미안하다며 정중하지만 단호하

게 거절했다. 남편이 아플 때 아내는 그 옆을 지켜야 한다는 게 할머니의 굳은 생각이었다.

남편의 수술을 마치고

할머니가 귀국해서인지 남편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회복도 빨랐다. 오랫동안 옆에 없어 미안한 탓에 할머니는 한시도 병실을 벗어나지 않고 남편 곁을 지켰다. 그 사이 남편은 얼굴이 흠뻑 해지고 머리가 더 하얗게 센 모습이 영락없는 할아버였다. 남편의 모습을 볼 때마다 측은하고 고마운 마음이 교차했다.

수술하고 얼마 지날 때까지는 말도 잘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더니 며칠 지나자 할머니가 만든 죽도 제법 넘기고 목소리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게 감사해 링거바늘 때문에 퉁퉁 부은 남편의 손등을 따뜻하게 주물렀다.

“이제는 일본이고 어디고 가지 않고 옆에 있을 게요.”

할머니는 남편에게 몇 번이고 말했다. 그때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여 할머니가 없던 지난 몇 년의 생활이 어땠는지 짐작케 했다.

“이제는 돈이 없어도 아끼며 삽시다. 그래서 더 나중엔 애들 말대로 집을 멋있게 고쳐서 당신은 남탕, 나는 여탕 관리하면서 떼돈 벌어봅시다.”

할머니는 남편이 차도를 보이자 농담도 건네며 편하게 마음먹었다. 사실 농담만은 아니었다. 일본에서 돌아오며 할머니는 다시는 가

족 옆을 떠나지 말아야지, 아이들 말대로 목욕탕이라도 하며 살아야
 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무근성 사람

수술대에 오르다

세상일이란 늘 마음먹은 대로 흘러가지 않는 법이었다. 갑자기 집을 잃고 이사를 하게 되었다. 오십 년 동안 고향보다 더 정을 나누며 지낸 무근성이었다. 익숙한 동네를 벗어나 낯선 집에 들어가 사는 일이 생각보다 힘들었다. 이사한 뒤부터 괜히 입맛이 없어 음식도 사양하게 되고 움직이는 것도 예전 같지 않았다. 온몸에 기운이 빠졌다고 할까. 딱히 아픈 곳 한 군데를 집어내지 못해 그냥 기가 쇠했나 보다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만 생각했다.

할머니 기색이 계속 좋지 않자 아들이 건강검진을 한 번 받아보라고 했다. 워낙 잔병 없는 체질이라 뭐 이상이 있을까하면서도 아들 성화에 못 이겨 종합병원에서 검진을 받았다.

“별 이상 없지 예?”

난생 처음 받은 위내시경 사진을 들여다보던 의사가 가만히 쳐다보더니 “내일 한 번 더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다시 받아야겠어요.”라고 말했다. ‘무슨 검사를 두 번씩 받으라고 하는 건가?’ 싶으면서도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음날 일찍 다시 내시경을 찍었다.

검사를 마친 의사가 가족들을 불러 말했다.

“위암입니다. 수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암 진단에 눈앞이 캄캄했지만 할머니보다 더 놀라는 가족들 앞에 선 애써 태연함을 가장했다. 종양이 더 자라기 전에 서둘러 수술하기로 결정했지만 병원을 고르는 것부터 고민이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과 도내에 있는 종합병원 몇 곳을 염두에 두고 이것저것 알아보다 결국 제주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제거 수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일정을 기다리는 내내 가족의 얼굴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졌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할머니 나이가 벌써 팔순이었다. 위 절제 수술이 예전보다 발전했다고는 해도 나이 지긋한 부모의 수술을 지켜보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었다. 할머니는 그런 가족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그저 괜찮다, 잠시 잠들었다 일어나면 된다더라고 일부러 가볍게 말했다.

그러나 막상 수술대에 눕자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혹시나 못 깨어나면 어떡하나 싶으면서 그동안의 일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일본에서 돌아온 열여덟 살의 모습이 먼저 눈앞에 보였다. 그때는 세상이 아름답고 행복할 거라 생각했는데, 4·3과 6·25, 4·19를 차례로 겪으면서 세상이 무서운 곳이란 걸 깨달았다.

만약 사랑하는 가족이 없었다면 이 힘든 시대를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래도 굴곡진 세월을 겪으면서 어느덧 팔순에 이르고 건강하고 단란한 가족이 곁에 있어 다행이었다. 이제 곧 죽어도 원이 없

졌다고 마음을 비우자 조금 편안해졌다. 수술가운을 입은 의사가 할머니를 내려다보며 투명한 마스크를 코에 갖다 댔다. 할머니는 시키는 대로 숫자를 셸다. 하나 둘 셋……. 눈 앞에 하얀 안개가 드리운 것처럼 시야가 희미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왔다.

새로운 날을 위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귀에 익은 목소리가 자꾸 할머니를 깨웠다. 며느리 목소리 같았다. 다급하게 찾는 음성에 눈을 떠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졸음에 겨워 눈을 뜨기가 버거웠다. 더 자고 싶었다.

“어머니, 어머니! 일어납써!”

이번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여전히 졸린 눈을 애써 떴다. 캄캄한 세상이 사라지고 환한 빛이 눈꺼풀 속으로 쏟아져 여러 번 깜빡였다. 빛 속에 자신을 바라보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였다. 수술이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다. 할머니가 눈을 뜨자 아들과 며느리는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할머니의 팔을 주물렀다.

“많이 아프지 예? 마취 풀리든 더 아플 거주만은 그 정도는 참아야 합니다. 수술은 막 잘됐덴마씨!”

며느리가 눈물 맺힌 눈으로 환하게 웃었다. 알았다고 대답하고 싶었지만 가래가 가득 낀 목에서 소리가 나오지 않아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수술이 잘 났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마취가 풀린 뒤에 찾아



사진 14. 현재 가족 사진

온 통증은 견딜 만했다. 몸도 하루가 다르게 회복되는 게 느껴졌다. 오히려 음식을 먹고 싶은 데, 몸에서 가스가 나오지 않아 금식을 계속 하는 게 힘들었다.

구 일째가 되어서야 겨우 가스가 나오고 첫 미음을 먹을 수 있었다. 암 진단 이후 계속 금식을 했으니 열흘이 넘게 굶은 셈이었다. 음식을 먹게 되고 수술 부위가 많이 아물어 퇴원했다. 퇴원 후 몸무게를 재어보니 38kg이었다. 평소 48kg에서 50kg 사이를 오갔으니 10kg 이상이 빠진 셈이었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데, 무근성이 아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여전히 어색했다. 갑자기 집을 잃어버린 아쉬움이 다시금 찾아

왔지만 할머니는 수술 침대에 누워 떠올린 생각을 잊지 않기로 했다.

“괜찮다. 이만하면 열심히 살았고, 아직까지 건강한 남편과 착하고 부지런한 아이들이 있으니 됐다.”

그때, 할머니는 결심했다. 다시는 무근성 집을 떠올리며 분노하지 않기로 굳게 마음먹었다. 할머니는 어깨를 부축해 함께 걷는 아들에게 몸을 기대며 그렇게 무근성에 대한 아쉬운 기억을 정리했다.

십 년 만에 다시 무근성으로

그 뒤 다시는 갈 일도 볼 일도 없는 ‘무근성’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무근성에 살았던 이야기를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할머니는 “당장이라도 할 수 있지만 왜?”라고 되물었다. 아들은 예전 무근성에 살았던 시절을 기록으로 남길 거라는 말을 했다. 할머니는 그런 이유라면 하겠다고 대답했다.

무근성 집을 떠나고 두 번의 이사를 더 했지만, 여전히 할머니에게 집은 무근성 그 자리였다. 집터를 허물고 새 건물이 올라갔다는 말



사진 15. 무근성 투어 사진

을 풍문으로 들었는데도 꿈속에 나오는 무근성 집은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남편이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들고 온 꽃으로 가득한 마당, 동네 아이들이 모여 술래잡기와 등목을 한다며 법석대던 모습이 여전히 선명했다. 잔칫날이면 마당에 멍석을 깔고 앉아 갓 추렴한 돼지고기에 막걸리를 마시던 모습이며, 철마다 우영 밭과 돌담을 가득 채운 색색의 채소들. 날이 갈수록 눈에 선하다는 말이 뭇지 실감났다. 수술을 마치고 나오며 다시는 생각하지 말자고 다짐했던 곳이지만 아들의 입에서 무근성이란 말을 듣는 순간부터 할머니 마음은 이미 그곳을 향했다.

‘처음엔 무슨 할 이야기가 있을까? 남들처럼 그냥 산 것 뿐인데 내 이야기도 글로 적어 책에 실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하지만 이야기를 풀다보니 오히려 무근성에 대한 기억이 새록새록 솟았다.

마지막 인터뷰 때 무근성 일대를 돌아보기로 했다. 동행하겠다는 아들의 말을 듣고 무근성으로 함께 나갈 준비를 하는데 마음이 들뜨고 발걸음이 바빴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십 년 동안 한 번도 그 동네에 가지 않았다. 가봤자 사라진 집터와 볼 수 없는 이웃들 때문에 기분이 언짢아질 것 같아 무근성에 갈 일이 생겨도 예둘러 다녔다. 옆에서 운전하는 아들에게 가 본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아들 역시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무근성으로 가는 내내 굳은 표정의 아들을 보니 같은 심정이란 걸 짐작할 수 있었다.

나는 영원히 무근성 사람

“참 많이도 변했다.”

차에서 내리는 할머니 얼굴에 그늘이 드리웠다. 차에서 내려 무근성을 돌아보는 데 많이 변했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오십 년 동안 살았던 동네를 십 년 만에 찾아왔는데 너무도 변한 모습이 낯설어 다른 동네에 온 것 같은 기분마저 들었다. 십 년 사이에 왜 그렇게 넓은 길이 많이 생기고 없던 건물이 들어선 건지 동네가 아주 판판이 되었다.

“아이고, 여기 윤할망네 집이었는데 영 됐구나게.”

저기는 몰래물 할망네 집이고, 여긴 하교장네, 저디는 칠공주네. 할머니와 아들은 변한 건물을 가리키며 내기라도 하듯 이전 주인 이름을 서로 댔다. 새 건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할머니에게는 여전히 예전 이웃의 집일뿐이었다.

할머니가 살았던 장공장 골목은 변화가 더 심했다. 골목 가장 안쪽에 있는 장공장 건물을 끝으로 막힌 골목이었는데, 거기 있던 벽이 사라지고 넓은 도로가 생겼다. 없던 도로가 생길 정도니 골목 안에 있던 집들이 변한 건 당연한 일이었다. 골목을 마주하고 나란히 붙어 있던 기와지붕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낮선 이름의 빌라들이 세워졌다.

무근성에서 마당이 가장 넓었던 할머니 집은 삼층 짜리 빌라로 바뀌어 있었다. 크고 웅장한 빌라 건물을 보면서 마당이 넓은 집터였

다는 걸 가늠할 수 있었다. 새 건물 앞에서도 “저기 돛통시가 있었고, 창고는 저기에, 우물은 저 안에 있었지.” 할머니와 아들의 손길은 여전히 옛 마당 터를 더듬었다.

장공장 골목을 빠져나와 다른 골목으로 들어가도 마찬가지로였다. 예전에 아들이 팬티 바람으로 다니던 바다는 메워져 큰 쇼핑몰과 특급호텔 차지가 되었고, 동네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고랑을 파던 전답도 모두 사라졌다.

할머니는 낯설게 변한 동네에서 그래도 아는 이가 남아 있을까 싶어 낯익은 집이 보이면 열린 문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다 아는 얼굴이 보이면 반가워 어쩔 줄 모르며 인사를 건넸다. 예전 집 앞에 사는 보살 남편과 슈퍼 앞 세탁소 주인을 그렇게 만났다. 그들은 “나 알아지쿠과?”라는 할머니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무사 모릅니까게. 꽃집 이모 아니우파?”라고 대답했다.

누구 엄마나 양정숙 여사가 아닌 ‘꽃집 이모’란 이름은 무근성에서 밖에 들을 수 없는 이름이었다.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을 듣는 할머니 얼굴에 행복한 미소가 번졌다. 돌이켜보면 육지 이곳저곳을 떠돌다 여기 장공장 골목에 들어왔을 때 가장 마음을 편하게 한 건 넓은 집이나 안정된 생활이 아니었다. 낯은일을 보면 발 벗고 도와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주는 이웃이었다. 이전 건물이 사라지고 오랜 세월 속에 남아도 그곳에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는 변할리 없었다.

이제 무근성에 가도 예전 집은 없고, 넓은 마당을 꽃으로 채우던

남편도 없다. 그래도 그곳에 가면 여전히 꽃집 이모를 기억하고 궁금해 하는 이웃이 있다. 그거면 충분했다. 할머니는 많은 것이 바뀌고 사라졌지만 그 시절을 함께 했던 이웃이 그곳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했다.

“내 고향은 여기 무근성이야. 평생 그럴 것이야.”

오랜만에 무근성 나들이를 마치고 이웃을 향해 “다음에 보게!”라고 씩씩하게 인사하고 돌아가는 할머니 발걸음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가벼웠다.

에필로그_꽃집 이모님,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인터뷰에 앞서 무근성에 들렀다. 인터뷰에 나오는 장공장 골목을 찾고 싶어서였다. 크게 아픈 데는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위를 사분의 삼이나 잘라내는 수술을 하고 심하지는 않다고 해도 뇌경색 치료를 받는 할머니를 모시고 무근성까지 나올 엄두가 나지 않아 사진으로 확인받을 생각이었다.

어린 시절 동무를 만나러 처음 무근성에 간 이후 탑동을 오가다가 껌은 무근성을 지나갔다. 못해도 일 년에 열댓 번은 지나다닌 익숙한 길인데 할머니가 살았던 동네를 찾을 수 없었다. 아마 어리석게도 무근성에 도착하면 할머니가 살았던 장공장 골목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었다.

예전 지도를 들고 큰 길과 골목 사이를 몇 번이나 돌아다녀도 지도에 나온 장공장 골목을 찾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그곳에 있었다는 슈퍼에 들어가 물었지만 몇 년 전에 이사 온 주인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였다. 난감했다. 그래도 얼추 이야기와 비슷해 보이는 건물들을 몇 개 골라 찍었다.

인터뷰를 하면서 할머니께 찍어 온 사진을 보여 드렸다. “잘 모르는 곳인데, 많이 변한 모양이네.” 할머니는 연신 고개를 갸웃하셨고, 나는 너무 변했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무거웠다.

“나가 가면 한 눈에 다 알아봐질 건디. 같이 가면 다 찾아질 건디.”

할머니는 사진과 나를 번갈아보며 안타까워 하셨다. 그 말씀에 힘을 얻어 할머니와 함께 무근성 투어를 계획했다. 바깥을 보행하는 일이 쉽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욕심을 냈고, 할머니와 아드님이 흔쾌히 동행을 수락해주셨다. 두 분은 무척 더운 날이어서 땀을 흘리면서도 조금이라도 많은 이웃의 이야기를 전해주려 애쓰셨다.

할머니와 함께 걸으며 그동안 나는 이야기에 나왔던 집들을 찾았다. 많은 것이 변했지만 다행히 할머니는 다 기억하고 계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다보니 겹치는 기억도 있었다. 어린 시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게 만든 삼미빵집과 평화당이 그랬고, 시커먼 구공탄을 설 새 없이 찍은 연탄공장의 기억이 그랬다.

할머니 이야기를 들으면 그 시절의 내가 떠올랐다. 덕분에 잊고 있었던 친구 이름이 기억났다.

“호야!”

내가 호야 오빠라고 부르던 그 아이 이름은 길호였다. 여전히 성은 기억나지 않지만 무근성 투어를 하면서 할머니의 과거와 함께 잊고 있던 내 과거를 만났다.

기억이란 그렇게 누군가를 만나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일이다. 사람마다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다르다. 어떤 사람은 꼼꼼하게 시간과 장소를 메모해 그것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기억하고, 어떤 사람은 사진이나 영상으로 저장하고, 또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을 자꾸 입으로 되뇌어 상기한다.

내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은 만난 사람을 글에 담는 것이다. 훗날 그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이 글을 볼 때마다 올 여름에 만난 할머니를 떠올릴 것이고, 함께 한 시간을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것이다.

인터뷰를 마무리하고 다시 무근성을 찾았을 때, 버랭이깎을 개보수하는 공사를 하고 있었다. 노란 안전막이 걸히면 그곳은 또 얼마나 변했을까? 어쩌면 내가 기억하는 버랭이깎이 완전히 사라질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공사현장을 바라보는 마음이 착잡했다.

변하고 바뀔 수밖에 없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지만, 내가 따라가 기엔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꽃은 잠시 사라져도 철이 되면 작년과 같은 자리에서 피어난다. 하물며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이 머물렀던 자리는 그보다 오래 갔으면 좋겠다.

올 여름 무근성 꽃집 이모님을 만나 꽃보다 아름답게 살아 온 이야

기를 글로 남길 수 있어 더없이 감사하다. 아무쪼록 양정숙 할머니의 소중한 추억이 많은 이들에게 무근성 장공장 골목을 오래 기억하는 씨앗으로 전해지길 기원하며 인사를 갈음한다.

● 원도심 내 구술자 위치



● 원도심 관련 신문보도

- ▲ 미디어제주(2017), <길 위의 이야기>, 김형훈 기자
- ▲ 미디어제주(2015~2016), <제주, 옛길을 걷다>, 하주홍 기자
- ▲ 제주투데이(2016), <옛 주정공장 터에 쇼핑센터 들어선다>, 문승준 기자
- ▲ 연합뉴스(2016), <천년 역사 제주성 일대…침체 30여년>, 김승범 기자
- ▲ 조선닷컴(2015), <부서지고 텅 비어도… 옛 동네의 흔적 남아있네>, 노은주·임형남 기자
- ▲ 한라일보(2014), <제주 원도심, 이야기의 발견>, 진선희 기자
- ▲ 한라일보(2014), <천년의 유산 제주城을 살리자>, 이윤형 기자
- ▲ 제주신문(2014), <탐라천년 역사문화 중심지, 무근성>, 문서현 기자
- ▲ 제주도민일보(2011~2012), <추억의 제주섬 예술사>, 문정임 기자
- ▲ 제주위소리(2010), <‘제주4.3 참극현장’ 옛 주정공장 공원으로 ‘변신’>, 좌용철 기자
- ▲ 오마이뉴스(2000), <제주문단야사 1~4>, 김동현 기자
- ▲ 경향신문(1990), <탐라언덕서 흥겨운 民俗(민속)축제>, 정철수 기자
- ▲ 한겨레신문(1989), <제주 4.3 항쟁 대학살 현장이 신혼부부 관광지로>, 조선희 기자
- ▲ 경향신문(1972), <寶物(보물) 觀德亭(관덕정) 지붕 날아가 安平大君(안평대군) 쓴懸板(현판)도>
- ▲ 경향신문(1962), <오월의 바다, 허벅>, 김진배 기자
- ▲ 동아일보(1959), <觀德亭(관덕정)을 國寶指定(국보지정)>
- ▲ 동아일보(1959), <颱風(태풍)「사라」號猛威(호맹위)떨칠듯>

● 원도심 관련 문헌

- ▲ 제주시·역사문화진흥원(2015), <제주성총서>
-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5), <제주성 일대 옛길의 가치규명 및 보존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연구>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2014), <학교가 떠낸 우리고장 이야기>
- ▲ 이도1동 향토지 편찬추진위원회(2014), <이도1동 향토지>
- ▲ 제주시·역사문화진흥원(2013),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 ▲ 제주특별자치도(2009),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2>
- ▲ 제주특별자치도(2008), <제주문화예술60년사 1~4>
- ▲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 출판부
- ▲ 제주도(2006), <제주도지 1~7>
- ▲ 제주시(2005), <제주시 50년사 1~2>
- ▲ 삼도2동 향토지발간추진위원회(2003), <삼도2동 향토지>
- ▲ 제주시(2000), <사진으로 엮는 20세기 제주시>
- ▲ 제주시·제주대학교 박물관 (1996), <제주시의 옛터>

● 기억으로 듣는 원도심 사람들 이야기

구술자	강달인 어르신 고두연 어르신 고지훈 우생당 현 대표 고현권 우생당 전 대표 고희식 어르신 안순생 어르신 양정숙 어르신
집필자	김순자 작가(제주어연구소 이사) 김진철 작가(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 김신숙 작가(시트러스 구성작가) 양혜영 작가(제주작가회의) 이나연 작가(켈파트프레스·씨워드 대표) 정신지 작가(인터뷰작가)
사진·촬영	양동규 작가(이디아트 디렉터) 양천우 작가(이디아트 에디터)

기획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유산·기획사업본부 문화재생팀
담당·자료정리 신상미

인쇄·제작 하나출판

발행일 2017년 11월 25일
발행인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
발행처 제주문화예술재단 www.jfac.kr
주소 631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광로 51

ISBN 978-89-968109-7-1 03330

본 책자에 실린 글과 도판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